
2019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2019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발행인

이규석

발행일

2019. 12.

발행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

청소년교육본부장 이상은
아동청소년교육팀장 최지윤
아동청소년교육팀 소지영

등록

KACES--1980-R002

ISBN

978-89-6748-319-7(93370)

문의

Tel. (02)6209-5900

Fax. (02)6209-1392

E-mail. contact@arte.or.kr

www.arte.or.kr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있습니다.



제출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2019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진

연구책임자

임영식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김인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신혜선 위컬처 리서치 앤 컨설팅 대표

임승희 수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경은 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공동저자 가나다순)

연구보조원

김미연 전남대학교 문화학과 박사과정

박은주 중앙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과정

조강원 중앙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박사과정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

I.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 내용	7
II. 문헌고찰	11
1. 꿈의 오케스트라 개요	11
2.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	15
3.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패널 선행 연구 고찰	20
4. 해외 아동·청소년 음악교육 종단연구 및 보고서	26
III. 연구방법	41
1.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 3개년 연구 계획	41
2. 2019년 양적 연구 주요 연구방법	44
3. 2019년 질적 연구 설계와 연구방법	53
IV. 연구결과	69
1. 꿈의 오케스트라 패널 연구	69
2. 꿈의 오케스트라 질적 연구	118
V. 결론	243
1. 요약	243
2. 제언	256
참고문헌	267
부록: 설문지	271

표 목차

〈표 II-1〉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기관 지원체계	13
〈표 II-2〉 꿈의 오케스트라 추진 현황	14
〈표 II-3〉 지역별 거점기관 수(2019년 기준)	14
〈표 II-4〉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 평가 내용	17
〈표 II-5〉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 연구방법	20
〈표 II-6〉 아동 및 청소년 국내 양적 패널연구	22
〈표 II-7〉 아동 및 청소년 해외 양적 패널연구	25
〈표 II-8〉 음악 관련 효과성 관련 종단연구의 주요 평가 내용	27
〈표 III-1〉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단계별 참여현황	43
〈표 III-2〉 꿈의 오케스트라 종단조사 설계 모형	46
〈표 III-3〉 2019~2021년 꿈의 오케스트라 양적 연구 측정도구 구성	48
〈표 III-4〉 아동 대상 효과성 측정 항목	49
〈표 III-5〉 보호자 대상 측정 항목	50
〈표 III-6〉 교육강사 대상 측정 항목	50
〈표 III-7〉 1단계 패널 유지율	51
〈표 III-8〉 질적 연구 참여기관	57
〈표 III-9〉 질적 연구 참여기관 및 연구 참여자	58
〈표 III-10〉 참여 아동을 위한 면접조사 질문체계	60
〈표 III-11〉 보호자(학부모)를 위한 면접조사 질문체계	61
〈표 III-12〉 교육강사 및 행정 코디네이터를 위한 면접조사 질문체계	62
〈표 IV-1〉 조사 시기별 조사 참여자 특성	69
〈표 IV-2〉 2019년도 효과성 분석 패널 응답자 특성	70
〈표 IV-3〉 1단계 패널의 음악적 성장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73
〈표 IV-4〉 1단계 패널의 개인적 발달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77
〈표 IV-5〉 1단계 패널의 인적 관계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81
〈표 IV-6〉 1단계 패널의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84
〈표 IV-7〉 음악적 성장의 일원 분산분석 결과	86
〈표 IV-8〉 개인적 발달의 일원 분산분석 결과	88
〈표 IV-9〉 인적 관계의 일원 분산분석 결과	90

<표 IV-10>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의 일원 분산분석 결과	92
<표 IV-11> 꿈의 오케스트라 영향요인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94
<표 IV-12> 음악적 성장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95
<표 IV-13> 개인 발달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96
<표 IV-14> 인적 관계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97
<표 IV-15>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98
<표 IV-16> 꿈의 오케스트라 만족도 분석 결과	99
<표 IV-17> 꿈의 오케스트라 이탈 원인	100
<표 IV-18> 보호자 응답자 특성	102
<표 IV-19> 보호자 패널 데이터 분석 대상 특성	103
<표 IV-20> 보호자 패널의 가족 응집력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104
<표 IV-21> 1단계 보호자 패널의 돌봄 비용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105
<표 IV-22> 1단계 보호자 패널의 양육 스트레스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106
<표 IV-23> 1단계 보호자 패널의 지역사회 변화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107
<표 IV-24> 1단계 보호자 패널의 꿈의 오케스트라 가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108
<표 IV-25> 사교육비용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110
<표 IV-26> 1단계 패널 아동의 음악 지식에 대한 교육강사의 평가 결과	111
<표 IV-27> 1단계 패널 아동의 연주 역량에 대한 교육강사의 평가 결과	112
<표 IV-28> 1단계 패널 아동의 협동심에 대한 교육강사의 평가 결과	113
<표 IV-29> 교육강사의 자기 평가 개요	114
<표 IV-30> 교육강사의 타인수용도 분석	115
<표 IV-31> 교육강사가 평가한 지역사회 예술자본 확충	116
<표 IV-32> 교육강사가 평가한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116
<표 IV-33> 교육강사가 평가한 사회적 포용	117
<표 IV-34> 면접조사 선정 방문기관 및 자료수집 시행 일자	119
<표 IV-35> 2019년도 질적 연구 인터뷰 참여자 분류	120
<표 IV-36> 면접조사 대상자 특징 및 부여 코드	121
<표 IV-37> 일반가정 신규단원 면접조사 결과 분석	124
<표 IV-38> 취약가정 신규단원 면접조사 결과 분석	137
<표 IV-39> 일반가정 4년차 단원 면접조사 결과 분석	147

〈표 IV-40〉 취약가정 4년차 단원 면접조사 결과 분석	156
〈표 IV-41〉 코디네이터 면접조사 결과 분석	169
〈표 IV-42〉 2019년 보호자 FGI 분석결과	181
〈표 IV-43〉 2019년 교육강사 및 음악감독 FGI 분석결과	200
〈표 IV-44〉 참여관찰 개요	219
〈표 IV-45〉 2019년 신규단원 참여관찰 분석결과	220
〈표 IV-46〉 2018년(3차)과 2019년(1차)도 참여관찰 분석 결과 비교	238
〈표 V-1〉 양적 연구 아동 패널 분석 결과 요약	244
〈표 V-2〉 질적 연구 분석결과: 공통된 의미와 참여자 특성별 요약 비교	248
〈표 V-3〉 꿈의 오케스트라 활성화를 위한 제언	265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체계도	7
〈그림 II-1〉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체계	12
〈그림 III-1〉 3개년 연구계획	41
〈그림 III-2〉 연구 모형	42
〈그림 III-3〉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발달 연구 조사 설계	43
〈그림 III-4〉 2019~2021년 연도별 패널조사 설계	44
〈그림 III-5〉 2019년 질적 연구의 설계	54
〈그림 III-6〉 연도별 질적 조사 설계	56
〈그림 III-7〉 질적 연구 분석구조	64
〈그림 IV-1〉 조사 시기별 음악적 성장 변화	74
〈그림 IV-2〉 측정 시기에 따른 개인발달의 변화	78
〈그림 IV-3〉 인적 관계 조사 시점별 변화	82
〈그림 IV-4〉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조사 시점별 변화	85
〈그림 IV-5〉 음악적 성장의 집단 간 비교	87
〈그림 IV-6〉 개인적 발달의 집단 간 비교	89
〈그림 IV-7〉 인적 관계의 집단 간 비교	91
〈그림 IV-8〉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의 집단 간 비교	93
〈그림 IV-9〉 꿈의 오케스트라 단위 만족도	99
〈그림 IV-10〉 보호자의 가족응집력 조사 시점별 변화	105
〈그림 IV-11〉 1단계 보호자 패널의 돌봄 비용 조사 시점별 변화	106
〈그림 IV-12〉 1단계 보호자 패널의 양육스트레스 조사 시점 변화	107
〈그림 IV-13〉 1단계 보호자 패널의 지역사회 효과 조사 시점별 변화	108
〈그림 IV-14〉 보호자의 꿈의 오케스트라 가치 조사 시점별 변화	109
〈그림 IV-15〉 사교육비용 조사 시점별 변화	110
〈그림 IV-16〉 교육강사 평가 음악 지식의 조사 시점별 변화	111
〈그림 IV-17〉 교육강사 평가 연주 역량의 조사 시점별 변화	112
〈그림 IV-18〉 교육강사 평가 협동심의 조사 시점별 변화	113
〈그림 IV-19〉 교육강사의 타인수용도	115
〈그림 IV-20〉 지역사회 예술자본 확충	116

〈그림 IV-21〉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117
〈그림 IV-22〉 사회적 포용	117
〈그림 V-1〉 질적 연구를 통해 발견된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청소년의 주요 변화	255

연구요약

□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2016~2018년에 수행된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체계를 유지·발전시키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참여 아동 변화에 대한 종단 연구를 수행하여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가치와 의미를 도출하고 사업의 발전방안 및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 음악장르 및 오케스트라 문화예술교육의 이론적 검토
 -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현황 및 실태 분석
 - 음악 장르 교육 효과성 관련 연구 리뷰
 - 국내외 종단 패널 연구 사례 분석
- 2019~2021년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 대상 변화 연구 조사 설계
 - 3년 패널조사 설계 및 패널관리 방안 마련
 - 기 설계된 조사문항의 축소 검토 및 추가 조사 문항 구성
- 2019년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 대상 변화 연구 조사
 - 참여 아동 대상 개인 성장, 예술경험의 내재화, 사회경제적 혜택, 공공의 의미, 인적 상호작용영향 등 다각적 변화 연구
 - 참여 아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을 비롯하여 가정, 시설(지역사회), 교육자 요인 등 분석
 - 참여 아동 개인과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 관계자 등에 미치는 영향성 조사
 -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 중도탈락의 원인 규명
- 조사 결과 분석 및 발전 방안 제안
 - 2019년 조사 결과와 기존 조사결과 비교 분석
 - 조사결과를 토대로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개인, 가정, 학교에 미치는 개인적·사회적 영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효과와 의의, 발전방안 등 정책적 제언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자 변화 외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향후 꿈의 오케스트라 발전방안 제안

□ 연구방법

1.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발달 연구 조사 설계

구분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	단원 보호자	교육강사
모집단	2016년과 2019년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기관의 전체 단원과 보호자		기관 교육강사, 코디네이터
표본추출	양적 패널	전수조사	전수조사 (신규단원이 있는 기관)
	질적 패널	할당표집	할당표집
조사대상	양적 패널	단원, 보호자 각 1명씩 조사 2019년 250쌍	교육강사 및 코디네이터 전체
	질적 패널	단원 25명, 보호자 13명	강사 15명, 코디네이터 4명
조사방법	양적 패널	연구자 기관방문 조사	설문지 배부 수거
	질적 패널	집단 및 개인 인터뷰, 참여관찰	
조사기간	3년(매년 9~10월)		
조사방법	질적 패널	설문지 조사	
	질적 패널	인터뷰, 참여관찰	

2. 양적 연구

○ 3차년도(2019~2021년) 연구 설계

1차년도 (2019년)	조사설계 예비조사 1년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설계 확정(패널 설계, 조사 방법, 분석 방법 등) · 측정항목 정제 및 추가 문항 개발 · 예비조사 · 연구윤리위원회(IRB) 조사 승인 · 1년차 본조사 실시
	1년차 패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패널 데이터의 참여시기(1~4년)에 따른 종단적 분석 · 참여기간(1~4년)에 따른 횡단적 분석을 통한 집단간 차이 분석 · 중도탈락 원인 분석
2차년도 (2020년)	표본관리 2년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 유지관리 · 2020년 중도탈락 단위 조사 · 2년차 유지패널 본 조사 실시
	2년차 패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패널 데이터의 참여시기(1~5년)에 따른 종단적 분석 · 2단계 패널의 참여시기(1~2년)에 종단적 분석 · 참여기간(1~5년)에 따른 횡단적 분석을 통한 집단간 차이 분석 · 중도탈락 원인 분석
3차년도 (2021년)	표본관리 3년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 유지관리 · 2021년 중도탈락 단위 조사 · 3년차 유지패널 본조사 실시
	3년차 패널 분석 결과 계속패널 유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패널 데이터의 참여시기(1~6년)에 따른 종단적 분석 · 2단계 패널의 참여시기(1~3년)에 종단적 분석 · 참여기간(1~6년)에 따른 횡단적 분석을 통한 집단간 차이 분석 · 중도탈락 원인 분석 · 중도탈락과 유지단위간 차이 분석 · 계속패널 유지 조사설계(안) 마련

○ 조사 대상

- 2019년도의 조사 대상은 2016년도부터 매년 조사에 참여한 1단계 패널과, 2019년도 신규 단원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2단계 패널로 구성됨.
- 1단계 패널 수는 총 64명이며, 2단계 패널 수는 총 302명으로 구성되었음.

○ 측정도구

구분	대영역	소영역	구분	대영역	소영역	
효과성	음악적 성장	음악 지식	만족도	프로 그램 요인 만족	내용 만족	
		음악 향유			강사 만족	
		음악 태도			환경 만족	
		음악 활동			행정 만족	
		음악적 경험의 확장*				
	개인 발달	건강-스트레스		영향 요인	만족 및 충성도	전반적 만족
		자존감				재참여 의도
		성실				타인 추천 의도
		의사소통 능력			촉진 및 장애 요인	타음악(오케스트라) 경험
		미래 전망				단원 자부심
		공격성*	오케스트라 만족도			
	행복*	부모(보호자)지지 (관심)				
	인적 관계	협동 /협력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			
		가족 응집력	동료 지지			
		타인 수용도	참여 적극성			
	공공적 함의	소속감/유대감	교육강사 지지*			
		공동체 참여 행동	공연활동 성취감*			
		사회적 신뢰	음악적 권태*			
사회 경제적 혜택	사회자본	탈락	이사, 진학, 심리적 요인 등*	학업 및 시간 부담*		
				환경요인(접근성)*		

* 2019년 신규 추가 항목

○ 분석 방법: SPSS 21.0을 이용한 통계분석 방법 적용

구분	내용
빈도분석/기술통계	인구 통계적 특성과 참여자의 분포 파악/만족도
반복측정분산분석 (repeated measures ANOVA)	1단계 패널의 경우 아동의 효과성을 종단적 관점에서 분석
분산분석(ANOVA)	횡단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들의 참여기간별(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효과성 차이 분석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만족도 형성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분석

3. 질적 연구

- 2019년 질적 연구는 3년 중단연구의 첫 단계로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별 특징인 신규기관(2단계 패널)과 연속지원기관(1단계 패널)을 구분하여 수행되었음. 질적 연구의 3년 계획안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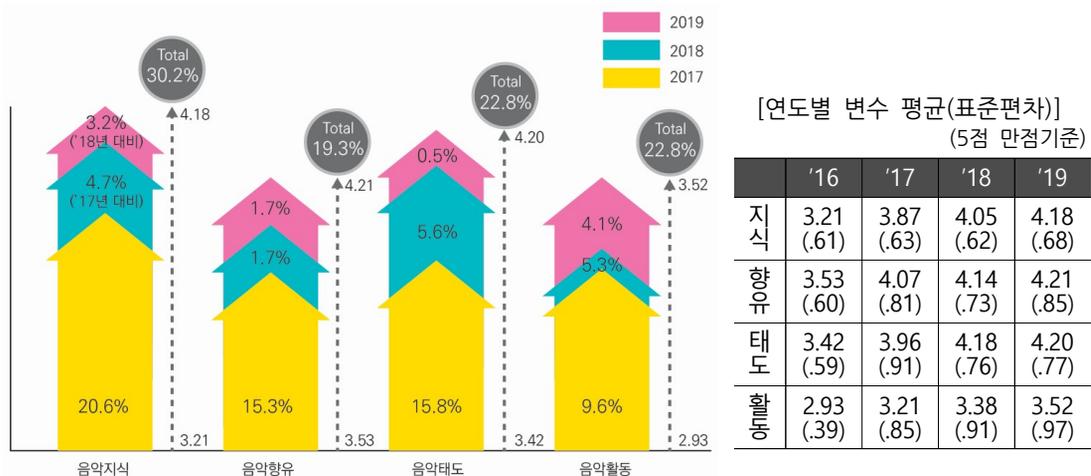
<p style="text-align: center;">1차년도 (2019년)</p>	<p style="text-align: center;">아동의 환경적 특성에 따른 변화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윤리위원회(IRB) 조사 승인 · 조사설계(연구참여자 섭외 및 방문시기 조율) · 음악활동을 통한 단기·중기 영향 조사(1차 패널) · 음악활동을 통한 장기 영향 조사(2차 패널) · 1차와 2차 패널, 취약과 일반가정 아동 차이 분석 · 참여관찰: 아동의 행동학적 변화 관찰 · 인터뷰: 연구참여집단 별 공통점, 차이점 도출 · 2년차 후속 연구 설계 정교화
<p style="text-align: center;">2차년도 (2020년)</p>	<p style="text-align: center;">아동의 중장기 변화와 부정적 사례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기 아동변화 및 영향요인 2차 추출 · 1차년도, 2차년도(1차와 2차 패널 차이 분석) · 아동의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주요 변화 및 영향 요인 분석(취약과 일반가정 아동 특이점) · 부정적 사례 조사 · 3년차 후속 연구 설계 정교화
<p style="text-align: center;">3차년도 (2021년)</p>	<p style="text-align: center;">아동의 장기적 변화와 주요 변인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변화 및 영향요인 3차 추출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의 아동변화 및 주요 영향요인 비교분석(1차와 2차 패널 특이점) · 아동의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주요 변화 및 영향 요인 분석(취약과 일반가정 아동 특이점) · 장기적 변화에 대한 건인요인 매칭 분석 · 장기적인 사업의 효과와 의의

- 질적 연구 중 면접조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총 4개 그룹으로 ①단원(n=25), ②음악감독과 교육강사(n=15), ③참여기관의 코디네이터(n=4), ④참여아동의 보호자(n=13)로 구성되었음. 연구방법은 ①초점집단면접, ②개인심층면접, ③참여관찰을 활용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2019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이루어졌음.
- 참여관찰은 신규기관 B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연장된 개입과 관찰을 4월부터 10월까지 격주로 진행하였으며 총 관찰 횟수는 11회로 집계됨.
- 자료의 분석은 Carnwath와 Brown(2014)의 문화경험 효과모형을 참고하여 개인의 성장, 예술경험의 내재화, 인적 상호작용영향, 공공의 의미, 사회경제적 혜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음.

□ 연구결과

1. 양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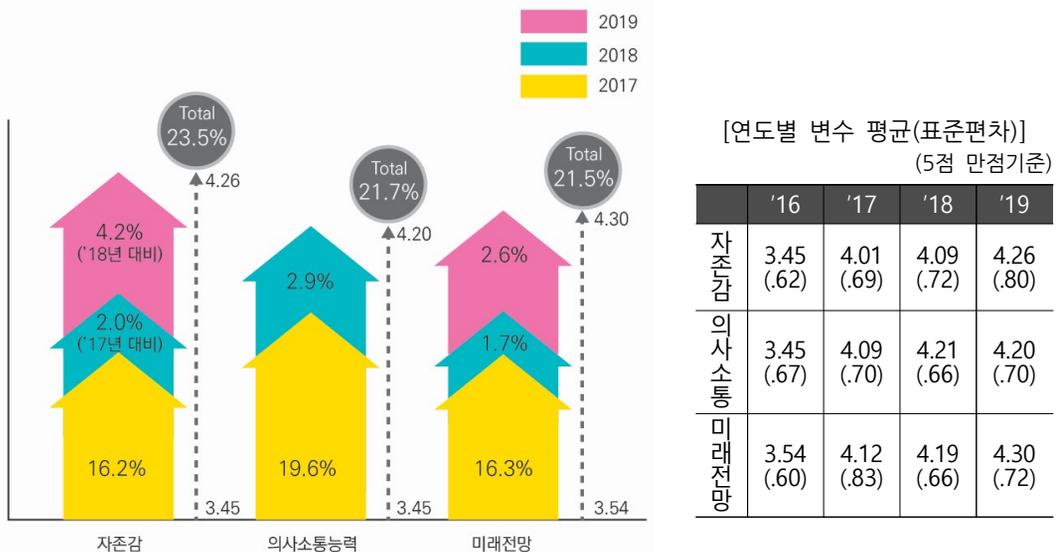
- 2016년 꿈의 오케스트라에 신규 참여하여 2019년까지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며 매년 본 조사에 참여한 패널의 효과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음악적 성장에 대한 분석 결과, 음악적 성장의 모든 구성차원인 음악지식, 음악향유, 음악태도, 음악활동에서 평가시기에 따른 유의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장세로 나타났고, 2018년과 2019년도에는 성장한 수준이 내재화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측정값에 대한 평균 변화량을 살펴보면, 음악지식의 경우 2016년 대비 2017년은 20.6% 향상, 2018년은 2017년 대비 4.7% 향상, 2019년은 2018년 대비 3.2% 향상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평균값(평균 4.18점, 5점 만점 기준)을 2016년 평균값(평균 3.21점)과 비교할 때, 총 30.2% 평균값의 상승을 보이고 있음.
 - 음악향유도 2019년 평균값(평균 4.21점, 5점 만점 기준)을 2016년 평균값(평균 3.53점)과 비교할 때, 총 30.2% 평균값의 상승을 보이고 있음.
 - 음악태도의 경우 2019년 평균값(평균 4.20점, 5점 만점 기준)을 2016년 평균값(평균 3.42점)과 비교할 때, 총 30.2% 평균값의 상승을 보이고 있음.
 - 음악향유는 2019년 평균값(평균 5.52점, 5점 만점 기준)을 2016년 평균값(평균 2.93점)과 비교할 때, 총 30.2% 평균값의 상승을 보이고 있음.



[2016~2019년 음악적 성장 요인 성장비율]

*전반적으로 요인의 평균이 상승된 것에 한해 도식화한 것임

- 개인 발달 측면에서 2019년까지 참여한 패널 아동의 자존감, 의사소통능력, 미래전망 수준이 유의한 성장세를 보였음. 연차별 변화의 비교 분석 결과에서는 2016년도에 비해 2017년에 유의한 수준의 향상 수준을 보였으며, 이후 향상된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가 아동의 개인 발달에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측정값에 대한 평균의 변화량을 살펴보면 자존감 경우 2016년 대비 2017년은 16.2% 향상, 2018년은 2017년 대비 2.0% 향상, 2019년은 2018년 대비 4.2% 향상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평균값(평균 4.26점, 5점 만점 기준)을 2016년 평균값(평균 3.45점)과 비교할 때, 총 23.5% 평균값의 상승을 보이고 있음.
- 의사소통능력의 경우 2019년 평균값(평균 4.20점, 5점 만점 기준)을 2016년 평균값(평균 3.45점)과 비교할 때, 총 21.7% 평균값의 상승을 보이고 있음.
- 미래전망도 2019년 평균값(평균 4.30점, 5점 만점 기준)을 2016년 평균값(평균 3.54점)과 비교할 때, 총 21.5% 평균값의 상승을 보이고 있음.



[2016~2019년 개인 발달 요인 성장비율]

*전반적으로 요인의 평균이 상승된 것에 한해 도식화한 것임

- 2016~2019년까지 참여한 패널 아동의 인적 관계 측면의 효과성 분석 결과, 타인수용도, 타인배려, 협동의 구성차원인 집단촉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의 차원에서 모두 아동의 유의한 수준의 성장을 확인하였음. 2016년도 1차년도에 비해 2017년도 2차년도에 유의한 차이의 성장세를 보였고, 이는 이후에 아동에게 내재화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측정값에 대한 평균의 변화량을 살펴보면, 타인수용도의 경우 2016년 대비 2017년은

17.6% 향상, 2018년은 2017년 대비 3.8% 향상, 2019년은 2018년 대비 4.9% 향상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평균값(평균 4.30점, 5점 만점 기준)을 2016년 평균값(평균 3.36점)과 비교할 때, 총 28.0% 평균값의 상승을 보이고 있음.

- 타인배려는 2019년 평균값(평균 4.28점, 5점 만점 기준)을 2016년 평균값(평균 3.32점)과 비교할 때, 총 28.9% 평균값의 상승을 보이고 있음.
- 협동(집단축진)은 2019년 평균값(평균 4.07점, 5점 만점 기준)을 2016년 평균값(평균 3.19점)과 비교할 때, 총 27.6%, 협동(팔로워십)은 2019년 평균값(평균 4.26점, 5점 만점 기준)을 2016년 평균값(평균 3.36점)과 비교할 때, 총 26.8%, 협동(갈등문제해결)은 2019년 평균값(평균 4.15점, 5점 만점 기준)을 2016년 평균값(평균 3.26점)과 비교할 때, 총 27.3%, 평균값의 상승을 보이고 있음.

[연도별 변수 평균(표준편차)]

(5점 만점기준)

구분	'16	'17	'18	'19	구분	'16	'17	'18	'19
수용도	3.36 (.60)	3.95 (.76)	4.10 (.67)	4.30 (.67)	팔로워십	3.36 (.067)	3.98 (.80)	4.26 (.71)	4.26 (.73)
배려	3.32 (.59)	3.97 (.79)	4.05 (.67)	4.28 (.68)	갈등해결	3.26 (.75)	3.93 (.75)	4.17 (.70)	4.15 (.82)
집단축진	3.19 (.63)	3.95 (.76)	4.13 (.74)	4.07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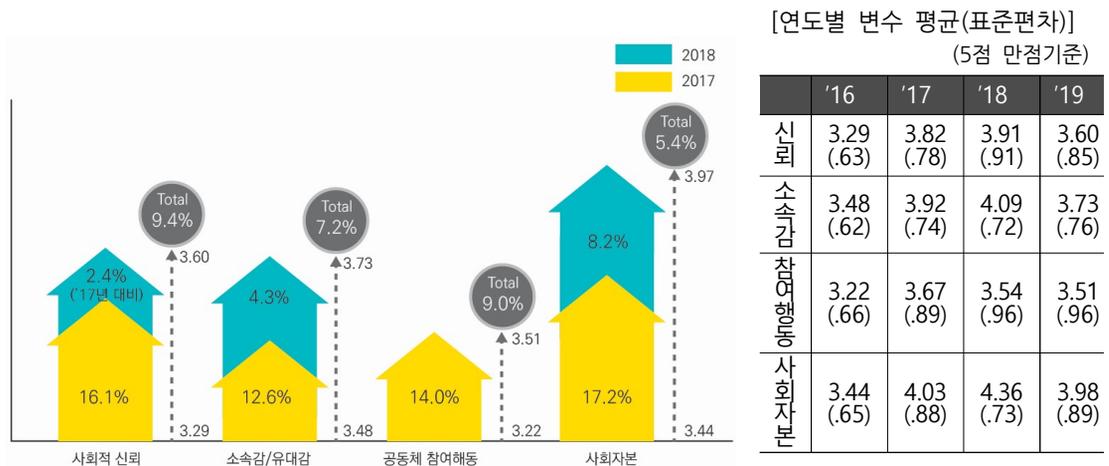


[2016~2019년 인적 관계 요인 성장비율]

*전반적으로 요인의 평균이 상승된 것에 한해 도식화한 것임

-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측면의 효과성 분석 결과에서는 사회적 신뢰, 소속감 및 유대감, 공동체참여 행동과 사회자본에 있어 아동의 유의한 수준의 성장을 확인함. 2016년보다 2017년에 유의한 수준의 향상이 있었고,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유의하게 향상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측정값에 대한 평균의 변화량을 살펴보면, 사회적 신뢰의 경우 2016년 대비 2017년은 16.1% 향상, 2018년은 2017년 대비 2.4% 향상, 2019년은 2018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값은 아니었음. 2019년 평균값(평균 3.60점, 5점 만점 기준)을 2016년 평균값(평균 3.29점)과 비교할 때, 총 9.4% 평균값의 상승을 보이고 있음.
- 소속감/유대감은 2019년 평균값(평균 3.73점, 5점 만점 기준)을 2016년 평균값(평균 3.48점)과 비교할 때, 총 7.2% 평균값의 상승을 보이고 있음.
- 공동체 참여행동의 경우 2019년 평균값(평균 3.51점, 5점 만점 기준)을 2016년 평균값(평균 3.22점)과 비교할 때, 총 9.0% 평균값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2018년, 2019년의 경우 단원의 공동체 참여행동의 평균값은 약간 감소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값은 아니었음.
- 사회자본은 2019년 평균값(평균 3.97점, 5점 만점 기준)을 2016년 평균값(평균 3.44점)과 비교할 때, 총 5.4% 평균값의 상승을 보이고 있음. 2019년 사회자본 평균값은 2018년과 비교해 다소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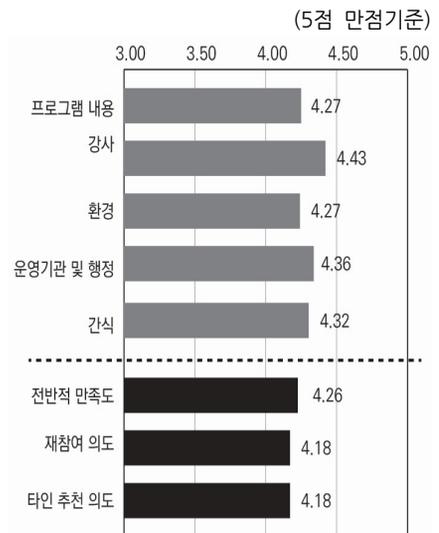
[2016~2019년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요인 성장비율]

*전반적으로 요인의 평균이 상승된 것에 한해 도식화한 것임

- 횡단 자료를 이용하여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기간에 따라 1년, 2년, 3년, 4년 참여 아동들의 효과성을 집단별로 비교 분석함.
 - 음악적 성장 측면에서 참여기간에 따라 음악지식과 음악향유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음악지식은 참여기간이 1년보다 2년인 집단에서 유의한 성장 수준을 보였음. 음악향유는 참여기간이 1년과 2년보다 3년 집단에서 유의한 성장 수준을 보여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가 음악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향유하는 태도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개인 발달 영역에서는 참여기간이 1년보다 2년, 3년, 4년 집단의 자존감 수준이 높았고,

의사소통능력은 참여기간이 1년보다 3년과 4년 집단 수준이, 미래전망은 참여기간이 1년보다 2년과 4년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여 개인 발달 영역에서의 효과성을 검증함.

- 인적 관계 영역에서 참여기간에 따른 타인 배려, 협동 능력의 차이가 유의하였음. 타인 배려에 있어서는 참여기간이 1년보다 2년과 4년 집단이, 협동의 집단축진은 참여기간이 1년보다 3년, 팔로워십은 1년보다 2년, 3년과 4년 집단이, 갈등문제 해결은 참여기간이 1년보다 3년 집단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꿈의 오케스트라를 1년의 단기적으로 참여한 아동보다 2년 이상 장기적으로 참여한 아동의 효과성이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단원 자부심, 참여 적극성, 음악적 권태, 타 음악교육 및 오케스트라 경험, 부모, 동료와 교육강사의 지지와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경험한 공연 성취감은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됨.
- 5점 만점을 기준으로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아동들의 전반적 만족도는 4.26점(100점 환산 시 81.5점)이며, 프로그램 내용, 강사, 환경, 운영기관 및 행정, 간식 만족도에 수준은 4.27~4.43점의 분포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임. 재참여의도와 타인추천 의도는 각각 4.18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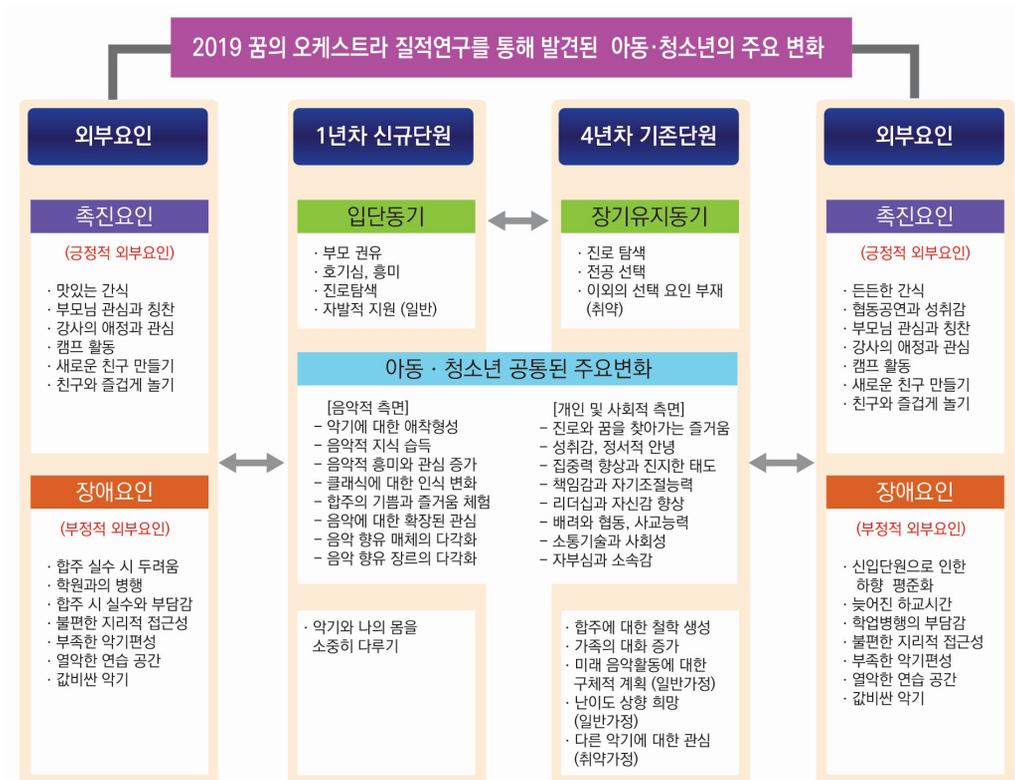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학부모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가치 지각 수준에 유의한 향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지각 수준은 2016년과 2017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2018년에는 유의한 변화 수준은 관찰되지 않음.
- 교육강사의 참여 아동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는 아동의 음악 지식, 연주 역량과 협동심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에 걸쳐 유의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향상은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있었으며, 향상된 수준이 이후에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질적 연구

-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참여기간, 가정환경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개인적 성장과 음악적 성장 면에서 가장 큰 변화를 느낀 것으로 판단하였음. 구체적으로 ①진로와 꿈을 찾아가는 즐거움, ②성취감, 정서적 안녕, ③집중력 향상과 진지한 태도, ④책임감과 자기조절 능력, ⑤음악적 지식습득, ⑥음악적 흥미와 관심 증가, ⑦클래식에 대한 인식 변화, ⑧합주의 기쁨과 즐거움 체험, ⑨악기에 대한 애착 형성, ⑩리더십과 자신감 향상, ⑪배려와 협동, 사교능력, ⑫소통기술과 사회성, ⑬자부심과 소속감, ⑭음악에 대한 확장된 관심, ⑮음악향유 매체의 다각화, ⑯음악 향유 장르의 다각화로 나타남.
- 신규단원의 경우, 일반가정 아동과 취약가정 아동의 차이는 꿈의 오케스트라의 효과성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의 공통된 효과는 개인적 성장(인지 및 정서 발달)과 음악적 성장(미적경험의 체험)에서 가장 두드러진 발전으로 보고됨.
- 4년차 단원의 경우, 음악적 성장이 단순한 미적경험의 체험이 아닌 미적경험의 내재화로 발전되어 체화됨이 드러났으나, 이들은 신규단원의 지속적 영입으로 인해 하향평준화로 인한 지루함, 악기실력이 더 이상 늘지 않음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함.
- 4년차 단원의 지속이유로 일반과 취약가정의 아동에 있어 차이점이 발견되었음. 일반가정 아동은 전공선택과 개인적 목표달성에 대한 의지를 이유로 답한 반면, 취약가정 아동은 딱히 다른 대안적 선택이 없는 점과 전공 선택을 이유로 들었으나 전공 유지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을 드러냈음. 따라서 재능은 뛰어나나 가정환경이 취약한 단원을 위한 지원정책이 엘 시스템아 고유의 선순환적 관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이들이 제안한 꿈의 오케스트라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①실력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②다양한 악기 체험 증가, ③악기 구성의 확충, ④맛있고 든든한 간식, ⑤연습시간 확보를 개인악기 지원, ⑥연습공간의 개선으로 분석되었음.
- 신규기관과 연속기관의 코디네이터 모두 아동의 주요한 변화로 개인적 성장과 음악적 성장을 언급했으며, 구체적으로 개인적 성장의 경우는 ①바르게 행동하기, ②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③자신감과 밝아진 표정, ④꿈을 찾아가는 아이들을 언급하였음. 음악적 성장으로 악기실력의 향상을 가장 주요한 변화로 증언하였음.
-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①진흥원의 적극적 교류노력, ②성과평가 방식에 있어 자율성 부여, ③아동에 대한 상담 지원, ④단원의 실력 차를 고려한 시스템 마련, ⑤개인 악기 지원책 마련, ⑥지원 가능한 취약가정의 기준 확대로 수렴됨.
-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교육강사들이 지각하는 아동들의 인지 및 정서 발달 요인으로는 ①꿈을 만들어가는 과정, ②자신감 신장, ③자존감과 발표능력 향상, ④행동과 태도의 성숙, ⑤집중력과 성실함, ⑥책임감의 주요 요인이 도출됨.
-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이 제안한 본 사업의 주요 개선방안은 ①진로를 결정한 아동에 대한

전문적 교육 지원, ②장기적인 관찰과 조사를 통해 지원체계 마련, ③진흥원 연수 프로그램 개선, ④예산 책정, ⑤강사의 충원, ⑥참여 아동의 연령 재고, ⑦양질의 악보 공급과 아카이빙 등으로 제시됨. 4년차에 접어든 경우, 악기를 전공으로 선택하는 아동들이 늘어감에 따라 꿈의 오케스트라 이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에 대해 교육강사들의 고민이 늘어가는 것으로 확인됨.

- 보호자 FGI를 통해 나타난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아동의 변화와 성장 요인은 인지와 정서 발달 측면에서 규명됨. 세부적으로 ①꿈을 발견 또는 찾아가는 과정 경험, ②자신감 및 자부심 신장, ③책임감 신장, ④자발적 노력의 태도, 적극성, 독립성 체득, ⑤진지한 태도와 차분함, ⑥마음의 안정과 여유 요인들이 아동의 인지와 정서적 측면의 발달 요인으로 요약됨.
- 학부모가 제안한 본 사업의 주요 개선방안은 ①음악적 성장을 위한 추가 지원, ②자녀의 음악적 성장 관련 내용 안내, ③지속적인 연습을 위한 지원, ④차량운행, ⑤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단원 선발, ⑥학습속도가 늦은 학생에 대한 교육강사의 태도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음. 교육강사와 마찬가지로, 4년차 프로그램에 참여 단원들의 보호자들은 음악가의 꿈을 갖게 된 자녀를 위한 후속 지원책 필요를 공통적으로 피력하였음.



□ 제언

구분	제언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의 역할	꿈의 오케스트라 장기 지원과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 연구의 필요성
	연수과정 관계자 대상 연수 및 워크숍의 효과적 진행방향 검토
	거점 기관과의 적극적 상호연계관계 구축
	기관 별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자율성 부여
	이탈 원인 분석을 통한 단원 유지률 제고 방안 마련
	꿈의 오케스트라의 사회적 가치의 공유와 확산
	제공되는 교재 및 악보의 개선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의 역할	[교육 프로그램 차원]
	공연을 통한 성취감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운영 방식 모색
	신규 단원을 대상으로 한 입문교육 강화
	단원의 입단 시기 별 실력차이를 고려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 후속 지원 가능 방안 검토
	[교육 환경 차원]
	연습공간과 교육 환경의 개선
	[교육 인력 차원]
	파트별 균형을 고려한 교육강사 확충
	[관계적 차원]
	전문 아동상담가와 협업을 통한 아동 상담지원 시스템 구축
	음악감독-교육강사-단원의 수평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보호자 소통방안 마련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2019 Orchestra of Dream on participating children

Principal Investigator

Lim, Young-sik, Ph.D.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ung-Ang University

Co-investigators

Kim, InSul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Cul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hin, Hejyesun

Co-founder & Director, WECULTURE research and consulting

Im, Seunghee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University of Suwon

Chung, Kyoung-eun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Counseling , Chodang University

Research Objectives & Important Findings

1. Objectives of Research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intain and develop the Orchestra of Dream child change research system, which was conducted from 2016 to 2018, and to carry out the end-to-end study of participating child changes over time. And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we will derive the value and meaning of the dream orchestra project and present the development plan and policy suggestions of the project

2. Content of Research

- Theoretical review of musical genre and orchestral culture and art education
- Design of Change Research for Children Participating in the Orchestra of Dreams from 2019 to 2021
- Survey on changes for children participating in Orchestra of Dream in 2019
- Analysis of survey results and proposal for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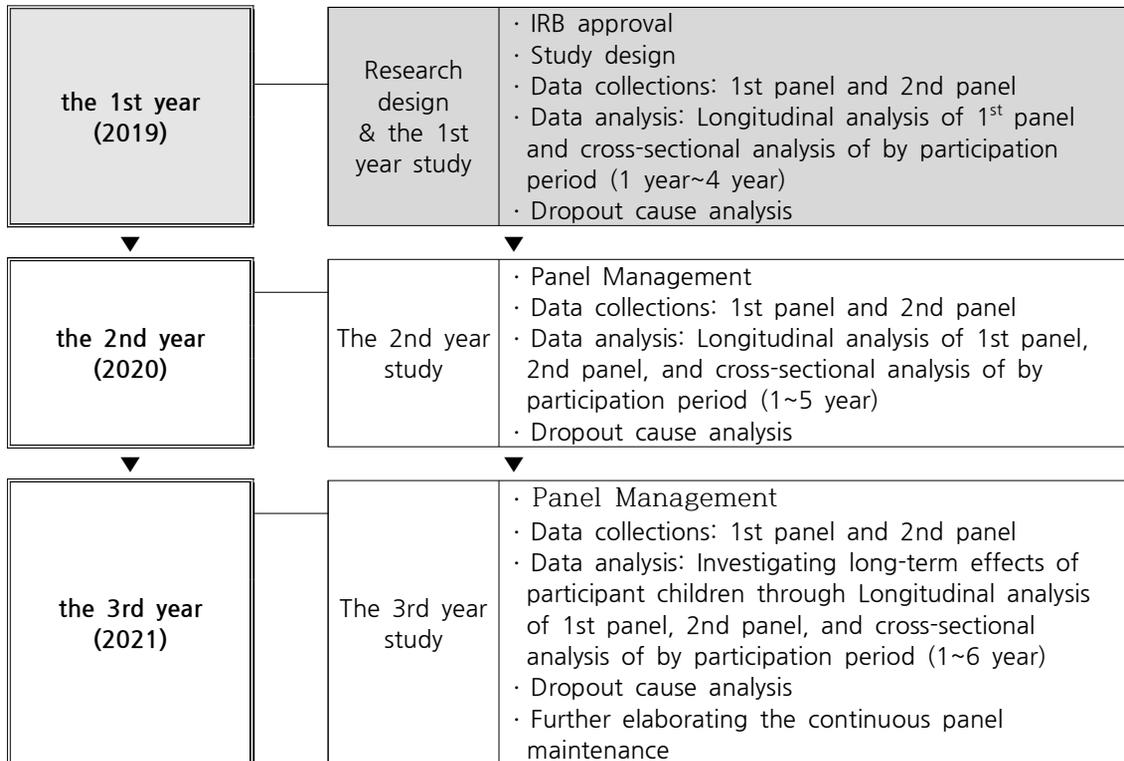
2. Research Methodology

2.1 Research Design

Category	Orchestra of Dream			
	member	parents and caregivers	music educators	
Population	All members and guardians of agency of Orchestra of Dream in 2016 and 2019		music educators and program executing institutions' coordinators	
sampling	quantitative panel	Complete Enumeration		Complete Enumeration (an institution with new members)
	qualitative panel	Quota Sampling		Quota Sampling
Subject of investigation	quantitative panel	2019: 250 Pair Survey(member and parents and caregivers)		music educators and coordinators
	qualitative panel	member: 25people parents and caregivers: 13people		music educators: 15people, coordinators: 4people
method of investigation	quantitative panel	Institutional Visit Survey	Collect Questionnaire	Institutional Visit Survey
	qualitative panel	Focus Group Interview(FGI), Personal In-depth Interview(PII), and Participation Observation		
survey period	From September to October every year			
Data collection method	quantitative panel	Questionnaire Survey		
	qualitative panel	Interview and Participation Observation		

2.2 Quantitative Research Methodology

- Panel survey design (2019~2021)



- Participants

-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participant children in institutions of recurring program(1st panel) and the newly joined institutions in 2019(2nd panel).

- Measures

- To examine the effects of Orchestra of Dream, musical growth(musical knowledge, musical enjoyment, attitude toward music, musical activities, expansions of musical experiences), individual development(health–stress, self–esteem, diligence, communication skills, academic performance, future outlook, aggressiveness, happiness), human interaction(collaboration, family relationship, receptiveness, consideration), communal meaning(sense of belonging, community participation, social trust), social and economic benefit(social capital, economic benefit) were measured from children, their guidance, and instructor.

- Program elements (contents, education instructor, environments, administrations), overall satisfaction, loyalty, and influencing factors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orchestra were also measured.

Category	Variable		Category	Variable			
Effectiveness	Musical Growth	Musical Knowledge	Satisfaction	Program Elements	Contents		
		Musical Enjoyment			Education instructor		
		Attitude toward Music			Environments		
		Musical Activities			Administrations		
		Expansions of Musical Experiences*		Overall satisfaction			
	Individual Development	Health-Stress	Influencing factors	Promotion and obstacles	Re-participation intentions		
		Self-esteem			Recommendation intentions		
		Diligency			Previous orchestral experiences		
		Communication Skills			Orchestra pride		
		Future Outlook			Orchestra satisfaction		
		Aggressiveness*			Guidance support		
	Human Interaction	Collaboration	negative factors	moving out, psychological factors etc.*	Peer support		
		Family Relationship			Active participation		
		Receptiveness			Instructor support*		
		Consideration			Performance Achievement*		
	Communal Meaning	Sense of Belonging	negative factors		moving out, psychological factors etc.*	Musical slump*	
		Community Participation				Educational burden*	
		Social Trust				Environmental factors*	
	Social & Economic Benefits	Social Capital	negative factors			moving out, psychological factors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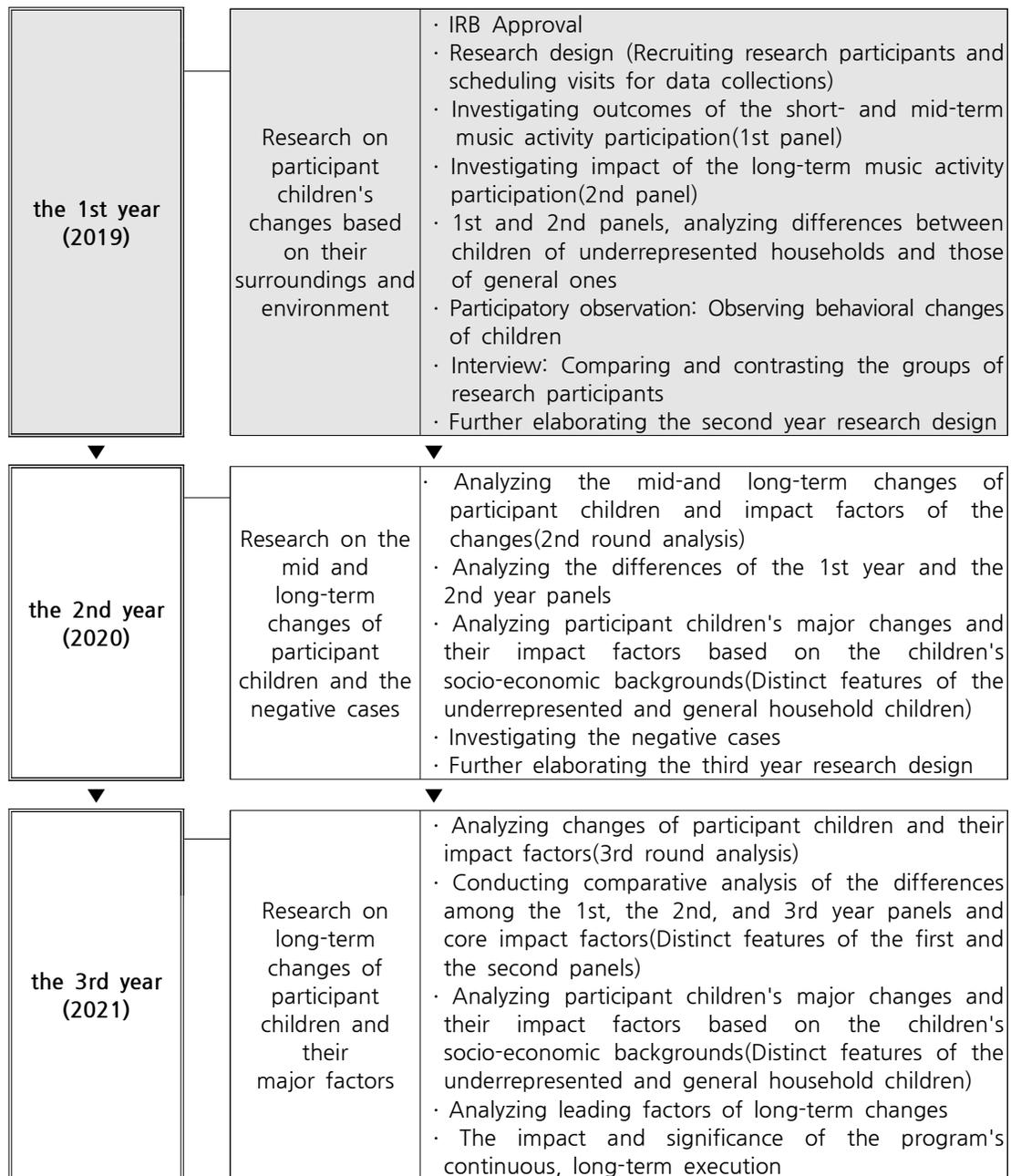
* added items in 2019

o Analysis methods

Category	Contents
Descriptive Analysis	Analysis on demographics and satisfaction on program
Repeated measures ANOV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orchestra participation using 1st panel data analysis
One-way ANOVA	Cross-section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orchestra participation by participation periods (1 year, 2 year, 3 year, 4 yea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effects of orchestra

2.3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 2019 study's qualitative research, which is the first phase of the three-year long panel research, is consisted of newly joined institutions(two-staged panel) and institutions of recurring program(one-stage panel). Key aspects of the qualitative research design for three years are shown as below.



- Interview participants for this qualitative research consist of four groups as follows:
①member children(n=25), ②conductors and music educators(n=15), ③program executing institutions' coordinators(n=4), ④ parents and caregivers(n=13). Research methods adopted for this study are ①Focus Group Interview(FGI), ②Personal In-depth Interview(PII), ③Participatory Observation. Data collection had conducted from April to October, 2019.
- If prolonged engagement is premised during the field research, participatory observations can provide crucial information which allows researchers to understand the mood of classrooms, interactions between the research participants, changes in relationship development and dynamics etc. For this reason, researchers conducted observations and prolonged engagement from April to Match, 2019 for the B institution which newly joined to the program this year.
- For data analysis, this research adopted Carnwath and Brown's(2014) 'Understanding the Value and Impacts of Cultural Experiences,' particularly the concepts as follows: personal development, imprinted arts experience, human interaction, communal meaning, economic & social benefit.

□ Research Results

1. Qualitative Research

- Results using 1st panel data showed that musical knowledge, musical enjoyment, attitude toward music, musical activities were improved significantly between 2016 and 2019. Also contrast analysis suggest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between 2016 and 2017,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2017, 2018, and 2019.
- Regarding individual development, self-esteem, communication skills, and future outlook were improved significantly. Follow-up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2016 and 2017, and these improvements maintained to 2018 and 2019.
- There was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personal relationship. Specifically, the receptiveness, consideration, and cooperation (collective promotion, followership, problem solving ability) were significantly improved. Also, there was a significant improvement between 2016 and 2017,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2017, 2018 and 2019.
- In terms of communal meaning and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social trust, sense of belonging and community participation behavior were significantly improved. Contrast analysis showe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between 2016 and 2017.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2017, 2018, and 2019.
- Results using cross-sectional data also revealed that musical knowledge and musical enjoyment level of 2, 3, and 4 year participants are higher than those of year 1.
- Also, cross-section data analysis demonstrated that there were a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in self-esteem, communication skills, future outlook, receptiveness, consideration, and cooperation (collective promotion, followership, problem solving ability).
- Child reported high level of satisfaction and loyalty on Orchestra of Dream. Furthermore,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program elements (content, instructor, and physical environment, administration) was high.
- Instructor evaluated that child' musical ability such as musical knowledge and performance ability was improved between 2016 and 2019. There was a significant

improvement between 2016 and 2017,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2017, 2018 and 2019. In addition, results showed that cooperation among orchestra members was impro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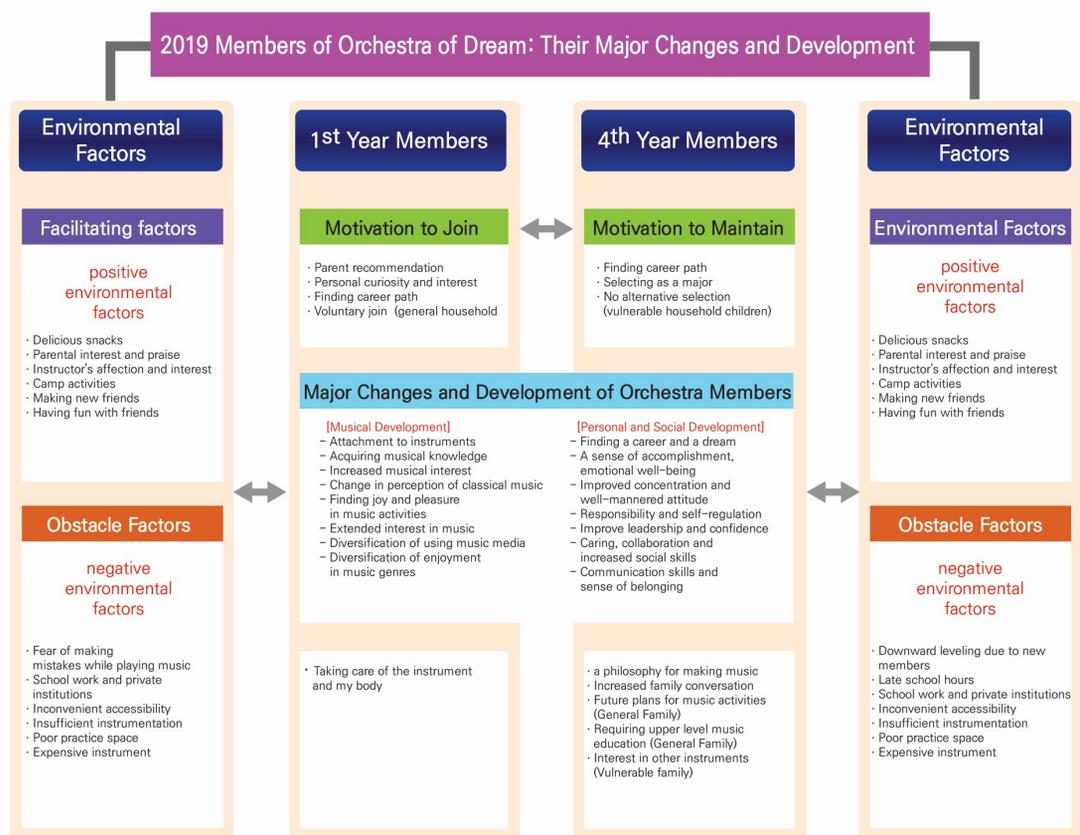
2. Qualitative Research

- The orchestra members believed that their biggest change was something to do with personal and musical growth regardless of their period of participation and living environmental difference. Specifically, ①the pleasure of finding a career and a dream, ②a sense of accomplishment, emotional well-being, ③improving concentration and serious attitude, ④responsibility and self-regulation, ⑤acquiring musical knowledge, ⑥ increasing musical interests and interests, ⑦changing perceptions of classical music, ⑧ Experience of joy and enjoyment of the ensemble, ⑨Formation of attachment to the instrument, ⑩development of leadership and self-confidence, ⑪consideration and cooperation, ⑫social skills, communication skills and sociality, ⑬pride and belonging, ⑭expanded interest in music, ⑮music diversification of enjoyment media, ⑯ diversification of genre of enjoyment of music were identified features of changes.
- In the case of new members,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children of general households and those of who came from vulnerable families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Orchestra of Dream. Their common effects are reported to be the most prominent developments in personal growth(cognitive and emotional development) and musical growth(experience of aesthetic experience).
- In the case of the 4th year Orchestra of Dream members, they felt that foundational musical growth far from a simple musical experience; so called, an internalization of aesthetic experience. However, they felt frustrated due to the continuous recruitment of new members by downward leveling and dissatisfied with lack of musical development in techniques.
- The reason for continuation among the 4th year members showed some differences between children of general and vulnerable families. General household children answered because of their willingness to choose majors and personal goals, while vulnerable household children felt that they had no other alternative choices for extracurricular activities. Also, the vulnerable household children showed more fear and anxiety in maintaining music for their major due to further cost. Therefore, support policies for members with excellent talent but weak family environment need

to be considered from the virtuous cycle inherent in El Sistema.

- The orchestra members' suggestions for Orchestras of Dreams include: ①operating selective programs based on members' musical development and techniques, ② increasing various experience in musical instruments, ③expansion of instrument composition in the orchestra settings, ④delicious and enough snacks, ⑤supporting personal instrument for the sake of practice, ⑥improvement of practice space.
- All the coordinators at new and sequential institutions reported that personal and musical growth as major changes in the orchestra members. Specifically, they found important changes in personal growth in terms of ①well-mannered behaviors, ② acting autonomously and actively, ③confident and bright expressions, ④exploring their dreams. In regards to musical development, the coordinators testified that the improvement of musical instrument techniques as the most significant change.
- The coordinators'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program include: ①proactive interactions with the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KACES), ②autonomy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s and system, ③support for counseling for children, ④development of systems considering the differences in musical development of orchestra members, ⑤provision of individual musical instrument support plans, ⑥ expanding the criteria of vulnerable households to increase beneficiaries.
- The music instructors including music directors found the orchester member's cognitive and emotional development in ①pursuing their musical-career dreams, ②building confidence, ③improving self-esteem and presentation ability, ④increasing maturity of behaviors and attitudes, ⑤enhancing concentration and sincerity, ⑥achieving personal responsibility.
- The suggestions of the music instructors and director for improving the program include: ①providing professional education for children who have decided on their musical careers, ②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through long-term observations and surveys, ③improving the KACES' training program, ④setting proper budgets, ⑤ recruiting professional instructors, ⑥reconsidering the entrance age of the orchestra, ⑦ increasing quality for music scores and archiving system. Their biggest concern as teachers were providing higher music education for the 4th year orchestra members as more of them show strong interest in choosing musical career for their future.
- The parents of the orchestra members found their changes and growth in cognitive and emotional development. Specific features were ①pursuing their musical-career

- dreams, ②increasing confidence and self-esteem, ③increasing responsibility, ④ increasing attitudes of voluntary effort, activeness, independence, ⑤achieving well-mannered attitudes and calmness, ⑥developing stability.
- The parents'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program include: ①providing additional support for musical growth, ②sharing the information on the child's musical growth, ③support system for ongoing orchestra practices, ④providing proper transportation, ⑤selecting orchestra members in line with the original intentions of the program, ⑥ instructor's attitude toward students with slow processing. Like the teachers, the parents' biggest concern were providing higher music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who have showed strong interest in choosing musical career for their future.



□ Suggestions

Institutions	Implications
Korea Arts and Culture Education Services	Continuously observing the effectiveness and impact of the 'Orchestra of Dreams' program
	Improving arts educator training programs
	Building up network with program executing institutions
	Enhancing autonomy of the organizations carrying out the program
	Developing strategies for maintaining member's enrollment rate by analysing the cause of drop-out
	Improving educational materials and orchestral scores
	Proliferating and sharing social values of the 'Orchestra of Dreams' program
Program Executing Institutions	[Program Aspects]
	Reinforcing orchestra performances
	Enhancing new member education and training
	Diversifying lesson plans considering student members' performance capabilities and advancement Providing post-program support for student members who want to further pursue musical education such as majoring an instrument
	[Education Environment Aspects]
	Improving educational environment including spaces for practice
	[Education Workforce Aspects]
	Hiring more music educators depending on the size of instrumental sections
	[Relationship Aspects]
	Developing consulting services and system for member children
	Developing effective communication system among conductors, music educators, and members
	Creating communication channels with member children's parents and care-giver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예술교육은 숨겨진 예술적 재능을 가진 개인을 발견하고 재능을 개발하여 예술가로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은 이보다 인격적 성숙을 가능하게 하고, 자존감과 표현력 향상, 스스로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 타인에 대한 배려, 소통과 협력의 역량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기회 제공의 맥락에서 예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백령 외, 2014).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이러한 예술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의 ‘상호학습’과 ‘협력’을 중심에 두는 오케스트라 협주 활동을 통한 긍정적 자존감과 공동체적 인성을 갖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시작하였음. 2010년 8개소의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470명의 아동이 참여한 사업에서 2019년 2월 기준, 2,804명(예비거점 2개소 제외)의 아동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성장하였음. 올해는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10년차에 해당함.
- 꿈의 오케스트라는 엘 시스템아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지난 40년 간 빈곤, 폭력, 마약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빈곤지역 거주 아동, 청소년들에게 음악교육을 통해 빈곤 탈피, 사회 인력 개발의 효과를 입증한 베네수엘라 ‘엘 시스템아’의 사례는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감동과 영향을 미침.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베네수엘라 시몬볼리바르 음악재단(엘 시스템아)과 2012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엘 시스템아의 공식파트너로서 국내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가족의 역량 증대, 사회적 자본 형성이라는 본질적 목적을 토대로 모델을 확산하고 있음(임영식 외, 2018).
- 꿈의 오케스트라는 음악적 재능을 가진 영재를 발굴·육성하는 기존의 예술교육과 달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예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오케스트라 음악활동을 지향함.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전수환 외, 2015).
- 꿈의 오케스트라의 추진방향은 ‘음악을 위한’이 아닌 ‘음악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의 변화 추구, 다양한 계층 또는 문화적 기반의 아동들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회통합기제 역할 수행, 행정 주체와 교육 주체의 공동협력을 통한 거점기관 성장 도모, 엘 시스템아 철학을 바탕으로 한 교육 수행, 지역의 특성에 맞는 꿈의 오케스트라 모델 구현임.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의 7원칙은 즐거움, 상호학습 리더십, 참여통합, 음악적 성취와 공연, 교육강사와 학생의 빈도 높은 만

남, 함께하는 연주, 사회변화임(www.arte.or.kr).

-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 평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 2011년 꿈의 오케스트라 단위사업평가, 2012년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 효과성 평가, 2013년 거점 기관의 평가 컨설팅, 2014년 사업 효과성 평가와 공연효과성 평가 그리고 2015년에는 꿈의 오케스트라 입문단계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와 사업의 중장기 운영 방안 연구가 진행되었음.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정책적인 지향점이나 중장기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음(임영식 외, 2018).
- 이들 연구는 대부분이 특정 시점의 조사 자료를 활용한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이며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었음. 이러한 횡단자료를 통한 실증연구들은 꿈의 오케스트라가 지속화될 수 있는 증거기반 연구들이지만, 이들 대부분이 단기간의 변화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거나 만족도를 중점으로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꿈의 오케스트라가 가지는 장기적인 특성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임영식 외, 2018).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2016년부터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를 시작하였음. 국내에서는 다양한 패널연구들이 존재하지만, 특정 프로그램인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패널연구는 처음 시도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수행된 2016~2018년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의 의의 및 한계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측정 도구를 선정하고 일부 측정도구를 개발하였음.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전술한 것과 같이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기존 연구들(백령, 2012; 홍기원, 2014)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측정을 위한 측정도구 및 척도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음.
- 따라서 꿈의 오케스트라 또한 아동의 변화 및 변화의 영향 요인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효과성 척도 개발의 필요가 강조되었으며, 2016년 연구에서 Carnwath와 Brown(2014)의 개인 성장, 예술경험의 내재화, 사회경제적 혜택, 공공의 의미, 인적 상호작용영향 모형을 연구의 주요 모형으로 구조화하였고, 꿈의 오케스트라 측정 도구를 선정함에 있어 개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변화를 최소의 문항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존 측정 도구를 유지하면서 음악적 성장 부분은 척도의 부재로 인해 연구진에 의해 음악적 성장 척도(4개 요인의 21개 문항)를 신규 개발하였음.
- 둘째, 교육 참여자의 장기적 변화를 관찰하는 종단연구를 실시하였음. 음악 장르 교육 효과성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주로 교육 후나 참여 과정의 한 시점을 임의적으로 지정하여 효과를 관찰하고 있는 횡단적 연구 설계를 적용하고 있음.
- 즉,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규명하는 자료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나, 단기 결과에 집중

때 있고 장기적 발달 산물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러나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를 고려할 때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효과를 검증하지 않고서는 교육의 효과 및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설득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참여자의 장기적 변화 관찰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음악 장르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장기적 연구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해외에서는 음악 장르 교육 참여자들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검증하려는 선행연구들(Intolubbe-Chmil, 2015; Richard et al., 2010; Osborne et al., 2015; Welch et al., 2014)이 다수 수행되어 왔음.
- 2016년부터 시작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는 기존 횡단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음악 교육 분야에서 최초로 종단연구를 3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도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음.
- 셋째, 효과측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연구 방법이 적용되었음.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방식과 함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다양한 생리적 지표를 이용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안경주 외, 2008), 이러한 생리적 측정방법은 신뢰도가 높고 정량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많은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음(우정민, 2008).
-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측정의 경우 응답의 성실성과 사회적 바람직성, 기억의 회상능력 등에 의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왜곡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진행 및 관찰자에 의한 평가는 측정기준과 관찰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편견으로 인해 평가자간 신뢰도가 저하 될 수 있음. 이처럼 측정방법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보고식 측정과 함께 객관적이고 관찰 가능한 생리적 반응에 기초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함(임영식 외, 2012). 따라서 상호보완적 연구도구를 통해 심리적, 생리학적 연구가 서로 병행되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최근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측정 연구에서도 코티졸 분석을 통한 스트레스 측정, HRV(Heart Rate Variability)을 이용한 스트레스 측정, fMRI을 이용한 뇌영상 기법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한 연구들(김봉년 외, 2013; 임영식 외, 2012; 임영식 외, 2014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효과성을 심리적 측정, 생리적 측정, 심층 인터뷰 및 참여관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였음.
-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지님.
- 3년간의 본 연구를 통하여 참여아동, 보호자, 교육강사들의 개인, 관계, 사회적 영역에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종단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연구

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종단적 연구로서 아동의 변화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의 참여 효과를 면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3년 이후의 보다 장기적 검증을 통해 효과성의 변화 패턴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음(임영식 외 2018).

- 국내 양적 패널 연구의 경우 최저 6년에서 10년 이상에 걸쳐 패널을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있고, 해외 아동·청소년 패널 연구들은 10년 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40년 이상에 걸친 장기간에 걸쳐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 패널 연구도 존재함.
- 선행 패널 연구들의 패널 추적 기간을 고려해 볼 때, 3년이라는 시간은 종단적 변화를 검증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시간이라 할 수 있음.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 꿈의 오케스트라 종단 연구의 경우 양적, 생리적, 질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시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를 검증했다는 장점을 지님. 하지만 생리적 연구의 일종인 코티졸 측정은 통상적으로 하루 4회를 측정하여 개인의 패턴을 관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루 4회 측정은 불가능했기에 일정 시간의 하루 1회 측정으로 스트레스의 변화를 측정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따라서 1회 측정한 생리적 측정은 본연의 생리 지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측정이 선행되어야 함. 하지만 생리적 측정은 엄격한 측정과 분석을 요구하기에 연구의 투입 비용이 다른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단점이 있음.
- 이에 생리적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아동들의 스트레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관찰이나 인터뷰 등이 전반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아동의 변화를 확인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라 판단됨.
- 마지막으로 기존 설문지만으로는 중도탈락자에 대한 중도탈락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것임.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는 아동과 보호자의 동의하에 거점기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선발된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중도에 오케스트라를 그만두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함.
- 2017년 패널 유지율은 2016년 대비 71.7%, 2018년은 2017년 대비 62.3%이며(임영식 외, 2018), 2016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패널 유지율은 44.7%로써 상당히 낮게 나타남.
- 따라서 추가 신규패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중도탈락 단원들의 탈락사유도 함께 파악하는 것이 향후 꿈의 오케스트라의 안정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필요하리라 판단됨.
- 이에 본 연구는 기 수행된 연구체계를 유지·발전시키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참여 아동 변화에 대한 종단 연구를 수행하여 본 사업의 목적 및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또한 정교한 연구 설계와 효과성 증명 자료를 기반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가치와 의미를 도출하고 사업의 발전방안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1-1> 연구체계도

2. 연구 내용

- 음악장르 및 오케스트라 문화예술교육 이론적 검토
 -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현황 및 실태 분석
 - 음악 장르 교육 효과성 관련 연구 리뷰
 - 국내외 중단 패널 연구 사례 분석
- 2019~2021년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 대상 변화 연구 조사 설계
 - 3년 패널조사 설계 및 패널관리 방안 마련
 - 기 설계된 조사문항의 축소 검토 및 추가 조사 문항 구성
 - 참여 아동 개인적 특징에 따른 효과 외에 꿈의 오케스트라 가치에 대한 계량 지표 설계
- 2019년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 대상 변화 연구
 - 참여 아동 대상 개인 성장, 예술경험의 내재화, 사회경제적 혜택, 공공의 의미, 인적 상호작용영향 등 다각적 변화 분석
 - 참여 아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을 비롯한 가정, 지역사회, 교육자 요인 등 분석과 참여 아동 개인과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성 조사
 -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 중도탈락의 원인 분석
 - 2019년 조사 결과와 기존 조사결과 비교 분석
- 조사 결과 활용 및 발전 방안 제안
 -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개인, 가정, 학교에 미치는 개인 및 사회적 영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와 의의, 발전방안 등 정책적 제언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자 변화 외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향후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발전방안 제안

Ⅱ. 문헌고찰

1. 꿈의 오케스트라 개요
2.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
3.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패널 선행 연구 고찰
4. 해외 아동·청소년 음악교육 종단연구 및 보고서

II. 문헌 고찰

1. 꿈의 오케스트라 개요

1.1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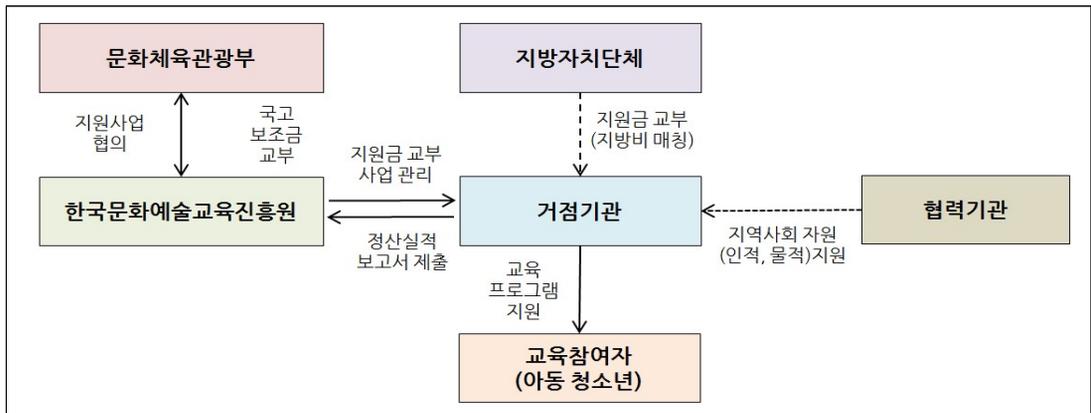
- 꿈의 오케스트라는 ‘상호 학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오케스트라 음악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다면적인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 사회와 예술교육 공유를 통해 가족 및 지역사회 변화에 도모하고 더 나아가 음악을 통한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 구체적으로 꿈의 오케스트라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일반계층 아동·청소년이 함께 음악 활동 참여를 통해 타인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예술적 경험을 통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인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또한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를 통한 긍정적 변화 결과를 사회에 공유함으로써 가족과 지역사회의 변화, 나아가 건강한 사회적 통합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주요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음악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변화를 추구함. 남지영(2012)은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학생들로 하여금 단체구성원 중 한사람으로서 역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긍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음. 이에 본 꿈의 오케스트라는 음악활동을 통해 아동의 자존감 고취와 지역사회의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교육 및 특별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함.
 - 다양한 계층 또는 문화적 기반의 아동들이 함께 어울려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함. 이를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60% 이상 구성 의무화, 70% 권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혜대상을 관리함. 또한 사회적, 가정적 돌봄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다면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주 2회 3시간씩 정기교육 실시하고 캠프, 연주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함.
 - 행정주체와 교육주체의 공동협력을 통해 거점기관의 성장을 도모함. 이를 위해 상호 간의 역할에 대한 개방적인 이해와 상시적인 역할협력을 통해 상호발전을 추구함. 또한 교육주체의 뚜렷한 교육철학, 목표의식, 열정과 의지를 기반으로, 실행주체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조율과정을 통해 공동운영체제를 갖춘.
 - 아동의 음악적 성취 및 아동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엘 시스템아 철학을 바

탕으로 교육을 수행함.

-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협력기관과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꿈의 오케스트라 모델을 구현함.
- 또한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 및 활동을 통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의 다면적 성장 역량을 강화시키고 함께하는 연주와 공연을 통해 음악적 성취와 상호학습과 리더십, 즐거움을 통한 기회가 소외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변화로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데 미션을 두고 있음.

1.2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체계

- 꿈의 오케스트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예술교육진흥교육원과 거점기관의 주관 하에 광역·기초 단체 및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들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처럼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의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행정주체와 교육주체의 공동협력을 통한 거점기관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꿈의 오케스트라 모델을 구현해 나가고 있음.



<그림 II-1>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체계

-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지역별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거점기관은 정규교육 실행 이전에 행정 및 교육 간의 균형과 조화에 의한 운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선발된 예비지원 거점기관을 대상으로 지역거점 기관에서 오케스트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음악대학, 지역아동센터 등 연계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역 내 다른 아동 청소년 오케스트라와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의 중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음.

- 거점 지역에서 엘 시스템아 철학을 바탕으로 소외아동·청소년의 복지적 음악교육 지향을 위한 관계자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 등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 수행한 거점기관으로서 선도기관인 지역협력 거점기관, 7년차 이상은 자립 거점기관으로 안정적으로 자립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점기관 로드맵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운영기관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음.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거점 간 네트워크와 서울·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거점기관 간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관과 참여 인력 간의 교류를 증진시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거점기관의 자발적인 성장과 확장을 돕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표 II-1〉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기관 지원체계

구분	신규·연속거점기관	지역협력 거점기관	자립 거점기관
기간	1년차(신규), 2-3년차(연속)	4-6년차	7년차 이상
기관수	9	13	19
지원 규모	최소 100백만원 ~ 최대 180백만원	▶ 최소 60백만원 ~ 최대 70백만원	▶ 30백만원~50백만원
지원 형태	자부담 매칭 (1년/10%, 2년/20%, 3년/30%)	▶ 자체예산 매칭(50%) 에 따라 지원 규모 상 이	▶ 자부담(운영비 전액), 국고(기획사업 지원 및 간접지원)
목표	지역 특성에 적합한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기관으로 성장	▶ 지역 아동·청소년 오케 스트라 활동 안정화 및 정착	▶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서 꿈의 오케스트라 모델구 축 및 자립운영

1.3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현황

- 201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꿈의 오케스트라는 2011년 9개 거점기관에서 80명의 교육인력과 470명의 아동이 참여하던 사업에서 2019년 예비거점을 제외한 41개의 거점기관에서 587명의 교육인력과 2,804명의 아동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임.
- 본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18년 44억 5천 8백만원에서 2019년 45억 5천만원의 규모로 증가하였음.

〈표 II-2〉 꿈의 오케스트라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규모	590	1,014	3,608	4,608	4,958	4,958	4,958	4,958	4,458	4,550
운영기관	8	9	19	30	35	39	42	43	43	41
수혜아동	470	425	979	1,521	1,920	2,111	2,421	2,206	2,439	2,804
교육인력	80	98	191	325	365	375	427	525	544	587

* 2019년 현황의 경우 교부신청 기재 내역 기준으로 작성됨(예비거점과 사업비 미교부 5개소 제외)

- 2019년 기준 꿈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46개 기관은 서울 5개, 경기 11개, 강원 7개, 전북과 경남은 각 4개, 충남과 경북은 각 3개, 충북과 전남, 광주 각 2개, 세종, 부산, 대구 지역은 각 1개로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여 운영되고 있음.

〈표 II-3〉 지역별 거점기관 수(2019년 기준)

지역	기관수	지역	기관수
서울	5	광주	2
경기	11	경남	4
세종	1	부산	1
충북	2	대구	1
충남	3	경북	3
전북	4	강원	7
전남	2	총	46

*2019년 예비거점 2개소(미포함)

2.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

2.1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의 평가 영역

-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들은 아동, 학부모, 교육강사 및 음악 감독, 행정 직원 및 지역사회(주민) 등 본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음.
-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에 주목한 초창기 연구들은 본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효과적인 측정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효과성 측정 영역과 지표를 제안하는데 연구의 관심을 두었음.
- 효과성 측정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는 초창기 연구로 정익중 외(2011)는 개인-가족-지역 사회의 확산 구조 논리모형에 근거하여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효과를 단기와 장기영향평가로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제안함. 구체적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단기영향평가지표로는 음악적 영역에서 음악적 태도, 음악적 표현과 기술, 음악적 지식, 음악의 생활화를, 인지적 영역에서는 학업성취, 다중지능이 도출되었음. 또한 가족의 관심과 참여, 부모 효능감의 증가, 양육 스트레스의 감소를 주요 효과성 지표로 제안함. 또한 장기적 영역의 효과 지표로 사회적 자본, 진로성숙도, 행복감, 공동체성의 증가와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와 지역사회 효능감의 증가를 제안함.
- 박신의 외(2012)는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검증을 위한 평가 모형과 이에 따른 주요 지표 개발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설정함. 이에 따라 CIPP(Context, Input, Process, Product)의 평가 모형에 근거하여 음악 접근권 확보와 오케스트라 경험(음악교육), 자존감 형성, 사회성 향상의 3개 영역으로 효과성을 구성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악교육 영역에서는 음악성 계발과 개념 습득, 동기부여, 참여도를 자존감 형성 영역에서는 자아개념, 유능감, 책임감, 자기규제, 자주성과 성취감, 공동체 사회성 영역에서는 예의, 존중의 태도, 소속감, 공동체 의식, 협업을 주요 평가 차원으로 제안함.
- 비슷한 관점에서 백령 외(2014)도 CIPP 모형에 근거하여 상황 평가(사회취약계층 대상 예술향유 교육의 목표, 교육기관의 운영 능력), 투입 평가(선발기준 및 대상 선발 방법, 교육 프로그램 계획,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및 재정), 과정 평가(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방법, 자원 활용), 성과 평가(교육 효과와 만족도)의 영역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함.
- 꿈의 오케스트라의 효과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접근되었으며, 특히 아동의 변화는 가장 많은 선행연구들이 주목한 효과성 영역임. 본 사업 참여로 인한 아동의 음악적 성장, 정서 및 인성의 변화, 관계적 역량 변화 등 다각적 관점에서 본 사업의 효과성이 검증되었음.

- 예를 들면 성도의와 김세준(2012)은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으로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주목하였음. 분석 결과 본 사업 참여는 아동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며, 구성요인인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검증하였음. 또한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후 아동의 사회성과 문화예술 관심 수준이 높아졌으며, 교육강사들은 특히 본 사업 참여가 아동의 문화예술 관심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함.
- 최종희(2016)는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들을 대상으로 본 사업 참여를 통해 자신이 향상된 부분에 대한 자기 평가를 분석한 결과, 본 사업 참여로 아동들은 음악성, 자신감, 협동심, 사교성이 향상되었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밝힘.
-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에 관한 일부 선행연구들은 본 사업과 관련한 특정한 요인에 주목하고 이에 따른 효과성을 밝히고자 하였음. 이러한 연구 흐름에서 이신영(2013)은 꿈의 오케스트라 만족도에 따른 효과성에 주목하였고,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 만족도와 사회성 성숙도 및 사회성(근면성, 사교성, 자주성, 준법성, 책임성, 협동성, 공감적 이해) 함양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함.
- 성지경(2015)은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동기에 따른 효과성에 주목하여 연구한 결과,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동기 요인은 아동의 정서, 리더십, 의사결정기술, 인관관계기술, 조직관리 기술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규명함.
- 최도인 외(2014)는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중에서도 합동 공연에 주목하여 효과성을 검증함. 합동 공연의 효과성 평가를 문화적/예술적, 개인적/조직적, 사회적/관계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사업 참여 관계자인 아동, 지역거점, 정책 및 기획 주체의 관점에 따라 각 영역별 효과성을 평가함. 평가 결과, 예술적 역량 향상이 아동뿐만 아니라 교육강사와 학부모가 인지하는 합동 공연의 가장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남. 또한 이와 같은 아동의 예술적 성장에 기초하여 자존감 향상과 자아실현의 계기가 마련되고, 이러한 개인적 성장은 합동 공연을 통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공동체의식과 삶에 대한 애착과 희망 등 관계적 효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의 합동 공연은 합동 공연 선발과정의 견인효과 및 합동공연 참여 이후의 파급 효과가 지역 거점에서 나타남. 합동 공연을 통한 예술적 성취는 사업 기획의 체계화와 다각화 계기를 마련하여 정책 및 기획 주체 영역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전수환 외(2015)는 본 사업의 효과성 분석 결과를 근거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중장기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음. 이들은 거점기관의 관계자(음악감독 및 교육강사/ 행정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이 인지하는 아동의 참여 효과로 편안함, 안정, 즐거움, 공격성 및 폭력성, 자신감, 주체의식, 자기존중, 성취감, 이해심, 배려심, 상호협력, 화합, 유대감, 내면적 동기와 의지, 집중력, 인내심의 요인을 도출하였음. 또한 이러

한 아동 변화를 중심으로 행정-교육실행팀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성장하고, 가족에도 긍정적 영향을 확산시키며, 나아가 지역에 균등한 문화향수와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산시키는 사회적 효과가 있음을 도출함.

- 백선영(2019)은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로 아동의 효과로, 다양한 예술 활동의 경험, 자신감 및 자존감, 사회성의 향상을 제시하였음. 또한 이와 같은 개인적 발달과 함께 아동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남을 규명함.
-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에 관련한 일련의 연구 결과에 나타난 평가 대상 및 주요 평가 내용은 <표 II-4>와 같이 요약 제시할 수 있음.

<표 II-4>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 평가 내용

연구자	대상	평가 내용
정익중 외 (2011)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영향평가 음악적 영역: 음악적 태도, 음악적 표현과 기술, 음악적 지식, 음악의 생활화 정의적 영역: 협동심, 대인관계, 자기관리(절제) 능력, 성취감, 자신감, 자기표현 능력,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력, 학교적응력 인지적 영역: 학업성취, 다중지능 행동적 영역: 친사회적(긍정적) 행동, 문제행동 감소 • 장기영향평가 사회적 자본, 공동체성 진로성숙도, 행복감(삶의 질), 꿈과 비전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영향평가: 부모의 관심과 참여, 양육 스트레스 감소, 학대 감소 • 장기영향평가: 부모와의 관계
	교육강사	효능감
	지역사회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 지역사회 효능감
박신의 외 (2012)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 접근권 확보와 오케스트라 경험(음악교육): 음악성 계발과 개념 습득(이해, 감상, 연주, 심미적 체험), 동기부여(음악적 취향과 향수 욕구, 학습동기 부여), 참여도(출결석 빈도수, 의지, 지속성) 자존감: 자아개념, 유능감, 책임감, 자기규제, 자주성과 성취감 공동체 사회성: 예의, 존중의 태도, 소속감, 공동체 의식, 협업
최도인 외 (2014)	아동/ 학부모/ 교육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적/조직적 영역: 아동의 예술적 역량증진, 자존감 사회적/관계적 영역: 아동의 공동체 의식
	교육강사 /사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적/예술적 영역: 지역거점의 예술적 역량(강사), 사업 기획과 연구의 체계화(사업팀) 개인적/조직적 영역: 사업 가치 및 방법론 공유(강사) 정책적 가치 공유(사업팀) 사회적/관계적 영역: 네트워크 확산(강사, 사업팀) 사회적 인식 제고(사업팀)
백령 외 (2014)	아동, 학부모, 지역주민, 음악감독/교 육강사, 행정직원/코 디네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평가: 사회취약계층 대상 예술향유 교육의 목표, 교육기관의 운영 능력 투입평가: 선발기준 및 대상 선발 방법, 교육프로그램 계획,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및 재정 과정 평가: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방법, 자원 활용 성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효과: 공연 등 산출물 평가,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프로그램 목표 달성 여부, 학습자 인성 및 사회성 함양 여부, 음악 향유 능력) - 학습자 만족도

성도의, 김세준 (2012)	아동 교육강사	자기효능감(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문화예술 관심도, 사회성
이신영 (2013)	아동	사회성(근면성, 사교성, 자주성, 준법성, 책임성, 협동성, 공감적 이해)
성지경 (2015)	아동	정서, 리더십, 의사결정기술, 인관관계기술, 조직관리기술
최중희 (2016)	아동	음악성, 자신감, 협동심, 사교성
전수환 외 (2015)	아동	편안함, 안정, 즐거움, 공격성 및 폭력성, 자신감, 주체의식, 자기존중, 성취감, 이해심, 배려심, 상호협력, 화합, 유대감, 내면적 동기와 의지, 집중력, 인내심
	가족, 행정-교육 실행팀, 지역주민	사명감, 소명의식, 가족의 변화, 지역사회 교육기회 확대, 사회통합
백선영 (2019)	아동	다양한 예술활동 경험, 자존감, 사회성, 일상에서의 예술 향유

2.2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의 연구방법론

- <표 II-5>는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연구방법을 요약 제시한 것임.
-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들에는 크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방법이 적용되고 있음.
- 양적 연구방법에서는 대다수의 연구들이 참여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사용되고 있음. 설문조사의 대상은 주로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단원 아동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로 인한 아동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꿈의 오케스트라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단원의 보호자, 음악감독 및 교육강사, 행정담당자, 지역주민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꿈의 오케스트라의 효과성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밝히고자 하였음.
- 양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성지경(2012)의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해 꿈의 오케스트라의 효과성을 제시하였음. 또한 백령 외(2014)는 꿈의 오케스트라의 상황, 투입, 과정, 성과와 관련한 의사결정 관점을 기반으로 각 과정과 관련한 아동, 학부모, 지역주민, 음악감독 및 교육강사, 행정직원 및 코디네이터의 응답을 설문조사를 이용해 수거하여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효과성을 분석하였음.
-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 연구에서 효과성의 측정 시기는 주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또는 참여 후의 한 시점을 측정 시점으로 하는 횡단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백령 외(2014)는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의 한해 사업의 종료 시점에서 효과성 지표들을 측정하고 각 지표별 기술적 통계량의 특성을 제시하였음. 성도의, 김세준(2012)은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해 참

여 아동을 참여 전과 참여 후에 조사하고 사전과 사후 비교를 통해 아동의 변화를 검증하였음.

- 질적 연구방법에서는 개별(심층 인터뷰) 또는 그룹 단위(FGI)에서 인터뷰가 주된 방법론으로 적용되고 있음.
- 전수환 외(2015)는 꿈의 오케스트라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통한 효과성 확보를 위한 사업의 운영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거점기관을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관찰하고, 교육강사, 예술감독, 행정담당자, 수석강사 별 심층그룹 인터뷰를 통해 거점기관별 운영요인 심층 분석과 니즈를 수렴 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음.
- 지금까지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에 적용된 연구 방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비교집단 또는 사전, 사후 집단 비교와 같이 참여로 인한 변화의 면밀한 검증을 위한 조사 설계의 필요성,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한 효과성 검증에 집중되고 있는 연구 방법론의 다각화와 장기적 효과 검증을 위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음.
- 특히 몇몇의 선행연구들은 꿈의 오케스트라 평가와 관련한 방법론의 개선 및 접근의 다각화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음. 김경태 외(2017)는 꿈의 오케스트라 평가 체계 개선에 관심을 갖고 전문가 평가 결과를 삼각측정법(triangulation)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결과를 분석함. 분석 결과 학생 및 학부모의 모니터링 평가모형의 추가적 제안, 상시 모니터링 평가체제로의 전환 필요성,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목표 및 원칙에 부합하는 평가 문항의 적용 필요성을 제안하였음.
- 최도인 외(2014)는 꿈의 오케스트라의 효과성은 한 영역과 관련한 일부 이해관계자의 관점으로 한정하지 않아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과 접근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음. 이에 따라 최도인 외(2014)는 꿈의 오케스트라의 합동공연의 효과성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을 관찰하고, 참여한 아동들을 현장에서 직접 심층 인터뷰하는 질적 연구 방법과 함께 설문조사를 이용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음. 또한 아동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근거점을 마련하고자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 중에서 합동공연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들을 대조집단으로 설정하고 실험군인 참여 아동 집단과 비교 분석하였음. 나아가 학부모 및 지역거점 교육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합동공연의 효과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 판단이 학부모나 교육강사의 관점과 일치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아동 설문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표 II-5〉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 연구방법*

연구자	연구방법				
	대상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연구방법	내용	연구방법	내용
최도인 외(2014)	아동	설문조사	중간, 사후조사	심층면접, FGI	프로그램 중간, 사후 4회 조사
	학부모/교육강사	설문조사	사후조사	참여관찰	1회
성도의, 김세준 (2012)	아동	설문조사	사전, 사후조사		
	교육강사	설문조사	사후조사		
이신영 (2013)	아동	설문조사	사후조사		
성지경(2015)	아동	설문조사	사후조사		
최종희(2016)	아동	설문조사	사후조사		
백령 외(2014)	아동/학부모 /음악감독 및 교육강사/행정담당자	설문조사	사후조사		
	지역주민	설문조사	사후조사		
전수환 외(2015)	음악감독 및 교육강사/ 행정담당자	설문조사	개방형 조사	심층면접	개별 또는 그룹단위
백선영(2019)	아동			참여관찰, 관찰일지, 인터뷰	개별 또는 그룹단위

*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방법에 한정된 것으로,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등의 방법론은 포함하지 않음

3.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패널 선행 연구 고찰

- 패널 연구는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시점에서 지속적인 반복 측정을 실시하는 조사 기법임. 패널 연구는 조사 대상의 차이에서 오는 외생 요인의 영향력을 배제하면서 현상의 변화 또는 어떠한 자극의 장기적 효과나 누적 효과를 검증하기에 효과적인 연구 방법임.
- 이와 같은 패널 연구의 특성 상 패널 연구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 과정과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우수성이 높기 때문에, 아동 및 청소년을 패널로 구성하고 이들의 변화와 관련한 종단적인 연구를 수행하려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노력이 있었음.
- 국내의 초창기적 청소년 패널 연구로 대표적인 연구는 청소년 패널 연구임.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잠재적 직업선택, 향후 진로설정 및 준비·일탈행위·여가참여 등에 대한 청소년 생

활 실태와 관련한 전반적 자료 수집을 위해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개의 코호트로 패널을 구성하여 2003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였음. 조사의 주요 내용은 현재 및 향후 진로 계획, 진학 및 대학 생활, 고용 노력과 상태 및 고용 환경, 여가 생활, 수련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 부모, 친구, 교사, 지역사회의 관계, 자아통제, 컴퓨터 및 핸드폰 이용 행동, 학업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 공격성, 분노, 우울, 불안, 자살충동, 스트레스, 성역할 정체감, 삶의 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상태로 구성되었음.

- 청소년 패널 연구에서 주요 측정 변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별 추적을 통한 개별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보호자는 전화면접을 통해 보호자의 특성과 관련한 사회경제적지위만을 측정함.
-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연구는 한국청소년 패널 조사의 후속 조사로 청소년들이 주어진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음. 본 연구는 2010년에 확정된 원 표본 7,071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7년까지 추적 조사가 진행되었음.
 - 2015년 12월에 종료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연구의 제6차 조사의 원표본 유지율은 87.5%로서 다른 패널 조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연구는 단기간의 조사이고 표본이탈(sample attrition)이 적음을 고려하여 표본대체가 없는 동일표본설계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표본이탈로 인한 대표성의 문제를 데이터 가중치 설정을 통해 보정하고 있음.
 - 주요 조사 내용은 개인발달(신체발달, 지적발달, 사회정서발달, 비행, 생활시간), 발달환경(가정환경, 친구관계, 교육환경, 지역사회 환경, 매체환경, 활동 및 문화 환경)으로 구성함.
- 다문화 청소년패널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음.
 - 다문화 청소년패널 연구는 2011년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 아동과 그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7년간 추적 조사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주요 조사 내용은 다문화 특성(언어능력, 이중문화경험, 다문화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개인 특성(신체, 사회, 정서, 행동), 인지, 환경적 특성(부모와의 관계, 학교생활, 지역사회 지지망), 진로 결정, 학업 중단 요인, 학습 활동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표 II-6〉 아동 및 청소년 국내 양적 패널연구

패널연구	연구목적	패널 구축 시점 연구 대상	연구 기간	추적 기간 (2019.3 기준)	조사내용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청소년들의 잠재적 직업 선택·향후 진로설정 및 준비·일탈행위·여가참여 등의 생활실태에 대한 추적 조사	초등 4학년 중등 2학년	초등 4 2004~ 2008년 중등 2 2003~ 2008년	5년 / 6년	현재 및 향후 진로 계획, 진학 및 대 학 생활, 고용 노력과 상태 및 고용 환경, 여가 생활, 수련활동 및 자원 봉사 활동, 부모, 친구, 교사, 지역사 회의 관계, 자아통제, 컴퓨터 및 핸드 폰 이용 행동, 심리적 상태(학업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자기신뢰감, 공격성, 분노, 우울, 불안, 자살충동, 스트레스, 성역할 정체감, 삶의 만족 도)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조사	한국 청소년패널조사 (2003~2008년) 후속 조사로, 청소년들이 주 어진 발달과업을 성공적 으로 완수하고 사회공동 체의 일원으로서 건강하 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초등 1학년 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2010년 ~ 현재	7년 (연구 지속 중)	개인발달(신체발달, 지적발달, 사회정 서발달, 비행, 생활시간), 발달환경 (가정환경, 친구관계, 교육환경, 지역 사회 환경, 매체환경, 활동 및 문화 환경)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비 (非)다문화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청소 년에 대한 객관적인 특 성 파악	초4 및 부모	2011~ 2017년	7년 (7년 연구로 설계됨)	다문화 특성(언어능력, 이중문화경험, 다문화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개인 특성(신체, 사회·정서·행동), 인지, 환 경적 특성(부모와의 관계, 학교생활, 지역사회 지지망), 진로결정, 학업중 단 요인, 학습활동
한국아동 패널조사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사회 와 육아정책에 관한 종 단 자료를 수집하여 제 공	2006~ 2008년에 태어난 신생아 가구	2008~ 2027년	11년 (20년 연구로 설계됨)	· 학부모: 학교생활, 집행기능, 일-가 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주관적 사 회경제적 지위, 자녀 용돈 · 아동: 언어능력, 자아존중감, 전반 적 행복감, 학교생활, 미래기대
한국교육 종단연구	교육 전반에 걸친 체계 적 자료 수집, 분석, 제공을 통해 교육 정책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학교 1학년	2005~ 2020년	11차년도 (16년 연구로 설계됨)	시간 활용 및 정치 참여, 자기주도학 습, 인적교류, 해외경험, 자신에 대한 인식, 사회인식, 가정생활 및 결혼, 건강 및 정서적 안정, 향후 계획, 생 애목표의식 및 도덕성, 부모와의 관 계 등
한국 교육고용 패널조사	교육·고용간의 연계성과 학생들의 학교에서 노동 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을 밝혀, 청년층의 인적자 원개발을 위한 기초 자 료를 제공	중·고등학교 1학년 (1차 wave) 고등 2학년 (2차 wave)	2004년 ~ 현재	1차: 12년 (2004 ~2015년) 2차: 2016년~ 현재	학교생활, 학습 및 사교육, 가정생활, 여가생활, 재학 중 근로경험 및 현장 실습, 진로계획 및 직업의식, 건강 및 일반적 특성

-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사회와 육아정책에 관한 종단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음.
 - 2006~2008년에 태어난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27년까지 20년간의 추적 조사 연구로 설계되었음.
 - 주요 조사 내용은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학교생활, 집행기능,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 용돈, 아동을 대상으로는 REVT(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를 이용한 언어능력,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 학교생활, 미래기대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음.
- 한국교육종단연구는 청소년의 교육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 분석과 제공을 통해 교육 정책 자료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됨.
 - 조사는 2005년 조사 시작 시점의 중학교 1학년인 학생을 패널로 구성하여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6년간의 추적 조사로 설계되었으며, 11차의 측정이 진행되었음.
 - 세부 조사 내용으로는 시간 활용 및 정치 참여, 자기주도학습, 인적교류, 해외경험, 자신에 대한 인식, 사회인식, 가정생활 및 결혼, 건강 및 정서적 안정, 향후 계획, 생애목표의 시 및 도덕성, 부모와의 관계 등이 포함됨.
- 한국교육고용패널 연구는 교육과 고용간의 연계성과 학생들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과정을 밝혀 청년층의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계획됨.
 - 2004년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1차 조사는 2015년까지 지속되었고, 2016년부터 2차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학교생활, 학습, 가정, 여가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활동과 함께, 근로 경험 및 진로 계획과 경험에 관한 것으로 구성함.
- 해외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과정과 변화 과정에 따른 종단적 관점의 다양한 연구들이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음.
- 일본의 대표적인 아동패널 연구인 일본 아동패널 조사(JCPS: Japan Child Panel Survey)는 아동의 가정 양육과 학습 환경과 사회 변화간의 관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음.
 - 2010년 초등과 중학교 재학생과 그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패널이 구축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학생 대상 조사의 경우, 학업 성취도(수학, 언어, 추론), 학교 및 가정생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부모 대상 조사의 경우, 자녀 양육 및 교육 환경, 자녀 행동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미국 청년종단 조사(NLSY 79: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는 청소년의 성장 과정부터 성인 이후의 삶을 종단적 관점에서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음.

- 연구 기간은 197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패널은 1979년 14~22세였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축되었음.
- 패널을 통해 구축하는 데이터의 주요 내용은 교육, 훈련, 성취도, 고용, 주거, 양육, 가정, 환경, 결혼, 수입, 건강, 성역할 인식, 자존감, 알콜 및 담배, 약물 행동, 범죄 행동에 관한 것임.
- 미국 아동·청소년종단 조사(NLSY 79 Child/YA: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ng Adults)는 미국 청년종단조사(NLSY 79)에 참여하는 여성의 자녀를 대상으로 구축한 패널 조사임.
 - 조사는 1986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14번의 측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가정환경, 인지, 감정, 사회적 역량 발달 단계(자아 인식, 문제 행동 평가, 언어 발달 능력), 학업 성취 수준(수학, 독해), 학교 동료 관계, 종교 및 학교생활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음.
- 호주 아동패널 조사(LSAC: The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는 부모의 양육, 가족 관계, 교육 고용 및 건강 등 복지와 아동 발달과 관련한 정책 결정의 기초 수집의 목적으로 설계됨.
 - 2003년 시작된 호주 아동 패널 조사는 2003년 0-1세와 4-5세인 아동과 그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가정 재정 및 교육 환경, 자녀 발달 상황, 건강, 주거 환경, 학업 성취도(수학, 언어, 독해), 자녀의 사회적, 감정적 발달, 부모의 양육 스타일, 가족 관계, 사회적 자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뉴질랜드 아동패널 조사(Growing Up in New Zealand)는 아동의 출생 이전부터 청년까지의 성장 과정에 대한 종단적 자료 수집의 목적으로 2010년 시작되었음.
 - 패널은 2010년 조사 시작 시점 임신부를 대상으로 구축되었고, 이후 아동의 출생과 성장 단계에 따라 보호자와 아동들을 대상으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으며, 아동이 프리스쿨에 다니는 54개월 시점부터 아동에 대한 관찰 데이터가 수집되기 시작하였음.
 - 조사의 주요 내용은 아동의 건강, 웰빙, 가정환경, 교육, 심리적 발달 상태, 이웃 및 환경, 문화,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 구성함.
- 스코틀랜드 아동패널 조사(Growing Up in Scotland)는 아동의 성장 과정에 대한 종단적 자료 제공을 통해 정책적 의사결정의 근거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
 - 조사 시작 당시 2004-5년 출생 아동과 2002-3년 출생 아동으로 패널은 구축되었고, 이들의 건강 및 발달 상태, 학업 성취도 및 학교생활, 인지적 발달 상태에 대한 정보가 주요 조사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표 II-7〉 아동 및 청소년 해외 양적 패널연구

패널연구	연구목적	패널 구축 시점 연구 대상	연구 기간	추적 기간 (2019.3기준)	조사내용
일본 아동 패널 조사 (JCPS: Japan Child Panel Survey)	아동의 가정 양육 과 학습 환경과 사 회 변화간의 관계 규명	초·중등 학 생 및 보호 자	2010년 ~ 현재	8년 (연구 지속 중)	학생: 학업 성취도(수학, 언어, 추 론), 학교 및 가정생활 보호자: 자녀 양육 및 교육 환경, 자녀 행동
미국 청년 종단 조사 (NLSY 79: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미국인의 성장과정 과 관련한 주요 변 인 관련 종단적 자 료 확보	14 - 22 세 청소년	1979년 ~ 현재	40년 (27 wave 측정, 연구 지속 중)	교육, 훈련, 성취도, 고용, 주거, 양육, 가정, 환경, 결혼, 수입, 건 강, 성역할 인식, 자존감, 알콜 및 담배, 약물 행동, 범죄
미국 아동·청소년 종단 조사 (NLSY 79 Child/YA: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아동의 성장 과정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관련 영 향 요인에 대한 자 료 확보	미국 청년 종단조사 (NLSY 79) 참여 여성 의 자녀	1986년 ~ 현재	24년 (14 wave 측정, 연구 지속 중)	가정 환경, 인지, 감정, 사회적 역량 발달 단계 (자아 인식, 문제 행동 평가, 언어 발달 능력), 학 업 성취 수준(수학, 독해), 학교 동료 관계, 종교 및 학교 생활
호주 아동 패널 조사 (LSAC: The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부모의 양육, 가족 관계, 교육 고용 및 건강 등 복지와 아동 발달과 관련 한 정책 결정의 기 초 수집을 위한 조 사	2003년 ~ 2004년 0-1세 아동 4-5세 아동 학생 및 학부모	2003년 ~ 현재	17년 (2년 단위 추적, 8 wave 측정, 연구 지속 중)	가정 재정 및 교육 환경, 자녀 발 달 상황, 건강, 주거 환경, 학업 성취도(수학, 언어, 독해), 자녀의 사회적, 감정적 발달, 부모의 양 육 스타일, 가족 관계, 사회적 자 본
뉴질랜드 아동패널 조사 (Growing Up in New Zealand)	아동의 출생 이전 부터 청년까지 성 장 과정에 대한 종 단적 자료 수집	임산부 이후 부모와 자녀 패널 데이터 구축	2010년 ~ 현재	9년 (2년 단위 추적, 4 wave 측정, 연구 지속 중)	아동의 건강, 웰빙, 가정 환경, 교육, 심리적 발달 상태, 이웃 및 환경, 문화, 정체성
스코틀랜드 아동패널 조사 (Growing Up in Scotland)	아동의 성장 과정 에 대한 종단적 자 료 제공을 통해 정 책적 의사결정의 근거 제시	2004년~ 2005년 출생 아동/ 2002년~ 2003년 출생 아동	2005년 ~ 현재	15년 (연구 지속 중)	건강 및 발육 상태, 학업 성취도 및 학교 생활, 인지적 발달 상태

4. 해외 아동·청소년 음악교육 종단연구 및 보고서

4.1 해외 음악교육 관련 종단연구의 동향

- 아동과 청소년 음악교육의 효과를 종단적으로 다룬 연구는 해외문헌에서도 그 수가 많은 편은 아니나, 2000년대 이후로 점차 종단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임영식 외, 2018).
- 2010년 이후를 기준으로 영문 국제학술지 검색을 통해 살펴본 결과, 아동음악교육에 대한 종단연구를 발표한 주요 국가는 호주, 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으로 파악되었으며, 본 연구서에도 이들 국가의 연구논문 결과를 중심으로 문헌검토를 진행하였음.
- 특히 사항으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는 영문으로 발간되는 국제학술지에 미국의 사례가 압도적으로 소개되어 왔으나, 2010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는 다양한 국가에서 종단연구 사례가 발표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영문으로 발표되는 국제학술지 특성상, 여전히 유럽, 미국, 호주 등 영미권을 중심으로 연구 사례와 결과가 소개되고 있음.
- 아래에 제시된 표에서 검토된 각각의 연구는 ‘아동의 변화’라는 큰 주제 안에서 정량, 정성, 혼합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음. 논문의 경우 연구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준실험연구(Quasi-experimental study)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보고서의 경우에는 엘 시스템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참여한 아동에 한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음.
- 음악교육의 효과와 관련하여, 음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효과(예: 음악적 흥미, 연습동기, 연습방법)는 아동음악교육의 다른 효과들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대상을 전문 연주자로 성장시키는 것이 교육의 주요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그러나 사회성과 공감 능력 등 아동의 ‘태도와 가치(Attitude & Value)’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탐구한 연구보다는 다수의 연구들이 인지능력과 지능, 학업성취도와 같은 ‘지식과 이해(Knowledge & Understanding)’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반해 보고서의 경우에는 사회자본과 공동체의 변화 등을 다루어 음악교육의 영향력을 좀 더 큰 틀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도가 특징임.

〈표 II-8〉 음악 관련 효과성 관련 중단연구의 주요 평가 내용

연번	국가	연구자 및 발표년도	연구 기간	연구방법 (형식)	아동의 나이/ 참여수	주목 효과
1	호주	Rickard et al. (2010)	36개월	정량 (논문)	8-9세 142명	언어기억능력 시각기억능력
2	독일	Roden et al. (2012)	18개월	정량 (논문)	6-12세 73명	언어기억능력 시각기억능력
3	호주	Rickard et al. (2013)	24개월	정량 (논문)	6-10세 359명	자존감 학업자존감 부모자존감 사회성(social skill)
4	영국	Rabinowitch et al. (2013)	12개월	혼합 정량+정성 (논문)	8-11세 52명	음악능력 공감능력
5	독일	Hille & Schupp (2014).	144개월 (12년)	정량 (논문)	8세 시작 3941명	인지능력 학업성적 성격 시간사용능력 미래조망능력
6	독일	Roden et al. (2014)	18개월	정량 (논문)	7-8세 50명	작업기억 수행능력 (Working memory performance) 일반지능IQ
7	미국	Hickey (2018)	60개월 (5년)	정성 (논문)	13-18세 700명	자기조절능력 (autonomy) 대인관계력 (relatedness) 유능감(competence)
8	미국	Habibi et al. (2018)	24개월	MRI 청각테스트 (논문)	6-7세 75명	음악능력 청각능력 인지능력 자기조절능력
9	이탈리아	Fasano et al. (2019)	6개월	정량 (논문)	8-10세 113명	자기조절능력 ADHD
10	영국 (스코틀랜드)	Moore & Harkins (2017)	12개월	정성 (보고서)	3-9세 522명	학습능력 삶의 기술 정서적 안정감 사회자본 음악적 성장 건강한 생활습관
11	영국 (잉글랜드, 리버풀)	Burns et al. (2019)	120개월	혼합 정량+정성 (보고서)	- 5-19세 1444명 - 학부모 120명 -음악강사 57명	아동의 변화 가족의 변화 학교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

4.2 해외의 아동음악교육 중단연구 및 보고서 주요내용

4.2.1 교실 내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에 관한 중단연구: 초등학교 아동의 언어 기억을 중심으로(Benefits of a classroom based instrumental music program on verbal memory of primary school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 Rickard 외(2010)의 연구는 학교에서 시행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2년 동안 총 평균나이 약 8.7세 아동 142명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행해진 음악 교육적 효과를 연구하고 분석하였음. 실험집단(n=82)은 집중적인 현악기 음악교육에 참여했고, 비교집단(n=68)은 일반적인 음악 수업을 진행하였음. 이와 함께 또 다른 비교집단으로 신체의 집중력과 순간 반응력을 촉진하는 공을 활용한 저글링 프로그램(juggling program)을 제공하였음.
- 연구방법은 언어적 기억 측정을 위해 총 4가지 척도를 사용함. 사용된 척도들은 언어 정보의 학습능력, 지연된 회상과 인식 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들임. 시각적 회상에 관해서는 Benton의 시각적기억력검사(Visual Retention Test : BVRT; Sivan, 1992)를 진행함. 연구 참여자들은 10초간 시각적 자극을 보고 기억하게 하는 방식의 테스트(총 90분 소요)에 참여했음. 약 1년 후와 2년 후에 다시 테스트를 받았으며, 3년째에는 저글링이나 일반 음악 수업을 계속한 대조군 샘플(n=44)과 비교 테스트함.
- 연구결과, 집중적으로 음악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서 약 1년 후 숫자 스펠과 언어 학습, 기억력에서 더 높은 능력 향상이 발견되었으나, 저글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이와 같은 향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즉 음악교육이 언어 정보의 수집 및 기억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된 결과를 보임.

4.2.2 학교 기반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생의 언어 및 시각 기억에 미치는 영향: 중단연구(Effects of a school-based instrumental music program on verbal and visual memory in primary school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 Roden 외(2012)의 연구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악기레슨을 통해 아동의 언어적·시각적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비슷한 조건을 가진 초등학교를 다수 선정하여 총 73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총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진행됨.
- 음악교육집단(n=25)과 자연과학집단(n=25), 통제집단(n=23)으로 구성되었으며, 음악 프로그램은 주당 45분 기악 수업을 포함하여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되었음. 자연과학 수업 역시 같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음.
- 연구결과, 음악 트레이닝을 받은 집단의 학생들은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연령 및 IQ를

통제한 후에도 다른 집단의 아동보다 언어적 기억 능력에서 더 큰 향상을 보였으나, 시각적 기억 검사에서는 그룹 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음악교육을 받은 아동이 언어기억능력에 있어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4.2.3 삶의 기술 조율하기: 강화된 학교 기반 음악 수업이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Orchestrating life skills: The effect of increased school-based music classe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self-esteem)

- Rickard 외(2013)의 연구는 음악교육이 사회적 능숙함과 자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진행된 바 있음. 참가자들(n=359)은 예비 1학년(n=210)과 3학년(n=149)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업은 Kodaly 음악을 기반으로 하되, 3학년 대상에서는 현악기 기반의 추가 수업으로 구성하였음. 비교집단으로는 체조수업을 진행한 그룹과 두 수업 모두 진행하지 않은 통제집단으로 설계됨.
- 연구방법으로 모든 문화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존감 척도(Culture-Free Self Esteem Inventory)를 사용했으며, 사회적 기술 평정 시스템(Social Skills Rating System; Gresham & Elliot, 1990)을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음.
- 연구결과, 학교 기반 음악 수업이 두 집단 모두에게 자존감의 감소를 막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집단에서는 일반적/학문적 자부심이 향상됨. 더불어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체조활동 역시 아동의 자긍심 향상에 유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연구결과는 예술기반 활동의 빈도와 품질을 높이는 것이 초등학생들의 자존심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함.

4.2.4 장기 음악 그룹 상호작용이 아동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Long-term musical group interac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empathy in children)

- Rabinowitch와 Burnard(2013)의 연구는 음악은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정서적 공감 능력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1년 동안 자체 제작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전, 사후 테스트를 통해 실험연구를 진행한 바 있음. 이 실험에는 총 52명(여:28, 남:24)의 아동이 참여했으며, 대부분의 아동은(67%) 이 과정에서 적어도 하나의 악기를 연주했으며 음악 게임의 형태로 다양한 음악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 효과 측정은 얼굴표정매칭(Matched faces), 공감, 기억검사를 사전, 사후로 측정 비교함.
- 감정적 공감은 세 가지 독립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되었음. 얼굴표정매칭의 경우 아동들은 주인공들이 감정적인 경험을 하는 짧은 동영상(25~76초)을 본 후, 그 동영상을 볼 때 주인공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가장 잘 묘사한 얼굴을 선택하기(보기 6개), 일치하는 얼

굴 표정에 대한 선택은 아이의 경험이 주인공의 감정적 상태와 유사하거나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하여, 공감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공감 지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 보고 설문지로 ‘함께 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소녀를 보는 것은 나를 슬프게 한다.’, ‘나는 내가 직접 선물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선물을 여는 것을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졌음.

- 연구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은 연구 시작 이후 언어 능력과 공감 능력이 통제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음악교육이 공감과 같은 사회적-정서적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음.

4.2.5 악기를 배우는 것이 어떻게 아동의 기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How learning a musical instrument affects the development of skills)

- Hille와 Schupp(2015)의 연구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악기를 배우는 것이 인지 및 비인지 기술(development of cognitive and non-cognitive skills)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장기간 아동의 성장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음. 분석 항목은 인지능력, 학교 성적, 성격 특성, 시간활용능력, 미래조망능력임.
- 2001-2012년까지 진행된 이 연구는 청소년 패널조사로 8세 이전에 학교 밖 음악교육을 시작하여 17세까지 이어오고 있는 3,941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음악에 대한 장기간 노출의 영향을 분석한 것임.
- 연구결과로, 부모의 배경 차이를 통제한 후에도 음악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줌. 이들은 비교 그룹보다 매일 TV를 시청할 확률이 11% 낮으며,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의지가 8%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됨. 즉 지속적인 음악교육은 개방성 및 야망을 높이는 요인이며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더 큰 폭으로 나타남.

4.2.6 음악교육은 기억력을 향상하는가? 준실험적 종단연구를 통한 발견들(Does music training enhance working memory performance? Findings from a quasi-experimental longitudinal study)

- Roden 외(2014)의 연구는 음악수업은 과학수업보다 아동들의 기억력(working memory performance)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하였음. 7-8세 아동 50명을 대상(실험/통제집단 각 25명)으로 18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연구기간 동안 통제 집단(n=25, 남: 13, 여: 12)에게는 과학 프로그램을, 실험 집단(n=25, 남:10, 여: 15)에게는 주 45분의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 과학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 교과과정을 기반으로 하되 심화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음악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아동이 관심을 가진 악기(기타, 바이올린, 첼로, 플룻, 트럼펫, 키보드, 드럼)를 배우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음.

- 기억력에 대한 평가는 3가지 측정 요인별로 7가지 하위 테스트를 통해 구성되었고 연구 기간 내 총 3번의 평가가 있었음. 사전 테스트로는 참가자들의 지능 지수(IQ), 사회 경제적 배경 및 음악적 배경에 대한 설문도 수행함. 사회 경제학적 배경은 부모의 교육과 수입으로 구분했으며 음악적 배경은 음악 훈련을 포함한 과외 활동/경험으로 분류하였음.
- 연구결과, 과학수업보다 음악교육을 받은 아동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수한 발달 과정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인지 기능의 측면에서 학습 효과가 강하게 나타남.

4.2.7 “우리는 모두 음악을 배우기 위해 온다”: 5년간의 소년원 음악 프로그램에 관한 질적 연구(“We all Come Together to Learn About Music”: A qualitative analysis of a 5-Year music program in a juvenile detention facility)

- Hickey(2018)에 의해 진행된 이 연구는 랩 작곡 수업을 통해 지역의 교정시설 청소년들에게 일어난 긍정적 변화를 구조화하여 연구한 질적 연구임. 이 연구는 700명의 청소년 참여자를 대상으로 약 5년간의 종단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이들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틀로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를 사용하여 이 중 하위 요소인 자기조절능력(autonomy), 대인관계능력(relatedness), 유능감(competence)등에 랩 작곡 수업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음.
- 특히, 이러한 결과는 PYD(Positive Youth Development)프로그램의 활용과 적용에 있어 기존의 오케스트라나 성악 등 순수예술이 아닌 대중음악 장르인 랩을 활용하여 위기 청소년들이 직접 노래를 만들고 가사를 붙이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더하고 있음.
- 연구는 청소년들의 피드백과 인터뷰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청소년들은 크게 랩 작곡을 통해 유능감과 긍정적 기분을 느끼는 것을 가장 큰 보상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창의력이 이 과정을 통해 발전된다는 사실이 연구결과를 통해 발견되었음. 연구자는 이를 통해 교정시설에서 PYD 프로그램의 적용에 있어 다양한 음악 장르의 활용을 고려할 것을 제안함.

4.2.8 음악교육과 아동발달: 최근 종단 연구의 결과 검토(Music training and child development: a review of recent findings from a longitudinal study)

- Habibi 외(2018)의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주요한 연구 목적은 청각을 포함한 주요 뇌 기능이 타고난 뇌 구조의 차이인 생물학적 특징에 의해 비롯되는 것인지, 혹은 장기간 음악교육이나 훈련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밝히고자 함이었음.
- 추가적으로 연구자들은 후천적인 음악적 교육을 통해 뇌의 기능이 발전한다면, 이러한 과정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청각능력과 신경 활성화 과정의 변

화를 MRI로 추적함으로써 발견하고자 하였음.

-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모두 75명으로 이들은 6-7세의 로스엔젤레스 주변 낙후된 지역에 위치한 공립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음. 연구진은 이들을 총 세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음. 음악교육그룹인 아동은 총 21명으로 이들은 엘 시스템아 프로그램인 'Youth Orchestra of Los Angeles'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비교집단인 스포츠그룹은 총 23명으로 축구와 수영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 나머지 비교집단인 31명의 아동은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은 아동들로 구성되었음.
- 뇌 구조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아동들의 손놀림 측정(Bruininks-Oseretsky Test of Motor Proficiency), MRI 촬영을 활용한 뇌 이미지 촬영(피질 분석, 확산 분석, 청각피질·하전두·말두 분석)을 진행함.
- 연구결과 오케스트라 활동은 아동에게 거시적, 미시적 뇌의 변화를 유발하며, 이러한 변화는 생물학적 특성이 아닌 음악적 활동에 기인한 것임을 증명하였음. 예시로 사전 테스트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두 그룹 사이의 뇌 구조 차이가 2년 후에는 변화된 것으로 드러남. 특히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한 아동들과 그렇지 않은 아동들은 (1)서로 다른 피질 두께의 성숙도를 보였으며 (2)상전두와 감각, 운동부를 연결하는 부분의 이방성(anisotropy)이 높은 것으로 밝혀짐.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오케스트라 활동이 취학 연령의 아이들에게 거시적, 미시적으로 뇌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결론 내림.
- 연구결과,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한 아동들이 청각 능력에서 비교집단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는 것을 관찰했고 관련 뇌 변화를 이미지로 제시했음.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들은 나머지 두 비교집단에 비해 반응 억제에 관련된 뇌의 특정 영역에서 인지 억제 테스트를 수행하는 동안 더욱 강한 신경 활성화를 보였음.

4.2.9 단기 오케스트라 교육이 취학 연령 아동의 과잉행동과 절제력 조절에 미치는 영향: 중단적 행동 연구(Short-term orchestral music training modulates hyperactivity and inhibitory control in school-age children: A longitudinal behavioral Study)

- Fasano 외(2019)의 연구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에 음악교육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연구를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연구대상을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연구참여자는 113명의 8~10세 아동이었음. 실험집단은 3개월의 짧은 오케스트라 훈련과 콘서트까지 마친 아동 58명의 오케스트라 참여그룹과 오케스트라 비참여 그룹 55명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음.
- 연구방법으로는 아동과 학교 선생들을 중심으로 과잉행동 테스트 점검지를 통해 자료를 수

집하였으며, 총 4개의 테스트가 수행되었음. 아동의 주의력 테스트, 과잉행동정도를 측정하는 테스트로 학생용 테스트와 교사용 테스트, 아동의 과잉행동 조절력 테스트,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는 테스트 등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정도를 판단하는 이탈리아 내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진행되었음.

- 연구결과, 비록 3개월의 짧은 오케스트라 활동이라 할지라도, 체계적이고 질 높은 음악교육을 받은 아동의 경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A)의 방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이는 장기간의 음악 활동이 아닌 단기간의 음악 활동도 충분히 아동의 성장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밝힌 사례연구로 볼 수 있음,

4.2.10 시스템마 스코틀랜드-빅 노이즈 토리 평가: 기초연구 결과 보고서(Evaluating Sistema Scotland-Big Noise Torry: initial findings report)

- Moore와 Hakins(2017)에 의해 완성된 이 보고서는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엘 시스템마의 교육프로그램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기술한 연구보고서임. 시스템마 스코틀랜드는 오케스트라 단원이 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의 개인적 안녕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발현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2008년부터 진행되어 온 프로그램임. 스코틀랜드 예술위원회는 세 개의 지역(Govanhill은 2008년 설립, Glasgow는 2013년 설립, Aberdeen, 2015년에 설립)에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애버딘(Aberdeen) 지역의 아동을 중심으로 기술된 보고서임.
- 언급한 세 개의 빅 노이즈 센터는 2017년 기준 총 2,000명의 아동이 참여했으며, 프로그램 제공 방식은 유치원 대상(nursery Big Noise), 학교 내 실시(in-school), 방과 후(after-school)로 구분되며 이밖에도 콘서트 여행 그리고 광범위한 커뮤니티 활동을 수반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애버딘 지역의 빅 노이즈 토리(Big Noise Torry)¹⁾를 중심으로, 오케스트라 활동참여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목적은 빅 노이즈 토리 참여로 나타나는 초기 영향에 관한 기술과 설명,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실행의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 구성과 발전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음. 이는 2019년 꿈의 오케스트라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기에 연구의 방법과 도출된 결과를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보고서에서 이용한 주요 연구방법은 다음

1) <Big Noise Torry>는 2017년 기준 522명(3-9세)의 아동이 참여함
 약 157명의 참여 아동이 유치원 활동에 참여함(nursery Big Noise)
 약 235명의 아동은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에 참여함
 약 130명의 아동은 방과후로 진행되는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에 참여함
 이 중 90명의 아동이 여름에 진행되는 학교 휴일 프로그램에 참여함

과 같음.

- 구조화된 관찰(structured observation): 관찰은 빅 노이즈 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참여자에게 나타난 영향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지속함에 따라 나타난 참여자들의 성장 과정을 기술하기 위해 시행되었음. 총 170시간의 관찰이 이루어졌으며, 이 자료는 이후 사례연구의 참여자를 식별하기 위해서 이용됨.
- 예술기반 연구의 일환인 그림 분석(Creative drawing exercise): 연구 참여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45분 동안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이 나이에 적합한 것(age-appropriate)이라 판단하고 시행함. 주제는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혹은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지’, ‘오케스트라 활동을 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등을 통해 아동들이 인사이트와 프로그램 피드백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총 130명의 아동이 그린 390점의 그림이 분석에 이용되었음. 또한, 분석 과정에서 교육강사, 음악가,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여 아동들의 관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 달기 활동을 하였으며, 각 그룹에 퍼실리테이터를 배치하여 아동이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묘사하고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한 논의를 끌어내도록 설계하였음.
-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 인터뷰는 음악가(n=8)와 자원봉사자(n=3)를 대상으로 각 약 20분 정도로 진행되었음. 공통적으로 도전과제와 성공요인, 오케스트라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개인·공동체 차원의 영향, 음악가와 자원봉사자들의 배경과 경험이 주요 질문이었음. 집단 간에 질문에 차이를 두었는데, 먼저 음악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는 ‘오케스트라 활동이 아동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는지’를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프로그램 영향에 대한 관점을 수집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교육강사들이 생각하기에 핵심적인 저해 요인에 관한 토론 또한 포함되었음. 자원봉사자에게는 현재의 오케스트라 활동 접근법의 강점과 향상을 위한 기회 등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질문이 이루어졌음.
- 설문조사(Grounded Survey): 정성적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는 총 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학교 교사, 교장, 부장교사, 지역 파트너,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에게 실시됨. 각 집단의 설문지는 각 지역의 맥락을 반영하여 조금씩 다르게 구성하였으며, 지역에 살면서 느끼는 좋은 점과 커뮤니티 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의사소통에 관한 질문들과 구체적인 피드백과 관점을 수용하기 위한 프리텍스트(free text)를 통해 자료를 수집함.
- 각각의 연구방법별로 자료를 수집한 이후 1차 코딩을 진행하였고, 유사한 범주로 묶는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시행함. 분석결과, 빅 노이즈 토리를 통해 참여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개입이 넓은 범위에서 양질(high quality)로 발현되고 있음이 확인됨. 주제별로 묶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학습능력의 향상(Boosting engagement with learning and education): 학업과 관련된 스

킬과 행동은 지속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언급됨. 특히 학교생활에서 듣기, 집중력, 창의성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음악과 창의성은 학습의 즐거움에 기인하는 요소로 확인되었음. ‘지속적인 도전과 목표의 설정’ 또한 하위 주제로 도출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오케스트라 참여로 인해 탄력성, 책임성이 길러지며 장기간의 배움(long-term learning)에 대한 개념화가 이루어짐이 발견됨. 그리고 영어가 제2언어인 가정의 아동들에게서 영어 구사 능력의 향상이 관찰됨.

- 다양한 삶의 기술 형성(Developing and building life skills): 자신감과 조별활동, 의사소통, 책임감과 리더십이 오케스트라 참여자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보고되었음. 행동의 도덕적 경계와 규범을 이해하고 지시에 따르는 능력이 강화되었으며, 자기규제력(self-discipline)과 자아인식(self-awareness)의 향상 또한 언급되었음. 또한 학교 선생님들에게서 빅 노이즈 참여 아동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증가된 탄력성과 적응능력을 보였다고 표현됨. 즉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며, 어려운 기술을 연마하는데 필요한 인내심 또한 관찰됨. 더 나아가 참여자들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활동해 나아감으로써 정서적 지능(emotional intelligence)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능력이 향상됨.
- 정서적 안녕감(Securing emotional wellbeing): 130명의 아동의 그림에서 행복감, 즐거움, 음악적 스킬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의 만족과 자부심,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오케스트라의 일부분이 되는 것과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발견됨. 다른 연구방법에서도 참여자들은 오케스트라에 참여할 때 지속적인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이 증명됨. 특히 강한 소속감(Sense of belonging)을 경험했으며, 지역과 오케스트라 내에서 역할 모델로부터의 지지와 격려 반복적인 칭찬을 경험함. 한편 오케스트라 활동의 특징인 지속성과 반복된 활동은 참여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고 자신감을 형성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성취를 통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feeling of being valued)과 자부심(self-esteem), 자기확신(self-belief)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
- 사회성과 네트워크 형성(Building social skills and networks): 빅 노이즈는 참여 아동들에게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사회화될 기회를 제공함. 따라서 긍정적인 동료집단과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학교 스텝, 부모, 후견인, 지역민 등을 초대하는 콘서트 등 지역과의 연계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와의 화합을 촉진함. 나아가 커뮤니티가 아동들의 성취에 개입하고 축하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정신(community spirit)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함.
- 유예와 보호(Respite and protection): 빅 노이즈는 취약 가정의 아동들에게 학교와 가정에서 분리된 안전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함. 또한 오케스트라는 학교와 다른 서비스, 가정의 간극(bridging the gap)을 메우는 데 영향을 미치며, 아동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 상황을 해결을 위한 주요 지원 시스템으로 기능함.
- 음악인으로서의 성장(Developing as a musician): 빅 노이즈는 악기를 연주하는 기술과

음악적 지식을 전수하며 악보를 읽고 음악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침. 특히 나이별로 단계적 프로그램(Baby Noise, Nursery provision, in-school and after-school delivery)을 제공하여 잠재적으로 참여자의 음악적 인지능력의 강화에 기여함. 참여 아동들은 오케스트라 내에서 자신들의 기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값비싼 악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데, 이로 부터 책임감이 길러지며 성숙도가 향상됨.

- 건강한 생활 습관 장려(Encouraging healthy behaviors): 방과 후와 학교 휴일에는 아동들에게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건강한 간식이 제공되는데, 이는 일일 섭취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걷기, 신체 활동과 여행들을 통해 건강한 활동 규칙을 발전시킴. 더불어 사회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TV와 게임 등 혼자 하는 활동에 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음.

4.2.11 인 하모니 리버풀: 2009-2019, 10년간의 학습에 대한 성찰(In harmony liverpool: 2009~2019, Reflections on 10 years of learning)

- Burns(2019)의 보고서는 애초부터 종단연구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체계화된 시스템에 의해 발간된 보고서는 아니지만, 영국의 리버풀의 엘 시스템아 프로그램 시행 이후 실행된 다양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1차 자료들을 수집하여 10년간의 변화를 압축하여 기술한 보고서임.
- 비록 보고서가 10년의 종단연구를 위해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다양한 자료와 연구 참여자(정보원)로 참여 아동과 청소년뿐 아니라 부모, 교사 등의 인터뷰와 관찰기록 등을 통해 엘 시스템아 프로그램이 리버풀의 아동, 가족, 학교,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추출해 기술 한 부분은 본 연구와도 상당한 관계가 있는 편으로 참고자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음.
- 리버풀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2006년에서 2015년까지 엘 시스템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가 자체적으로 영국 교육부에 제출한 연차 보고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추적 조사를 통해 5-19세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19명 아동과의 인터뷰와 사례, 2012년과 2016년 시행됐던 프로그램의 참여 아동과 청소년 1444명을 대상으로 실행되었던 2차례의 설문조사, 2015년 아동과 청소년 보호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행됐던 설문조사, 10년간 45명의 교사 인터뷰와 30명의 부모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결론이 도출되었음.
-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장기적 영향으로 드러난 주요 테마는 대상별로 구분되어 제시되어있음. 각 대상은 아동, 학교(교사), 가족, 그리고 공동체임.
- 이 연구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룬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이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는 총 13가지로 향상된 자기효능감과 자신감(Increased self-confidence and self-esteem), 회복탄력성

강화에 기인한 향상된 안녕감(Intrinsic and extrinsic resilience as well as enhanced wellbeing), 긍정적 미래조망능력(Increased aspiration and positive views of future prospects), 향상된 협업심과 협업능력(Improved ability to collaborate, cooperate and work in teams), 리더십(Leadership skills), 듣고 소통하는 능력(Listening and communication skills), 향상된 집중력(Better attention, focus and concentration), 배움에 대한 동기 강화(Increased motivation to learn), 인내와 결단력(Perseverance and determination), 독립성(Independence), 사회소통능력 (Peer to peer support, friendship, networks and social skills), 기쁨(Enjoyment)과 창의력(Creativity)으로 보고되었음.

-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이 가족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가족 내 대화증가, 감정적 교류, 지역 애착감, 학교에 관한 관심 증가 등 이었으며, 학교와 교사의 경우는 학교가 가진 신뢰감과 교육적 전문성 향상, 교원 내 자부심, 학교의 기여도 향상 등으로 드러남. 공동체에 미치는 주요 선순환 구조는 자기 지역에 대한 주권의식(ownership)이 상승되면서 공동체 구성원 간 신뢰(trust)가 강화되고, 이러한 신뢰가 결국 지역의 정체성(identity)에 기여하면서 지역 내 성원으로 자부심(pride)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설명하고 있음.

4.3 해외 음악교육 중단연구의 시사점

- 유럽과 호주, 미국에서 진행된 음악교육 효과성에 관한 중단연구의 특징을 요약하면 ① 중단연구 목적의 다양성, ② 실험설계를 포함한 질적, 양적 연구방법의 다양성, ③ 효과성 측정 변인의 간략함, ④ 효과성의 범주를 아동의 개인적 차원에 집중하여 조사해 왔다는 것임.
- 중단연구 설계의 경우, 우리나라는 패널조사가 대부분인 반면 해외의 연구는 코호트 연구(cohort study)와 추세연구(trend study)를 사용하여 다양한 뇌 기능, 인성, 언어 능력, 사회능력, 집중력, 질병, 교정능력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음악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남.
- 연구방법 측면에서도 다양한 실험연구, 질적 연구를 통해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 이외에도 정성적 관점에서 효과가 분석되어왔으며, 양적 연구에서도 표집을 특정화하여 연구 참여자의 샘플 수에 한정하기보다는 연구 대상을 세분화하여 오케스트라 교육만이 가진 본질적이고 특수한 효과 검증에 목적을 두고 진행한 연구들이 다수 발견되었음.
- 이러한 경향은 연구가 발표된 학술지의 성격 때문으로 판단됨. 검토된 논문 대다수는 심리학 과 교육학 분야의 학술지로, 준실험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구 도구는 표준화되거나 기준척도를 수정하여 개발한 측정 도구로 인지능력, 언어기억능력, 시각기억능력, 자존감, 공감 능력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음.
- 검토된 문헌들의 경우, 연구 참여자의 수는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약 4000명으로 간극

도 크고, 아동의 연령 또한 6세부터 15세까지로 다양하며, 연구 기간도 6개월부터 12년까지 각 연구간 편차가 심한 편임.

- 대표적인 거대한 패널로 구성된 연구는 2009년 Southgate와 Roscigno가 발표한 음악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Music on childhood and adolescent achievement)인데, 이는 미국 교육부의 패널 데이터를 2차 자료로 활용하여 수행된 연구임. 음악교육의 효과연구를 위해 직접 개발한 척도를 가지고 연구팀이 자체적으로 자료수집을 실행한 연구는 독일의 연구로 음악교육은 기억력을 향상하는가? 준실험적 종단연구를 통한 발견들(Does music training enhance working memory performance?: Findings from a quasi-experimental longitudinal study)임. 이 연구는 악기 레슨을 주기적으로 받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5년간 3941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음(Hille & Schupp, 2015)
- 다만, 연구논문과 달리 보고서의 경우는 연구 설계와 방법의 엄중함보다는 프로그램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과 이에 대한 가족, 학교, 공동체에 미친 파급 효과까지도 기술한 것이 특징으로 발견되었으며, 이는 학술적 목적과 정책적 목적에 쓰임을 달리하는 텍스트의 근본적인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Ⅲ.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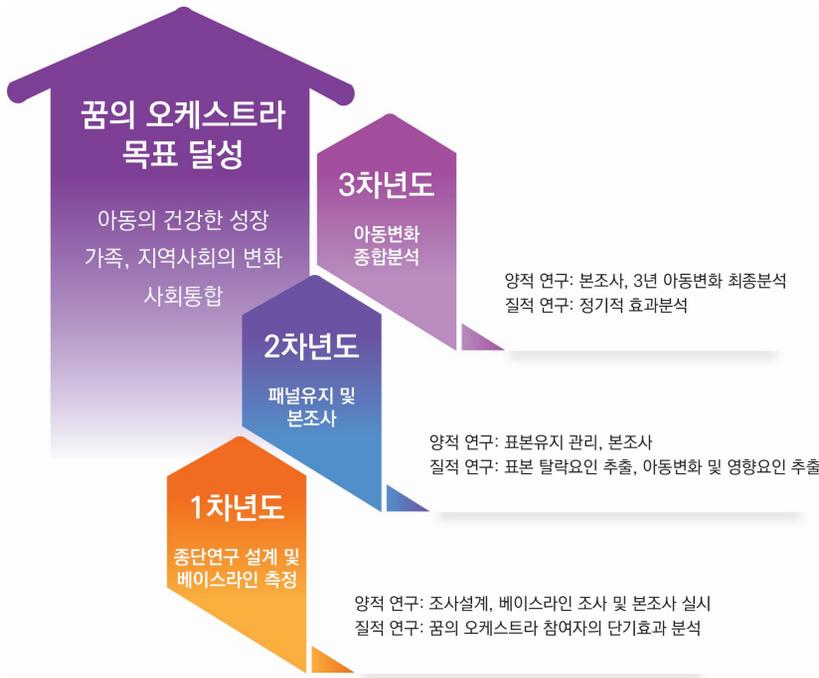
1.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 3개년 연구 계획
 2. 2019년 양적 연구 주요 연구방법
 3. 2019년 질적 연구 설계와 연구방법

Ⅲ. 연구방법

1.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 3개년 연구 계획

- 2016년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에 참여한 아동들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1단계 연구가 3년 종단 연구로 시작되었음.
- 2019년부터는 2단계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가 시작되었음. 1단계 기존 패널에 대한 종단 추적을 지속하고, 새로운 패널을 구축하여 두 개의 코호트를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음. 코호트란 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경험을 공유한 동일적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1단계 코호트는 2016년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단원, 2단계 코호트는 2019년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단원 집단으로 구성됨. 이를 위해 1단계 코호트 패널은 종단 연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2019년부터 2단계 코호트인 신규패널에 대한 조사를 착수함.
- 2단계 연구는 꿈의 오케스트라의 장기적 효과 검증을 위해 <그림 Ⅲ-1>과 같이 3년에 걸쳐 년차별 연구를 진행하며 2019년은 2단계 패널 1차년도 연구에 해당함.

<그림 Ⅲ-1> 3개년 연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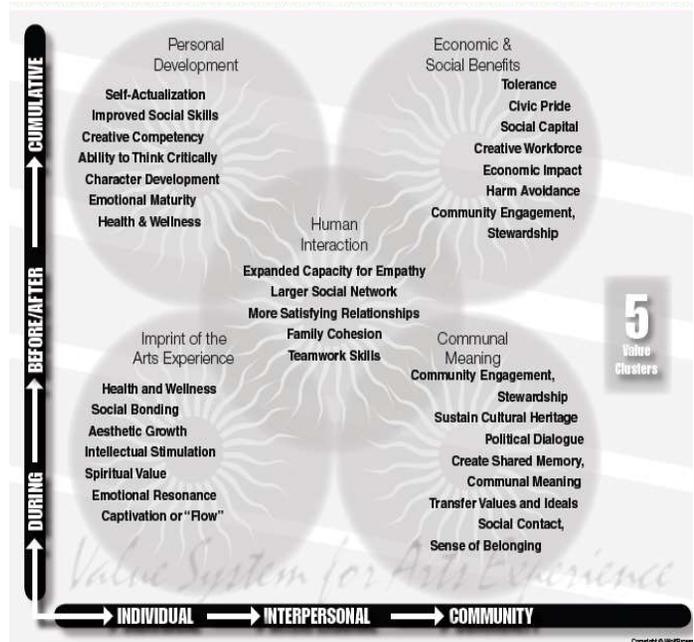


1.1 연구설계

1.1.1 효과성 요인 구성의 이론적 모형

- Carnwath와 Brown(2014)의 연구에서는 문화 참여경험의 영향이 지니는 패턴을 개념화했는데, 동시적 영향, 체험된 영향, 확장된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는 영향으로 나타나 패턴화되는 경향을 보여줌.
- 이러한 패턴은 크게 다섯 가지, 즉 개인 성장, 예술경험의 내재화, 사회경제적 혜택, 공공의 의미, 인적 상호작용영향으로 구분됨(그림 III-2).

<그림 III-2> 연구 모형



출처: Carnwath & Brown(2014), p. 48. 재인용

1.1.2 연구설계

- 본 연구는 양적 종단연구와 질적 종단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며, 중앙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득함(No: 1041078-201904-HR-141-01).
- 양적 종단연구는 2016년 1단계 패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하고, 2단계의 신규패널을 구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음.
- 질적 종단연구도 양적 종단연구와 마찬가지로 2016년 1단계 패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질적 종단연구에 참여한 3개 기관의 패널을 2개 기관의 패널로 축소하고 2019년 신규패널 참여기관을 2019년 신규 오케스트라 참여기관인 3개 기관 중 2개 기관의 신규패널을 구성하는 것으로 설계함.
- 2단계 조사의 표본은 2019년 꿈의 오케스트라에 신규참여 단원과 보호자이며, 신규 단원이 속해 있는 기관의 교육강사와 코디네이터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됨.
- 조사는 양적 종단 연구는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이며, 질적 종단 연구는 개인 및 집단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단원의 보호자 외 연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그림 III-3〉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발달 연구 조사 설계

구분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	단원 보호자	교육강사
모집단	2016년과 2019년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기관의 전체 단원과 보호자		기관 교육강사, 코디네이터
표본 추출	양적 패널	전수조사	전수조사 (신규단원이 있는 기관)
	질적 패널	할당표집	할당표집
조사대상	양적 패널	단원, 보호자 각 1명씩 조사 2019년 250쌍	교육강사 및 코디네이터 전체
	질적 패널	단원 25명, 보호자 13명	강사 15명, 코디네이터 4명
조사방법	양적 패널	연구자 기관방문 조사	연구자 기관방문 조사
	질적 패널	설문지 배부 수거	
	질적 패널	집단 및 개인 인터뷰, 참여관찰	
조사기간	매년 9~10월		
자료수집방법	양적 패널	설문지 조사	
	질적 패널	인터뷰, 참여관찰	

〈표 III-1〉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단계별 참여현황

단계	연도	조사차수(Wave)	참여기간	참여기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1단계 패널	2016년	Wave 1	1년	6	3
	2017년	Wave 2	2년	6	3
	2018년	Wave 3	3년	6	3
1단계 & 2단계 패널	2019년	Wave 4	4년	6	2
		Wave 1(신규)	1년	15	4
	2020년	Wave 5	5년	6	2
		Wave 2	2년	15	4
	2021년	Wave 6	6년	6	2
Wave 3		3년	15	4	

■ 음영 부분은 2단계 패널의 wave를 의미함

2. 2019년 양적 연구 주요 연구방법

2.1 패널 설계 및 조사 대상

-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 변화 3개년(2019~2021년) 연구는 2016~2018년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참여 기관의 단원 전원과 그들의 보호자, 2019년 신규 참여 기관의 신규 단원과 그들의 보호자, 조사 해당 년도 중도탈락 단원을 대상으로 구축된 패널을 조사 대상으로 함. 모든 조사 참여 기관의 음악감독과 교육강사는 패널 데이터 구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들을 대상으로도 아동 패널 조사가 진행되는 동일한 시기에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각 조사 연차에 따른 횡적 데이터를 수집함.

〈그림 III-4〉 2019~2021년 연도별 패널조사 설계

1차년도 (2019년)	조사설계 예비조사 1년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설계 확정(패널 설계, 조사 방법, 분석 방법 등) · 측정항목 정제 및 추가 문항 개발 · 예비조사 · 생명윤리위원회(IRB) 조사 승인 · 1년차 본조사 실시
	1년차 패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간(1년, 2년, 3년, 4년)에 따른 패널 데이터 종단 분석 · 1단계 패널과 2단계 패널의 집단간 차이 분석
2차년도 (2020년)	표본관리 2년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 유지관리 · 2020년 중도탈락 단원 조사 · 2년차 유지패널 본 조사 실시
	2년차 패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패널 데이터의 참여시기(1~5년)에 따른 종단적 분석 · 2단계 패널의 참여시기(1~2년)에 종단적 분석 · 참여기간(1~5년)에 따른 횡단적 분석을 통한 집단간 차이 분석 · 중도탈락 원인 분석
3차년도 (2021년)	표본관리 3년차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 유지관리 · 2021년 중도탈락 단원 조사 · 3년차 유지패널 본조사 실시
	3년차 패널 분석 결과 계속패널 유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패널 데이터의 참여시기(1~6년)에 따른 종단적 분석 · 2단계 패널의 참여시기(1~3년)에 종단적 분석 · 참여기간(1~6년)에 따른 횡단적 분석을 통한 집단간 차이 분석 · 중도탈락 원인 분석 · 중도탈락과 유지단원간 차이 분석 · 계속패널 유지 조사설계(안) 마련

○ 본 연구의 세부적인 조사 대상인 패널 구성안은 다음과 같음.

① (기존) 1단계 패널 구성

- 1단계 패널의 대상은 2016~2018년도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연구에 참여하였던 6개 기관(6기)의 단원 및 학부모로 구성함.
- 1단계 패널 중에서 특히 2016~2018년 3년 조사에 모두 참여하여 참여 1년, 2년, 3년차의 데이터가 모두 축적된 109명의 1단계 패널 중 이탈 단원을 제외한 모든 단원들은 1단계 패널에 반드시 포함하여 2019~2021년의 3년간 4차, 5차, 6차 조사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도록 하였음.
- 2017년도와 2018년 신규 단원들의 데이터는 2019~2021년 이후 데이터와 연동하여 4차, 5차 조사 데이터로 누적될 수 있도록 패널을 구성함.

② (신규) 2단계 패널 구성 및 확보

- 2단계 패널은 2019년 이후 처음 패널 조사에 참여하는 단원과 보호자로, 2차 신규패널의 대상은 2016~2018년도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연구에 참여하였던 6개 기관의 신규 단원과 보호자, 2019년도 신규 참여 기관(9기)인 3개 기관의 단원 전체와 보호자로 구성됨.
- 2017년과 2018년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참여 6개 기관의 2019년도 신규 단원은 2단계 패널에 다음의 근거로 포함하지 않음.
 - 이들 6개 기관의 2019년 신규 단원의 수는 총 49명임. 2016~2018년 조사의 1년차 패널 유지율 72%와 2년차 패널 유지율 62%를 적용할 경우 3년차 시점의 유지 패널 수는 기관별 3~6명으로 총 21명 정도로 예측되므로, 조사에 수반되는 제약요인 대비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또한 2017년과 2018년 참여 기관의 2019년 신규 단원은 기존 단원과 함께 하는 환경에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모든 단원이 신규 단원인 조건에 있는 2019년도 신규 기관의 신규 단원들과 동질적이라 보기 어려움.
- 상기의 패널 구성 방안에 따른 2019~2021년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연구의 3년차 패널 구성안은 <표 Ⅲ-2>의 꿈의 오케스트라 종단조사 모형에 따름.

〈표 III-2〉 꿈의 오케스트라 중단조사 설계 모형

제1차 (2016)	제2차 (2017)	제3차 (2018)	제4차 (2019)	제5차 (2020)	제6차 (2021)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4차 조사	5차 조사	6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4차 조사	5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4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1차 조사

- 2019~2021년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연구를 통해 수집되는 패널 데이터는 2016~2018년에 연차별 구축된 기존 패널 데이터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 2019년에는 4년간, 2020년에는 5년간, 2021년에는 6년간 유지 패널 데이터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음.
- 2019년 이후 연차별 신규 단원에 대한 추가적인 패널 데이터의 축적으로 3년차 연구가 종료되는 2021년 시점에는 추가표본의 3년간의 데이터 축적이 가능함.

2.2 조사 절차

- 2019년도 조사는 상반기의 사전조사와 하반기의 사후 조사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음.
- 상반기 사전 조사는 2019년 5월에 진행되었음.
 - 사전조사의 목적은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저해하는 문항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임. 또한 2단계 패널을 구성하는 2019년도 신규 단원들의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전 효과성 지표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본 사업 참여 이후 아동들의 변화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점(baseline)을 제공함.
- 하반기 사후 조사는 2019년 10월에 진행되었음.
- 양적 연구 조사 절차는 패널의 이전 년도 데이터와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 조사와 최대한 동일한 조사 절차를 유지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조사의 진행은 조사 진행 전 각 기관의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담당자와 사전 접촉하여 본 연구의 취지 및 내용을 전달하고 조사 협조를 요청하여 방문 일정을 조율함.
 -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앞서 우편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 참여 동의서를 발송하고, 조사 참여 동의 의사를 밝힌 아동과 학부모만을 응답 대상에 포함함.
 - 연구진과 연구보조원이 직접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아동과 교육강사를 대상으로 면대면 조사를 실시하며, 설문 조사 참여 아동과 교육강사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함. 기관별 조사 참여 인원에 따라 조사자는 2~3명이 기관을 방문함.
 - 학부모 조사의 경우 참여 아동을 통해 설문지를 가정에 전달하고 회수하며, 취합한 후 소정의 조사사례비를 지급함.

2.3 효과성 측정도구 구성개념

- 2019년 아동변화연구의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측정을 위한 구성개념은 Carnwath와 Brown(2014)의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술경험의 내재화 부분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목표 및 차별성을 참고하여 2016년 각종 문헌과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된 구성개념과 동일하게 구성함.
- 이는 2019년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효과성을 이전 2016~2018년도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의 패널 데이터와 연계하여 종단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한 것임.
- 이에 따라 2019년 아동변화 효과성 측정을 위한 구성요인을 음악적 성장(음악지식, 음악태도, 음악향유, 음악활동), 개인발달(자존감, 성실, 의사사통능력, 미래전망, 건강), 인적관계(타인 수용도, 가족 응집력, 타인 배려, 협동), 공공적 함의(사회적 신뢰, 소속감/유대감, 공동체 참여 행동), 사회경제 혜택(사회자본, 경제적 효과)으로 구성함.
- 2019년도 아동변화 효과성 연구는 참여기간이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효과성이 검증될 수 있어 보다 중장기적 관점의 효과 지표의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이에 2018년도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 변화 효과성 연구의 질적 분석 결과를 통해 분석된 효과성 요인을 중심으로 음악적 성장 영역의 음악적 경험 범주의 확장 요인과 개인발달 범주의 공격성과 행복 요인을 측정도구에 추가 반영함.
- 금년도 과업지시서 상에 2016~2019년 연구에 사용된 측정항목의 간결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그러나 착수보고회 시 자문위원의 의견과 연구진의 검토를 종합한 결과 종단연구 성격 상 효과성의 종단적 분석을 위해 기존문항의 유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부분의 측정항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됨.
- 측정도구의 각 평가 대상은 측정 개념의 특성에 따라 아동, 보호자, 교육강사 중 평가 대상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표 Ⅲ-3>과 같이 평가 대상별 측정도구를 구성함.

〈표 Ⅲ-3〉 2019~2021년 꿈의 오케스트라 양적 연구 측정도구 구성(2016~2018년 연구와 비교)

구분		평가 대상별 평가 항목				
		아동	보호자	교육강사	기타	
효과성	음악적 성장	음악 지식	○	-	●	
		음악 향유	○	-	-	
		음악 태도	○	-		
		음악 활동/연주 역량	○	-	●	
		음악적 경험의 확장	●			질적 연구 결과 반영
	개인 발달	자존감	○	-	-	
		성실	○			
		의사소통능력	○	-	-	
		미래전망	○	-	-	
		건강-스트레스	○			
		학업 성취도	▲	▲	-	수학능력 기 연구 유의하지 않음 응답자 특성 변화-외생요인
		공격성	●	-	-	질적 연구 결과 반영
	행복	●			질적 연구 결과 반영	
	인적 관계	타인수용도	○	-	○	
		가족응집력	○	○		
		타인 배려	○			
		협동	○		○	
			보호자와의 친밀감	▲	-	가족응집력과의 유사성 고려
	공공적 함의	사회적 신뢰	○	-	-	
		소속감 및 유대감	○			
		공동체 참여 행동	○	-	-	
	사회 경제적 혜택	사회자본	○	-	○	
		경제적효과/돌봄비용	○	○	-	
		양육스트레스		○		
		지역사회변화		○	○	
		오케스트라가치		○		
			사교육/음악교육비용		○	
만족도	요인 만족	내용/강사/환경/행정 만족	○			
	만족 충성도	전반적 만족	○			
		재참여 의도	○			
	타인 추천 의도	○				
영향 요인	촉진 및 장애 요인	단원 자부심	○			
		타 음악교육 경험	○			
		타 오케스트라 경험	○			
		참여 적극성	○			
		부모 지지	○			
		동료 지지	○			
		교육강사 지지	●			
		공연활동 성취감	●			질적 연구 결과 반영
음악적 권태	●					

○ 문항유지, ▲ 삭제문항, ● 추가문항

2.4 조사 문항

-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측정 문항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Carnwath와 Brown(2014)의 연구의 문화 참여경험의 영향이 지니는 패턴을 기초로 구성되었음. 패턴은 개인 성장, 예술경험의 내재화, 사회경제적 혜택, 공공의 의미, 인적 상호작용영향으로 구분됨.
- 아동, 보호자, 교육강사 각각의 평가 대상에 따라 최종 사용한 설문 문항은 <표 Ⅲ-4> ~<표 Ⅲ-6>와 같음.

<표 Ⅲ-4> 아동 대상 효과성 측정 항목

대영역	소영역		관련 근거	항목수
음악적 성장	음악 지식		임영식 외(2016)에서 신규 개발	7
	음악 향유			6
	음악 태도			4
	음악 활동			4
	음악적 경험의 확장			3
개인 발달	건강-스트레스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한미현, 유안진(1995)	6
	자존감		Rosenberg(1965) 자아존중감 척도 전병제(1974)	5
	성실		KEDI 인성검사	8
	의사소통 능력		김기현 외(2009) 김창환 외(2013)	4
	미래 전망		김진경, 김혜연(2013)	5
	공격성		이주현(2011)	6
	행복		정익중 외(2011)	3
인적 관계	협동/협력	집단축진	성은모, 백혜정(2014)	6
		팔로워십		3
		갈등문제해결		4
	가족 응집력		임영식 외(2013)	4
	타인 수용도		임영식 외(2013)	3
	배려		성은모, 백혜정(2014), 대인관계 역량지수	4
	공공적 함의	소속감/유대감		김철호(2013), 지역사회 소속감 개발 척도
공동체 참여 행동		통계청, 사회적 관계망 조사 임영식 외(2013)	6	
사회적 신뢰		성은모, 백혜정(2014), 공공체 시민성-사회적 신뢰 안상훈, 정해식(2010)	5	
사회 경제적 혜택	사회자본		정익중 외(2011) 통계청, 사회적 관계망 조사 응용	4

〈표 Ⅲ-5〉 보호자 대상 측정 항목

구분	관련 근거	항목수
가족 응집력	임영식 외(2013) 정익중 외(2011) 성은모 외(2011)	4
돌봄서비스		3
돌봄비용 확대효과		8
지역사회 변화		4
사교육비 및 꿈의 오케스트라 가치		4

〈표 Ⅲ-6〉 교육강사 대상 측정 항목

구분	관련 근거	항목수
아동의 음악적 지식	서지혜, 이진숙(2013)	4
아동의 연주 역량		3
아동의 협동심	성은모, 백혜정(2014)	3
타인 수용도	임영식 외(2013)	3
사회자본	교육강사 개인의 변화	5
	지역사회 변화	4

2.5 패널 유지율

- 2016년 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동은 244명임. 이들 중 2017년 175명, 2018년 109명, 2019년 64명이 조사에 응답하여, 패널유지율은 2017년 71.7%, 2018년 62.3%, 2019년 58.7%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일반 패널조사와 달리 매주 지속적인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패널을 유지하기에 유리한 면이 있으나, 개인 및 가족 환경에 따라 오케스트라 활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패널 유지율을 높이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
- 패널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의 갱신 및 유지, 이탈 위험 패널에 대한 특별관리(교육강사 및 음악감독)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음.

〈표 Ⅲ-7〉 1단계 패널 유지율

년도	조사 참여 인원(명)	전년대비 패널 유지율(%)
2016년	244	-
2017년	175	71.7
2018년	109	62.3
2019년	64	58.7

2.6 패널조사 분석

2.6.1 데이터 클리닝

- 조사 자료에 대한 데이터 클리닝은 편칭 상의 오류 검토, 불성실한 응답 검토, 설문 의도와 다른 응답 검토, 논리적 오류가 있는 응답 검토, 구조적 질문 패턴의 문항 응답 검토, 무응답 처리방침의 결정, 조사년도(wave) 차수의 증가에 따른 변수명 표기방법의 결정, 변수별 값의 리코딩 조정, 개방형 질문문항의 값 결정 및 리코딩, 최근 조사 자료와의 비교검토, 이전 년도 조사 자료와의 종단면 비교검토, 개인정보 보호관련 검토 등의 순으로 진행함.
- 특히 조사 참여자들이 초등학교 아동이기 때문에, 응답에서 글자를 알아보기 어렵거나 오자가 많은 관계로 분석 전에 코딩된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 클리닝을 실시함.
- 데이터 클리닝의 내용은 보기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수정하고, 무응답된 항목에 대해 무응답 처리를 실시하였음.

2.6.2 분석 대상

-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단계 패널 중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아동 64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 2단계 패널은 2019년 상반기 사전 조사와 2019년 하반기 사후 조사에 모두 참여한 2019년도 신규 단원 302명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음.

2.6.3 분석 방법

-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 검증은 SPSS 21.0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인구 통계적 특성과 참여자의 분포를 알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함.
- 1단계 패널의 경우 아동의 효과성을 종단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의 네 번의 측정시기에 따른 평균의 변화를 반복측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통해 검증함.
- 반복측정분산분석은 일반적으로 직전의 시험 결과(사전)와 이후의 시험 결과(사후), 그리고 지속성을 보기 위해 일정 기간 이후의 시험 결과(유지)를 비교할 수 있음. 반복측정분산분석이 다른 다변량 분석(multivariate analysis)에 비해 다른 점은 다변량 분석법은 개체-간 요인(between-subject effects)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비해, 반복측정분산분석은 개체-간 요인뿐만 아니라 개체-내 요인(within-subject effects)의 변화를 검증할 수 있음. 반면, 반복측정분산분석은 측정시기에 따라 응답자가 소멸할 수 있으며, 측정이 반복됨에 따라 응답자가 평가 도구에 친숙해짐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의 제한점도 존재함. 이에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의 종단 비교와 횡단 비교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여 각 연구방법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이점을 취하고자 함.
- 1단계 패널의 반복측정분산분석에서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고자 성별과 취약계층 여부는 집단간 요인으로 분석에 반영함.
- 반복측정분산분석의 적용 시, 2016~2019년의 측정 시기별 평균의 유의한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대비분석(contrast analysis)을 실시함.
- 아동들의 참여 시기 따라(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참여 아동의 효과성을 횡단자료를 이용해 분산분석(ANOVA)을 통한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함.
- 2019년도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들의 만족도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해 평균적인 만족 수준을 평가함. 또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만족도 형성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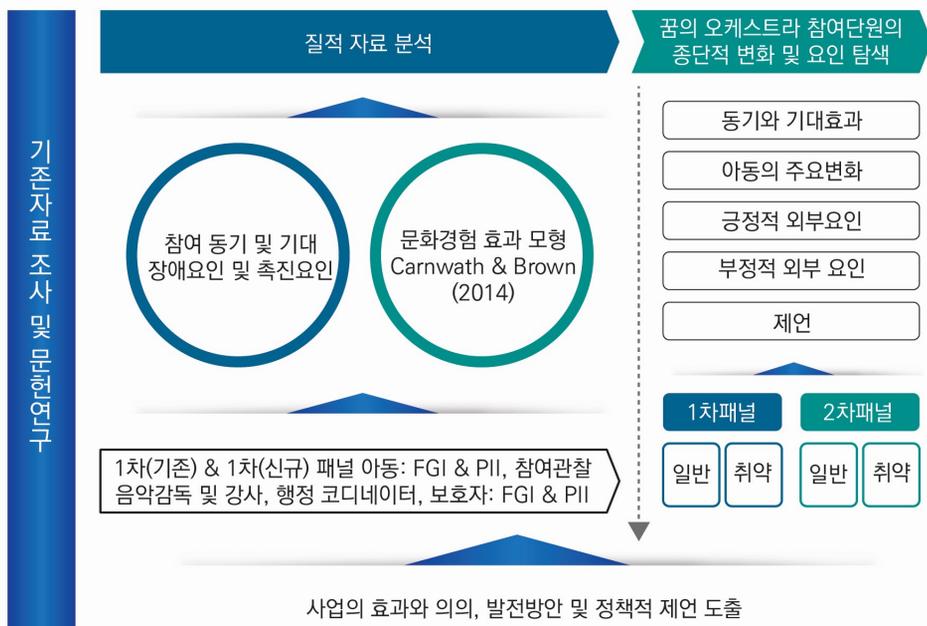
3. 2019년 질적 연구 설계와 연구방법

3.1 2019년 질적 연구 목표와 특징

- 2019년 연구는 3년의 중단연구가 새롭게 시작되는 해로, 신규기관과 이를 통해 모집된 신규단원들, 그리고 연속운영기관을 통해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4년차에 접어드는 기존 단원들이 본 연구의 참여자로 영입되는 중요한 해임.
- 2019년 질적 연구는 이러한 연구 환경의 특징을 좀 더 섬세하고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해, 현장성을 중시하는 참여관찰의 횡수를 대폭 늘리고 연구 참여자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할 수 있는 인터뷰와 구조적 질문을 통해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아동의 다양한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음.
- 즉, 참여관찰(Participatory Observation), 개인심층면접(Personal In-depth Interview, PII) 그리고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을 질적 연구 수행의 주요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되, 아동분석의 경우 연구 참여자 그룹을 신규와 기존단원, 그리고 일반가정아동과 취약가정아동으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
- 본 연구의 목적인 꿈의 오케스트라가 아동의 성장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변화의 주체인 아동 이외에도 음악감독 및 교육강사, 코디네이터, 학부모의 증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아동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주요 변화와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적 차이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성적으로 밝히는 것을 주요 목표로 다루었음.
- 2019년 질적 연구가 지난 3년의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와 비교해 가지는 차별성은 총 3가지로 아동 분석에 있어 그룹 별 세분화와 참여관찰의 빈도 확대, 그리고 신규 연구 참여자 그룹인 코디네이터의 영입을 들 수 있음.
- 아동 분석에 있어 그룹 별 세분화란, 일반가정아동과 취약가정아동의 차이를 조망하던 프레임에 더하여 신규기관과 4년 차에 접어드는 기존 단원과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한 점으로 2018년 꿈의 오케스트라 질적 연구의 틀과 비교하여 2019년 연구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참여관찰의 경우,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에 새롭게 참여하는 신규기관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통해, 격주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오케스트라 단원과 이들의 상호작용, 교육강사와의 관계, 수업 분위기 등을 면밀하고 섬세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도 2019년 연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에 더하여 지난 3년간의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로 포함되지 않았던 각 기관의 코디네이터들을 주요 인터뷰 그룹으로 선정하고 조사하여, 지역별 특성과 아동의 행동 및 변화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음.

-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은 Carnwath와 Brown(2014)의 문화경험 효과모형을 중심으로 아동의 오케스트라 참여경험의 영향요인을 동시적 영향, 체험된 영향, 확장된 영향을 시간의 추이에 따라 추적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
- Carnwath와 Brown(2014)의 문화경험 효과모형에서 다루지는 위의 영향들은 세부적으로 개인의 성장(Personal Development), 예술경험의 내재화(Imprinted Arts Experience), 인적 상호작용영향(Human Interaction), 공공의 의미(Communal Meaning), 사회경제적 혜택(Economic & Social Benefit)으로 분류되어 지며 이는 아동의 변화를 이해하는 주요 틀(frame)로 사용되었음.

<그림 III-5> 2019년 질적 연구의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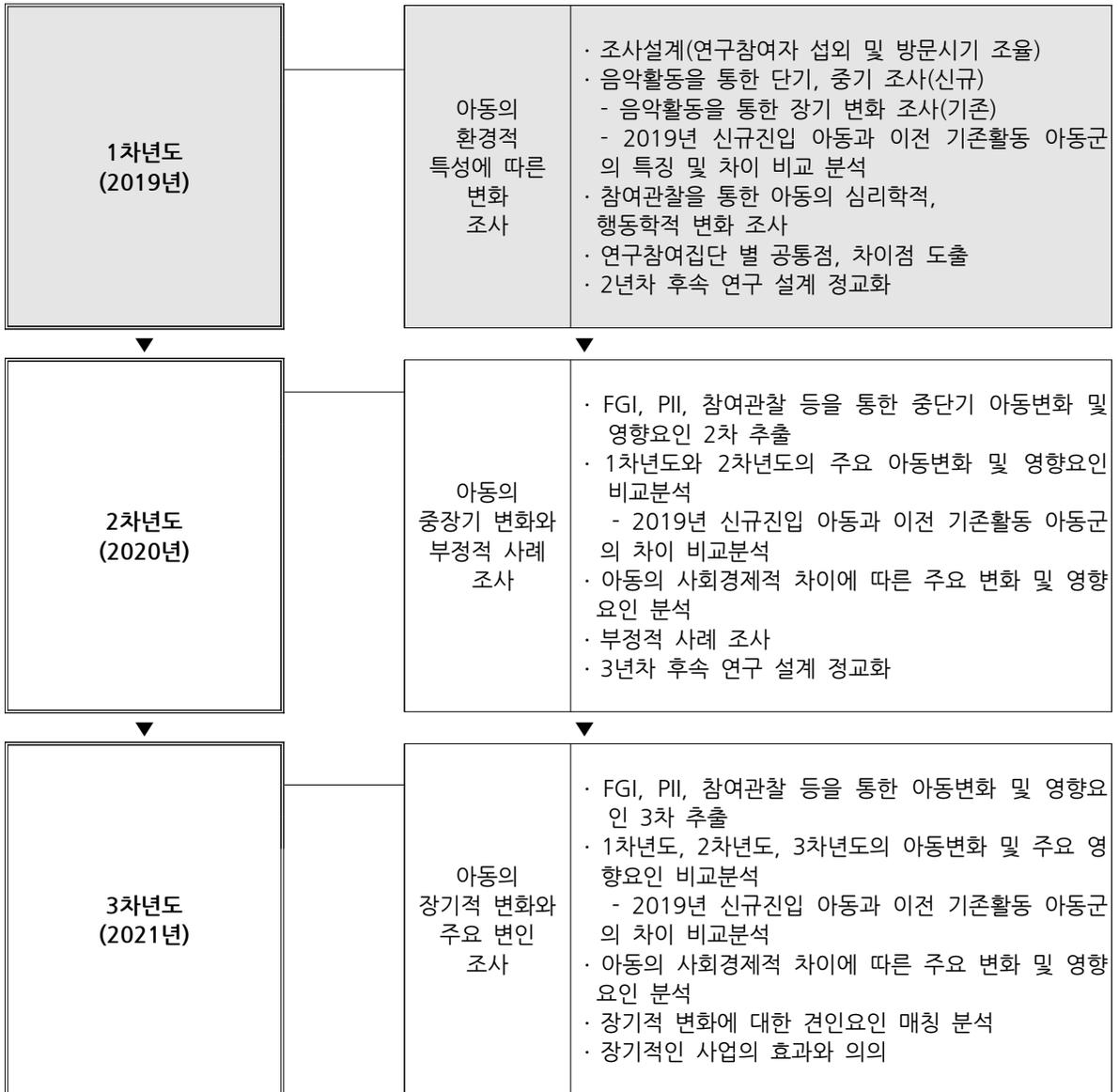


- 위 모형을 바탕으로 2019년 연구는 아동의 성장 패턴과 주요 변화, 이에 따르는 주요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분석하여 신규기관과 연속참여기관 내 환경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아동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어떠한 양상으로 중장기적 변화로 발현하는 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이를 통해 아동의 변화에 있어 주요한 의미를 도출하고, 이들의 내부적 성장, 예술경험의 의미, 인적 상호작용, 꿈의 오케스트라의 공공의 의미, 사회경제적 혜택을 구조화하여 그리고 이를 돕는 촉진 및 장애요인을 밝히고자 하였음.
- 또한, 차기년도의 질적 연구 설계를 위한 주요 근거자료로 연구의 연속성을 주요한 연구목적의 가치 중 하나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3.2 중단연구를 위한 연도별 연구 계획

- 2019년 질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3년 중단연구의 첫 단계로 꿈의 오케스트라의 거점기관 별 주요한 특징인 신규기관과 연속지원기관을 구분하여, 이들의 차이를 도출하고 아동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변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들의 성장요인 및 음악활동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주요 연구의 목적으로 설계되었음.
- 질적 연구의 3년 계획안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1차년도에서는 아동의 중단기 변화를 중심으로, 2차년도에는 아동의 중단기 변화와 부정적 사례조사 및 전년도 연구의 비교분석, 3차년도에는 아동의 증장기적 변화와 이에 기여하는 주요 변인 및 3년 연구의 종합분석을 진행할 예정임.
- 세부적으로 1차년도 연구인 2019년 연구를 기점으로 2차년도와 3차년도 연구는 <그림 III-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 경험을 통해 드러난 아동의 중기와 장기 변화를 구조화하고, 아동의 환경적 특수성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주요하게 다룰 예정임.
- 2020년 조사는 2019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중단기적 변화의 견인요인 별 세부적 맥락을 구조화하고, 이에 대한 변화와 주요요인을 추적 조사하여 아동의 변화가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의 기간차를 두고 어떤 양상과 특징을 지니는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임.
- 후속연구에서 중단적 데이터의 질적 분석에서 주요하게 다룰 지점들은 Saldana(2003)가 제시한 아래의 질문들을 기반으로 분석될 계획임.
 - ①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증가하거나 생성되는가?
 - ②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축적되는가?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중요한 계기나 사건이 나타나는가? (촉진 및 장애요인)
 - ④ 시간이 흘러도 유지되거나 지속되는 것은 무엇인가?
 - ⑤ 시간이 흐르면서 무엇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는가?
 - ⑥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은 무엇인가?
- 특히, 2년차 연구인 2020년 연구부터는 중단연구의 특징과 시사점을 반영하는 데 비중을 두어 진행할 예정임. 따라서 2020년 조사에는 2019년 조사에서 드러난 비정형적 변화양상을 보이는 아동을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부정적 사례분석(negative case analysis)이 추가될 예정임.
- 2021년 조사는 1차년도(2019년), 2차년도(2020년) 조사를 종합하여 아동변화에 있어 중단기적 그리고 장기적 변화를 구조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견인한 내부적, 외부적 환경요인을 매칭하여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지속적 발전에 필수인 정책사안과 전략, 해결방안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제시할 계획임.

〈그림 III-6〉 연도별 질적 조사 설계



3.3 질적 연구 참여 기관과 연구 대상자

- 2019년 연구에서 질적 연구에 참여한 거점기관은 총 4개 기관으로, 기존에 꿈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던 4년차 연속지원기관 중 2곳, 신규기관 중 2곳을 선정하여 참여아동 및 주요관계자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음.
- 2019년 연구에서 신규기관 중 B는 질적 연구 집중기관으로 선정하여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을 시작한 후 초기부터 격주로 4월에서부터 10월까지 참여관찰을 위해 총 11회 방문하였음. 신규기관인 A와 B의 경우, 모두 상반기인 1차(4월)와 하반기인 2차(9~10월) 방문을 하여 각각 아동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들의 변화를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연속지원기관의 경우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 하반기인 9월에 인터뷰를 위하여 기관을 각각 방문하였으며 방문 시 참여관찰을 함께 진행하였음.

〈표 III-8〉 질적 연구 참여기관

지역	기관 특징	FGI	PII	참여관찰
A	신규기관	◎	◎	○
B	신규기관	◎	◎	■
C	연속지원기관	○	○	○
D	연속지원기관	○	○	○

- ◎ PII & FGI: 1차 조사 4~5월 / 2차 조사 9~10월 ■ 4~10월 격주 방문
- 참여관찰 및 PII & FGI: 9~10월

- 본 연구에서 질적 연구 중 인터뷰 조사 참여집단은 총 4개 그룹으로 ①참여아동, ②음악감독과 교육강사, ③참여기관의 코디네이터, ④참여아동의 보호자로 구성되었음. 자료 수집을 위한 주요 인터뷰 방법은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과 개인 심층면접(Personal In-depth Interview: 이하 PII)이 활용되었으며, 참여자의 편이에 따라 인터뷰 방법이 선택되었음.
- 면접조사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종단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기관인 2곳과 연속지원기관인 2곳을 선정하여 진행한 바 있음. 다만, 연속지원기관의 경우 아동이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학업, 이사,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4년 동안 꾸준히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이들의 보호자를 섭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표 III-9〉 질적 연구 참여기관 및 연구 참여자

지역	기관 특징	참여아동	코디네이터	음악감독 및 교육강사	학부모
A	신규기관	7	1	4	5
B	신규기관	7	1	4	3
C	연속지원기관	4	1	3	1
D	연속지원기관	7	1	4	4
계		25	4	15	13
총합		총 면접참여자 : 57명			

3.4 질적 연구 방법

- 2019년 연구에서 사용된 질적 연구방법은 ①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②개인심층면접(Personal In-depth Interview: 이하 PII), ③참여관찰(Participatory Observation)로 구성되었음.
- 질적 연구 참여대상은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단원과 이들의 행동과 변화를 주기적으로 접하는 주요 관계자인 음악감독과 교육강사, 행정 코디네이터, 아동의 보호자로 표집하였으며, 참여기관 총 4개 기관으로 각 2곳의 연속참여기관과 신규참여기관으로 선정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증언이 주요한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면접에서 밝히기 어려운 현장성과 아동의 심리학적, 행동학적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참여관찰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단원의 다양한 변화의 이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도록 설계하였음.
- 또한 아동이 이들이 속한 사회(예: 학교, 가족, 공동체)와 어떤 방식으로 교감하고 내적인 성장을 이루어지는가를 앞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에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개선사항 등을 정성적으로 밝히기 위해 실행되었음.

3.4.1 면접조사: 초점집단면접(FGI)과 개인심층면접(PII)

- 면접조사 대상자의 섭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신규기관의 경우:
 - ① 면접조사 아동: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목표와 취지를 반영하여 취약가정아동(4~5명)과 일반가정아동(2~3명)을 6:4의 비율로 구성하여 면접 대상자로 섭외함. 종단연구

의 특성 상, 중간 이탈 위험이 없는 아동을 우선 제외 대상으로 함.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취약가정아동이란 운영상의 분류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정자녀, 다문화가정자녀,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장애아동 및 장애인의 자녀,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북한 이탈주민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도서벽지 거주자, 학교장 추천자, 자치단체장 추천자, 교육비 원클릭 및 기타 취약계층아동을 모두 포함하여 지칭함.

② 면접조사 아동보호자: 면접조사에 임한 아동의 학부모로 한정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취약가정아동과 일반가정아동 참여 비율을 고려하여 제외함.

③ 음악 강사: 음악감독은 반드시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교육강사의 경우 가장 장기간 꿈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한 자를 우선하여 제외함.

- 연속참여기관의 경우:

① 면접조사 아동: 2016년부터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했던 아동 중 2018년 연구에 참여했던 아동을 우선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또한 사업 목표와 취지를 반영하여 취약가정아동(4~5명)과 일반가정아동(2~3명)을 6:4의 비율로 구성하여 면접대상자로 구성하고, 종단연구의 중간 이탈 위험이 없는 아동을 우선 제외 대상으로 함.

② 면접조사 아동보호자: 면접조사에 임한 아동의 학부모로 한정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취약가정아동과 일반가정아동 참여 비율을 고려하여 제외함.

③ 음악 강사: 음악감독은 반드시 제외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교육강사의 경우 가장 장기간 꿈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한 자를 우선하여 제외함.

- 면접조사는 관찰이 불가능한 행동, 피실험자가 관찰된다는 사실을 알 때 의도적으로 행동을 조정하는 호손효과, 선택적 관찰, 관찰자의 시·공간적 한계 등 관찰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심층적 조사를 위해 유용하며, 초점집단면접과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보다 깊이 있고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홍용희, 1998; Lincoln & Guba, 1994).
- 면접조사 시 종단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1차년도는 FGI와 PII를 통해 아동, 아동의 보호자, 음악 강사, 행정코디네이터 각 집단 간 입장의 차이와 꿈의 오케스트라의 의미와 아동의 주요 변화를 질문하였음.
- 면접조사 시 FGI는 동일한 집단을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를 구성하여 면접조사를 진행하되, 추가적인 질문 또는 연구 참여자의 이질적 특성 또는 편의 때문에 PII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적용을 달리 하였음.
- 면접질문의 설계는 아동의 변화를 Carnwath와 Brown(2014)의 문화경험 효과모형을 바탕으로 구조화하여 고안되었으며, 각 주요한 범주는 개인의 성장(personal development), 예술경험의 내재화(Imprinted arts experience), 인적 상호작용영향(human interaction), 공공의 의미(communal meaning), 사회경제적 혜택(economic & social benefit)임.

- 추가적으로, 아동의 변화에 대한 맥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배경질문(오케스트라 참여 동기와 기대요인), 외부요인(참여 시 장애요인과 촉진요인), 제언(개선방안 및 대안)을 유목화하여 설계하였음.

〈표 III-10〉 참여 아동을 위한 면접조사 질문체계

체계	상위구분	하위구분	내 용
면접질문 I	배경	동기	- 어떤 계기로 꿈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게 되었는가? (신규진입 아동) - 무엇이 오케스트라의 지속적 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는가? (지속 활동 아동)
		기대효과	- 계속되는 활동을 통해 내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면접질문 II	아동의 변화	개인의 성장	- 참여 이후 나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또 왜 그렇게 생각 하는가? -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며 나의 생활은 어떻게 바뀌었나?
		예술경험의 내재화	- 이러한 변화들은 무엇을 계기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가? - 악기를 다룬다는 것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배운 것 중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인적 상호작용영향	- 합주를 하면서 드는 느낌, 생각은 무엇인가? -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좋았던 일과 나빴던 일)은 무엇인가?
		공공의 의미	- 내 주변의 사람들(가족, 친구, 선생님 등)과 참여 이후, 관계의 변화가 있는가? - 내가 속한 곳에서 나의 행동 또는 생각의 변화가 생겼다면 무엇이고 그 이유는?
사회경제적 혜택	- 타 장르의 예술참여활동에 대해 나의 관심과 가족의 변화는 있는가? - 오케스트라 참여를 통해 이제껏 몰랐던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면접질문 III	외부요인	촉진요인	- 꾸준한 활동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
		장애요인	- 꾸준한 활동에 가장 장애가 된 것은 무엇인가?
면접질문 IV	제언	대안 및 개선방안	-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구체적으로 변화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표 III-11〉 보호자(학부모)를 위한 면접조사 질문체계

체계	상위구분	하위구분	내 용
면접질문 I	배경	동기	- 어떤 이유로 자녀의 참여를 지원하게 되었는가?
		기대효과	-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가장 기대했던 점은 무엇인가?
면접질문 II	아동의 변화	개인의 성장	- 참여 이후 자녀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술경험의 내재화	- 오케스트라 활동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인적 상호작용영향	- 자녀의 오케스트라 활동으로 인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좋았던 일과 나빴던 일)은 무엇인가? - 자녀의 음악적 역량(기보, 음정, 기술, 취향, 지식 등)이 증진되었는가?
		공공의 의미	- 자녀의 타 장르의 예술참여활동에 대해 관심의 변화는 있는가? - 자녀의 오케스트라 활동 이후 나의 생활은 어떻게 바뀌었나? - 자녀의 오케스트라 활동 이후 우리 가족의 생활은 어떻게 바뀌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경제적 혜택	- 자녀의 오케스트라 활동은 나에게 있어 어떤 의미였는가? - 꿈의 오케스트라 존재는 우리지역에 어떤 의미인가? - 가족의 문화예술참여활동 및 향유패턴에 변화는 있는가? - 자녀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이제껏 몰랐던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면접질문 III	외부요인	촉진요인	- 자녀의 꾸준한 활동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
		장애요인	- 자녀의 꾸준한 활동에 가장 장애가 된 것은 무엇인가?
면접질문 IV	제언	대안 및 개선방안	-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구체적으로 변화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표 III-12〉 음악강사 및 행정 코디네이터를 위한 면접조사 질문체계

체계	상위구분	하위구분	내 용
면접질문 I	배경	동기	- 프로그램 지원 이유와 기대효과는 무엇이었는가?
면접질문 II	아동의 변화	개인의 성장	- 참여아동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참여아동의 음악적 역량(기보, 음정, 기술, 취향, 지식 등)이 증진되었는가?
		예술경험의 내재화	- 참여아동의 타 장르 예술참여활동에 대해 관심의 변화는 있는가?
		인적 상호작용영향	- 참여아동을 지도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은 나에게 있어 어떤 의미였는가? - 이 지역에 꿈의 오케스트라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공의 의미	- 참여아동의 단기적(즉각적) 변화는 무엇인가? - 참여아동의 중장기적 변화는 무엇인가/ 무엇일 것이라고 예측하는가?
		사회경제적 혜택	-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이제껏 몰랐던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면접질문 III	외부요인	촉진요인	- 아동의 꾸준한 활동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
		장애요인	- 아동의 꾸준한 활동에 가장 장애가 된 것은 무엇인가?
면접질문 IV	제언	대안 및 개선방안	- 사업내용에 대한 소통과 협조는 원활한가? -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구체적으로 변화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연구자는 상황에 따라 위의 질문들을 변형시켜 질문하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진술하게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이를 통해 자료의 신뢰성(trustworthiness)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 설계되었음.
- 또한 면접조사 수집 중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접조사 시 멤버체크(member check) 과정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dependability)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음. 연구자는 참여자의 증언을 인터뷰 주요 시점마다 재정리하여 확인하고, 정리한 내용이 연구 참여자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재구성하여 질문하였음.
- 면접 질문을 중심으로 아동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음. 사회취약계층 아동과 일반 아동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오케스트라 활동경험, 음악적 성장, 개인적 성장, 가족, 학교 안에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참여 아동의 단기적(즉각적) 변화와 중장기적 변화,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확장 요인들을 질적 연구 접근을 통해 종단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음.
- 자료수집 과정과 면접일시 조율을 위해 해당 기관에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을 취할 시,

담당자 및 해당 연구 참여그룹을 위해 연구 목적과 질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여 진행하였음.

- 연구윤리위원회(IRB, 1041078-201904-HR-141-01)의 승인을 받은 연구참여동의서를 사용하였으며, 면접조사 전 모든 참여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인터뷰를 수행하였음. 인터뷰 시작 전에는 연구참여자에게 다시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와 관련된 추가 질문이 있는지를 확인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아동의 경우, 부모와 아동의 동의를 사전에 얻은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또한 녹음기 사용 전에 참여자의 동의여부를 재차 확인한 후 면접조사에 임하였음.

3.4.2 참여관찰 (participatory observation)

- 참여관찰은 면접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태도와 행위의 미묘한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며, 심층 인터뷰만으로 해명할 수 없는 맥락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유용성이 큰 특징임(Morse & Field, 1995).
- 참여관찰은 연구대상자에게 너무나 일상적인 일들, 연구대상자가 논의할 수 없거나 논의하기를 원치 않는 화제들, 연구대상자의 처한 상황이나 전체 맥락, 실제 생활에서 확인해야 할 면접내용, 실제 상황을 직접 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면접내용, 연구대상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일상적 삶의 과정이나 의미를 파악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Merriam, 1988).
- 특히, 참여관찰은 연구현장에 연장된 개입(prolonged engagement)이 전제될 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현장의 분위기, 연구 대상자 간의 상호작용, 관계 발전의 변화 등을 이해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기제로, 본 연구에서는 신규기관 B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연장된 개입과 관찰을 격주로 4월부터 10월까지 총 11회 진행하였음.

- 참여관찰 연구대상:

- 신규참여기관의 오케스트라 단원, 음악감독 및 교육강사, 행정 코디네이터

- 참여관찰 참여기관:

- 신규참여기관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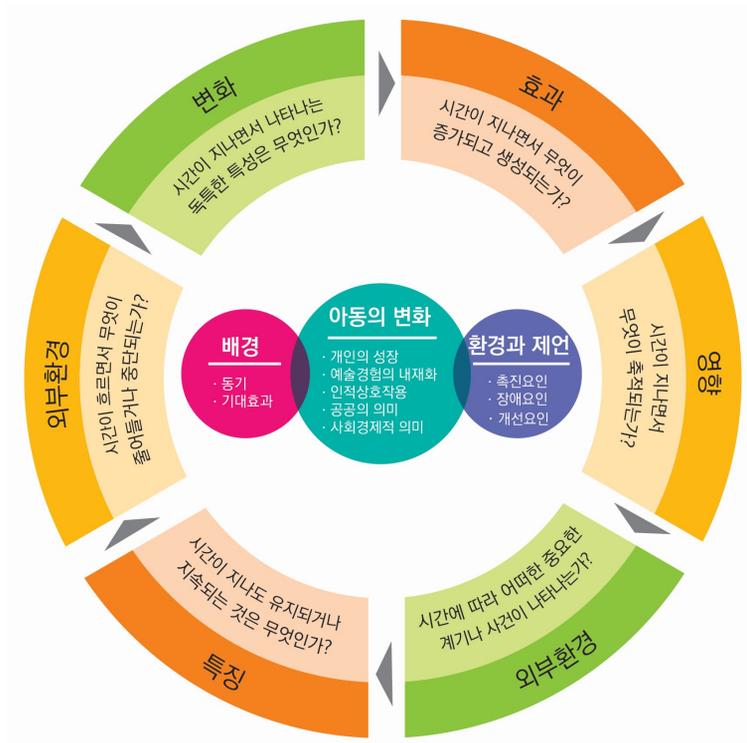
- 면접조사 시기: 2019년 4~10월로 격주로 참여관찰 시행

- 참여관찰은 아동의 변화에서 Carnwath와 Brown(2014)의 문화경험 효과모형 중 특히 예술경험의 내재화(Imprinted arts experience)와 인적 상호작용영향(human interaction)을 주요하게 다루었으며,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목표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피어티칭(peer-teaching)의 행동적 발전단계를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

3.5 자료 분석

- 자료의 분석모형은 신규단원의 경우 4개, 지속활동단원의 경우 3개의 대영역으로 분류하여 참여 동기, 교육효과, 참여환경, 제언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단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단원의 경우 지원동기 질문은 생략되었고, 대신 4년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를 물어 참여환경 중 촉진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참여관찰과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면접을 활용한 질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에 있어 과학적 엄중성(scientific rigor)과 질적 연구의 목적인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을 담보하고자 연구 참여자 구성원을 다각화한 삼각설계(triangulation)와 연구진 교차검증(cross analysis)과정을 실행하였음.

<그림 Ⅲ-7> 질적 연구 분석구조



-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접조사 시 성원검증(member check)을 통해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적극 사용하였음. 이를 위해 연구자는 참여자의 증언을 인터뷰 주요 시점마다 재정리하여 확인하고, 정리한 내용이 연구 참여자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음.
- 면접조사 시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참여자의 의견과 경험을 수집하고, 녹취록 작성 후 개방형 코딩(open coding)과 축코딩(axis coding) 기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의미와 효과 내용을 구조화하여 그 의미와 시사점을 분석하였음.

IV. 연구결과

1. 꿈의 오케스트라 패널 연구
2. 꿈의 오케스트라 질적 연구

IV. 연구결과

1. 꿈의 오케스트라 패널 연구

1.1 응답자 특성

- 아동 응답자들은 2016년은 244명, 2017년은 252명, 2018년은 266명, 2019년 상반기 사전조사는 320명, 하반기 사후조사는 512명임.
- 2019년도 상반기 조사는 2단계 패널(조사 기관의 신규단원)의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전의 사전 조사 성격으로 이후 2단계 패널의 변화 검증을 위한 기준값(baseline)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진행됨.
- 성별 분포에서 남학생은 2016년 40.6%, 2017년 42.5%, 2018년 40.2%, 2019년 상반기 조사는 35.0%, 하반기 조사에서는 37.5%로 나타남.
- 출생년도는 2004년에서 2012년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2019년 조사에서는 중학생인 2004~2006년생의 비율이 초등학생 비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취약계층 아동의 참여 비율은 2016년도 조사에서는 63.1%, 2017년 64.7%, 2018년 63.5%, 2019년도 상반기는 66.6%, 하반기는 64.8%로 나타남.

〈표 IV-1〉 조사 시기별 조사 참여자 특성

단위: 명(%)

년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전체		244	252	266	320	512
성별	남	99(40.6)	107(42.5)	107(40.2)	112(35.0)	192(37.5)
	여	145(59.4)	145(57.5)	159(59.8)	208(65.0)	320(62.5)
출생 년도	2004	3(1.2)	0(0.0)	0(0.0)	2(0.6)	1(0.2)
	2005	71(29.1)	54(21.4)	32(12.0)	0(0.0)	18(3.5)
	2006	64(26.2)	61(24.2)	57(21.4)	5(1.6)	43(8.4)
	2007	100(41.0)	94(37.3)	78(29.3)	38(11.9)	97(18.9)
	2008	3(1.2)	34(13.5)	49(18.4)	52(16.3)	77(15.0)
	2009	3(1.2)	9(3.6)	48(18.0)	65(20.3)	110(21.5)
	2010	0(0.0)	0(0.0)	2(0.8)	86(26.9)	90(17.6)
	2011	0(0.0)	0(0.0)	0(0.0)	47(14.7)	52(10.2)
2012	0(0.0)	0(0.0)	0(0.0)	25(7.8)	24(4.7)	
취약 여부	취약계층	111(63.1)	163(64.7)	169(63.5)	211(66.6)	326(64.8)
	일반	65(36.9)	89(35.3)	97(36.5)	106(33.4)	177(35.2)

- 2016년부터 2019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유지 패널 수는 64명임.
- 1단계 패널의 성별 구성비는 남학생이 27.9%, 여학생이 72.1%, 출생년도는 2005~2009년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취약계층의 비율은 75.4%로 나타남.
- 2019년 꿈의 오케스트라의 신규 단원으로 2019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조사에 모두 참여한 2단계 패널의 수는 302명임.
- 2단계 패널의 성별 구성비는 남학생이 34.4%, 여학생이 65.6%, 출생년도는 2004~2012년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취약계층의 비율은 65.6%로 나타남.

〈표 IV-2〉 2019년도 효과성 분석 패널 응답자 특성

단위: 명(%)

		1단계 패널	2단계 패널
전체		64	302
성별	남	18(28.1)	104(34.4)
	여	46(71.9)	198(65.6)
출생년도	2004	0(0.0)	1(0.3)
	2005	12(18.8)	0(0.0)
	2006	14(21.9)	4(1.3)
	2007	35(54.7)	37(12.3)
	2008	1(1.5)	50(16.6)
	2009	2(3.1)	65(20.5)
	2010	0(0.0)	81(26.8)
	2011	0(0.0)	44(14.6)
	2012	0(0.0)	23(7.6)
취약 여부	취약계층	48(75.0)	196(65.6)
	일반	16(25.0)	103(34.4)

1.2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 패널 효과성 분석

1.2.1 분석 개요

- 1단계 패널의 아동 효과성을 종단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반복측정분산분석을 통해 2016년, 2017년, 2018년 평가 시기별 평균값의 차이를 분석함. 또한 대비분석을 통해 시기별 평균값 변화의 유의성을 검증함.
- 2단계 패널의 아동 효과성은 2019년도 상반기 조사와 하반기 조사의 평가 시기별 측정값을 사용하여 본 사업 참여 전과 참여 후의 평균값 변화의 유의성을 검증함.
- 반복측정분산분석은 측정시기에 따른 집단 내 요인과 성별(남, 여)과 취약계층 여부(취약, 일반)의 집단 간 요인이 적용됨.

1.2.2 1단계 패널 효과성 분석 결과

1.2.2.1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음악적 성장 효과 분석

- 꿈의 오케스트라 1단계 패널 아동의 음악적 성장 효과를 분석함. 음악적 성장은 구성 요인인 음악지식, 음악향유, 음악태도, 음악활동의 차원에서 분석됨.
- 먼저 음악적 성장 부분 중 음악지식을 살펴보면, 2016년 3.21점, 2017년 3.87점, 2018년 4.05점, 2019년 4.18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F=26.53, p=.00$). 이는 아동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빠르게 말을 이해하고 악보를 잘 볼 수 있으며, 악기 구별과 음의 멜로디를 이해하는 등의 음악 지식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음을 나타내는 결과임.
 -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학생은 3.26점에서 3.97점, 4.17점, 4.12점으로, 여학생은 3.20점에서 3.83점, 4.00점, 4.20점으로 증가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취약계층은 3.24점에서 3.85점, 4.12점, 4.30점으로, 일반계층은 3.14점에서 3.92점, 3.82점, 3.83점으로 변화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음악적 성장과 관련하여 음악향유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6년의 평균 3.53점에서 2017년에는 4.07점, 2018년에는 4.14점, 2019년에는 4.21점의 추세 변화를 보이며 시기에 따른 음악 향유의 변화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F=8.04, p=.00$). 이는 아동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오케스트라 활동 및 악기 연주 경험을 통한 음악적 경험이 오케스트라 연습 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일상적 향유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됨.

- 성별에 따라 음악 향유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3.49점에서 4.03점, 4.19점, 3.95점으로 변화를 보였고, 여학생은 3.54점에서 4.09점, 4.12점, 4.31점으로 변화를 나타냈으나 성별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음악 향유의 차이 분석 결과 취약계층은 3.47점에서 3.99점, 4.16점, 4.31점, 일반계층은 3.74점에서 4.35점, 4.07점, 3.88점의 변화를 나타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음.
- 음악적 성장 중 음악태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16년 조사의 평균 점수는 3.42점에서 2017년 3.96점, 2018년 4.18점, 2019년 4.20점으로 음악태도의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음($F=8.19, p=.00$). 이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참여 아동들이 음악과 오케스트라 활동의 즐거움을 배워가며 점차 음악을 대하는 자세가 긍정적으로 성장하였음을 나타내는 결과임.
-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남학생의 평균 점수는 3.50점에서 4.08점, 4.23점, 4.05점으로, 여학생의 평균 점수는 3.40점에서 3.92점, 4.16점, 4.25점으로 변화를 보였으나, 성별 집단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취약계층의 평균 점수는 2016년 3.35점에서 2017년 3.90점, 2018년 4.26점, 2019년 4.27점으로, 일반계층은 2016년 3.66점에서 2017년 4.16점, 2018년 3.93점, 2019년 3.98점으로 변화를 보였으나,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음악적 성장 중 음악활동 측면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측정 시기에 따른 평균 점수가 2016년은 2.93점, 2017년은 3.21점, 2018년은 3.38점, 2019년은 3.52점으로 지속적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 같은 차이는 낮은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평가됨($F=2.38, p=.07$). 이는 아동들의 오케스트라 참여 경험이 음악적 삶의 향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임.
-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2016년 3.10점에서 2017년 3.22점, 2018년 3.16점, 2019년 3.29점으로, 여학생은 2016년 2.86점에서 2017년 3.21점, 2018년 3.47점, 2019년 3.60점의 변화를 보였으나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취약계층의 음악활동 평균 점수는 2016년 2.92점에서 2017년 3.17점, 2018년 3.51점, 2019년의 3.59점으로, 일반계층은 2016년 2.95점에서 2017년 3.33점, 2018년 2.98점, 2019년 3.28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평가시기에 따른 아동들의 음악적 성장을 보다 면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대비분석을 통해

2016~2019년의 측정 시기 간 음악적 성장 변화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함. 분석 결과 음악적 성장의 구성요인이 음악지식, 음악향유, 음악태도, 음악활동 모두에서 2016년에 비해 2017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성장세를 보였음. 또한, 2018년과 2019년에는 2017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들의 참여 초기인 2016년과 2017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음악적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성장 수준은 아동들에게 내재화되어 2018년과 2019년도에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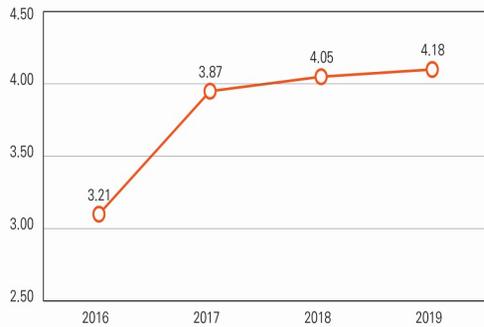
〈표 IV-3〉 1단계 패널의 음악적 성장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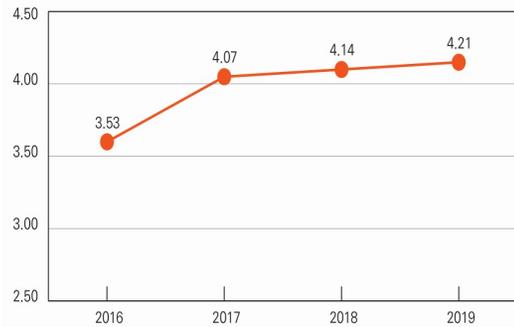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F	p	대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A 음악 지식	전체(n=60)	3.21(0.61)	3.87(0.63)	4.05(0.62)	4.18(0.68)	26.53	.00	2016 < 2017 = 2018 = 2019	
	성별	남(n=17)	3.26(0.67)	3.97(0.56)	4.17(0.47)	4.12(0.76)	.20		.66
		여(n=43)	3.20(0.58)	3.83(0.66)	4.00(0.67)	4.20(0.66)			
	취약 여부	취약(n=45)	3.24(0.63)	3.85(0.66)	4.12(0.62)	4.30(0.60)	2.44		.12
		일반(n=15)	3.14(0.52)	3.92(0.54)	3.82(0.57)	3.83(0.82)			
B1 음악 향유	전체(n=58)	3.53(0.60)	4.07(0.81)	4.14(0.73)	4.21(0.85)	8.04	.00	2016 < 2017 = 2018 = 2019	
	성별	남(n=16)	3.49(0.58)	4.03(0.46)	4.19(0.72)	3.95(1.01)	.37		.55
		여(n=42)	3.54(0.62)	4.09(0.91)	4.12(0.75)	4.31(0.78)			
	취약 여부	취약(n=44)	3.47(0.58)	3.99(0.87)	4.16(0.78)	4.31(0.87)	.02		.88
		일반(n=14)	3.74(0.67)	4.35(0.52)	4.07(0.73)	3.88(0.73)			
B2 음악 태도	전체(n=58)	3.42(0.59)	3.96(0.91)	4.18(0.76)	4.20(0.77)	8.19	.00	2016 < 2017 = 2018 = 2019	
	성별	남(n=15)	3.50(0.65)	4.08(0.68)	4.23(0.64)	4.05(0.91)	.37		.55
		여(n=43)	3.40(0.57)	3.92(0.98)	4.16(0.80)	4.25(0.72)			
	취약 여부	취약(n=44)	3.35(0.55)	3.90(0.99)	4.26(0.77)	4.27(0.76)	.02		.88
		일반(n=14)	3.66(0.67)	4.16(0.56)	3.93(0.66)	3.98(0.80)			
B3 음악 활동	전체(n=61)	2.93(0.39)	3.21(0.85)	3.38(0.91)	3.52(0.97)	2.38	.07	2016 < 2017 = 2018 = 2019	
	성별	남(n=17)	3.10(0.50)	3.22(0.92)	3.16(0.98)	3.29(1.01)	.08		.78
		여(n=44)	2.86(0.32)	3.21(0.83)	3.47(0.88)	3.60(0.95)			
	취약 여부	취약(n=46)	2.92(0.39)	3.17(0.85)	3.51(0.86)	3.59(1.01)	.65		.42
		일반(n=15)	2.95(0.40)	3.33(0.87)	2.98(0.96)	3.28(0.81)			

〈그림 IV-1〉 조사 시기별 음악적 성장 변화

(5점 만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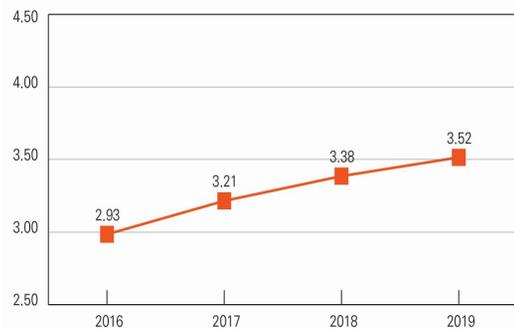
음악지식



음악향유



음악태도



음악활동

1.2.2.2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개인적 발달 효과 분석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경험이 아동들의 개인 수준의 발달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6~2019년의 참여 시기에 따라 아동들의 자존감, 성실, 의사소통능력, 미래전망, 건강(스트레스)의 평균 변화를 비교 분석함.
- 개인적 발달과 관련하여 자존감의 평균 점수 추세를 살펴보면 2016년 3.45점, 2017년, 4.01점, 2018년 4.09점, 2019년 4.26점으로 평가시기에 따라 자존감이 향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존감의 향상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F=10.48$, $p=.00$).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해 긍정적 태도와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함.
 - 자존감의 변화에 대비분석 결과는 참여 아동의 자존감은 2016년에서 2017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향상된 수준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자존감의 차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2016년 3.36점, 2017년

- 3.86점, 2018년 4.12점, 2019년 4.04점으로, 여학생은 2016년 3.48점에서 4.07점, 4.08점, 4.35점으로 변화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성별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음.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자존감의 차이분석 결과에서는 취약계층은 2016년 3.44점에서 4.01점, 4.20점, 4.40점, 일반계층은 2016년 3.48점에서 4.0점, 3.76점, 3.84점으로 변화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아동의 개인적 발달의 관점에서 성실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 조사의 평균은 3.62점, 2017년은 3.77점, 2018년은 3.63점, 2019년은 3.69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이러한 변화의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못함.
- 성별에 따른 성실의 차이 분석 결과에서는 남학생은 2016년 3.53점, 2017년 3.76점, 2018년 3.41점, 2019년 3.65점, 여학생은 2016년 3.71점, 2017년 3.77점, 2018년 3.71점, 2019년 3.71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성실의 차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취약계층은 2016년 3.62점, 2017년 3.82점, 2018년 3.72점, 2019년 3.82점, 일반계층은 3.63점, 3.62점, 3.38점, 2019년 3.35점의 변화를 보였으나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의사소통능력은 2016년의 3.45점에서 2017년 4.09점, 2018년은 4.21점, 2019년 4.2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F=12.52, p=.00$). 이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단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참여 아동들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기여했을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임.
- 측정 시기별 의사소통능력은 2016년에서 2017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향상된 의사소통능력 수준이 내재화되어 2018년도와 2019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의사소통능력을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2016년 3.32점, 2017년 3.87점, 2018년 4.07점, 2019년 3.93점, 여학생은 2016년 3.49점, 2017년 4.17점, 2018년 4.26점, 2019년 4.29점의 변화를 보였으며, 성별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분석 결과에서는 취약계층은 2016년 3.43점, 2017년 4.15점, 2018년 4.26점, 2019년 4.19점, 일반계층은 2016년 3.62점, 2017년 3.91점, 2018년 4.05점, 2019년 4.21점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집단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개인발달 중 미래전망과 관련한 분석 결과에서는 2016년 평균 3.54점에서 2017년 4.12점, 4.19점, 4.30점으로 년차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변화의 통계적 차이는 유

의한 것으로 분석됨($F=11.59$, $p=.00$). 이러한 분석 결과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아동들의 긍정적 경험과 내적 발달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였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됨.

- 아동들의 미래전망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에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2018년과 2019년도에는 향상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남학생은 2016년 3.52점, 2017년 4.20점, 2018년 4.24점, 2019년 4.14점, 여학생은 2016년 3.55점, 2017년 4.09점, 2018년 4.17점, 2019년 4.37점의 변화 추세를 보였으나 남학생과 여학생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취약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2016년에서 2019년의 측정 시기에 취약계층은 3.53점, 4.15점, 4.21점, 4.32점의 변화를, 일반 계층은 3.57점, 4.03점, 4.19점, 4.24점의 변화를 보였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참여 아동의 건강 수준은 2016년 2.03점, 2017년 2.15점, 2018년 2.10점, 2019년 2.27점으로 시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음.
- 성별에 따른 변화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남학생의 변화는 2.26점, 2.10점, 1.72점, 2.19점, 여학생의 변화는 1.98점, 2.17점, 2.26점, 2.31점으로 성별에 따른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취약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2016년에서 2019년의 측정 시기에 취약계층은 2.02점, 2.04점, 2.07점, 2.22점의 변화를, 일반 계층은 2.18점, 2.46점, 2.19점, 2.43점의 변화를 보였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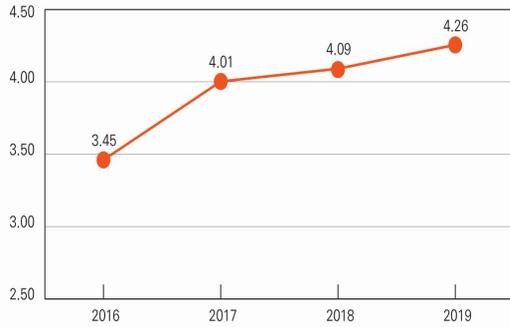
<표 IV-4> 1단계 패널의 개인적 발달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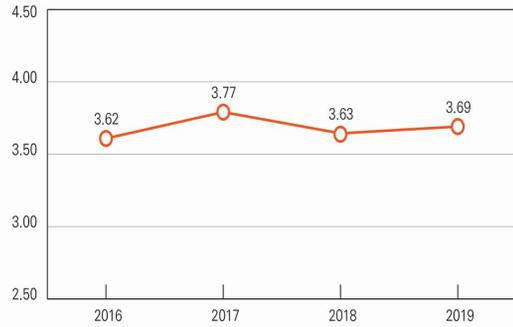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F	p	대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C1 자존감	전체(n=60)	3.45(0.62)	4.01(0.69)	4.09(0.72)	4.26(0.80)	10.48	.00	2016 < 2017 = 2018 = 2019	
	성별	남(n=17)	3.36(0.43)	3.86(0.76)	4.12(0.76)	4.04(0.83)	.42		.52
		여(n=43)	3.48(0.69)	4.07(0.66)	4.08(0.72)	4.35(0.78)			
	취약 여부	취약(n=45)	3.44(0.60)	4.01(0.72)	4.20(0.69)	4.40(0.79)	1.81		.18
일반(n=15)		3.48(0.71)	4.00(0.62)	3.76(0.73)	3.84(0.73)				
C2 성실	전체(n=56)	3.62(0.70)	3.77(0.66)	3.63(0.78)	3.69(0.82)	.87	.46	-	
	성별	남(n=15)	3.53(0.77)	3.76(0.68)	3.41(0.81)	3.65(0.81)	.01		.91
		여(n=41)	3.71(0.68)	3.77(0.66)	3.71(0.76)	3.71(0.83)			
	취약 여부	취약(n=41)	3.62(0.73)	3.82(0.66)	3.72(0.79)	3.82(0.79)	1.05		.31
일반(n=15)		3.63(0.65)	3.62(0.65)	3.38(0.71)	3.35(0.81)				
C3 의사 소통 능력	전체(n=58)	3.45(0.67)	4.09(0.70)	4.21(0.66)	4.20(0.70)	12.52	.00	2016 < 2017 = 2018 = 2019	
	성별	남(n=15)	3.32(0.63)	3.87(0.75)	4.07(0.79)	3.93(0.62)	2.80		.10
		여(n=43)	3.49(0.69)	4.17(0.67)	4.26(0.61)	4.29(0.70)			
	취약 여부	취약(n=44)	3.43(0.65)	4.15(0.67)	4.26(0.65)	4.19(0.69)	.19		.67
일반(n=14)		3.62(0.77)	3.91(0.78)	4.05(0.69)	4.21(0.74)				
E1 미래 전망	전체(n=57)	3.54(0.60)	4.12(0.83)	4.19(0.66)	4.30(0.72)	11.59	.00	2016 < 2017 = 2018 = 2019	
	성별	남(n=17)	3.52(0.59)	4.20(0.84)	4.24(0.67)	4.14(0.70)	.01		.92
		여(n=40)	3.55(0.61)	4.09(0.83)	4.17(0.66)	4.37(0.73)			
	취약 여부	취약(n=42)	3.53(0.55)	4.15(0.87)	4.21(0.68)	4.32(0.70)	.20		.66
일반(n=15)		3.57(0.75)	4.03(0.71)	4.19(0.66)	4.24(0.79)				
E2 건강	전체(n=58)	2.06(1.00)	2.15(1.03)	2.10(0.93)	2.27(1.05)	.93	.43	-	
	성별	남(n=17)	2.26(1.24)	2.10(1.09)	1.72(0.76)	2.19(1.09)	.08		.78
		여(n=41)	1.98(0.89)	2.17(1.01)	2.26(0.95)	2.31(1.04)			
	취약 여부	취약(n=43)	2.02(0.97)	2.04(0.99)	2.07(0.95)	2.22(1.02)	1.58		.21
일반(n=15)		2.18(1.12)	2.46(1.10)	2.19(0.90)	2.43(1.16)				

〈그림 IV-2〉 측정 시기에 따른 개인발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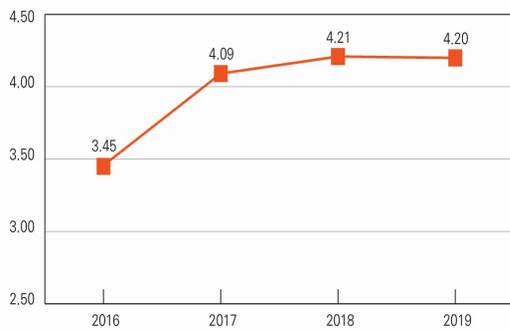
(5점 만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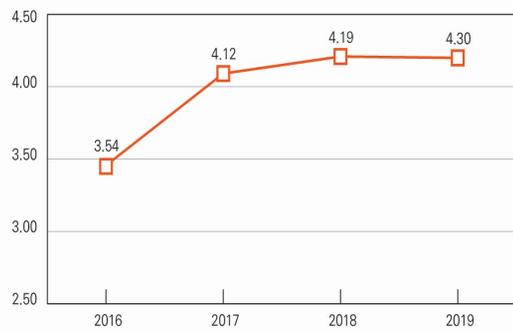
자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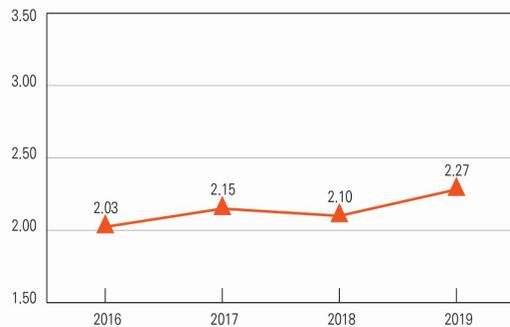
성실



의사소통능력



미래전망



건강

1.2.2.3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인적 관계 효과분석

- 1단계 패널의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와 아동의 인적 관계의 효과성 지표의 변화를 4년간 종단적으로 비교 분석하였음. 인적 관계의 주요 평가지표는 타인수용도, 타인배려, 가족응집력, 협동(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해결)으로 구성하였음.
- 인적 관계 부분에서 타인수용도에 대한 분석 결과 참여 아동의 평균 점수는 2016년 3.36

점, 2017년 3.95점, 2018년 4.10점, 2019년 4.30점으로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음($F=16.99$, $p=.00$). 이는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경험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타인에 대해 유연하게 생각하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였음을 나타냄.

- 타인수용도의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면 아동들은 2016년에 비해 2017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향상세를 보였고, 2018년과 2019년에는 향상된 수준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분석 결과 남학생은 평가 시기별 3.43점, 4.04점, 4.05점, 4.12점의 변화를, 여학생은 3.33점, 3.91점, 4.12점, 4.37점의 변화를 보였으며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 취약계층의 변화는 3.36점, 3.98점, 4.18점, 4.37점, 일반계층의 변화는 3.36점, 3.85점, 3.86점, 4.09점이었으며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1단계 패널의 타인배려는 2016년 3.32점, 2017년 3.97점, 2018년 4.05점, 2019년 4.2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세를 보였음($F=13.76$, $p=.00$). 이는 아동의 오케스트라 활동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음.
 - 타인배려에 대한 대비분석 결과 2016년에 비해 2017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2018년과 2019년은 2017년의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타인배려의 차이분석 결과 남학생은 2016년 3.41점, 2017년 4.10점, 2018년 4.04점, 2019년 4.03점, 여학생은 2016년 3.28점, 2017년 3.91점, 2018년 4.05점, 2019년 4.38점의 점수 변화를 보였으나 집단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음.
 - 취약계층의 타인배려 변화는 3.30점, 4.03점, 4.14점, 4.36점, 일반계층의 변화는 3.38점, 3.78점, 3.78점, 4.05점이었으며,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가족응집력의 분석 결과 2016년에는 4.24점, 2017년 4.33점, 2018년 4.36점, 2019년 4.2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음.
 - 성별 차이 분석 결과에서도 남학생은 4.18점, 4.31점, 4.21점, 4.19점, 여학생은 4.27점, 4.34점, 4.43점, 4.21점으로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서도 취약계층의 변화는 4.27점, 4.32점, 4.40점, 4.22점, 일반계층의 변화는 4.16점, 4.36점, 4.25점, 4.1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를 통한 아동들의 협동심의 구성요인인 집단축진, 팔로워십, 갈등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에 대한 시기별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검증한 결과, 2016년에 비해 2017년에는 유의한 향상 수준을 보였고, 2018년과 2019년에는 향상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협동 능력의 구성요인으로 집단축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6년도의 평균 점수는 3.19점에서 2017년 3.95점, 2018년 4.13점, 2019년 4.0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 수준을 나타냄($F=18.49$, $p=.00$). 이러한 분석 결과는 오케스트라를 통한 집단 활동의 경험을 통해 아동들이 집단의 구성원들 간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기여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음.
 - 집단축진의 성별 차이 분석 결과 남학생은 3.27점, 4.06점, 4.00점, 3.85점으로, 여학생은 3.16점, 3.91점, 4.17점, 4.14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집단축진의 차이에서도 취약계층은 3.25점, 4.04점, 4.20점, 4.10점 일반계층은 3.01점, 3.74점, 3.88점, 3.96점으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협동심 중 팔로워십에 대한 분석 결과 2016년의 평균 점수는 3.36점, 2017년은 3.98점, 2018년은 4.26점, 2019년은 4.2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임($F=15.84$, $p=.00$).
 - 남학생의 팔로워십은 3.42점, 3.84점, 3.98점, 4.02점으로, 여학생은 3.33점, 4.04점, 4.37점, 4.36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취약계층의 변화는 3.41점, 4.08점, 4.35점, 4.34점, 일반계층의 변화는 3.20점, 3.69점, 4.02점, 4.00점으로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갈등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2016년 3.26점, 2017년 3.93점, 2018년 4.17점, 2019년 4.1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나타냄($F=16.64$, $p=.00$). 이러한 결과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집단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룹의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되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됨.
 -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남학생은 3.21점, 3.78점, 4.11점, 3.86점, 여학생은 3.28점, 3.99점, 4.19점, 4.26점으로 변화하였고,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서도 취약계층은 3.32점, 3.98점, 4.29점, 4.21점, 일반계층은 3.09점, 3.80점, 3.82점, 3.97점으로 변화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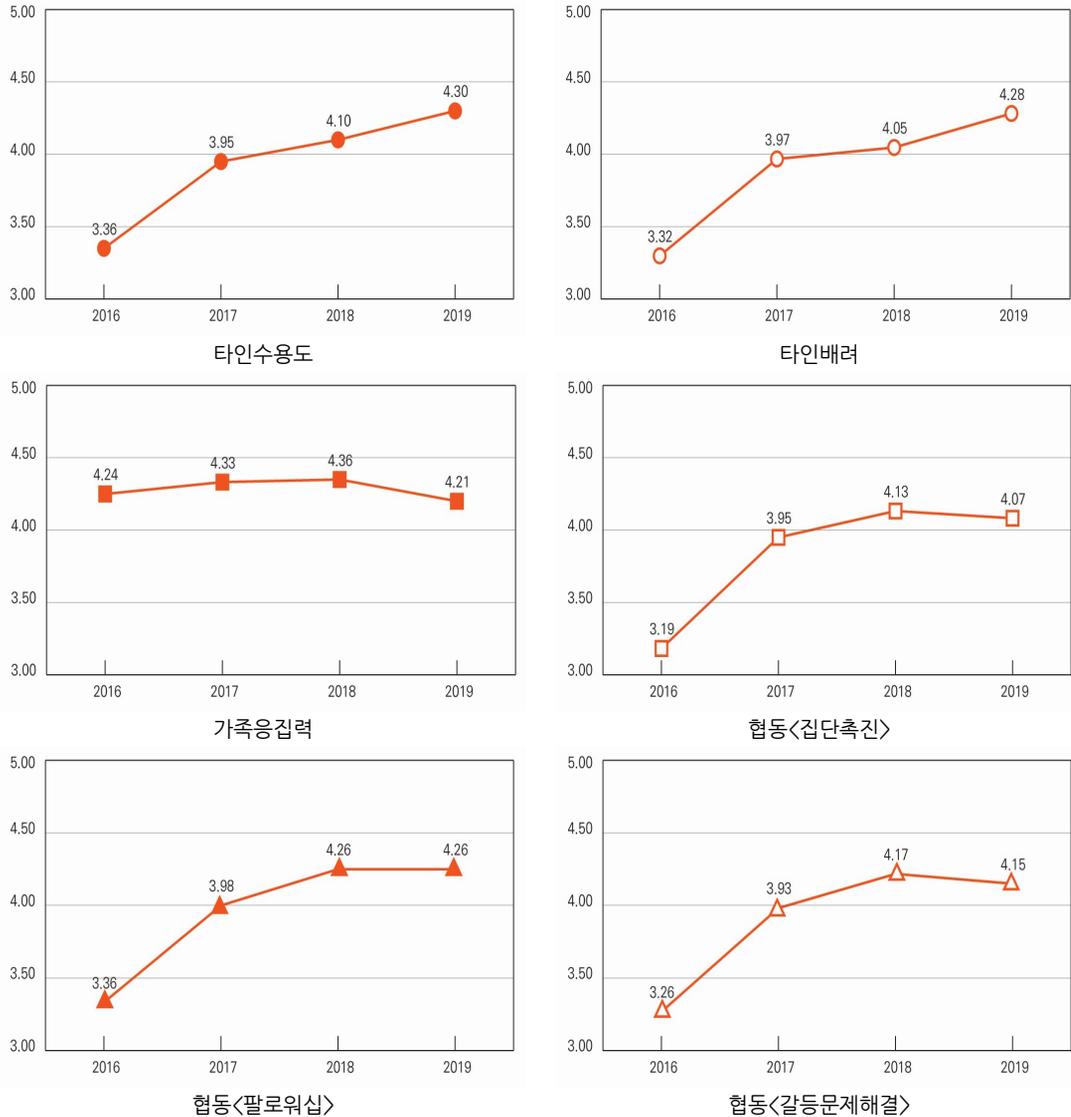
<표 IV-5> 1단계 패널의 인적 관계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F	p	대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D1 타인 수용도	전체(n=60)	3.36(0.60)	3.95(0.76)	4.10(0.67)	4.30(0.69)	16.99	.00	2016 < 2017 = 2018 = 2019	
	성별	남(n=17)	3.43(0.63)	4.04(0.74)	4.05(0.68)	4.12(0.77)	.02		.89
		여(n=43)	3.33(0.58)	3.91(0.77)	4.12(0.67)	4.37(0.65)			
	취약 여부	취약(n=45)	3.36(0.61)	3.98(0.78)	4.18(0.68)	4.37(0.68)	1.63		.21
일반(n=15)		3.36(0.58)	3.85(0.68)	3.86(0.61)	4.09(0.70)				
D2 타인 배려	전체(n=60)	3.32(0.59)	3.97(0.79)	4.05(0.67)	4.28(0.68)	13.76	.00	2016 < 2017 = 2018 = 2019	
	성별	남(n=17)	3.41(0.67)	4.10(0.81)	4.04(0.71)	4.03(0.73)	.03		.85
		여(n=34)	3.28(0.56)	3.91(0.78)	4.05(0.66)	4.38(0.64)			
	취약 여부	취약(n=45)	3.30(0.59)	4.03(0.82)	4.14(0.66)	4.36(0.67)	2.03		.16
일반(n=15)		3.38(0.60)	3.78(0.66)	3.78(0.64)	4.05(0.66)				
H 가족 응집력	전체(n=59)	4.24(0.78)	4.33(0.78)	4.36(0.69)	4.21(0.86)	.49	.69	-	
	성별	남(n=17)	4.18(0.88)	4.31(0.86)	4.21(0.70)	4.19(0.76)	.11		.75
		여(n=42)	4.27(0.74)	4.34(0.75)	4.43(0.68)	4.21(0.91)			
	취약 여부	취약(n=45)	4.27(0.76)	4.32(0.79)	4.40(0.62)	4.22(0.84)	.04		.85
일반(n=14)		4.16(0.86)	4.36(0.79)	4.25(0.89)	4.18(0.96)				
I1 협동 <집단 촉진>	전체(n=59)	3.19(0.63)	3.95(0.76)	4.13(0.74)	4.07(0.76)	18.49	.00	2016 < 2017 = 2018 = 2019	
	성별	남(n=16)	3.27(0.71)	4.06(0.81)	4.00(0.68)	3.89(0.68)	.02		.89
		여(n=43)	3.16(0.60)	3.91(0.75)	4.17(0.76)	4.14(0.78)			
	취약 여부	취약(n=45)	3.25(0.63)	4.01(0.76)	4.20(0.77)	4.10(0.78)	1.90		.17
일반(n=14)		3.01(0.63)	3.74(0.74)	3.88(0.58)	3.96(0.68)				
I2 협동 <팔로 워십>	전체(n=60)	3.36(0.67)	3.98(0.80)	4.26(0.71)	4.26(0.73)	15.84	.00	2016 < 2017 = 2018 = 2019	
	성별	남(n=17)	3.42(0.70)	3.84(0.87)	3.98(0.73)	4.02(0.71)	.57		.45
		여(n=43)	3.33(0.67)	4.04(0.77)	4.37(0.68)	4.36(0.72)			
	취약 여부	취약(n=45)	3.41(0.63)	4.08(0.85)	4.35(0.70)	4.34(0.75)	2.67		.11
일반(n=15)		3.20(0.78)	3.69(0.54)	4.02(0.72)	4.00(0.63)				
I3 갈등 문제 해결	전체(n=56)	3.26(0.75)	3.93(0.75)	4.17(0.70)	4.15(0.82)	16.64	.00	2016 < 2017 = 2018 = 2019	
	성별	남(n=16)	3.21(0.81)	3.78(0.78)	4.11(0.63)	3.86(0.74)	.33		.57
		여(n=40)	3.28(0.74)	3.99(0.73)	4.19(0.73)	4.26(0.83)			
	취약 여부	취약(n=41)	3.32(0.74)	3.98(0.79)	4.29(0.69)	4.21(0.85)	1.58		.21
일반(n=15)		3.09(0.78)	3.80(0.61)	3.82(0.59)	3.97(0.72)				

〈그림 IV-3〉 인적 관계 조사 시점별 변화

(5점 만점 기준)



1.2.2.4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효과분석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측면의 효과성을 사회적 신뢰, 소속감 및 유대감, 공동체 참여 행동과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으로 분석함.
- 공공적 함의 영역에서 사회적 신뢰에 대한 분석 결과, 2016년 3.29점, 2017년 3.82점, 2018년 3.91점, 2019년 3.6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음($F=8.18, p=.00$). 이는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경험이 아동들의 주변사람, 학교, 사회, 국가에 대한 신뢰 형성

- 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참여 아동의 사회적 신뢰의 향상은 2016년과 2017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향상된 수준이 내재화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차이 분석 결과 남학생은 3.34점, 3.94점, 4.19점, 3.88점, 여학생은 3.28점, 3.78점, 3.80점, 3.49점의 변화를 보였으나, 성별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취약계층은 3.24점, 3.75점, 3.84점, 3.51점, 일반계층은 3.45점, 4.01점, 4.11점, 3.84점으로 향상 추세를 보였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소속감/유대감의 분석 결과 2016년에서 2019년의 평균 점수는 3.48점, 3.92점, 4.09점, 3.73점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F=7.07, p=.00$). 이는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아동들의 지역 사회 및 준거집단에서의 애착과 소속감 향상에 기여하였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됨.
- 소속감 및 유대감은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2018과 2019년에는 향상된 2017년의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성별 차이 분석 결과, 남학생은 3.30점, 3.98점, 3.98점, 3.79점, 여학생은 3.54점, 3.90점, 4.14점, 3.79점으로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 취약계층은 3.47점, 4.00점, 4.17점, 3.74점, 일반계층은 3.51점, 3.72점, 3.87점, 3.71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공동체 참여행동에 대한 효과성 분석 결과는 2016년 3.22점, 2017년 3.67점, 2018년 3.54점, 2019년 3.5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변화를 보였음($F=3.01, p=.03$). 이는 아동들이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경험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도움과 봉사활동, 기부활동, 환경보호활동 등과 같은 공동체 참여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냄.
- 참여 아동의 공동체 참여행동은 2016년과 2017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향상된 수준이 내재화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학생의 공동체 참여 행동은 3.10점, 3.35점, 3.35점, 3.33점, 여학생은 3.26점, 3.79점, 3.60점, 3.58점의 변화를 보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의 변화는 3.23점, 3.65점, 3.58점, 3.50점, 일반계층은 3.18점, 3.75점, 3.40점, 3.56점으로 집단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음.
- 사회경제적 혜택의 측면에서 사회자본과 관련한 분석 결과 2016년 3.44점, 2017년 4.03점, 2018년 4.36점, 2019년 3.9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임($F=11.65, p=.000$). 이는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은 아동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사람, 고민을 나누는 친구, 가깝게 지내는 친척 등의 사회자본 형성에 도움이 되었음을 나타냄.

〈표 IV-6〉 1단계 패널의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F	p	대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G1 사회적 신뢰	전체(n=59)	3.29(0.63)	3.82(0.78)	3.91(0.91)	3.60(0.85)	8.18	.00	2016 < 2017 = 2018 = 2019	
	성별	남(n=16)	3.34(0.56)	3.94(0.71)	4.19(0.90)	3.88(0.65)	2.97		.09
		여(n=43)	3.28(0.66)	3.78(0.81)	3.80(0.90)	3.49(0.90)			
	취약 여부	취약(n=44)	3.24(0.58)	3.75(0.80)	3.84(0.89)	3.51(0.87)	3.11		.08
		일반(n=15)	3.45(0.76)	4.01(0.70)	4.11(0.96)	3.84(0.78)			
G2 소속감 유대감	전체(n=58)	3.48(0.62)	3.92(0.74)	4.09(0.72)	3.73(0.76)	7.07	.00	2016 < 2017 = 2018 = 2019	
	성별	남(n=16)	3.30(0.49)	3.98(0.71)	3.98(0.77)	3.79(0.71)	.10		.75
		여(n=42)	3.54(0.66)	3.90(0.76)	4.14(0.71)	3.71(0.78)			
	취약 여부	취약(n=43)	3.47(0.54)	4.00(0.73)	4.17(0.69)	3.74(0.78)	.11		.74
		일반(n=15)	3.51(0.84)	3.72(0.74)	3.87(0.79)	3.71(0.72)			
G3 공동체 참여 행동	전체(n=59)	3.22(0.66)	3.67(0.89)	3.54(0.96)	3.51(0.96)	3.01	.03	2016 < 2017 = 2018 = 2019	
	성별	남(n=16)	3.10(0.61)	3.35(0.96)	3.35(1.06)	3.33(0.97)	1.99		.16
		여(n=43)	3.26(0.68)	3.79(0.84)	3.60(0.93)	3.58(0.96)			
	취약 여부	취약(n=44)	3.23(0.62)	3.65(0.97)	3.58(0.95)	3.50(0.97)	.00		.99
		일반(n=15)	3.18(0.76)	3.75(0.61)	3.40(1.03)	3.56(0.98)			
G4 사회 자본	전체(n=60)	3.44(0.68)	4.03(0.88)	4.36(0.73)	3.97(0.94)	11.65	.00	2016 < 2017 = 2018 > 2019	
	성별	남(n=16)	3.38(0.65)	3.81(0.86)	4.27(0.82)	3.98(0.89)	.74		.39
		여(n=44)	3.46(0.70)	4.11(0.88)	4.39(0.71)	3.96(0.97)			
	취약 여부	취약(n=45)	3.38(0.65)	4.06(0.93)	4.37(0.71)	3.94(1.01)	.06		.81
		일반(n=15)	3.62(0.76)	3.96(0.74)	4.33(0.82)	4.04(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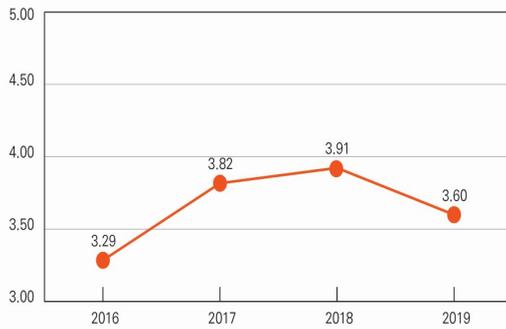
- 사회자본의 변화는 2016년에 비해 2017년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2017년에 비해 2018년은 평균값은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변화는 아닌 것으로 나타남. 반면 2019년에는 2018년도에 대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감소를 나타냄. 이러한 사회자본 변수의 감소는 본 연구에서만 발생하는 특수사항은 아닐 수 있음. 즉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초등학교 6학년(1차), 중학교 1학년(2차), 중학교 2학년(3차)의 발달 단계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회자본 수준은 차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음(서정아, 엄지민 2015). 그러므로 본 연구의 패널이 주로 초등학교 6학년 이상으로 구성되었음을 고려할 때, 2017년과 2018년 사회자본의 유의미한 감소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본 연구 패널의 사회자본

수준이 감소폭이 일반적인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른 감소폭보다 적다면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의 긍정적 효과로 해석할 수 있음. 따라서 2018년과 2019년 유의미한 수준의 사회 자본 감소가 꿈의 오케스트라의 효과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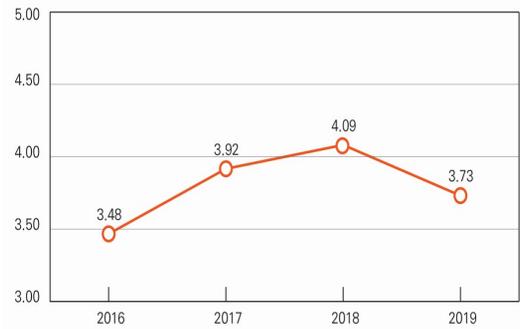
- 남학생의 사회자본 수준은 3.38점, 3.81점, 4.27점, 3.98점으로 변화하였고 여학생은 3.46점, 4.11점, 4.39점, 3.96점으로 변화하였으며, 성별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의 사회자본 수준은 3.38점, 4.06점, 4.37점, 3.94점, 일반계층은 3.62점, 3.96점, 4.33점, 4.04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그림 IV-4>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조사 시점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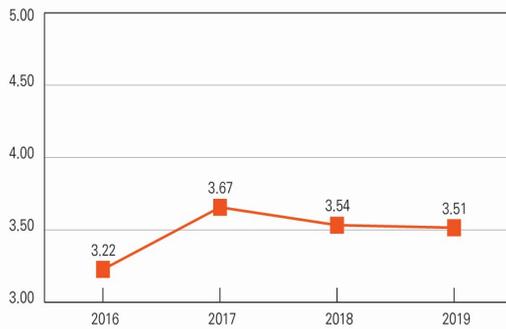
(5점 만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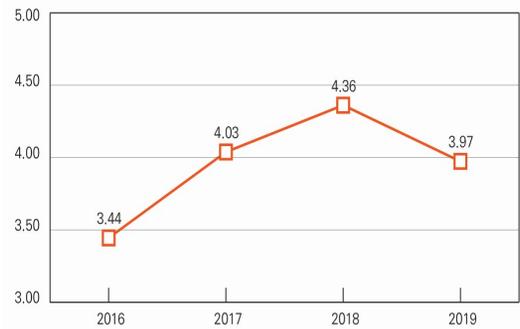
사회적 신뢰



소속감/유대감



공동체참여행동



사회 자본

1.3 꿈의 오케스트라 집단 간 비교를 통한 아동의 효과성 분석

1.3.1 분석 개요

-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 패널의 효과성을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증하고자 2019년도 조사 참여 아동들을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기간에 따라(1년, 2년, 3년, 4년) 구분하고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집단 간 효과성 지표에 대한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함. 이 때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된 경우 사후검증(Scheffe test)을 이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을 규명함.

1.3.2 음악적 성장의 집단 간 비교 분석 결과

- 2019년도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참여 아동들의 참여기간별 음악적 성장 수준을 비교 분석함. 분석 결과 아동의 음악지식(F=15.24, p=.00)과 음악향유(F=4.20, p=.01)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7〉 음악적 성장의 일원 분산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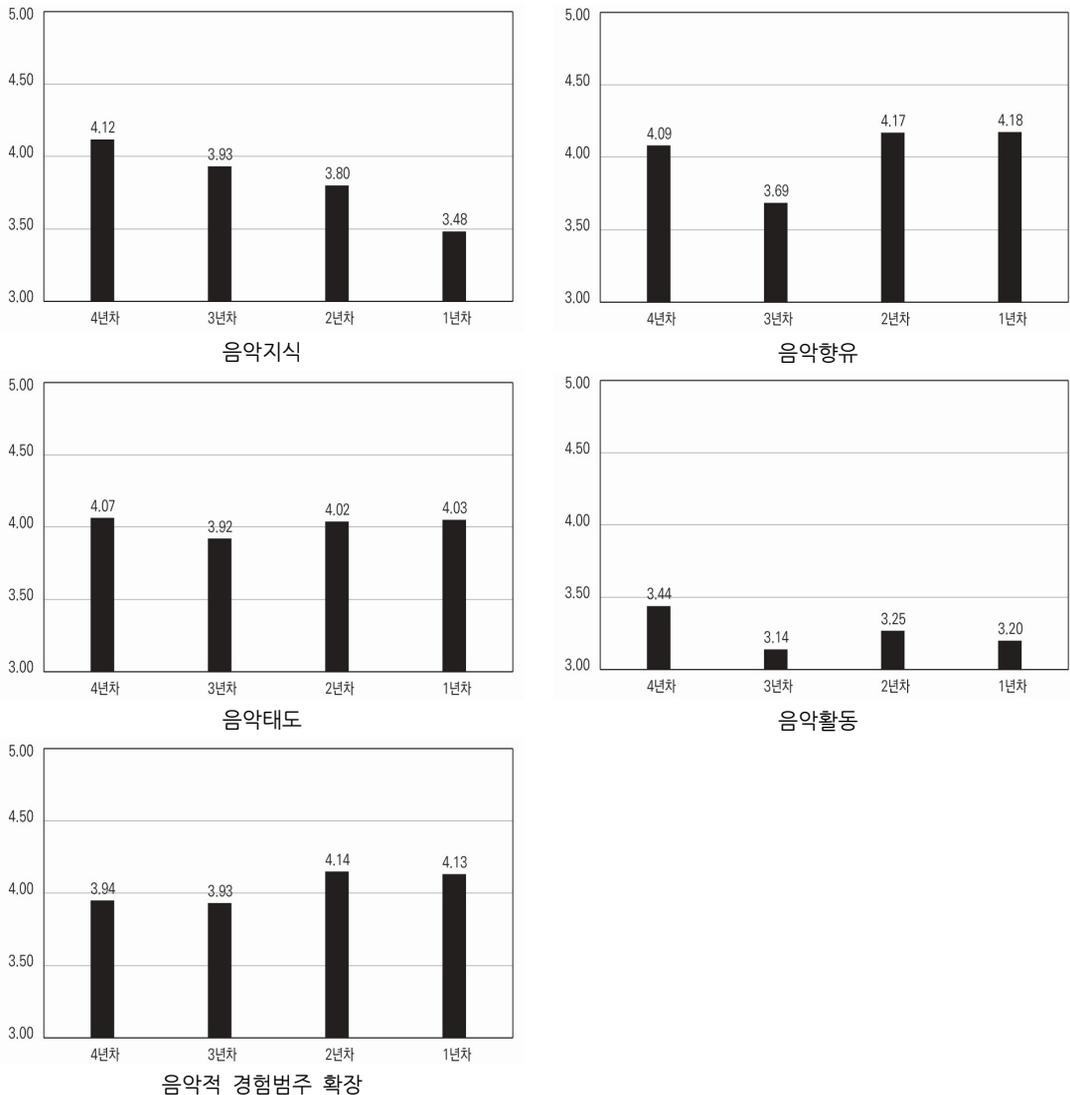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집단비교
A 음악 지식	4년	83	4.12	0.75	15.24	.00	1년 <2년 =3년 =4년
	3년	43	3.93	0.73			
	2년	60	3.80	0.76			
	1년	316	3.48	0.90			
B1 음악 향유	4년	83	4.09	0.95	4.20	.01	1년 =2년 >3년
	3년	43	3.69	0.93			
	2년	60	4.17	0.99			
	1년	318	4.18	0.80			
B2 음악 태도	4년	83	4.07	0.96	.28	.84	-
	3년	43	3.92	0.86			
	2년	60	4.02	1.02			
	1년	314	4.03	0.78			
B3 음악 활동	4년	83	3.44	1.02	1.65	.18	-
	3년	43	3.14	0.97			
	2년	60	3.25	0.82			
	1년	318	3.20	0.90			

F1 음악적 경험범주 확장	4년	83	3.94	1.05	1.23	.30	-
	3년	43	3.93	1.07			
	2년	60	4.14	1.11			
	1년	319	4.13	0.94			

- 사후 검증 결과 음악지식 수준은 참여기간이 1년과 2년, 1년과 3년, 1년과 4년인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음악향유의 경우 사후 검증 결과를 통해, 참여기간이 1년과 3년, 2년과 3년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함.

〈그림 IV-5〉 음악적 성장의 집단 간 비교

(5점 만점 기준)



1.4.3 개인적 발달의 집단 간 비교 분석 결과

- 2019년도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참여 아동들의 참여기간에 따른 개인적 발달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자존감(F=8.04, p=.00), 의사소통능력(F=8.56, p=.00), 미래전망(F=10.94, p=.00)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8〉 개인적 발달의 일원 분산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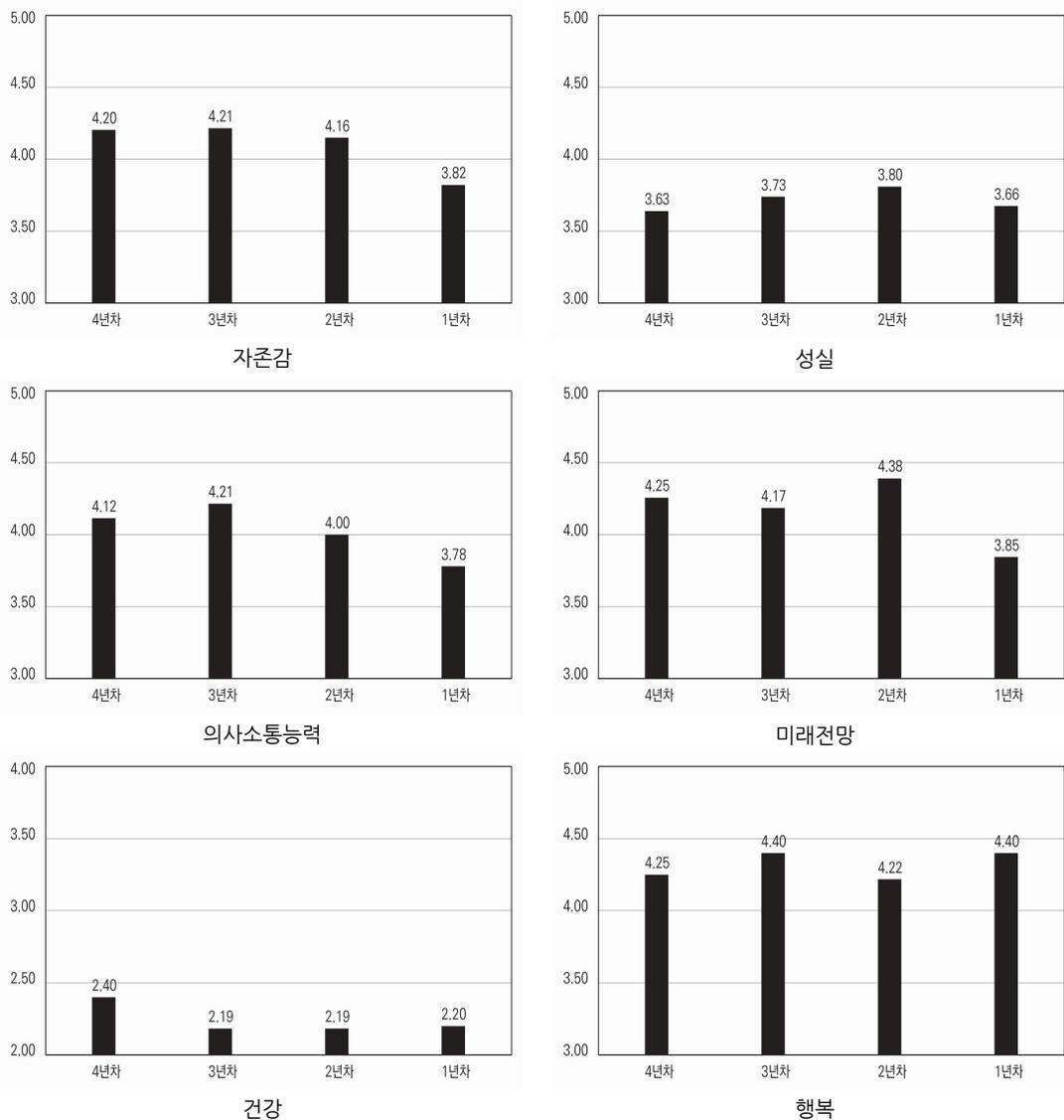
(5점 만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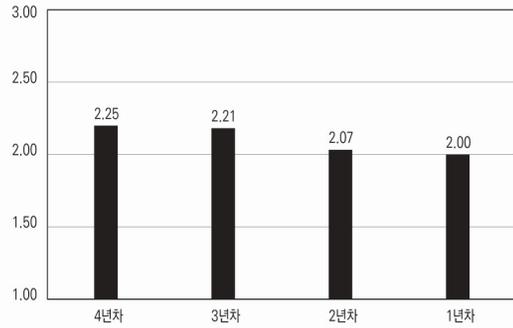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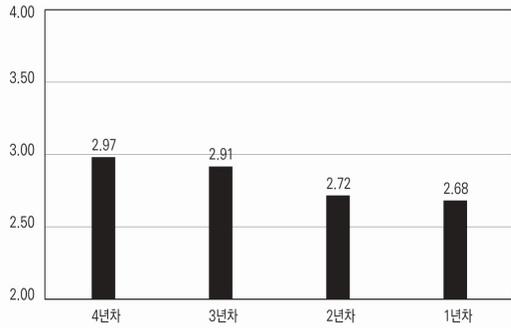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집단비교
C1 자존감	4년	82	4.20	0.83	8.04	.00	1년 <2년 =3년 =4년
	3년	43	4.21	0.72			
	2년	60	4.16	0.74			
	1년	318	3.82	0.85			
C2 성실	4년	83	3.63	0.86	.60	.62	
	3년	43	3.73	0.81			
	2년	60	3.80	0.82			
	1년	319	3.66	0.83			
C3 의사 소통 능력	4년	83	4.12	0.74	8.56	.00	1년 <3년 =4년
	3년	43	4.21	0.63			
	2년	60	4.00	0.80			
	1년	318	3.78	0.71			
E1 미래 전망	4년	83	4.25	0.77	10.94	.00	1년 <2년 =4년
	3년	43	4.17	0.80			
	2년	60	4.38	0.80			
	1년	319	3.85	0.86			
E2 건강	4년	83	2.40	1.11	.82	.48	-
	3년	43	2.19	1.05			
	2년	60	2.19	1.08			
	1년	317	2.20	1.05			
	합계	503	2.23	1.06			
F2 행복	4년	83	4.25	0.92	1.34	.26	-
	3년	43	4.40	0.74			
	2년	60	4.22	0.93			
	1년	321	4.40	0.83			
	합계	507	4.36	0.85			
F3 행동적 공격성	4년	83	2.97	1.11	1.79	.15	-
	3년	43	2.91	1.05			
	2년	60	2.72	1.15			
	1년	321	2.68	1.11			
	합계	507	2.75	1.11			
F4 언어적 공격성	4년	83	2.25	0.91	1.76	.15	-
	3년	43	2.21	0.96			
	2년	60	2.07	0.95			
	1년	317	2.00	1.00			
	합계	503	2.07	0.98			

- 사후 검증 결과, 자존감은 참여기간이 1년보다 2년, 또는 3년과 4년인 집단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의사소통능력의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참여기간이 1년 집단의 평균보다 3년 또는 4년 집단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래전망의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참여기간이 1년 집단의 평균보다 2년 또는 4년 집단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IV-6〉 개인적 발달의 집단 간 비교

(5점 만점 기준)





행동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1.3.4 인적 관계의 집단 간 비교 분석 결과

- 아동들의 참여기간별 인적 관계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타인 배려($F=2.93, p=.03$), 협동의 집단축진($F=3.34, p=.02$), 팔로워십($F=11.77, p=.00$), 갈등문제해결($F=4.12, p=.01$)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사후 검증 결과 타인 배려는 참여기간이 1년 집단보다 2년 또는 4년 집단의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협동의 구성 차원에 대한 사후 검증 결과 집단축진은 참여기간이 1년보다 3년의 평균 수준이, 팔로워십은 1년보다 2년, 3년 또는 4년 집단이, 갈등문제해결은 4년 보다 3년인 집단의 평균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IV-9> 인적 관계의 일원 분산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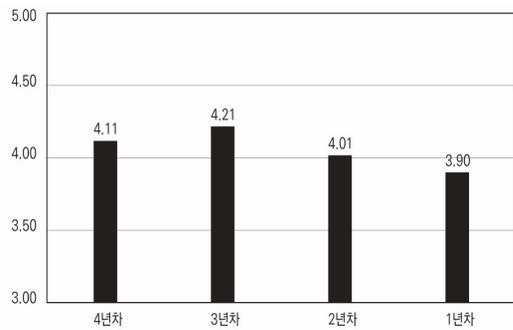
(5점 만점 기준)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집단비교
D1 타인 수용도	4년	83	4.11	2.67	.05	-
	3년	43	4.21			
	2년	59	4.01			
	1년	318	3.90			
D2 타인 배려	4년	83	4.11	2.93	.03	1년 <2년 =4년
	3년	43	4.15			
	2년	60	4.06			
	1년	318	3.88			
H 가족 응집력	4년	83	4.08	.29	.83	-
	3년	43	4.21			
	2년	60	4.17			
	1년	320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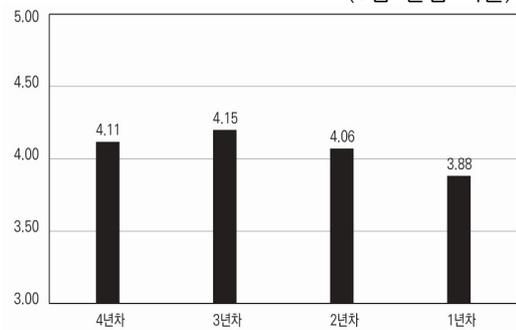
I1 협동 <집단촉진>	4년	82	4.00	0.82	3.34	.02	1년 <3년
	3년	43	4.21	0.70			
	2년	60	3.91	0.80			
	1년	320	3.81	0.88			
I2 협동 <팔로워십>	4년	83	4.18	0.75	11.77	.00	1년 <2년 =3년 =4년
	3년	43	4.38	0.67			
	2년	60	4.09	0.82			
	1년	319	3.77	0.85			
I3 갈등 문제 해결	4년	83	4.07	0.84	4.12	.01	.1년 <3년
	3년	43	4.21	0.72			
	2년	60	3.99	0.84			
	1년	315	3.80	0.93			

<그림 IV-7> 인적 관계의 집단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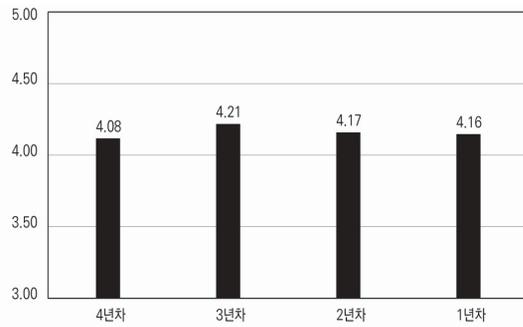
(5점 만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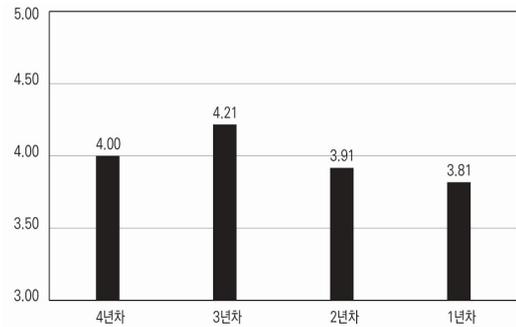
타인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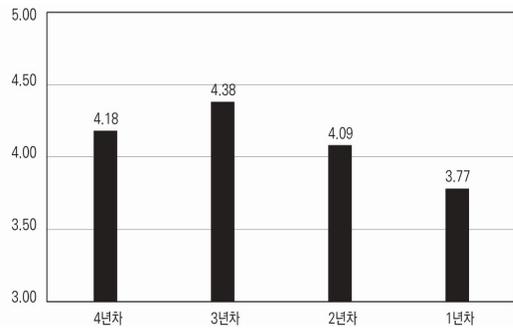
타인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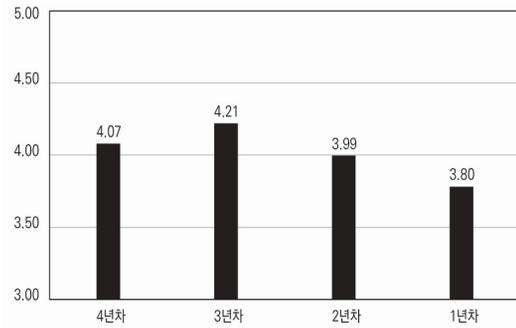
가족응집력



협동<집단촉진>



협동<팔로워십>



협동<갈등문제해결>

1.3.5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의 집단 간 비교 분석 결과

- 2019년 참여 아동들의 참여기간별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인식 수준에 대한 분산 분석 결과 사회적 신뢰($F=7.53, p=.00$), 소속감 및 유대감($F=3.57, p=.01$)의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남.
- 사후 검증 결과 사회적 신뢰 수준은 참여기간이 1년에 비해 4년 집단의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소속감 및 유대감의 수준은 참여기간이 3년에 비해 4년인 집단에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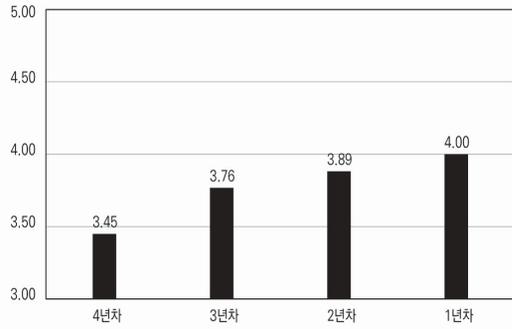
<표 IV-10>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의 일원 분산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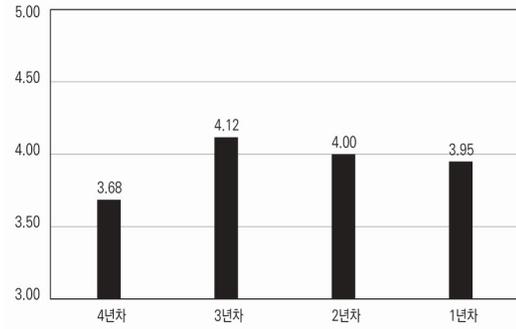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p	집단비교
G1 사회적 신뢰	4년	83	3.45	0.96	7.53	.00	1년 >4년
	3년	43	3.76	1.04			
	2년	60	3.89	0.99			
	1년	321	4.00	0.94			
G2 소속감 유대감	4년	83	3.68	0.79	3.57	.01	3년 >4년
	3년	43	4.12	0.75			
	2년	60	4.00	0.86			
	1년	320	3.95	0.81			
G3 공동체 참여 행동	4년	83	3.40	0.99	.87	.45	-
	3년	43	3.57	0.90			
	2년	59	3.53	0.94			
	1년	319	3.58	0.85			
G4 사회 자본	4년	83	3.98	0.86	.67	.57	-
	3년	43	4.16	0.91			
	2년	60	4.07	0.99			
	1년	321	3.97	0.90			

〈그림 IV-8〉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의 집단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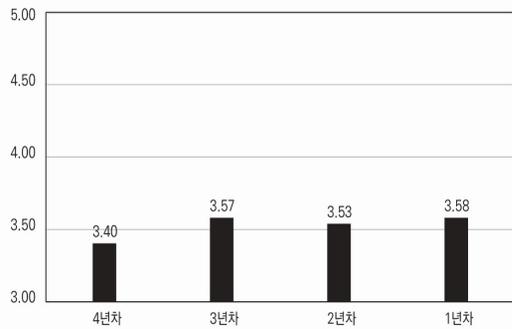
(5점 만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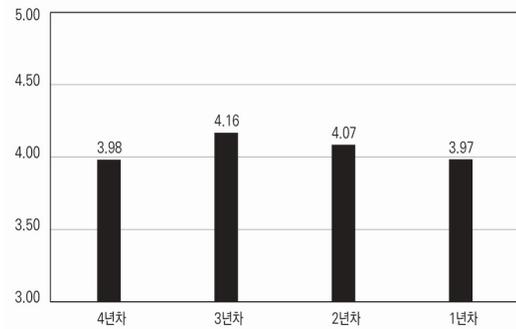
사회적 신뢰



소속감/유대감



공동체참여행동



사회 자본

1.4.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의 영향요인 분석

1.4.1. 분석 개요

- 꿈의 오케스트라 2019년도 참여 아동의 음악적 성장, 개인 발달, 인적 관계, 공공적 함의와 사회자본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model)을 실시함.
- 효과성의 영향요인은 2016~2019년에 진행된 1단계 패널 데이터의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규명된 유의미한 영향요인들을 중심으로 설정됨. 세부적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의 자부심, 오케스트라 참여의 적극성,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음악적 권태,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공연활동의 성취감을 효과성에 미치는 단원의 내적 심리적 영향요인으로 고려함. 또한 꿈의 오케스트라 이외의 타 음악교육과 오케스트라 활동 경험을 영향요인으로 고려함. 한편 효과성의 인적 요인의 영향력은 부모, 동료, 교육강사 지지요인으로 반영함.

<표 IV-11> 꿈의 오케스트라 영향요인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1. 단원자부심	4.17	0.86	1							
2. 참여적극성	4.09	0.86	.77**	1						
3. 음악적권태	2.16	1.15	-.42**	-.43**	1					
4. 타 음악교육 경험	3.91	1.40	.23**	.21**	-.16**	1				
5. 타 오케스트라 경험	1.89	1.41	.02	.05	.08	.16**	1			
6. 부모지지	3.95	0.95	.36**	.38**	-.22**	.30**	.05	1		
7. 동료지지	2.94	1.11	.28**	.32**	-.03	.14**	.17**	.33**	1	
8. 교육강사지지	4.32	0.80	.64**	.58**	-.42**	.17**	-.03	.34**	.25**	1
9. 공연활동성취감	4.07	1.01	.63**	.56**	-.34**	.14**	.03	.37**	.28**	.55**

** p<.01

1.4.2.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 2019년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음악적 성장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교 정규 교육 이외 음악 교육의 경험($\beta=.11, p<.001$), 타 오케스트라 경험($\beta=.08, p<.01$), 부모의 지지($\beta=.16, p<.001$), 공연활동 성취감($\beta=.18, p<.001$)이 음악지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단원 자부심($\beta=.19, p<.001$), 참여 적극성($\beta=.25, p<.001$), 동료지지($\beta=.05, p<.05$), 교육강사 지지($\beta=.12, p<.01$), 공연활동 성취감($\beta=.15, p<.001$)은 음악 향유에 정(+의 영향을, 음악적 권태($\beta=-.20, p<.001$)는 음악향유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됨.
- 음악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단원 자부심($\beta=.15, p<.01$), 참여 적극성($\beta=.19, p<.001$), 부모 지지($\beta=.09, p<.05$), 교육강사 지지($\beta=.21, p<.001$), 공연활동 성취감($\beta=.09, p<.05$)은 정(+의 영향을, 음악적 권태($\beta=-.10, p<.001$)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참여 적극성($\beta=.25, p<.001$), 타 오케스트라 경험($\beta=.09, p<.001$), 동료지지($\beta=.11, p<.01$), 공연활동 성취감($\beta=.21, p<.001$)은 음악활동에 정(+의 영향을, 음악적 권태($\beta=-.08, p<.05$)는 음악활동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음악적 경험 확장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결과 단원 자부심($\beta=.34, p<.001$), 참여 적극성($\beta=.18, p<.01$), 타 음악교육 경험($\beta=.06, p<.05$), 동료 지지($\beta=.07, p<.05$), 공연활동 성취감($\beta=.15, p<.01$)은 정(+의 영향을, 음악적 권태($\beta=-.09, p<.01$)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표 IV-12〉 음악적 성장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구분	음악지식	음악향유	음악태도	음악활동	음악적 경험 확장
	B	B	B	B	B
단원 자부심	0.12	0.19***	0.15**	0.00	0.34***
참여 적극성	-0.01	0.25***	0.19***	0.25***	0.18**
음악적 권태	0.01	-0.20***	-0.10***	-0.08*	-0.09**
타 음악교육 경험	0.11***	0.00	0.04	0.05	0.06*
타 오케스트라 경험	0.08**	0.00	0.00	0.09***	-0.01
부모 지지	0.16***	-0.03	0.09*	0.06	0.03
동료 지지	0.00	0.05*	-0.01	0.11**	0.07*
교육강사 지지	0.06	0.12**	0.21***	-0.03	-0.06
공연활동 성취감	0.18***	0.15***	0.09*	0.21***	0.15**
F	19.66***	88.91***	53.29***	26.89***	34.31***
R ²	.27	.62	.50	.33	.39

* p<.05, ** p<.01, *** p<.001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경험을 통한 개인 발달의 영향 요인을 분석함. 분석 결과 단원 자부심($\beta = .27, p < .001$), 타 음악교육 경험($\beta = .05, p < .05$)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성실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결과에서는 참여 적극성($\beta = .24, p < .001$), 부모지지($\beta = .10, p < .05$)가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이 규명됨.
- 의사소통능력에는 단원 자부심($\beta = .13, p < .05$), 타 음악교육 경험($\beta = .07, p < .01$)이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배려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결과, 단원 자부심($\beta = .17, p < .05$), 동료지지($\beta = .09, p < .01$), 공연활동 성취감($\beta = .10, p < .05$)은 정(+)의 영향을, 음악적 권태($\beta = -.09, p < .05$)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미래전망에는 단원 자부심($\beta = .21, p < .01$), 참여 적극성($\beta = .12, p < .05$), 부모 지지($\beta = .08, p < .05$), 공연활동 성취감($\beta = .15, p < .01$)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음악적 권태($\beta = .36, p < .001$)는 건강과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음악적 권태를 느낄수록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행복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결과, 단원 자부심($\beta = .26, p < .001$), 부모 지지($\beta = .11, p < .01$), 교육감사 지지($\beta = .22, p < .001$)의 유의미한 효과가 검증됨.
- 음악적 권태와 언어적 공격성($\beta = .27, p < .001$), 행동적 공격성($\beta = .25, p < .001$)간 유의미한 관계가 검증됨.

〈표 IV-13〉 개인 발달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구분	자존감	성실	의사소통 능력	배려	미래전망	건강	행복	언어적 공격성	행동적 공격성
	B	B	B	B	B	B	B	B	B
단원자부심	0.27***	0.07	0.13*	0.17*	0.21**	-0.02	0.26***	-0.04	-0.05
참여 적극성	0.10	0.24***	0.10	0.07	0.12*	0.02	0.08	0.02	0.00
음악적 권태	0.02	-0.02	0.03	-0.09*	0.02	0.36***	0.00	0.27***	0.25***
타 음악 교육 경험	0.05*	0.00	0.07**	0.00	0.04	0.00	0.01	0.02	0.08
타오케스트라 경험	-0.03	0.04	0.01	0.02	0.00	0.05	0.00	0.04	-0.03
부모지지	0.07	0.10*	0.07	0.04	0.08*	-0.03	0.11**	-0.03	0.01
동료지지	0.04	0.07	0.01	0.09**	-0.01	0.02	0.02	0.07	-0.02
교육감사 지지	0.10	0.10	0.10	0.08	0.07	-0.14	0.22***	-0.13	-0.14
공연활동 성취감	0.03	0.05	0.06	0.10*	0.15**	0.07	0.02	0.01	0.07
F	27.73***	20.36***	16.71***	18.72**	23.61***	12.40***	26.95***	9.89***	5.43***
R ²	.29	.28	.24	.26	.31	.19	.33	.16	.09

* p<.05, ** p<.01, *** p<.001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경험을 통한 인적 관계 발달에 대한 영향 요인을 살펴본 결과 단원 자부심($\beta = .24, p < .01$)과 동료 지지($\beta = .07, p < .05$), 공연활동 성취감($\beta = .13, p < .01$)은 타인 수용도에 정(+)의 영향을 음악적 권태($\beta = -.09, p < .01$)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타인 배려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결과에서는 단원 자부심($\beta = .17, p < .05$), 공연활동 성취감($\beta = .10, p < .05$)은 정(+)의 영향을, 음악적 권태($\beta = -.09, p < .05$)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단원 자부심($\beta = .18, p < .05$), 참여 적극성($\beta = .21, p < .01$), 부모 지지($\beta = .19, p < .001$)는 가족 응집력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음.
- 협동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단원 자부심($\beta = .26, p < .001$), 타 음악교육 경험($\beta = .06, p < .05$), 공연활동 성취감($\beta = .19, p < .001$)은 협동의 집단축진 발달에, 단원 자부심($\beta = .15, p < .05$), 참여 적극성($\beta = .16, p < .05$), 부모 지지($\beta = .11, p < .01$), 공연활동 성취감($\beta = .14, p < .01$)는 협동의 팔로워십 발달에, 단원 자부심($\beta = .18, p < .05$), 타 음악교육 경험($\beta = .06, p < .05$), 공연활동 성취감($\beta = .20, p < .001$)은 협동의 갈등문제 해결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규명됨.

〈표 IV-14〉 인적 관계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구분	타인 수용도	타인배려	가족 응집력	협동 집단축진	협동 팔로워십	협동 갈등문제해결
	B	B	B	B	B	B
단원 자부심	0.24**	0.17*	0.18*	0.26***	0.15*	0.18*
참여 적극성	0.02	0.07	0.21**	0.12	0.16*	0.08
음악적 권태	-0.09**	-0.09*	0.02	0.01	0.00	-0.04
타 음악교육 경험	0.05	0.00	0.02	0.06*	0.03	0.06*
타 오케스트라 경험	0.01	0.02	-0.01	0.00	0.01	0.04
부모 지지	0.02	0.04	0.19***	0.06	0.11**	0.08
동료 지지	0.07*	0.09	0.01	0.06	-0.01	0.06
교육강사 지지	-0.02	0.08	0.02	-0.06	0.05	0.01
공연활동 성취감	0.13**	0.10*	0.01	0.19***	0.14**	0.20***
F	17.70***	18.72***	18.84***	27.43***	20.78***	23.72***
R ²	.25	.26	.26	.34	.28	.31

* $p < .05$, ** $p < .01$, *** $p < .001$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를 통한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효과의 영향 요인을 분석함. 분석 결과 단원 자부심($\beta=.35, p<.001$), 동료 지지($\beta=.09, p<.05$)는 사회적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
- 소속감 및 유대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는 단원 자부심($\beta=.34, p<.001$), 참여 적극성($\beta=.16, p<.01$), 동료 지지($\beta=.08, p<.05$)가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공동체 참여 행동에는 단원 자부심($\beta=.24, p<.01$), 동료 지지($\beta=.13, p<.001$)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였음.
- 사회자본에는 단원 자부심($\beta=.18, p<.05$), 부모 지지($\beta=.10, p<.05$), 동료 지지($\beta=.07, p<.05$), 교육강사 지지($\beta=.15, p<.05$)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

〈표 IV-15〉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구분	사회적 신뢰	소속감/유대감	공동체 참여행동	사회자본
	B	B	B	B
단원 자부심	0.35***	0.34***	0.24**	0.18*
참여 적극성	0.07	0.16**	0.12	-0.01
음악적 권태	-0.02	0.03	0.07	0.01
타 음악교육 경험	0.00	0.00	0.00	0.03
타 오케스트라 경험	0.03	0.01	0.07	0.00
부모 지지	-0.01	0.01	0.06	0.10*
동료 지지	0.09*	0.08*	0.13***	0.07*
교육강사 지지	0.12	0.05	0.00	0.15*
공연활동 성취감	-0.04	0.00	0.06	0.07
F	14.31***	24.94***	16.21***	11.76***
R ²	.21	.32	.23	.18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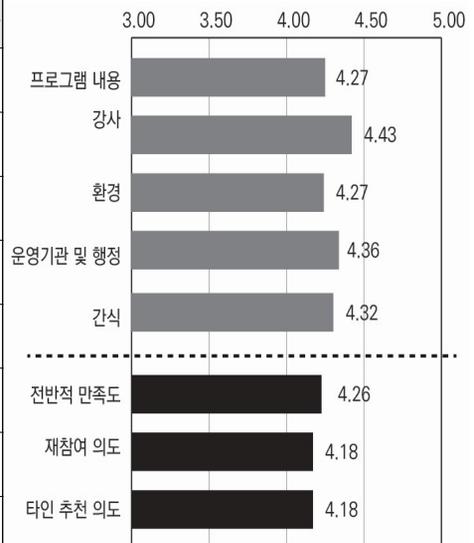
1.6 꿈의 오케스트라의 만족도 분석 결과

- 2019년도 꿈의 오케스트라 조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수준을 기술적 통계 분석을 통해 분석함.
- 2019년도 조사 참여 아동들의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4.26점, 재참여의도는 4.18점, 타인추천의도는 4.18점으로 나타나 중립값인 3점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만족도 수준을 나타냄.
- 구성 요소별 만족도 수준은 교육강사 만족도가 4.4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운영기관 및 행정 만족도(4.36점), 환경(4.27점)과 내용 만족도(4.27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영역의 만족도 수준이 4점을 상회하는 고루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표 IV-16〉 꿈의 오케스트라 만족도 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평균	표준편차
프로그램 요소 만족도	프로그램 내용 만족도	4.27	0.97
	강사 만족도	4.43	0.87
	환경(수업 및 연습 장소) 만족도	4.27	0.97
	운영기관 및 행정 만족도	4.36	4.36
전반적 만족도 및 충성도	간식 만족도	4.32	1.00
	전반적 만족도	4.26	0.97
	재참여의도	4.18	1.10
	타인추천의도	4.18	1.08

〈그림 IV-9〉 꿈의 오케스트라 단위 만족도
(5점 만점 기준)



1.7 이탈 원인 분석

- 2016~2018년 본 연구에 참여한 전국 6개 기관의 참여 단위 중 2019년에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이탈한 단위들의 이탈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탈 단위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진행함.
- 복잡하거나 긴 질문의 조사 진행이 어렵다는 전화 조사의 제한점으로 조사의 내용은 꿈의 오케스트라 이탈 원인에 대한 질문으로만 한정되었음. 이탈 원인은 2016~2018년 진행된 꿈의 오케스트라의 질적 연구의 부정적 사례 분석 결과 도출된 이탈 예측 요인을 중심으로 단위의 스스로의 영향 요인인 내적 요인과 외부 환경에 의한 영향 요인인 외적 요인으로 범주화하였고, 각 범주 내 원인들을 목록화 하였음. 한편, 응답자들에게 이탈 원인은 복수의 선택이 가능하게 하였음.
-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2019년 탈락자 48명 중 개인연락처가 변경되었거나 전화요청에 응대하지 않은 12명을 제외한 총 36명의 응답자를 통해 39개의 이탈 원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음.
- 분석 결과 내적 요인에 의한 이탈은 33.3%, 외적 요인에 의한 이탈은 56.5%로 외적 요인이 보다 큰 이탈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세부적으로, 상급 학년에 따라 오케스트라 연습 시간과 일정이 맞지 않게 되어 이탈하였다는 원인이 38.5%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지의 이사(15.4%), 학원이나 방과 후 수업 참여(12.8%), 기타(10.3%), 학업에 대한 부담(7.7%)과 흥미 없음(7.7%), 실력 향상이 되지 않음(5.1%), 오케스트라 연습 장소와 낮은 물리적 접근성(2.6%)의 순으로 이탈 원인이 분석되었음.

〈표 IV-17〉 꿈의 오케스트라 이탈 원인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내적 요인	학원이나 방과 후 수업 참여	5	12.8
	학업에 대한 부담	3	7.7
	흥미 없음	3	7.7
	실력 향상이 되지 않음	2	5.1
내적 요인 총합		13	33.3
외적 요인	주거지의 이사	6	15.4
	상급 학년 진급에 따라 오케스트라 시간이 맞지 않음	15	38.5
	오케스트라 연습 장소의 물리적 접근성	1	2.6
외적 요인 총합		22	56.5
기타	힘들어서, 접수 시기를 놓쳐서 등	4	10.3
총합		39	100.0

1.8 보호자 효과성 분석

1.8.1 보호자 응답자 특성

- 2016년 조사에 참여한 보호자는 총 230명으로, 성별을 보면 남성이 14.3%, 여성이 85.7%를 차지하였음. 연령별 분포는 34세 이하 9.1%, 35~39세 31.7%, 40~44세 34.3%, 45~49세 17.0%, 50세 이상 7.8%였으며,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32.4%, 전문대졸 20.3%, 대졸 40.1%, 대학원졸 이상 7.2%의 분포를 보였음. 보호자의 직업은 전업주부(29.8%), 기타(12.7%), 자영업(12.3%)의 순으로, 가계소득 수준은 200~299만원(24.1%), 200만원 미만(22.3%), 300~199만원(18.3%), 400~499만원(18.3%)의 순으로 나타남.
- 2017년 조사에 참여한 보호자는 총 211명으로 남성이 11.4%, 여성이 88.6%를 차지하였음. 연령별 분포는 34세 이하 2.8%, 35~39세 32.2%, 40~44세 36.5%, 45~49세 18.5%, 50세 이상 10.0%였으며,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29.5%, 전문대졸 25.6%, 대졸 35.7%, 대학원졸 이상이 9.2%의 분포를 보였음. 보호자의 직업은 전업주부(27.1%), 기타(14.5%), 자영업(13.6%)의 순으로, 가계소득 수준은 200~299만원(24.4%), 200만원 미만(17.1%), 500~599만원(16.1%)의 순으로 나타남.
- 2018년 조사 참여자는 총 269명으로 남성 12.3%, 여성은 87.7%의 참여 비율을 보였으며, 연령은 34세 이하가 2.6%, 35~39세가 23.8%, 40~44세가 45.0%, 45~49세가 22.7%, 50세 이상이 16%를 차지함. 학력은 고졸이하가 28.7%, 전문대졸이 25.8%, 대졸이 37.0%, 대학원졸 이상이 8.6%로 나타났음. 보호자의 직업은 전업주부(26.8%), 사무직(16.5%), 전문직(13.1%)의 순으로, 가계소득 수준은 200~299만원(26.6%), 300~399만원(19.1%), 200만원 미만(18.0%)의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상반기 사전 조사 참여자는 총 307명으로,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성 14.0%, 여성은 86.0%의 참여 비율을 보였으며, 연령은 34세 이하가 7.2%, 35~39세가 25.0%, 40~44세가 36.6%, 45~49세가 22.9%, 50세 이상이 8.2%를 차지함. 학력은 고졸이하가 28.5%, 전문대졸이 25.2%, 대졸이 37.7%, 대학원졸 이상이 8.6%로 나타남. 직업은 전업주부(29.3%), 전문직(13.4%), 사무직(13.0%)의 순으로, 가계소득 수준은 200만원 미만(25.3%), 200~299만원(24.7%), 400~499만원(15.7%)의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하반기 사후 조사 참여자는 총 476명이며, 남성은 16.0%, 여성은 84.0%의 비율을 보였음. 연령은 34세 이하가 4.7%, 35~39세가 24.7%, 40~44세가 35.6%, 45~49세가 23.9%, 50세 이상이 11.1%였음. 학력은 고졸이하가 31.9%, 전문대졸이 21.5%, 대졸이 38.0%, 대학원졸 이상이 8.6%로 나타났음. 직업은 전업주부(26.2%), 전문직(12.3%), 사무직(11.9%), 기타(11.9%)의 순으로, 가계소득 수준은 200~299만원(26.6%), 200만원 미만(21.9%), 300~399만원(19.1%)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18〉 보호자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전	2019년 사후
성별	남	33(14.3)	24(11.4)	33(12.3)	43(14.0)	76(16.0)
	여	197(85.7)	187(88.6)	236(87.7)	264(86.0)	400(84.0)
	소계	230(100.0)	211(100.0)	269(100.0)	307(100.0)	476(100.0)
연령	34세 이하	21(9.1)	6(2.8)	7(2.6)	21(7.2)	22(4.7)
	35-39세	73(31.7)	68(32.2)	64(23.8)	73(25.0)	116(24.7)
	40-44세	79(34.3)	77(36.5)	121(45.0)	107(36.6)	167(35.6)
	45-49세	39(17.0)	39(18.5)	61(22.6)	67(22.9)	112(23.9)
	50세 이상	18(7.8)	21(10.0)	16(6.0)	24(8.2)	52(11.1)
	소계	230(100.0)	211(100.0)	269(100.0)	292(100.0)	469(100.0)
학력	고졸이하	72(32.4)	61(29.5)	77(28.7)	87(28.5)	151(31.9)
	전문대졸	45(20.3)	53(25.6)	69(25.8)	77(25.2)	102(21.5)
	대졸	89(40.1)	74(35.7)	99(36.9)	115(37.7)	180(38.0)
	대학원졸 이상	16(7.2)	19(9.2)	23(8.6)	26(8.5)	41(8.6)
	소계	222(100.0)	207(100.0)	268(100.0)	305(100.0)	481(100.0)
직업	농/임/어/축산업	7(3.1)	8(3.7)	10(3.8)	9(2.9)	20(4.2)
	자영업	28(12.3)	29(13.6)	25(9.6)	27(8.8)	51(10.7)
	전문직	19(8.3)	21(9.8)	34(13.0)	41(13.4)	59(12.3)
	사무직	27(11.8)	26(12.1)	43(16.5)	40(13.0)	57(11.9)
	판매/서비스직	15(6.6)	13(6.1)	28(10.7)	15(4.9)	30(6.3)
	숙련기능직/기술직	5(2.2)	5(2.3)	3(1.15)	7(2.3)	10(2.1)
	문화예술 종사자	3(1.3)	2(0.9)	2(0.8)	1(0.3)	3(0.6)
	공무원	18(7.9)	12(5.6)	20(7.7)	14(4.6)	20(4.2)
	대학생/대학원생	1(0.4)	1(0.5)	0(0.0)	3(1.0)	3(0.6)
	전업주부	68(29.8)	58(27.1)	70(26.8)	90(29.3)	125(26.2)
	프리랜서	6(2.6)	6(2.8)	3(1.15)	19(6.2)	1(0.2)
	무직	2(0.9)	2(0.9)	3(1.15)	6(2.0)	21(4.4)
	기타	29(12.7)	31(14.5)	20(7.7)	34(11.0)	57(11.9)
	소계	228(100.0)	214(100.0)	261(100.0)	307(100.0)	478(100.0)
가계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50(22.3)	35(17.1)	48(18.0)	76(25.3)	103(21.9)
	200~299만원	54(24.1)	50(24.4)	71(26.6)	74(24.7)	125(26.6)
	300~399만원	34(15.2)	41(20.0)	51(19.10)	45(15.0)	90(19.1)
	400~499만원	41(18.3)	34(16.6)	43(16.10)	47(15.7)	69(14.7)
	500~599만원	34(15.2)	33(16.1)	34(12.7)	27(9.0)	47(10.0)
	600만원 이상	11(4.9)	12(5.9)	20(7.5)	31(10.3)	36(7.5)
	소계	224(100.0)	205(100.0)	267(100.0)	300(100.0)	481(100.0)

○ 2016~2019년에 모두 참여한 1단계 보호자 패널은 총 51명으로 집계되었음.

〈표 IV-19〉 보호자 패널 데이터 분석 대상 특성

단위: 명, %

구분		1단계 패널	
		인원	비율
전체		51	100
성별	남	7	13.7
	여	44	83.6
연령	34세 이하	2	3.9
	35~39세	9	15.7
	40~44세	21	41.2
	45~49세	14	27.5
	50세 이상	6	11.8
학력	고졸이하	21	41.2
	전문대졸	8	15.7
	대졸	18	35.3
	대학원졸 이상	4	7.8
직업	농/임/어/축산업	2	3.9
	자영업	9	17.6
	전문직	2	3.9
	사무직	5	9.8
	판매/서비스직	4	7.8
	숙련/기능직/기술직	2	3.9
	문화예술 종사자	0	0.0
	공무원	0	0.0
	전업주부	15	29.4
	프리랜서	2	3.9
	기타	10	19.6
가계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	17.6
	200~299만원	17	33.3
	300~399만원	14	27.5
	400~499만원	4	7.8
	500~599만원	5	9.8
	600만 원 이상	2	3.9

- 1단계 보호자 패널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13.7%, 여성은 83.6%, 연령은 34세 이하가 3.9%, 35~39세가 15.7%, 40~44세가 41.2%, 45~49세가 27.5%, 50세 이상이 11.1%였음. 학력은 고졸이하가 41.2%, 전문대졸이 15.7%, 대졸이 35.3%, 대학원졸

이상이 7.8%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업주부(29.4%), 기타(19.6%), 자영업(17.6%)의 순으로, 가계소득 수준은 200~299만원(33.3%), 300~399만원(27.5%), 200만원 미만(17.6%)의 순으로 나타남.

1.8.2 1단계 보호자 패널 효과성 분석 결과

1.8.2.1 가족응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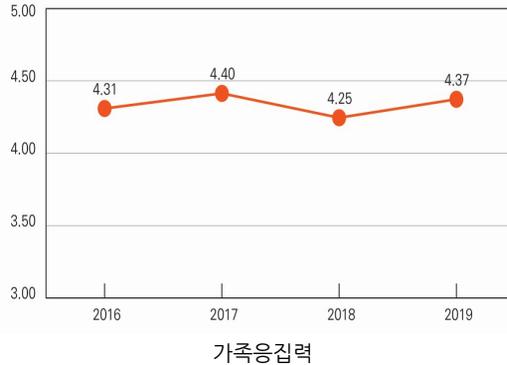
- 1단계 보호자 패널이 인지한 가족관계의 변화를 2016~2019년 평가시기에 따라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함.
- 분석 결과, 단원의 보호자가 평가한 가족 관계의 평균 점수는 2016년 4.31점, 2017년 4.40점, 2018년은 4.25점, 2019년 4.3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학생은 4.38점, 4.35점, 4.46점, 4.52점, 여학생은 4.28점, 4.42점, 4.18점, 4.32점으로 변화하였으나,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 아동의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취약계층은 4.31점에서 4.44점, 4.24점, 4.38점으로 일반 학생은 4.30점에서 4.30점, 4.30, 4.34점으로 변화하였고 취약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IV-20〉 보호자 패널의 가족 응집력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F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31(0.61)	4.40(0.48)	4.25(0.70)	4.37(0.69)	.42	.74
아동 성별	남	4.38(0.54)	4.35(0.44)	4.46(0.52)	4.52(0.58)	.40	.53
	여	4.28(0.64)	4.42(0.50)	4.18(0.74)	4.32(0.72)		
취약 여부	취약	4.31(0.66)	4.44(0.47)	4.24(0.64)	4.38(0.72)	.07	.80
	일반	4.30(0.49)	4.30(0.52)	4.30(0.85)	4.34(0.63)		

〈그림 IV-10〉 보호자의 가족응집력 조사 시점별 변화
(5점 만점 기준)



1.8.2.2 돌봄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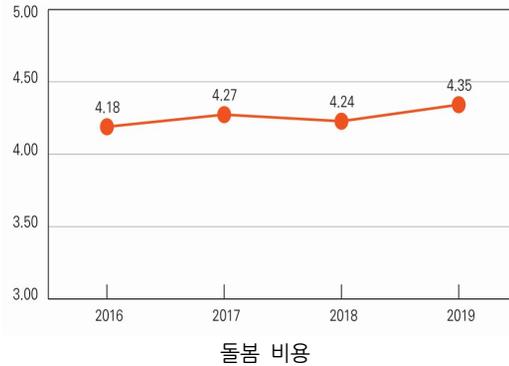
- 보호자 패널의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이후 방과 후 아동의 돌봄과 관련한 시간, 경제적 비용, 심리적 부담의 정도로 개념화하고, 돌봄 비용의 변화를 분석함. 분석 결과, 2016년 4.18점, 2017년 4.27점, 2018년 4.24점, 2019년 4.35점으로 평가시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에서는 남학생은 4.17점에서 4.36점, 4.12점, 4.33점으로, 여학생은 4.18점에서 4.24점, 4.28점, 4.36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아동의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취약계층은 4.33점, 4.31점, 4.38점, 4.37점, 일반계층은 3.76점, 4.19점, 3.86점, 4.31점으로 변화하였고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일반계층의 경우 평가시기에 따른 아동의 돌봄과 관련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유의하게 변화하나, 취약계층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음을 나타냄.

〈표 IV-21〉 1단계 보호자 패널의 돌봄 비용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F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18(0.97)	4.27(0.86)	4.24(0.80)	4.35(0.90)	2.05	.12
아동 성별	남	4.17(0.97)	4.36(0.82)	4.12(0.99)	.72	.40
	여	4.18(0.98)	4.24(0.88)	4.28(0.73)		
취약 여부	취약	4.33(0.85)	4.31(0.90)	4.38(0.75)	4.99	.03
	일반	3.76(1.16)	4.19(0.77)	3.86(0.84)		

〈그림 IV-11〉 1단계 보호자 패널의 돌봄 비용 조사 시점별 변화
(5점 만점 기준)



1.8.2.3 양육 스트레스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단원 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의 평가 시기별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6년의 2.54점, 2017년은 2.54점, 2018년은 2.46점, 2019년은 2.47점으로 평가시기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도 남학생은 2.34점, 2.48점, 2.25점, 2.43점, 여학생은 2.66점, 2.57점, 2.54점, 2.49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취약계층의 변화는 2.57점, 2.59점, 2.49점, 2.52점, 일반계층은 2.56점, 2.41점, 2.37점, 2.33점으로 변화하였으며 취약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 IV-22〉 1단계 보호자 패널의 양육 스트레스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F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54(0.70)	2.54(0.78)	2.46(0.74)	2.47(0.78)	.43	.73
아동 성별	남	2.34(0.68)	2.48(0.57)	2.25(0.60)	2.43(0.48)	.28	.60
	여	2.66(0.71)	2.57(0.85)	2.54(0.78)	2.49(0.85)		
취약 여부	취약	2.57(0.70)	2.59(0.78)	2.49(0.77)	2.52(0.75)	.08	.78
	일반	2.56(0.70)	2.41(0.77)	2.37(0.66)	2.33(0.86)		

〈그림 IV-12〉 1단계 보호자 패널의 양육스트레스 조사 시점별 변화
(5점 만점 기준)



1.8.2.4 지역사회 변화

- 꿈의 오케스트라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단계 보호자 패널의 인식의 변화를 비교 분석함. 분석 결과, 보호자 패널의 지역사회에 미친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수준의 평균은 2016년 4.45점이었으며, 2017년 4.52점, 2018년 4.42점, 2019년 4.53점이었으나 시기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학생은 4.21점에서 4.50점, 4.39점, 4.55점, 여학생은 4.54점에서 4.52점, 4.43점, 4.52점으로의 변화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아동의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도 취약계층의 변화는 4.48점, 4.57점, 4.41점, 4.50점, 일반계층의 변화는 4.35점, 4.35점, 4.46점, 4.63점으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IV-23〉 1단계 보호자 패널의 지역사회 변화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F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45(0.67)	4.52(0.72)	4.42(0.59)	4.53(0.57)	.99	.41
아동 성별	남	4.21(0.89)	4.50(0.71)	4.39(0.53)	4.55(0.54)	2.83	.10
	여	4.54(0.53)	4.52(0.74)	4.43(0.62)	4.52(0.59)		
취약 여부	취약	4.48(0.66)	4.57(0.71)	4.41(0.60)	4.50(0.61)	1.28	.26
	일반	4.35(0.70)	4.35(0.78)	4.46(0.55)	4.63(0.46)		

〈그림 IV-13〉 1단계 보호자 패널의 지역사회 효과 조사 시점별 변화
(5점 만점 기준)



1.8.2.5 꿈의 오케스트라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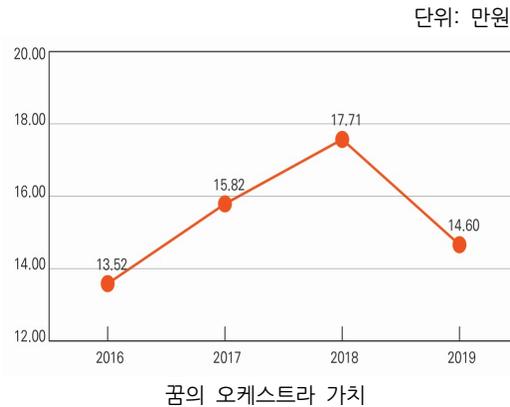
-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음악학원이나 사설 교습소에서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강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을 비교 분석함.
- 2016년 조사의 평균은 13.52만원에서 2017년은 15.82만원, 2018년은 17.71만원, 2019년 14.60만원으로 시기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학생은 12.04만원에서 12.42만원, 18.50만원, 15.58만원 여학생은 14.06만원, 17.06만원, 17.42만원, 14.24만원으로 가치 인식이 변화하였으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아동의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취약계층은 13.77만원에서 17.44만원, 18.50만원, 14.62만원, 일반계층은 12.92만원, 11.85만원, 15.76만원, 14.54만원으로 가치 인식이 변화하였으나 취약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 IV-24〉 1단계 보호자 패널의 꿈의 오케스트라 가치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단위: 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F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52(14.51)	15.82(15.38)	17.71(14.99)	14.60(7.71)	2.61	.07
아동 성별	남	12.04(5.81)	12.42(5.30)	18.50(11.82)	.16	.69
	여	14.06(16.63)	17.06(17.60)	17.42(16.14)		
취약 여부	취약	13.77(16.68)	17.44(17.80)	18.50(17.16)	.45	.51
	일반	12.92(7.25)	11.85(4.98)	15.76(7.60)		

〈그림 IV-14〉 보호자의 꿈의 오케스트라 가치 조사 시점별 변화



1.8.2.6 보호자의 자녀 사교육비용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가 방과 후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기에 따른 한 달 사교육비용(학교 방과후 수업비용 포함)의 변화를 비교 분석함.
- 분석 결과 1단계 보호자 패널의 2016년 평균 사교육비용은 19.96만원에서 2017년은 20.15만원, 2018년은 19.37만원, 2019년은 13.20만원으로 평가시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변화한 것으로 분석됨($F=3.04$, $p=.03$).
 -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대비분석 결과 사교육비용은 2016년, 2017년, 2018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2019년에 2016~2018년에 비해 유의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됨. 2019년 사교육비의 유의미한 감소는 저학년으로 구성되었던 1단계 패널 아동의 성장에 따라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에 진급함으로써 예체능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은 다소 줄어들고 주요 교과목 위주 교육으로 전반적인 사교육의 폭이 줄어들어 사교육 비용이 감소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음. 향후 이러한 사교육비 감소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질적 연구 등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학생은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20.44만원에서 20.44만원, 19.67만원, 12.56만원으로, 여학생은 19.81만원, 20.05만원, 19.28만원, 13.41만원으로 변화했으나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은 18.50만원에서 18.67만원, 19.94만원, 13.19만원으로, 일반 계층은 25.25만원에서 25.50만원, 17.31만원, 13.25만원으로 변화했으며 취약여부에 따른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IV-25〉 사교육비용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단위: 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F	p	대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9.96(13.23)	20.15(13.29)	19.37(12.39)	13.20(70.37)	3.04	.03	2016 =2017 =2018 >2019				
아동 성별	남	20.44(12.89)	20.44(87.19)	19.67(15.88)	12.56(38.12)	.94		.34			
	여	19.81(13.56)	20.05(14.59)	19.28(11.40)	13.41(78.45)						
취약 여부	취약	18.50(13.32)	18.67(12.15)	19.94(12.46)	13.19(69.21)	.04		.84			
	일반	25.25(12.20)	25.50(16.63)	17.31(12.74)	13.25(79.42)						

〈그림 IV-15〉 사교육비용 조사 시점별 변화

단위: 만원



1.9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강사의 아동 1단계 패널 평가

1.9.1 음악 지식

-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강사가 자신이 지도한 아동의 음악적 역량의 성장 평가 결과에 대해 연도별 차이를 비교 분석함. 음악적 역량은 음악적 지식과 연주 능력의 차원으로 분석함.
- 교육강사가 평가한 음악 지식은 2016년 3.75점에서 2017년 4.13점, 2018년 4.11점, 2019년 4.25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F=3.23, p=.02$).
 - 연차별 음악지식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에서 교육강사들이 평가한 아동들의 음악 지식은 2016년에 비해 2017년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이 수준은 2018년과 2019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학생은 3.80점, 3.88점, 3.91점, 4.04점으로, 여학생은 3.73점, 4.22점, 4.19점, 4.33점으로 음악 지식이 변화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아동의 취약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취약은 3.68점, 4.17점, 4.13점, 4.24점으로, 일반은 3.93점, 4.01점, 4.05점, 4.29점으로 음악 지식이 변화하였으나, 취약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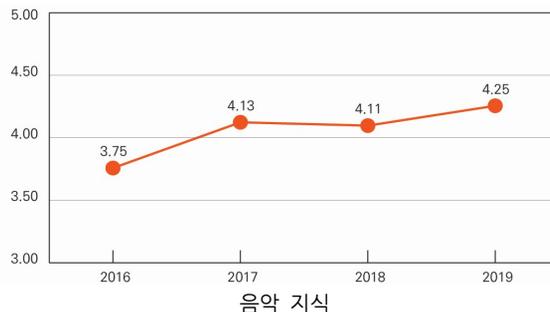
〈표 IV-26〉 1단계 패널 아동의 음악 지식에 대한 교육강사의 평가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F	p	대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3.75(0.84)	4.13(0.75)	4.11(0.85)	4.25(0.84)	3.23	.02					
아동 성별	남	3.80(0.74)	3.88(0.79)	3.91(0.95)	4.05(1.02)	1.94	.17	2016 <2017 =2018 =2019			
	여	3.73(0.89)	4.22(0.72)	4.19(0.80)	4.33(0.75)						
취약 여부	취약	3.68(0.91)	4.17(0.68)	4.13(0.83)	4.24(0.84)	.08	.78				
	일반	3.93(0.64)	4.01(0.92)	4.05(0.92)	4.29(0.84)						

〈그림 IV-16〉 교육강사 평가 음악 지식의 조사 시점별 변화

(5점 만점 기준)



1.9.2 연주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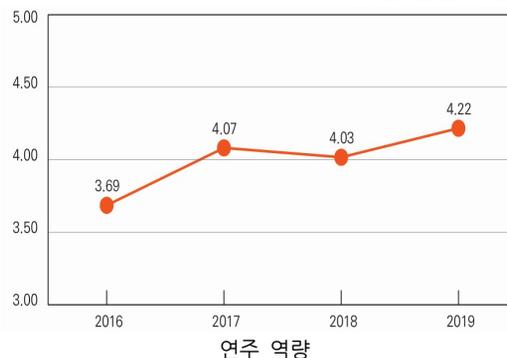
-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강사가 평가한 1단계 패널 아동의 연주 역량의 변화를 비교 분석함. 분석 결과 아동의 연주 역량은 2016년 3.69점, 2017년 4.07점, 2018년 4.03점, 2019년 4.22점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음($F=5.03$, $p=.03$).
 - 연차별 음악지식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에서 교육강사들이 평가한 1단계 패널 아동들의 연주 역량은 2016년에 비해 2017년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이 수준은 2018년과 2019년 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학생은 3.74점, 3.93점, 3.89점, 4.00점으로, 여학생은 3.67점, 4.13점, 4.08점, 4.31점으로 연주 역량이 변화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아동의 취약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취약은 3.61점, 4.12점, 4.08점, 4.20점으로, 일반은 3.88점, 3.95점, 3.89점, 4.25점으로 연주 역량이 변화하였으나, 취약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표 IV-27〉 1단계 패널 아동의 연주 역량에 대한 교육강사의 평가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F	p	대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3.69(0.92)	4.07(0.89)	4.03(0.84)	4.22(0.85)	5.03	.03					
아동 성별	남	3.74(0.95)	3.93(1.00)	3.89(0.97)	4.00(1.05)	1.05	.31	2016 < 2017 = 2018 = 2019			
	여	3.67(0.92)	4.13(0.85)	4.08(0.79)	4.31(0.74)						
취약 여부	취약	3.61(0.96)	4.12(0.83)	4.08(0.79)	4.20(0.88)	.11	.74				
	일반	3.88(0.80)	3.95(1.04)	3.89(0.97)	4.25(0.77)						

〈그림 IV-17〉 교육강사 평가 연주 역량의 조사 시점별 변화
(5점 만점 기준)



1.9.3 협동심

-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강사가 평가한 1단계 패널 아동의 협동심의 시기별 변화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2016년의 평균 점수는 4.07점, 2017년 4.55점, 2018년 4.27점, 2019년 4.44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F=5.23$, $p=.00$). 한편, 협동심의 평가 시기별 변화는 2016년에 비해 2017년 유의한 수준의 향상을 보였으며, 2018년과 2019년도에는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학생은 3.91점, 4.26점, 4.04점, 4.37점으로, 여학생은 4.13점, 4.67점, 4.36점, 4.46점으로 협동심이 변화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아동의 취약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는 취약은 4.07점, 4.53점, 4.27점, 4.44점으로, 일반은 4.05점, 4.61점, 4.26점, 4.42점으로 협동심이 변화하였으나, 취약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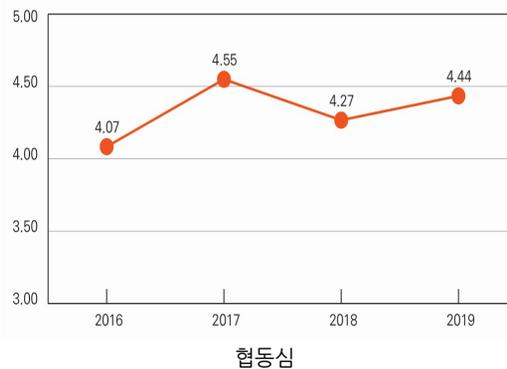
〈표 IV-28〉 1단계 패널 아동의 협동심에 대한 교육강사의 평가 결과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F	p	대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4.07(0.83)	4.55(0.66)	4.27(0.73)	4.44(0.67)	5.23	.00	2016 < 2017 = 2018 = 2019				
아동 성별	남 3.91(0.97)	4.26(0.84)	4.04(0.70)	4.37(0.74)	2.95	.09					
	여 4.13(0.78)	4.67(0.55)	4.36(0.73)	4.46(0.65)	.00	.98					
취약 여부	취약 4.07(0.87)	4.53(0.71)	4.27(0.72)	4.44(0.64)							
	일반 4.05(0.75)	4.61(0.52)	4.26(0.80)	4.42(0.75)							

〈그림 IV-18〉 교육강사 평가 협동심의 조사 시점별 변화

(5점 만점 기준)



1.10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강사의 자기평가 분석

1.10.1 분석 개요

- 2016년 조사에 참여한 교육강사는 49명으로, 성별은 남성이 36.7%, 여성이 63.3%를 차지하였음. 연령은 20대 59.2%, 30대 40.8%, 40대 이상은 0.0%였으며, 교육강사 경력은 5년 미만 28.6%, 5~10년 57.1%, 11년 이상 14.3%, 꿈의 오케스트라 경력은 1년 미만 93.9%, 1~2년 0%, 2년 이상 6.1%로 나타남.
- 2017년 조사에 참여한 교육강사는 61명으로, 남성이 41.0%, 여성이 59.0%를 차지하였음. 연령은 20대 47.5%, 30대 42.6%, 40대 이상이 9.8%였으며, 교육강사 경력은 5년 미만 27.9%, 5~10년 52.5%, 11년 이상 19.7%, 꿈의 오케스트라 경력은 1년 미만 27.9%, 1~2년 41.0%, 2년 이상이 31.1%로 나타남.
- 2018년 조사 참여자는 총 65명으로, 여성이 63.1%, 남성이 36.9%로 나타남. 연령은 20대 41.5%, 30대 50.8%, 40대 이상이 7.7%로 나타났음. 교육강사 경력은 5년 미만 29.2%, 5~10년 49.2%, 11년 이상 21.5%, 꿈의 오케스트라 경력은 1년 미만 15.4%, 1~2년 26.6%, 2년 이상이 60.0%로 나타남.
- 2019년도 조사 참여자는 총 159명으로, 남성이 39.2%, 여성은 60.8%였음, 연령은 20대 34.4%, 30대 53.5%, 40대 이상 12.1%였으며, 교육강사 경력은 5년 미만 28.3%, 5~10년 50.3%, 11년 이상 21.4%, 꿈의 오케스트라 경력은 1년 미만 25.2%, 1~2년 23.9%, 2년 이상이 50.9%로 나타남.

〈표 IV-29〉 교육강사의 자기 평가 개요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인원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49	100.0	61	100.0	65	100.0	159	100.0
성별	남	18	36.7	25	41.0	24	36.9	62	39.2
	여	31	63.3	36	59.0	41	63.1	96	60.8
연령	20대	29	59.2	29	47.5	27	41.5	54	34.4
	30대	20	40.8	26	42.6	33	50.8	84	53.5
	40대 이상	0	0.0	6	9.8	5	7.7	19	12.1
교육강사 경력	5년 미만	14	28.6	17	27.9	19	29.2	45	28.3
	5-10년	28	57.1	32	52.5	32	49.2	80	50.3
	11년 이상	7	14.3	12	19.7	14	21.5	34	21.4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강사 경력	1년 미만	46	93.9	17	27.9	10	15.4	40	25.2
	1-2년 미만	0	0.0	25	41.0	16	26.6	38	23.9
	2년 이상	3	6.1	19	31.1	39	60.0	81	50.9

1.10.2 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한 교육강사 개인의 변화

- 꿈의 오케스트라의 교육강사의 개인의 변화를 나와 다른 의견과 가치관을 지닌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타인수용도의 관점에서 시기별로 비교 분석함. 분석 결과, 2016년은 4.25점, 2017년은 4.55점, 2018년은 4.45점, 2019년은 4.29점으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차이에 있어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교육강사의 성별에 따른 비교 분석 결과에서 남성의 변화는 4.20점, 4.47점, 4.46점, 4.33점, 여성의 변화는 4.28점, 4.61점, 4.44점, 4.26점이었으나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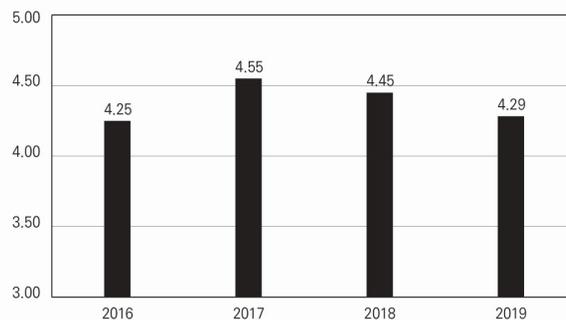
〈표 IV-30〉 교육강사의 타인수용도 분석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F	p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25	.78	4.55	.61	4.45	.59	4.29	.71	1.92	.13
성별	남	4.20	.67	4.47	.65	4.46	.55	4.33	.70	.88	.35
	여	4.28	.85	4.61	.58	4.44	.63	4.26	.71		

〈그림 IV-19〉 교육강사의 타인수용도

(5점 만점 기준)



1.10.3 교육강사가 평가한 사회적 효과

-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의 사회적 효과 측면에서 교육강사가 평가한 꿈의 오케스트라가 지역사회 변화에 미치는 인식에 대해 평가함. 먼저, 꿈의 오케스트라가 지역사회 예술자본 확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에서는 2016년의 평균 점수는 4.42점, 2017년은 4.55점, 2018년은 4.63점, 2019년은 4.59점으로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음.

- 성별에 따라 조사 시점간의 평균차 검증 결과, 남성은 4.48점, 4.65점, 4.67점, 4.68점, 여성은 4.39점, 4.48점, 4.60점, 4.52점으로 평가 시점간의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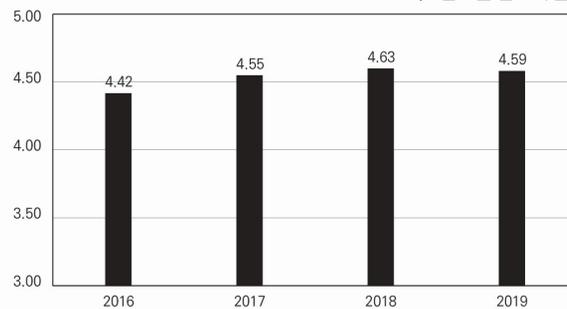
〈표 IV-31〉 교육강사가 평가한 지역사회 예술자본 확충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F	p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42	.69	4.55	.57	4.63	.53	4.59	.55	1.66	.18	
성별	남	4.48	.42	4.65	.55	4.67	.52	4.68	.56	6.09	.01
	여	4.39	.81	4.48	.58	4.60	.54	4.52	.53		

〈그림 IV-20〉 지역사회 예술자본 확충

(5점 만점 기준)



-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에 대한 평가 시기별 인식의 분석 결과 2016년의 평균 점수는 4.29점, 2017년은 4.43점, 2018년은 4.54점, 2019년은 4.50점으로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 남성은 4.39점, 4.64점, 4.63점, 4.60점, 여성은 4.23점, 4.28점, 4.50점, 4.44점으로 꿈의 오케스트라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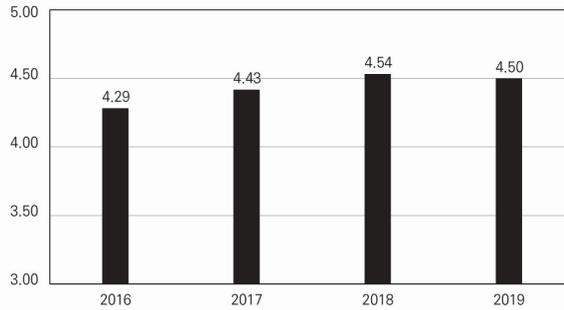
〈표 IV-32〉 교육강사가 평가한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F	p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29	.87	4.43	.85	4.54	.62	4.50	.57	.69	.41	
성별	남	4.39	.78	4.64	.70	4.63	.45	4.60	.53	2.55	.11
	여	4.23	.94	4.28	.91	4.50	.69	4.44	.59		

〈그림 IV-21〉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5점 만점 기준)



-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의 사회적 효과를 사회적 포용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2016년은 4.59 점, 2017년은 4.72점, 2018년은 4.71점, 2019년은 4.64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음.
 - 남성의 2016년 평가 점수는 4.56점, 2017년은 4.80점, 2018년은 4.69점, 2019년은 4.72점, 동일 평가시기에 여성은 4.60점, 4.67점, 4.72점, 4.59점으로 변화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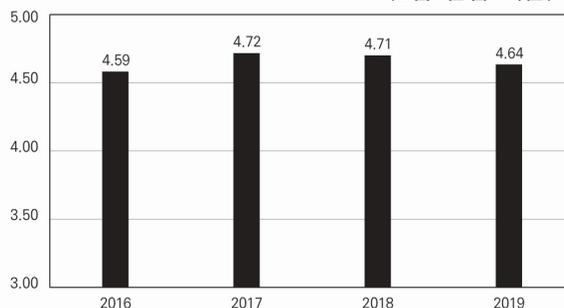
〈표 IV-33〉 교육강사가 평가한 사회적 포용

(5점 만점 기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F	p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59	.54	4.72	.53	4.71	.50	4.64	.52	.60	.61
성별	남	4.56	.55	4.80	.54	4.69	.50	4.72	.49	2.99	.09
	여	4.60	.55	4.67	.53	4.72	.51	4.59	.53		

〈그림 IV-22〉 사회적 포용

(5점 만점 기준)



2. 꿈의 오케스트라 질적 연구

- 2019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는 참여관찰과 심층면접(Personal In-depth Interview, PII) 및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으며, 동 사업이 2016년 초부터 시작된 연속지원기관 2곳과 2019년부터 새롭게 운영되고 있는 신규기관 2곳을 중심으로 참여 아동 집단(n=25), 음악감독 및 교육강사 집단(n=15), 보호자 집단(n=13), 코디네이터(n=4)로 연구대상의 삼각화(triangulation)기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음. 면접조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수는 총 57명으로 집계됨.
- 이 중 인터뷰에 참가한 아동은 총 25명으로 신규단원 14명 중 일반가정 아동 7명, 취약가정 아동 7명, 4년차에 접어드는 지속활동단원은 11명으로 일반가정 청소년 4명, 취약가정 청소년 7명 분류됨.
- 본 연구에서는 참여관찰과 초점집단면접(FGI)이 아동의 변화를 파악하는 주요 연구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분석모형은 4개의 대영역인 지원동기, 교육효과, 참여환경,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설계되었음. 단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단원의 경우 지원동기 질문은 생략되었고, 대신 4년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를 물어 참여환경 중 촉진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2.1 연구의 개요: 방문기관 및 연구 참여자 특징

2.1.1 방문기관의 개요

- 방문기관은 2019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기관 중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에 동의한 2곳과 4년차에 접어드는 연속지원기관 중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추천과 사업 시행기관의 협력 수준을 참고하여 2곳을 선정하였음.
- 자료 수집을 위해 선정된 4곳의 거점기관 중 신규기관 A와 B기관 모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침에 따라 일반가정과 취약가정 아동 비율에 있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일반가정 대 취약가정이 30:70의 비율로 나타남. 그러나 연속지원기관의 경우, C와 D기관 모두 단원의 중학교 입학의 기점으로 일반가정과 취약가정 아동 모두 비슷한 비율로 프로그램에서 이탈하는 현상을 보임.
 - A기관의 경우, 일반가정과 취약가정의 비율은 약 3:7로, 2019년 기준 취약가정의 형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재원자, 다문화가정 순으로 집계됨.
 - B기관의 경우, 일반가정과 취약가정의 비율은 A기관과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였으며 취약가정의 분류 형태로는 2019년 기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

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순이었음.

- C기관의 취약가정 아동비율은 2019년인 취약가정 비율이 A와 B기관에 비해 낮은 비율인 약 63% 수준으로 집계됨. 이 기관의 취약가정 아동의 특징은 차상위계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임.
- D기관의 경우, 취약가정의 비율은 약 60%의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다문화가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다음이 차상위계층, 학교장 추천의 순서를 보임.
- 악기편성은 각 기관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다만 B기관의 경우는 악기의 크기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원 중 연주하기에 적절한 신체로 성장할 때까지 콘트라베이스는 합주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연구 참여자 섭외기간을 포함하여 2019년 4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7개월 간 자료수집 준비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연구진 5명의 협업으로 4개 기관의 참여관찰, 2개 기관의 심층면접, 초점집단면접과 분석이 수행되었음.

〈표 IV-34〉 면접조사 선정 방문기관 및 자료수집 시행 일자

대상시설		A기관	B기관	C기관	D기관
담당 연구자		연구자1·2·4	연구자1·2·3	연구자1·2·3	연구자1·2·5
총 단원 수		54명	57명	55명	69명
악기 편성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클라리넷, 플루트, 타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 호른, 타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클라리넷, 플루트, 트럼펫, 트럼본, 호른, 타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클라리넷, 플루트, 트럼펫, 호른, 타악기
취약계층 아동비율		70.39%	72.5%	63.4%	60%
인터뷰 대상	아동	○	○	○	○
	강사	○	○	○	○
	관계자	○	○	○	○
관찰 및 인터뷰 시행일		2019. 05. 16 2019. 09. 18	2019. 06. 04 2019. 09. 26 2019. 10. 01 4~9월 격주 관찰	2019. 10. 24	2019. 09. 15

※연구자 총 5명이 자료를 수집했으며, 동일연구자에게 숫자를 부여함

2.1.2 면접조사 개요 및 연구 참여자 특징

- 면접조사는 총 4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신규기관과 2곳과 연속지원기관 2곳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면접조사 참여자는 총 4그룹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인 아동(n=25), 음악감독 및 교육강사(n=15), 아동의 보호자(n=13), 코디네이터(n=4)로 총 57명이 참여함.

〈표 IV-35〉 2019년도 질적 연구 인터뷰 참여자 분류

단위: 명

기관 특징	참여아동	코디네이터	음악감독 및 교육강사	학부모
신규기관 (A)	7	1	4	5
신규기관 (B)	7	1	4	3
연속지원기관 (C)	4	1	3	1
연속지원기관 (D)	7	1	4	4
계	25	4	15	13
총합	총 면접참여자 : 57명			

- 2019년도 면접조사에 참여한 아동의 평균나이는 신규기관의 경우 10.28세로, 연속기관의 경우 평균나이는 13.63세로 집계됨. 남녀의 비율은 각각 남아 8명, 여아가 17명이 참여하였음. 해당악기의 경우, 현악기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가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타악기, 플루트, 호른, 클라리넷 순으로 나타남.
- 아동 연구 참여자의 경우, 인터뷰에 참가한 아동 25명의 분포는 일반가정 아동 14명, 취약가정 아동 11명으로 집계됨.
- 참여 교육강사집단의 경우, 총 15명의 연구 참여자가 면접조사를 위해 참여하였으며, 이 중 2018년 새롭게 추가된 연구 참여자는 A기관의 교육강사 2명, B기관의 교육강사 1명, C기관의 음악감독 1명임.
 - A, B, C 기관의 모든 음악감독이 면접에 참여했으며, 지도하는 악기 또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고른 편성으로 구성되었음.
- 학부모 집단의 경우, 면접조사 참여자는 모두 여성으로 총 13명이었으며 연령대는 비교적 30~40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음.
- 코디네이터의 경우, 면접조사 참여자는 4명으로 모두 20대로 음악을 전공하거나 아동심리, 복지 등을 전공한 것으로 파악됨.
- 초점집단면접의 분석은 앞 장에서 세부적으로 소개된 바와 같이 배경 및 동기, 효과(변화), 촉진 및 장애요인, 개선점 총 4개의 차원으로 구조화하여 진행되었음.
 - 이를 위해 면접질문의 설계는 Carnwath와 Brown(2014)의 이론적 모형을 차용하였으며,

분석에서도 상위범주로서 주요 축코딩의 일부로 사용되었음.

〈표 IV-36〉 면접조사 대상자 특징 및 부여 코드

구분	시설	성별	코드	비고
참여 아동	A기관	여	A나1	일반
		남	A나2	일반
		남	A나3	일반
		여	A나4	일반
		여	A가1	취약
		여	A가2	취약
		여	A가3	취약
	B기관	남	B나1	일반
		여	B나2	일반
		여	B나3	일반
		여	B나4	일반
		남	B가1	취약
		여	B가2	취약
		여	B가3	취약
	C기관	여	C가1	취약
		여	C가2	취약
		남	C가3	취약
		남	C나1	일반
	D기관	여	D나1	일반
		남	D나2	일반
여		D나3	일반	
여		D나4	일반	
여		D가1	취약	
남		D가2	취약	
여		D가3	취약	
소계		-	25	
코디네이터	A기관	여	A	-
	B기관	남	B	-
	C기관	여	C	-
	D기관	여	D	-
소계		-	4	

강사	A기관	남	A라1	-
		여	A라2	-
		남	A라3	-
		여	A라4	-
	B기관	남	B가1	-
		여	B가2	-
		여	B가3	-
		여	B가4	-
	C기관	여	C라1	-
		남	C라2	-
	D기관	남	C라3	-
		남	D가1	-
		여	D가2	-
남		D가3	-	
		여	D가4	-
소계		-	15	
보호자	A기관	여	A라A1	취약
		여	A라B1	일반
		여	A라A2	취약
	B기관	여	A라A3	취약
		여	A라B2	일반
	C기관	여	B가B1	일반
	D기관	여	B가A1	취약
		여	B가A2	취약
		여	C라A1	취약
		여	D가B1	일반
		여	D가A1	취약
여		D가B2	일반	
		여	D가A2	취약
소계		-	13	
총계		-	57	

2.2 아동 면접조사 분석 결과

- 아동과 면접 시, 연구자는 아동이 각자 체험한 꿈의 오케스트라에서의 경험 과정과 변화를 Carnwath와 Brown(2014)의 연구모형을 참고하여 설계한 반구조화된 질문 안에서 자유로이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음.
- 아동이 진술한 내용은 모두 녹음되어 내용 그대로 녹취록 작성에 사용되었으며, 현장성을 높이고 진술내용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뷰 과정에서 각각의 인터뷰 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진술내용을 요약하고 확인하는 성원체크(member check)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실시하였음.
- 아동의 면접조사 분석 결과는 우선 신규단원과 4년차 단원의 차이와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아동의 변화, 그리고 아동의 사회 경제적 환경에 따라 괄목할 만한 추가적 사항들을 비교 분석하였음.
 - 아동 면접대상자의 분류는 ①일반가정 신규단원, ②취약가정 신규단원, ③일반가정 4년차 단원, ④취약가정 4년차 단원으로 이루어졌음.
 - 분석 결과는 총 3개의 파트로 ①신규단원, ②4년차 단원, ③일반가정과 취약가정 아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분석되었음.
- 분석의 경우, 참여자 증언을 통해 작성된 구두보고(oral-reports) 내용의 의미와 효과를 기반으로 1차 개방코딩과 2차 축코딩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음. 1차 개방코딩 분석내용은 각 패턴 별로 군집화하여 주요 의미를 추출하였으며, 2차 코딩인 축코딩은 Carnwath와 Brown(2014)의 연구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구조화하는데 사용되었음.

2.2.1 일반가정 신규단원 면접조사 결과 분석

- 일반가정 아동 신규단원의 면접조사 결과 가장 큰 참여 동기는 부모의 권유 외에도 자신의 악기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이에 따른 행동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음. 이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의 저학년이기 때문에 현재 큰 고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5학년의 경우에는 학교 교우관계에서 발생한 왕따 또는 은따의 경험, 또는 이로 인한 불안감과 학교폭력 경험 이후에 남은 분노나 부정적 감정들이 가장 큰 고민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를 통해 아동 스스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음악적 성장으로 가장 다채로운 테마들이 보고되었으며, 구체적으로 ①음악지식의 향상, ②악기실력의 향상, ③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④합주의 즐거움 알아가기, ⑤합주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부정적), ⑥음악에 대한 관심으로 분류됨.

- 이외에도 개인적 성장은 ①행복감과 즐거움, ②악기를 통한 나의 몸 소중히 다루기, ③차분함과 마음의 안정, ④시간 지키기와 활용, ⑤진로와 나의 정체성 탐색으로 보고되었음.
- 개인적 성장과 음악적 성장만큼 강한 테마로 드러나진 않았으나 인적상호작용에 있어 가족 간 대화 증가와 친화력, 배려심의 증진이 발견되었으며, 사회경제적 혜택부분에 있어서는 여가로서 음악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드러났음.
- 참여환경에서의 촉진요인은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①강사의 관심과 애정이 꼽혔으며, 이를 중심으로 ②맛있는 간식, ③캠프 등 다양한 활동이 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촉매로 작동하며 긍정적 경험을 더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는 학원으로 인한 피로감이었음.
- 신규단원들이 제안한 꿈의 오케스트라 개선방안으로는 ①(온전히 악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음시설이 완비된) 연습공간의 개선, ②개인 악기구입 또는 지원, ③개인 레슨 시간 증가로 나타나 대부분 개인이 악기를 충분히 연마하는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제언들로 조사됨.

〈표 IV-37〉 일반가정 신규단원 면접조사 결과 분석

체계	상위구분	하위구분	분석 내용
배경	아동의 고민과 환경		- 친구관계의 불안감 -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후 분노
	참여 동기		- 부모의 권유 - 적극적 관심과 행동
아동의 변화와 성장 (교육 효과)	개인적 성장	인지 및 정서 발달	- 행복감과 즐거움 - 악기를 통한 나의 몸 소중히 다루기 - 차분함과 마음의 안정 - 시간 지키기와 활용 - 진로와 나의 정체성 탐색
	음악적 성장	미적 경험의 체험	- 음악지식의 향상 - 악기실력의 향상 - 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 합주의 즐거움 알아가기 - 합주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 - 음악에 대한 관심
	인적 상호작용영향	관계적 역량 향상	- 가족 간 대화 증가 - 친화력과 배려심 증진
	사회경제적 혜택	여가로서의 음악	- 일상에서 주어진 쉼표 - 유튜브 음악 콘텐츠 활용
참여환경	촉진요인		- 교육강사의 관심과 애정 - 맛있는 간식 - 캠프: 친구들과 함께 하기

체계	상위구분	하위구분	분석 내용
	장애요인		- 학원으로 인한 피로도
제언	대안 및 개선방안		- 연습공간의 개선 - 개인 악기구입 또는 지원 - 개인레슨 강화

(1.1) 배경: 참여 동기

- 신규단원 중 일반가정 아동 인터뷰에서 드러난 주요한 특징은 취약가정 아동의 동기에서는 찾기 어려운 자발성과 적극성이 특히 강조되어 나타났다는 점임. 이는 다음에 기술된 취약가정 아동 면접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이기도 함.
- 신규단원 모두 부모의 권유가 가장 큰 동기임은 사실이나, 추가적으로 자신의 자발적 의지와 적극성으로 인해 오케스트라에 입단한 것을 강조한 점은 취약아동에서는 상대적으로 찾기 어려운 증언이었음.

■ 부모의 권유

엄마가 추천해줬는데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안 만진 악기가 많으니까 거기에서는 많은 악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고르니까. (B나1)

저는 엄마가 막 블로그를 하다가 우연히 봐가지고 이것을 하게 됐어요, 일단은 잘 몰라서 여기에 와봤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해봤어요. (B나3)

저희 동생 친구에 누나가 그 오케스트라를 하거든요, ○○시립 오케스트라를.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 프로그램을 알아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A나2)

■ 적극적 관심과 행동

저는 친구가 꿈의 오케스트라를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엄마한테 알려줘 가지고 그걸 보고 난 뒤에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 같이 합주 하는게 쏘 재밌을 것 같고 공연도요. (B나2)

제가 네이버에 뒤적뒤적하다가 여기 생긴 거 보고 한번 쳐봤는데 오케스트라 모집한다는 걸 알고 나서 엄마한테 말씀드리니까 엄마가 처음에는 출책 때문에 (다녀야 하는 학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머뭇머뭇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다고 하니깐 허락해주셨어요. (B나4)

저는 그 전부터 그냥 오케스트라 해보고 싶었는데, 되게 기회가 안 됐단 말이에요. <...>

그때 엄마한테 오케스트라 어디 할 수 있는데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여기 하자고 해가지고 보러 왔는데 되가지고 좋았어요....(A나3)

헨리 보고. 헨리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이올린 하는 거 (TV에서) 보고 <...> 피아노도 진짜 잘 쳐요. 그리고 데이비드 그 아저씨랑. 그걸 보고 엄마한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됐어요. (A나1)

(1.2) 배경: 참여 동기

- 일반과 취약가정 아동 모두 현재 특별한 고민이 있다고 말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 교우관계 속의 왕따 또는 은따의 경험을 털어놓았음. 이로 인한 불안감과 경험 후 해결되지 못한 분노나 부정적 감정들이 가장 큰 고민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이나 안전장치가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내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친구관계의 불안감

친구관계(가 고민이에요). 5학년이 되면 좀 반에서 무리라는 게 생기는데, 중심무리라고 반을 휘젓고 다니는 무리가 있는데 제가 원래 그 무리에서 놀다가 갑자기 싸워가지고 제가 좀 뭐라 해야하지 억울하게 좀 싸웠는데, 애들이 5명이여서 저 혼자이니까 상대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다른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그게 좀 걱정이예요. (A나1)

■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그리고 제가 여기 학교폭력피해를 당한 사람을 우선으로 뽑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제가 3학년 때부터 그 뭐야.. 그래가지고 계속 한 친구한테 시달려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일기도 그렇게 적고 해가지고 엄마가 나중에 뭐 힘든거 있냐고 해가지고 그 친구 때문에 학교생활 좀 힘들다고 해가지고 엄마가 신고를 했죠. (A나2)

교무실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핸드폰 좀 잠깐 좀 빌려주세요. 신고 좀 하게요' 이렇게 빌려서... 가까운데 그 친구 반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말을 하면 조금 더 내가 신경 안 쓰고 그 반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으니까...그 친구 생각도 이제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계속 울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생각이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A나2)

(2) 개인적 성장: 인지 및 정서 발달

- 개인적 성장은 ①행복감과 즐거움, ②악기를 통한 나의 몸 소중히 다루기, ③차분함과 마음의 안정, ④시간 지키기와 활용, ⑤진로와 나의 정체성 탐색으로 보고되었음.

-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악기를 다루기 전에 입문강좌 수강을 통해 아이들이 악기를 소중히 다루는 것과 연계하여 자신의 몸을 소중히 다루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이를 증언하는 부분이었음. 이러한 아동의 변화는 기존의 음악교육 관련 문헌들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한국의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의 차별적인 효과로 사료됨.
-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 신규단원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 성장의 주요 테마로 자신의 음악 진로와 정체성을 언급한 점은 취약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특징적 증언이었음.

■ 행복감과 즐거움

나의 행복. 여기에 있으면 제가 탄 것 보다 그 여기 있는게 선생님이 말한 것 같이 환경도 좋고, 악기도 만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여기가 행복해요. (B나1)

저는 꿈의 오케스트라는 저에게 치킨 같은 거. 다들 치킨 좋아하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것. (A나1)

꿈의 오케스트라는 나에게 물과 공기, 밥과 같은 것이예요. 내가 그런 게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내 미래가 바뀔 중요한 것이니까요. 아까 선생님께서 질문했던 것처럼 여기 오케스트라에 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어떤 것 이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 카카오톡 프로필이예요. ○○○고, 첼로가 곧 내 목숨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에게서는 첼로는 물, 공기, 밥과 같은 것이라고. (A나4)

나는 학원에서는 한 시간만 해도 시간이 오래 가는 거 같은데. 근데 여기는 세 시간 정도 하는데도 시간이 빨리 가서 좋아요. (B나3)

빨리 가서 연주하고 더 이거 악기 수업 더 받고 빨리 집에 가서 숙제하고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니까 여기 오기 전 날에 생각이예요. 빨리 내일이 되고 싶다. 어제도 똑같이 ‘내일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 하고 느끼고 잠을 잤거든요. (A나4)

■ 악기를 통한 나의 몸 소중히 다루기

악기 정리할 때. 악기 닦을 때. 악기를 열심히 하고 난 후에, 그 지판인가? 아 거기에 자판에다가 송진가루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열심히 하면 그거 닦을 때 되게 기분 좋아요.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나를 깨끗이 해야겠다 생각도 하고. (A나1)

제 몸이 더 소중하고 악기처럼 악기도 이제 제 몸처럼 소중히 다뤄야겠다.

(여기서) 인문교육 할 때 내 몸이 약기가 되고...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B나4)

■ 차분함과 마음의 안정

저는 조심성을 갖게 됐어요. <...> 맨날 떨어뜨리고 그런 게 많았는데 이제 약기를 소중하게 다뤄보니까
조심성이 생기는 거 같아요. (B나2)

전 차분해졌어요. 막 예전에는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그랬는데 밖에 애들 만나러 가거나 그냥 놀이터에
있으면 애들이 와요 그냥 있으면 놀곤 했는데, 지금은 조금 놀지 않고 집에서 콘트라베이스 관한 거 많이
찾아보고 해요. 인터넷으로 콘트라베이스 잘 하는 법 같은 거, 팁 같은 거. (A나1)

■ 시간 지키기와 활용

저는 꿈의 오케스트라를 4시 반까지 가야 하니까 시간약속을 잘 지키게 됐어요. 바로바로 숙제도 하구요.
(B나3)

게임하는 시간보다 이제 약기, 제가 호른을 가져갈 순 없는데,
다른 약기가 집에 있는데 그런 걸 다시 해요. (B나2)

■ 진로와 나의 정체성 탐색

나에게 꿈의 오케스트라는 인생의 발이다. 이게 지금 6년간 하는 거니까 이거를 열심히 하면,
인생의 발을 가는 거니까 (B나4)

악기연습하고 여기 오케스트라 오는 게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제가 이 오케스트라를
들어오는 것으로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게 음악가의 길을 제안하시지는 않았지만 저는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음악의 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A나4)

제 꿈이 배우거든요. 그래가지고 배우 되면 연기랑 노래랑 춤 같은 걸 잘해야 하잖아요. 무대 음악이랑
거의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배워서 배우 하면은 뭘 접할지 모르고 약기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해놔야 될 것 같아요. (A나2)

저는 처음에는 수영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저희 베이스 선생님처럼 멋진 여성 더블 베이스
시스트가 되고 싶어요 <...> 그냥 콘트라베이스 하는 분들 보면 멋있어서. 예쁘세요. 다람쥐 닮으셨어요.
(A나1)

저는 원래 약기에는 관심이 없었고 기계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약기를 하니까 이것도 재밌고 소리가
좋으니까 계속 하고 싶게 되었어요. (B나4)

(3) 음악적 성장: 미적 경험의 체험

- 신규단원 중 일반가정 아동들은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를 통해 스스로 느낀 가장 큰 변화로 음악적 성장을 꼽았으며, 구체적으로 ①음악지식의 향상, ②악기실력의 향상, ③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④합주의 즐거움 알아가기, ⑤합주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부정적), ⑥음악에 대한 관심으로 분석됨.
- 특히 이들은 전기 인터뷰에서는 악기에 대한 애착을, 후기 인터뷰에서 자신의 가장 큰 변화로 음악지식의 향상과 악기실력의 향상에 주목하였음.
- 강한 테마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특이한 점으로는 합주 시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는 부정적 보고도 조사되었음. 그러나 이는 아동의 개인적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시간이 지나며 이러한 두려움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음악지식의 향상

저도 지금 뭐 낮은음자리표나 높은음자리표는 다 기본적 인거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 무슨 또 음자리표가 있잖아요. 그 음자리표 배운 거는 재밌어요. 중간음자리표, 가온자리표. (A나1)

그러니까 예, 복습을 한 것 같아요, 여기와가지고. 피아노에서는 기초를 일단 다지고 여기 와서는 더 한 레벨 업그레이드 된 거를 배우는 느낌. (A나2)

저는 리듬과 막 박자 같은 걸 배운 것 같아요. (B나2)

저는 일단 음악에 구성이 있잖아요. 그 클래식을 할 때 뭐 위에는 바이올린이 있고 아래는 뭐 첼로가 있다 그런 거를 이해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음악의 구성을 이제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니까 음악을 들을 때 계속 음악을 듣잖아요. <...> 악기 소리 구분이 되고 엄마한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 (A나2)

맨 처음에 합주할 때는 계속 팔 아프다고 했는데 지금은 좀 더 나아진 거 같아요. 그리고 처음엔 #같은게 어려웠는데 연습을 꾸준히 하고나니까 했어요. (B나2)

저는 변화가 제가 원래 악기에는 1도 관심이 없는데 갑자기 막 배웠으니까 음표나 이런 것도 머리에 잘 들어오고...(B나1)

■ 악기 실력의 향상

타악기에서 패드로 연습하고 드럼으로 치고 그다음 팀파니하고 큰북 그런 걸로 치기도 했어요. 처음에 기본리듬이라고 그 리듬을 치는 게 있는데 베이스랑 나올 때마다 머리가 이상해가지고~ 선생님이 잡아줘서 했는데.. 이제 기본리듬을 칠 수 있었고, 고향의 봄 같은 걸 칠 수 있게 됐어요. (B나1)

12월 달에 공연을 한다하니까. ‘어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 ‘어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또 다시 이거를 2기를 다시 모집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다 실력으로 받는다고 해서 그 때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A나4)

■ 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악기를 빨리 맨 처음부터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니까 좋고 저랑 아는 친구랑 같이 되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B나3)

저는 악기 선정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콘트라베이스는 크니까 콘트라베이스 잘 안 알려졌잖아요. 특이하고 첼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첼로보다는 콘트라베이스가 저는, 제가 듣기에는 소리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A나3)

처음에 플루트를 갖게 된 게 인상에 깊었어요. (왜요?) 왜냐면 제가 플루트를 한 번도 해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처음 해보니까. 악기랑 처음 만나고, 애는 제 악기니까요. 1년이 아니고 6년 동안 함께할 악기라서 정이 들었어요. (B나4)

원래는 여러 가지 소리가 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내고. 그 뭐지 (여러가지) 소리를 진짜 많이 내게 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서.(A나1)

집으로 치면 콘트라베이스랑 첼로는 아래 받침돌 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피아노는 벽지나 페인트나 그런 장식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없으면 그냥 그니까 뭐 약간 초라한 그런 느낌이 나는..(A나2)

저는 악기에 대한 애착. 그 전에는 악기를 소중하게 대하는 건 알았는데 악기를 완전 뭐라 해야하지 그 전에는 피아노 할 때는 피아노는 별로 잘 망가지지도 않고 망가지긴 하는데 잘 망가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릴 땐 아무것도 모르고 썩게 막 치고 이렇게 잠깐 하고 놀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콘트라베이스 하면 진짜 악기가 너무 약한 거 예요. 그래가지고 아 앞으로는 악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약하게도 해야겠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악기에 대해 애착이 많이 생겼어요, (A나3)

처음엔 첼로를 내 인생에 일부라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처음에 악기를 접했을 때는 이 악기 따위쯤이 내 인생의 일부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캠프도 다녀오고, 집에도 계속 첼로 CD 같은 게 있으니까 들어보고. (A나4)

■ 합주에 대한 즐거움 알아가기

처음엔 합주할 때가 제일 지루하고 준비하는 것도 복잡하니까 되게 싫었는데,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서 합주가 파트 연습시간보다 좋아지고..〈...〉 저 혼자만 내는 목소리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하는 목소리가 제일 아름다우니까요. (B나3)

틀려도 괜찮으니까 틀린 부분에서 다시 시작하고 생각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가면 멜로디에 맞춰질 수 있어. (B나1)

제가 다니는 학원은 음악학원이라고 해도 계속 같은 곡만 연주하고 같이 여러명 친구들이랑 합주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혼자만 연주해도 약간 쓸쓸한데 여기는 다 같이 똑같은 곡 연주하니까 막 실력 차도 나지도 않고 또 되게 친해지고 실력도 같이 나누고. (B나2)

■ 합주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부끄럽기도 하면서 파트는 많이 해봤으니까 안 부끄러워서... 파트연습 할 때는 틀려도 아무 상관 없는데, 합주할 때는 틀리면 이상하게 연주되니까. (B나4)

(4) 인적 상호작용 영향: 관계적 역량 향상

- 개인적 성장과 음악적 성장만큼 강한 테마로 드러나진 않았으나, 인적상호작용에 있어 가족 간 대화 증가와 친화력 배려심의 증진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매우 공통적인 부분으로 지속적이며 꾸준히 발견되는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의 효과라고 사료됨.
- 특히 단원과 친구 간 친화력과 배려심 증진은 자신이 직접 느끼고 실제 배우는 주요한 사회기술 중 하나로 국내외 문헌에도 공동적으로 드러나는 효과임.

■ 가족 간 대화 증가

오늘 뭐 배웠냐고 엄마가 물어보고 되게 새로운 악기 하니까 엄마께서도 이거는 못 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거 할 때 힘든 점 있냐고 물어보시고... 그래서 엄마가 관심을 자주 주셔서... 고마워요. 엄마한테는 오늘은 뭐를 배웠고 속상한 점도 하나도 없었고 맨날 호른파트에서 재밌었다고. (B나2)

엄마가 막 악보랑 오늘은 잘 보이냐고 물어보고~ 나중에 잘되면 악기 찍은 영상 보여주라고 해요. 하는 건 그 사진으로만 보셔가지고. (B나1)

저는 엄마가 콘트라베이스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갔다 온 날이면 항상 옛날에는 뭐 학교에서 뭐 잘 했냐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꿈오 잘 갔다 왔냐고, 오늘은 뭐했냐고 이런거 물어봐요. (A나1)

■ 친화력과 배려심 증진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잘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말도 못했는데 여기 OOO를 다니면서 친구들을 여기서 많이 사귀고. (B나3)

꿈의 오케스트라는 나에게 가족이다. 팀원들과 함께하고 마지막에는 연주는 60명 애들이 같이 하니까

가족 같이...(B나2)

(여기 친구들은) 되게 착하고 남을 이해해주는 맘이 커요. 그래서 저도 악기를 하면서 마음이 되게 부드러워진 거 같아요. (B나4)

협동. 다 도와서 한 곡을 만들어서. (B나1)

(5) 사회경제적 혜택: 여가로서의 음악

- 신규단원이 느끼는 사회경제적 혜택으로 주요한 변화는 자신이 음악을 평소에 즐기는 여가로 활용한다는 점과 함께,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시간을 쉬어가는 쉽표 같은 시간으로 느낀다는 점임.
- 일반과 취약가정 아동 모두 유튜브를 통해 음악을 듣는데 있어 자신들이 연습하고 있는 특정 작곡가의 곡이나 클래식 음악을 검색해 듣는 방식으로, 음악소비에 있어 장르적 확장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일상에서 주어진 쉽표같은 시간

일상이다. 매일 매일 힘들고 공부에다가 힘들고 이제 강아지 까지 키우고 똥 치우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서서는 아무런 방해 없이 휴식도 가지고, 이제 그 소소한 일상인데 더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일상. (B나3)

쉽터. 꿈의 오케스트라는 다른 학원에서는 이것만 해야 하는데, 저것만 해야 하는데, 답이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고 악기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편안한 쉽터 같고 집보다 더 편안해요. (B나3)

■ 유튜브 음악 콘텐츠 활용

노래를 더 자주 듣게 됐어요. 그니까 뭐 힙합이나 케이 팝 이런 거. 음악적으로 그 뭐지 오케스트라, 클래식 그런 거. 그런 거 더 많이 듣게 됐어요. <...> 유튜브나 아니면 엄마가 핸드폰으로 깔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해요. (A나1)

(6.1) 참여 환경: 촉진요인

- 참여환경에서의 촉진요인은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①강사의 관심과 애정이 꼽혔으며, 이를 중심으로 ②맛있는 간식, ③캠프 등 다양한 활동이 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촉매로 작동하며 긍정적 경험을 더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히 아이들은 음악강사에 강한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교육강사의 칭찬과 관심이 가장 강력한 촉진요인으로 증언됨. 이에 더해 간식을 먹는 시간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 이외에도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웃고, 떠드는 시간으로 이는 캠프 등 다양한 활동과 연계하여 참여환경의 강력한 촉진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교육강사의 관심과 애정

여기는 (학원과 다르게) 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이걸 외우지 않고 내가 진짜 이거를 할 수 있을 때 까지 열심히 가르쳐주니까 재밌어요. <...> 선생님 좋은 것 같아요. (B나2)

저는 학원에서랑 방과 후에서 보내다 보니까 학원은 이제 계속 게이름 연습만 하고. 맨날 딱딱하게 악보도 제대로 주지도 않았는데... 또 방과 후에는 친구들 끼리만 하고요, 선생님이 자주 봐 주시지가 않고 딱 한번 봐 주시는데 60명의 아이들이 하나씩. 그러데 여기는 선생님이 더 꼼꼼하게 알려주시고 다 관심도 가져주셔서 좋아요. (B나3)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좀 무서운데 근데 여기에서는 선생님도 친절하고 잘 가르쳐 주시고 하니까 좋아요. (B나4)

룰루랄라 선생님은 막 학교에서 발표 못 하는 애들 있잖아요. 개들을 적극적으로 더 시켜줘요. 목소리가 일단 안 크면 좋아요. 부드러워요. (B나2)

저는 콘트라베이스 선생님이 칭찬해주셨을 때 <...> 어 그냥 선생님이 귀여우세요. (A나1)

그때 한번 이렇게 그 진짜 실제로 악기 연주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두 분이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합창으로 계명을 불렀는데, 그때 대단했어요. 우리가 진짜로 그걸 연주 할 수 있을까, 실현이 될까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첼로는 OO이가 연주하고 제가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한다면 우리가 저렇게 하면 얼마나 멋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A나3)

■ 맛있는 간식

간식. 나중에 흩어졌던 친구들이랑 같이 다시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배도 채우고 해가지고 좋았어요. (B나4)

■ 캠프: 친구들과 함께 하기

언니랑 동생들이랑 친구들이랑 캠프 갔을 때요. 가기 전에는 무서워가지고 울고 막 그랬는데, 엄마랑 떨어져 본 적이 많이 없어서 걱정되고 그랬는데 가니까 엄청 재밌고 <...> 마지막에 저녁밥 먹고 와서 양치하고 목욕하고 잘라고 하잖아요. 다 씻고 이제 들어가면 언니들이랑 많이 놀거든요. 마피아하고. 그때 제일 재밌었어요. (A나2)

저도 캠프 갔을 때 기억이 제일 좋았어요, 파트연습 하는거 그것도 좋았는데 <...> 집에서 떨어져 있는, 나 혼자 4박 5일인가 3박 4일이라는 시간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그런 게 좀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괜찮았고. 그때 제일 좋았던 게 제가 핸드폰이 있는데 그게 집에서는 그렇게 자주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때 거기에 있는 동생들이랑 형들이랑 핸드폰이 있으니까 게임도 같이하고 그것도 좋았어요. (A나4)

처음 악기 시작하니까 선생님도 새로 만나고 친구들하고도 이야기 많이 하고 그래서, (가장 좋을 때가) 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귄 때요. (B나3)

(6.2) 참여 환경: 장애요인

- 신규단원 대부분이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큼 구체적인 장애요인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학원으로 인한 피로감에 오케스트라 참석이 부담스럽다는 증언이 다수 보고되었음.

■ 학원으로 인한 피로도

그 학원 같은 게 제일 많을 때.. 나오기 싫는데 꼭 나와야 하나.. 힘들어서~ (B나1)

지금 스케줄을 학교를 갔다가 방과후 영어 방과후, 지금 바이올린이 끊었다고 말씀 들었잖아요. 그거 하고, 영어하고 이제 피아노, 아 원래 피아노를 갔다가 집에 가는거 였는데. 이제 3월 달 학년 바뀌면서부터 수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피아노를 태권도도 다녔어가지고 피아노랑 태권도는 일단 접어놓고 이제 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 수영만 끊어도 다섯시간은 걸리니까. (A나2)

살짝 힘들어요. 영어 방과 후도 하고 주산 방과 후... 그리고 줄넘기 학원... 근데 또 제가 줄넘기 학원을 되게 좋아하는데 오케스트라 할 때 월요일마다 그걸 조금 밖에 못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좀 속상해요. (A나1)

(7) 제언: 구체적 대안 및 개선 방안

- 신규단원들이 제안한 꿈의 오케스트라 개선방안으로는 ①(온전히 악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음시설이 완비된) 연습공간의 개선, ②개인 악기구입 또는 지원, ③개인 레슨 시간 증가로 나타난 대부분 개인이 악기를 충분히 연마하는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제언들로 조사됨.
- 특히 개인 레슨 시간은 바이올린 같은 단원의 숫자가 많아 교육강사가 관악기나 타악기만큼 1:1 관심을 주기 어려운 악기 파트에서 개선된 의견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앞서 제언된 사항에 비해 교육강사의 수를 늘린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보완될 수 있는 사항으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연습공간의 개선

처음으로 거기 지하 그쪽에서 아래에서 하다가~ 여기 컨테이너 위로 방을 바꿔주셔서 한 거. <...> 다 같이 트럼펫은 공간이 안 나뉘지고, 한쪽은 트럼펫 한쪽은 호른 하나까 소리가 계속 뒤섞이니까 된지도 몰라서 잘 하지를 못했는데~ 개인 공간이 생기니까 잘 돼서 정말 좋아요. (B나3)

지하 공간에서 하는 첼로 애들이랑 바이올린이랑 그 첼로 같은 애들이 깜깜한 지하에서 하나까. 넓은 데서 자기 혼자 있는 느낌이 드니까~ 첼로도 좀 더 밖에 있는 연습실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B나2)

네 저도 바이올린이랑 지하에서 같이하니까 소리가 섞이니까 헛갈리고...(B나3)

■ 개인 악기 지원 또는 구입

근데 한 가지 욕심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계속 첼로를 사고 싶은데 엄마가 그거를 빨리 해결을 안 해줘 가지고 그게 좀 답답해요. <...> 일단 저희가 가격 대비를 30만원 정도로 예산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50만 원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첼로가 확실히 비싸요. <...> 일단 예상했던 것 보다 더 가격이 비싸요 (A나4)

클라리넷이랑 플루트가랑 바이올린 비올라는 집에 악기를 들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첼로하고 콘트라하고 타악기, 그거는 주고 싶어도 못 준대요. 그거는 토요일 일요일 와가지고 연습을 해야 해요. (A나4)

콘트라베이스가 제일 비싸기도 한데 <...> 악기가 자주 고장 나서 그래도 쓰고 있긴 한데 활 안에 나무판자가 계속 빠지고 판자가 또 옆으로 비틀어져서요. 그걸 수리를 해서 지금은 잘 되고 있긴 한데 고장나지 않는 콘트라베이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A나1)

■ 개인레슨 강화

선생님이 거의 저만 알려준다거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 바이올린이 사람이 많으니까 12명이나 있으니까 엄청 돌고, 돌고 해가지고 제가 하나도 못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절 좀 더 집중적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A나2)

2.2.2 취약가정 신규단원 면접조사 결과 분석

- 취약가정 아동 신규단원의 면접조사 결과 이들의 가장 큰 참여 동기는 부모의 권유였음. 이외에도 자신의 악기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따라 선택했다는 증언이 조사되긴 하였지만, 이는 매우 소수에 한정된 부분이었음. 일반가정 아동과 공통적으로 이들 또한 학교 교우 관계에서 발생한 왕따 또는 은따의 경험이 고민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일반 가정 아동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부모와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는 점이 자신의 고민거리로 드러난 것이 특징임.
-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를 통해 아동 스스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일반가정 아동과 동일한 음악적 성장으로, 구체적으로 ①음악지식의 향상, ②악기실력의 향상, ③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④합주의 즐거움 알아가기였으나 테마의 다채로움은 한정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개인적 성장 또한 일반가정 아동과 공통적으로 ①행복감과 즐거움, ②악기를 통한 나의 몸소중히 다루기, ③차분함과 마음의 안정이 보고되었으나 테마의 다양성은 일반가정 아동에게서 드러났음. 특히 진로나 자기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띄는 차이로 발견됨.
- 개인적 성장과 음악적 성장만큼 강한 테마로 드러나진 않았으나, 취약가정 신규단원의 경우 또한 인적상호작용에 있어 가족 간 대화 증가와 친화력 배려심의 증진이 발견되었으며, 사회경제적 혜택부분에 있어서는 여가로서 음악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드러났음.
- 참여환경의 촉진요인도 일반가정 아동과 동일한 테마가 분석되었으며, 가장 강력한 촉진요인으로 ①강사의 관심과 애정이 꼽혔으며, 이를 중심으로 ②맛있는 간식, ③캠프 등 다양한 활동이 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촉매로 작동하며 긍정적인 경험을 더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 것으로 증언되었음.
- 취약가정 신규단원들이 제안한 꿈의 오케스트라 개선방안으로는 ①간식에 대한 선택권 부여와 ②(단원들의) 바른 행동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일반가정 아동과는 공통된 의견이 없었다는 점이 특이사항임. 그러나 이에 대한 원인이 일반가정과 취약가정 아동의 차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확대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아동의 개인적 성향이나 악기에 대한 관심 정도에 대한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됨.

〈표 IV-38〉 취약가정 신규단원 면접조사 결과 분석

체계	상위구분	하위구분	분석 내용
배경	아동의 고민과 환경		- 엄마아빠와 함께 시간보내기 -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
	참여 동기		- 부모의 권유 - 자발적 관심과 의지
아동의 변화와 성장 (교육 효과)	개인적 성장	인지 및 정서 발달	- 즐거움, 감사, 행복감 - 악기를 통한 나의 몸 소중히 다루기 - 차분함과 마음의 안정
	음악적 성장	미적 경험의 체험	- 음악지식의 향상 - 악기실력의 향상 - 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 합주의 즐거움 알아가기
	인적 상호작용영향	관계적 역량 향상	- 가족 간 대화 증가 - 친화력과 배려심 증진
	사회경제적 혜택	음악 콘텐츠 활용	- 학교 음악수업 관심 증대 - 유튜브 음악 콘텐츠 활용
참여환경	촉진요인		- 교육강사의 관심과 애정 - 맛있는 간식 - 캠프: 친구들과 함께 하기
	장애요인		- 없음
제언	대안 및 개선방안		- 간식에 대한 선택권 부여 - 바르게 행동하기

(1.1) 배경: 참여 동기

- 취약가정 아동 중 신규단원의 가장 큰 참여 동기는 부모의 권유로, 이외의 요소는 미약하게나마 자발적인 관심과 의지가 있었으나 이는 매우 소수에 속하였음. 다만 이러한 이유는 취약가정 아동의 특징에 한정하기 보다는 아동의 나이도 고려되어야 함. 대부분 인터뷰에 참여한 취약가정 아동의 신규단원 나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으로, 자신의 의지나 자발성 보다는 부모의 선택이 주요한 신청동기였을 것으로 판단됨.

■ 부모의 권유

그 뭐지 학교 안내장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있다고 신청 해 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좋겠다고 안내장이 있었어요. 그래서...집에서 엄마가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 봤는데 제가 악기 배우는 게 피아노는 좀 스트레스 받았긴 했는데 이걸 무언가 친구들도 많고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진짜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됐어요. (B가2)

저는 모르겠어요. 엄마가 어디 오케스트라 한다 해서 저는 그냥 오케스트라 저도 뭐지 악기 배워보고 싶어서 오케스트라해서 한다 해서 제가 면접 보러간다고 했어요. (B가3)

저는 엄마가 원래 (시켜서). 근데 재미없을 것 같아 안하려 했는데 생각해보기까 재밌을 것 같아서 신청 했어요. 한번 해 볼래 했는데 저는 싫다고 했거든요, 생각해보기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엄마한테 한다고 했어요. (A가1)

저는 아빠가요. 저보고 악기에 관심이 많다고 그거 아빠가 해줬어요. 제가 아빠한테 알림장 종이를 보여줬어요. (A가2)

■ 자발적 관심과 의지

처음에 1학년 때 박람회에서 바이올린을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이올린이하고 싶어서... 바이올린에 대한 좀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바이올린을 하려다가 엄마가 비올라도 소리도 좋고 좀 더 바이올린 하는 것 보다 쉬울 것 같다고 해서 그러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재미 삼아서 비올라도 처음 도전 해보고 싶어요. (B가1)

(1.2) 배경: 아동의 고민과 환경

-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가정 아동과 공통적으로 이들 또한 학교 교우관계에서 발생한 왕따 또는 은따의 경험이 고민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일반가정 아동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부모와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하는 점이 자신의 고민거리로 드러난 것이 특징임.
- 취약가정의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제시하는 조건은 경제적인 부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다양한 범주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고려한 취약가정 아동에 대한 보조 장치, 즉 상담이나 다양한 지원체계 또한 고려해 볼 사안인 것으로 사료됨.

■ 엄마·아빠와 함께 시간 보내기

(고민은) 엄마가 늦게 와세요, 아니면 엄마가 아침부터 회사를 가거나 새벽에 회사를 가거나 오늘은 오후 근무라서 밤에 와서 그런 게 걱정이에요. 심심해서요 <...> 동생은 여자라서 그 뭐지 항상 소꿉놀이만 하자해요 <...> 엄마 늦게 와요. 10시. (B가1)

저는 그냥 깨어있어요. 저희 새벽 2시까지 깨어있는 적도 있고 그래요. (A가2)

재밌는 게 이것 밖에 없어요. (왜요?)
수영은 너무 힘들고 그 뭐지 다른 거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아빠는 집에 있는데 너무 많이 안 놀아줘요. 항상 인터넷 하거나 그런 거 본다고 많이 안 놀아줘서 (A가1)

■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

이것 보다 더 심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서 일부러 버스에 뭐 흘려 놓고 제 휴지 한통 다 사이에 끼 놓고, 할머니가 남겨 오랫동안 사이에 다 끼 놓고 물 젖은 데에 저 앉히고 막, 친한 척 하고 갑자기... 그때 그냥 줌... 많이 울었어요. 자존심, 아니 존재감도 없고 친구도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B가1)

(2) 개인적 성장: 인지 및 정서 발달

- 취약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 모두 개인적 성장에서 공통적으로 ①행복감과 즐거움, ② 악기를 통한 나의 몸 소중히 다루기, ③차분함과 마음의 안정이 보고되었음.
- 그러나 개인적 성장에 있어 세부적 테마는 일반가정 아동보다는 다양성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진로나 자기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띄는 차이로 발견됨.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는 아동들의 나이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판단됨.
- 다만 취약가정 아동의 증언 중 특히 강조되었던 것은 자기의 몸 소중히 다루기로, 이는 아동의 내면적 인식확장에 주요하게 각인된 사항으로 관찰되며 이는 후속 종단연구에 있어 어떻게 확장될지 관심을 요하는 부분으로 사료됨.

■ 즐거움과 행복감

그 뭐지 악기 배우고 싶었는데 애들이랑 즐겁게 합주하면서 악기를 배우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B가3)

처음에 악기 뭐 바이올린 할 때 대충 해가지고 대충 쉽겠지 하면서 그냥 관심도 안 가지고 악기 영상이

나오면 눈길 한 번도 안 주고 다른 영상만 주로 봤는데 실제로 하니까 재밌고 악기가 이렇게 재밌는 건 줄 몰라서 열심히 배우고 싶었어요. (B가3)

꿈의 오케스트라는 나에게 행복이다. 그 쪽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선생님도 다정하시고 악기도 그렇게 아주 꼼꼼하게 볼 수 있어서 저에게 행복이라는 것 같아요. (B가1)

감사. 악기를 원래 안 좋아하고 관심 없었는데 악기를 좋아하고 관심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B가3)

음... 소중한요. 우리를 바꾸게 해요. 우리 성격도 바뀌게 하거나 우리가 꿈을 바꾸게 하거나 그래요. (A가2)

■ 악기를 통한 나의 몸 소중히 다루기

꿈의 오케스트라는 내 육체. 왜냐하면 꿈의 오케스트라의 선생님은 내게 좋은 뜻으로 악기를 가르쳐주시는 거고 그 전에 인문 교육은 악기를 더 잘 다루고 나쁜 마음을 먹지 말라는 뜻이니까 육체가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에게 좋은 거니까 내게 꼭 필요한 육체 중에 일부인 것 같아요. (B가2)

저는 선생님이 악기가 제일 소중하고 자기 몸도 소중하게 여기면... 그냥 나에 악기는 내 몸에 일부라고 생각 하는 게 가장 크게 배운 것 같아요. <...> 저는 악기를 막 자기 몸이 아니라 함부로 던지거나, 폭력하거나, 나쁜 말 쓰는 그걸 하지 말라는 그걸 제일 두 번째로 크게 배운 것 같아요. (B가2)

■ 차분함과 마음의 안정

그 뭐지 제가 타악기를 배우니까 치는 거니까 치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막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 조금 더 차분해져가지고....(B가3)

저는 막 오케스트라에서 편하게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사실 답답하지만 몸에 좋으니까 그리고 또 악기도 하고 재밌게 막 합주도 하고 하니까 힐링 공간인 것 같아요. 그때 동안에 아마 숙제랑 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강제로 해야 된다는 머리 아픈 생각을 잊을 수 있어요. (B가2)

(3) 음악적 성장: 미적 경험 체험

-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를 통해 아동 스스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일반가정 아동과 동일한 음악적 성장으로, 구체적으로 ①음악지식의 향상, ②악기실력의 향상, ③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④합주의 즐거움 알아가기였으나 테마의 다채로움은 한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다만 세부 테마의 한정적인 결과는 아동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드러난 결과일 수 있으며, 아동의 증언들을 살펴보면 음악적 성장을 통한 미적 경험을 매우 즐겁게 받아들

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반가정 아동과 마찬가지로 전기 인터뷰에는 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형성을 강조하였으며, 후기 인터뷰에는 음악지식의 향상과 악기실력의 향상, 그리고 합주의 즐거움에 대해 보고하였음.

■ 음악지식의 향상

처음에는 거의 몰랐었는데 점점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원래는 솔도 어떤건지 잘 모르고 그랬는데 점점 솔하고 여러 가지 다 음정을 다 거의 알게 됐어요. (A가2)

저는 예전에는 하나도 모르고 머리가 돌아가기만 했는데 이제 보니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도 알게 됐어요. 저는 '레'랑 '도'랑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다 좋아요.(A가3)

저는 높은음자리표도 배우고 있어요. <...> 지금 기초부터 배우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불러가지고 나왔어요. 저는 음악가, 음악가가 될 것 같아요. (A가3)

저는 바이올린 배울 때 저에게 바이올린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좋아해요. (바이올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거 배울 때 제일 좋았어요?) 음... 음표. (A가4)

옛날에는 바이올린 같은 거 그런 음표 같은 거 몰랐는데 이제 오케스트라 다니다 보니 이제 오케스트라에 있는 음표들도, 여기 있는 방도 다 알겠어요. (A가2)

■ 악기실력의 향상

저는 너무 (악기가) 커가지고 웬지, 근데 제가 뽁뽁 소리를 너무 많이 내서... 근데 그러면 저도 웬지 음정이 웬지 조금 좋긴 좋아요. (A가2)

한 20프로 정도 변한 것 같아요. 어.. 음... 인제 막 노래도 막 연주 하고, 약간 노래도 많이 늘어진 느낌, 좀 더 재밌어졌어요. (B가2)

실력은 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어... 제가 그때는 막 쳤는데 지금은 좀 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 그런 걸 느끼나요?) 선생님들한테 칭찬 받았을 때요. (B가)

그니까 빠른 곡 할 때 음... 예전에는 얼버무리면서 활도 잘 못 집었는데 지금은 활도 잘 잡고 모든 곡을 해도 다 쉬워요. (악보 보는 것도) 너무 쉬워요. (B가1)

쉬워졌어요. 게이를 입을 줄 몰랐는데요. 막,, 음표 위치가 바뀌고 그런 걸 좀 배워가지고 음표 위치 바뀌는 거 보면서 몇 번째 줄이라 예측하고 하면서 하면 원하는 음악이 만들어져요. (B가2)

■ 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악기도 처음 보고 만져도 보고 드럼 오랜만에 만져보니까 좋았어요. (B가3).

원래는 악기한테 관심도 안 가졌는데 그 꿈의 오케스트라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악기를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피아노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여기 꿈의 오케스트라 들어가고 나서는 피아노도 약간 사랑해서 혼자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예전에 그거 안했을 때 피아노는 거들 떠 보지도 않았어요. (B가1)

바이올린이 구멍이 숫자인 줄 만 알았는데 소문자 f 자 인 것도 알았고 비올라랑 첼로랑 더블 베이스 까지 있다는 것도. 첼로랑 바이올린이 기본적으로 알았는데 그 사이에 랑 그 사이에 맞는 더블 베이스랑 비올라는 처음 알았어요. (B가2)

실이 가루처럼 눈, 비듬처럼 휘날려가지고 그 실이 조금이라도 제가 조금 잡아 당겼는데 한 가닥이 비듬, 아빠의 비듬처럼 후두두 떨어져서 놀랐어요. (B가1)

인문 교육할 때 그 선생님들이 악기를 꼭 소중히 해야 한다고 자기 몸으로 생각하라고 하면서 내 몸을 위협에 빠뜨리는 건 싫어 하니까 악기도 내 친구로 생각하고 위협에 안 빠뜨리려면 사랑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B가2)

클라리넷 뭐 붙이는 막대기 있잖아요. 리드 그거 막 빨고 있을 때 웬지 뿌듯한 기분이 나서 그 부분이 꽤 좋은 것 같아요. (A가1)

(악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게 있나요?) 아주 많아요. 비올라랑 처음에는 막 했을 때는 막 그만두고 싶었어요. 무겁고 바이올린, 차라리 바이올린 하는 게 더 나을까 싶고, 막 바이올린이 무언가 멜로디 많이 맞출 거 같고 하면서 막 비올라는 무겁고 희미한 거 같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합주하다 보니까 우리도 좋은 거 연주하고. (B가1)

■ 합주의 즐거움 알아보기

합주가 제일 좋아요. 다른 악기 소리들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늘었는지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엔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한 거를 알 수 있어요. (A가2)

꿈의 오케스트라는 다 같이 재밌게 놀기도 하고 같이 하면서 합주도 하고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B가2)

교회는 (악기 배우는 건)저랑 한 명이랑 선생님이랑 하니까 좀 외로워서 오케스트라에서 하는 거는 같이 배우니까 재밌어요. (B가2)

(4) 인적상호작용 역량: 관계적 역량 향상

- 취약가정 신규단원의 경우 인적상호작용에 있어 가족 간 대화 증가와 친화력 배려심의 증진이 동일하게 발견되었으나 매우 강한 테마로 보고되어지진 않았음. 두 가지 세부 테마 중 가족 간 대화 증진이 더욱 강조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후년 연구에 좀 더 발현될 사항으로 기대됨.

■ 가족과의 대화

원래는 엄마 회사 안 다닐 때는 항상 학교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 오케스트라 이야기 하니까 좋아요. 엄마가 잘 했냐고 하거나, 안 좋았던 점도 묻고. (A가1)

■ 친화력과 배려심

저는 아까 그 친구 원래 잘 안 도와줬었는데 배우니까 하다 보니까 친절해야지 잘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친구 도와줘보니 기분이 뿌듯하고. (A가3)

(5) 사회경제적 혜택: 음악콘텐츠 활용

- 사회경제적 혜택부분에 있어서는 여가로서 음악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공통적으로 드러났음. 다만 일반가정 아동에서 발견되지 않은 테마로 ‘학교 음악수업의 관심 증대’는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사료됨.
- 일반가정 아동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취약가정 단원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음악을 듣는 것도 증언되었으나, 음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긍정에서 강한 긍정이 아닌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화했고, 이에 장르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요한 변화로 판단됨.

■ 학교 음악수업 관심 증대

오케스트라 음을 다 다르게 하잖아요, 파트별로. 그래서 막 애들 다 다르게 연주하니까 예전에는 헛갈렸는데 지금은 집중해서 듣는 같아요. 그래서 학교 음악시간도 재미있어졌어요. (B가2)

■ 유튜브 콘텐츠 활용

저는 평소에 악기영상도 안 배울 때는 잘 안 챙겨보고 음악은 그냥 쓸데없는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악기 계속 배우다 보니까 학교에서, 아니, 오케스트라에서 봤던 오페라 그것도 집에서 계속 보고, 그 다음에 아, 바이올린에 대한 영상도 챙겨 보고 있어요. (B가1)

(6) 참여환경: 촉진요인

- 참여환경의 촉진요인도 일반가정 아동과 동일한 테마가 분석되었으며, 가장 강력한 촉진요인으로 ①강사의 관심과 애정이 꼽혔으며, 이를 중심으로 ②맛있는 간식, ③캠ป์ 등 다양한 활동이 프로그램에서 만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촉매로 작동하며 긍정적인 경험을 더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면,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 것으로 증언하였음.
- 주요한 특징으로는 일반가정 단원보다 매우 강하게 간식이 주요한 촉진요인인 것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인 대안에서도 연속적으로 다뤄짐.

■ 교육강사의 관심과 애정

저는 (피아노) 학원을 전에 다녀봤는데 끊었거든요?
 (여기는) 좀 달라요. 학원은 선생님이 많이 지적해주시고 이름도 틀리면 다시 하라고 조금 화내시고 그랬는데, 오케스트라는 화도 안 내고. (B가3)

(선생님이) 잘생겼어요, 예뻐요. 키 크고 다정하세요. (B가3)

■ 맛있는 간식

간식시간, 그 다음에 간식 시간일 때 근데 자기가 그거 설문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걸로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먹고 싶은 걸 우리한테 물어봐가지고 제일 많은 걸 주면 좋을 거 같아요. (A가2)

간식 먹는거. 소떡소떡, 그 뿌링클 뿌린거 (A가3)

네, 힘들지 않아요. 재밌어요. 간식 때문에. (A가4)

투표해 가지고 투표. 투표 해가지고 한 그 오케스트라 갈 때 마다 그 때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기 전에 어떤 거 먹고 싶냐고 물어 봐가지고 제일 많은 수가 나오면 그 날에는 그걸 먹고. (A가1)

(무슨 시간이 가장 좋아요?) 간식. (A가1)

저도 간식. (A가4)

감자 핫도그요. 그거 엄청 맛있어요. 또 나오면 좋을텐데... 두 번 밖에 안 나왔어요. 다른 건 많이 나오는데 (B가1)

■ 캠프: 친구들과 함께 하기

캠프 갔을 때. 캠프 갔을 때 원래 집에서는 엄마가 그냥 숙제만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숙제도 안 해도 되고 바이올린만 하면 되니까 좋았어요. 그리고 늦게 자고. (A가1)

쉬는 시간을 많이,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앉아서 쉬고 놀고 언니들이랑 2학년 언니들이 많아 가지고 2학년들이 많아 가지고 많이 놀아줘요. (A가2)

피아노 학원 친구가 한, 두 명 있는데 오케스트라는 친구가 많고, 넓고 신나게 놀 수 있어서 좋아요. (B가1)

마지막 날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춤추면서 놀았을 때 좋았어요. 그때 막 파티 분위기 같이 막 반짝거리고 애들도 신나했어요. (B가2)

저는 학교에서 애들이 소외나 은따 시켜가지고 학교생활이... 학교생활이 재미없고 애들이 자꾸 무시해서...그런데 저는 여기 오면 그 생각들이 다 잊혀지고, 악기하고 애들이 그 친구, 친구로 친한 친구가 있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B가1)

(7) 제언: 대안 및 개선 방안

- 취약가정 신규단원들이 제안한 꿈의 오케스트라 개선방안으로는 ①간식에 대한 선택권 부여와 ②(단원들의) 바른 행동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일반가정 아동과는 공통된 의견이 없었다는 점이 특이사항임. 그러나 이에 대한 원인이 일반가정과 취약가정 아동의 차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확대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아동의 개인적 성향이나 악기에 대한 관심 정도에 대한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됨.
- 특이한 사항으로 바르게 행동하기는 4년차 단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온 대안 또는 개선방안이기도 함.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가정 아동의 개선방안은 개인적인 발전, 즉 악기기술에 대한 터득과 교육환경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취약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개인적 발전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부분에 좀 더 집중되어 증언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다만 이와 같은 차이는 단순히 일반과 취약가정 아동 간의 차이로 해석하기 보다는 아동 개인의 성향과 관심에 의거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힘.

■ 간식에 대한 선택권 부여

간식시간, 그 다음에 간식 시간일 때 근데 자기가 그거 설문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걸로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먹고 싶은 걸 우리한테 물어봐가지고 제일 많은 걸 주면 좋을 거 같아요. (A가2)

투표해 가지고 투표. 투표 해가지고 한 그 오케스트라 갈 때 마다 그 때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기 전에

어떤 거 먹고 싶냐고 물어 봐가지고 제일 많은 수가 나오면 그 날에는 그걸 먹고. (A가1)

■ 바르게 행동하기

버스에서 쓰레기 버리지 않기. 막 버려요 그거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물건 훔쳐요, 막 간식이나, 우산도 돈도 500원인가, 돈 인가, 돈이랑 우산이랑 목걸이 간식 다 훔쳐놓고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했다고 밝히지도 않고 그래요. (B가1)

2.2.3 일반가정 4년차 단원 면접조사 결과 분석

- 일반가정의 4년차 단원의 면접조사 결과 이들이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정한 목표치에 다다르겠다는 강한 목표의식과 장래진로와 연계되어 악기를 대학진학의 목표로 삼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를 통해 단원 스스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음악적 성장에서 단순 미적체험이 아닌 미적체험의 내재화로, 구체적으로 ①음악지식의 향상, ②악기실력의 향상, ③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 ④합주에 대한 철학과 즐거움으로 분류됨. 특히,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신규단원과 비교해 새롭게 확장된 변화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아동의 관심사가 변화되는 부분이기도 함. 이는 종단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요한 시사점 중 하나로 사료됨.
- 개인적 성장은 ①긍정적인 마음과 ②자신감으로 보고되었으며, 인적상호작용에 있어 가족 간 대화 증가와 친화력 배려심의 증진이 발견되었음.
- 신규단원과 4년차 단원의 주요한 차이는 신규단원에서는 배려심 정도로 드러난 공공의 의미가 강하게 발현되어 소속감과 책임감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주요한 변화로 보고되었으며, 사회경제적 혜택부분에 있어서는 여가로서 음악을 활용하는 것에서 발전하여 음악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음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주요한 변화로 증언되었음.
- 참여환경에서의 촉진요인은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①캠프를 통한 친구들과 함께 시간보내기과 ②합주의 즐거움과 새로운 곡에 대한 도전이었음. 그러나 새로운 곡에 대한 도전은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상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충분히 만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의 지속적 참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일반가정의 4년차 단원에 의해 증언된 장애요인으로는 ①(중학교 입학에 따른) 학업의 부담, ②(기관의 위치에 따른) 접근성 결여, ③신규단원의 유입으로 인한 지속적 하향평준화

를 꼽았음. 특히 마지막 장애요인은 위의 촉진요인에서 언급한 새로운 곡에 대한 도전과 상충되는 부분이기도 함.

- 이들이 제안한 꿈의 오케스트라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①실력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②다양한 악기 체험 증가, ③상급생을 위한 배려 제도, ④든든한 간식, ⑤연습시간 확보를 위한 탄력적 운영으로 분석되었음.

〈표 IV-39〉 일반가정 4년차 단원 면접조사 결과 분석

체계	상위구분	하위구분	분석 내용
배경	지속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한 목표의식 - 개인 악기 소지와 연습 - 장래희망과 연계
-아동의 변화와 성장 (교육 효과)	개인적 성장	인지 및 정서 발달	-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
	음악적 성장	미적 체험의 내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지식의 향상 - 악기실력의 향상 - 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 합주에 대한 철학과 즐거움
	인적 상호작용영향	관계적 역량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간 대화 증가 - 사회성과 친화력 증진
	공공의 의미	공동체 정신	- 소속감과 책임감
	사회경제적 혜택	음악에 대한 지속적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에 대한 지속적 활동 계획 - 음악에 대한 지속적 관심
참여환경	촉진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캠프: 친구들과 함께 하기 - 연합 공연의 즐거움과 도전
	장애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결여: 거리의 문제 - 학업에 대한 부담감 - 신입단원으로 인한 하향평준화
제언	대안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력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악기 체험 증가 - 상급생을 위한 배려 제도 - 든든한 간식 - 연습시간 확보를 위한 탄력적 운영

(1) 배경: 지속 이유

- 일반가정의 4년차 단원의 면접조사 결과 이들이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정한 목표치에 다다르겠다는 강한 목표의식과 장래진로와 연계되어 악기를 대 학진학의 목표로 삼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취약가정의 4년차 단원 또한 장래진로와 연계된 전공 선택이 주요한 지속참여의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일반가정 아동의 경우 전공은 아니지만 ‘내가 이 정도는 악기를 할 수 있게 내 자신의 목표를 정한 것’이 지속적 참여의 원인인 것은 일반가정 단원에게서 발견된 특징으로 판단됨. 이는 추후 강한 목적의식의 차이에 대해 증언한 코디네이터의 일반가정과 취약가정 단원의 차이에서도 간접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임.
- 또한 부모의 지원으로 개인악기를 소지하고 이를 통해 개인 연습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주요한 지속적 요인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또한 취약가정 단원에서는 전공 선택이 아닌 경우에는 발견되지 않는 지속이유임.

■ 강한 목표의식

저는 저번에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많은 악기를 해가지고, 별걸 다했거든요. 진짜. 전통악기도 가야금 이런 것도 많이 했고. 그런데 제가 악기를 배우면 목표를 반드시 세워요. 이번에 베이스를 하면서 목표가 비브라토는 꼭 하고 끝내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딱 비브라토를.. 그니까 약간 거기까지 채우고 그래도 약간 적어도 이걸 하고 끝내야지 써 먹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D나1)

■ 개인 악기 소지와 연습

저는 집에서 더 연습을 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는 게 더 효과 있다고 해가지고 맨날 보면서 비브라토 연습하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세, 네 번 정도. (D나3)

저는 집에 개인 악기가 있어가지고 튜닝 같은 것도 다 제가 하거든요. 그러가지고 그냥 악보만 딱 가지고 가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해요 <...> 추석이 작년에 8월 달이었죠. 그니까 제가 추석 때 악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그때 하루 집에 하루 있었는데, 하루 동안. 그 8시간 동안 그 곡만 계속 연습을 했는데 <...> 그 노래도 듣고 유튜브에 쳐서 그래서 계속 8시간 정도 연습을 하니까 딱 성공을 했거든요. 그때 성취감 때문이에요. 올해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를. (C나1)

■ 장래 희망과 연계

저는 솔직히 바이올린에 아예 흥미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계속 다니다 보니까 장래희망도 이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가지고. 그래서 계속 다니고 있어요. 바이올린 쪽으로 갈려고. (D나3)

저는 꿈이 두 개긴 한데요. 한 개는 예술고 쪽으로 갈까 생각 중이고요. 한 개는 경찰이 될까. 이게 정 반대잖아요. 그래서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경찰이 된다 해도 그냥 취미로 남아있는 거니까... <...> 그런데 부모님은 경찰이 더 낫겠다. 네 성격에는 이제 음악 하면은 다 망친다. (C나1)

(2) 개인적 성장: 인지 및 정서 발달

- 개인적 성장은 ①긍정적인 마음과 ②자신감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에 모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

뭔가 마음에 대한 그런 게 좀 바뀌었어요. 사람에 마음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부정적인 마음 같은 것도 무언가 좀 서서히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오케스트라를 하면 무언가 제 자신이 이 곡을 할 수 있고, 이 악기를 다룰 수 있다는 게 좀 뿌듯함이 생겨요. 자신감도 생기구요. (D나2)

바이올린은 나의 장점이에요. 처음에는 바이올린이라는 것을 들어 봤긴 했는데 어떻게 생긴 것만 알았지 어떻게 하는지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바이올린의 이제 제 장점이 되었으니까요. (C나1)

(3) 음악적 성장: 미적체험의 내재화

-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를 통해 4년차 단원 스스로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음악적 성장에서 단순 미적체험이 아닌 미적 체험의 내재화로, 구체적으로 ①음악지식의 향상, ②악기실력의 향상, ③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 ④합주에 대한 철학과 즐거움으로 분류됨.
- 특히 신규단원과 분류체계는 동일하나 증언의 수준은 상당히 정교화 되고 깊이를 갖춘 증언들로 자신이 아마추어 연주자로서 음악에 대한 철학적 관점과 주체적 사고가 확장된 것을 관찰할 수 있음.
- 신규단원과 비교하여 4년차 단원의 증언에서 도출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주요한 변화 중 하나는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로 이는 종단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요한 시사점 중 하나로 사료됨.

■ 음악적 지식

이게 좀 웃긴데요. 처음에는 음길이랑 계이름도 여기 오케스트라 들어왔을 때 몰랐고 그래서 한글로 계이름을 다 적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음 길이랑 그런 것 까지 해서 악보를 잘 볼 수 있게 되었어요. (C나1)

■ 악기실력의 향상

저도 실력 쪽이 좀 더 늘은 것 같긴 하고... 많이 늘은 건 아닌데 그래도 처음 보다는 좀 늘은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엔 오히려 지금 보다 더 발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D나2)

당연히 실력이죠. 제 기준으로 3학년이었을 때는 뭐라고 해야하지... 작은 별 그런 거 했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클래식 위주로 하고... 작은 별 인데 원래 속도로 안 하고 완전, 완전 느리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래 속도로 바로 하고 그러니까...(C나1)

■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

저도 실력 쪽이 좀 더 늘은 것 같긴 하고... 많이 늘은 건 아닌데 그래도 처음 보다는 좀 늘은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엔 오히려 지금 보다 더 발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D나2)

저는요 그냥 제 악기 말고 다른 악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원래부터 관심이 많긴 했는데 여기서 현악기 밖에 못하니까. 현악기는 다 다룰 줄 알았거든요? 금관이나 관악기 쪽을 하고 싶어요. (D나3)

■ 합주에 대한 철학과 즐거움

확실히 약간 그게 늘은 것 같아요. 뒤에서 하는 걸 보면서 예전에는 제가 바이올린 솔로 악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제 할 것만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다 봐야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확실히 약간 뭐라 해야하지 다른 악기에 대한 것도 좀 알고, 약간 곡을 연주 할 때 내 것만 듣지 않고 다른 것도 다 두루 두루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D나1)

저는 솔직히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걸 이미 느끼곤 있었는데 오케스트라를 통해 무언가 거기에서 더 깊숙이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합주를 할 때요. 합주를 할 때 악기들 여럿이 맞추는 거다 보니까 뭔가 신기한 소리도 나고. (D나2)

꿈의 오케스트라는 퍼즐 인 것 같아요. 바이올린이라면은 저 혼자 솔로곡을 하면은 저만 잘하면 되는데 오케스트라 자체는 다른 악기를 만나서 이제 다 같이 해야 하는데, 퍼즐이 퍼즐도 다 맞아야지 그림이 나와요. 근데 한 개라도 없으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되니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필요가 없는 것은 없으니까, 다 맞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퍼즐이라고 생각해요. (C나1)

(4) 인적 상호작용 영향: 관계적 역량 향상

- 인적상호작용에 있어 ①(악기를 매개로 한) 사회성과 친화력 증진, 그리고 ②가족 간 대화 증가가 보고되었음. 특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중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자신의 음악활동을 매개로 친화력이 증진된 부분을 강조한 점이 인상적임.

- 이는 아동의 성장과정에 중학교 입학이라는 주요한 시점에서 악기를 매개로 새로운 친구 사귀기와 학교 선생님과 친밀감을 쌓는 경험이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이었던 것으로 사료됨.

■ 사회성과 친화력 증진

맨날 저희 반에서 음악회 같은걸 해요. 악기 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리코더랑 피아노 밖에 없었던 말이에요. <...> 이제 바이올린을 하다 보니까 항상 바이올린을 했는데, 그거 때문에 애들이 관심이 더 많아졌어요. 선생님은 저보고 음악 전공으로 가도 되겠다고 이랬어요. (D나3)

새 학기가 되면요 같은 반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그 새로 만난 친구들도 있고 전학 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제가 다가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그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친구가 먼저 말을 걸고 먼저 다가와 주면 많이 친해져요. 근데 지금 훨씬 좋아졌어요. 먼저 말걸고, 활발해지고. (D나2)

중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다 새로운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막 친해지기 어려웠던 말이에요. <...> 근데 저희끼리 이제 동그랴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기는 무엇을 잘 하고, 무슨 무엇을 뭐 이렇게 하는게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였던 말이에요. 저는 오케스트라를 다니고, 바이올린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깐 ‘오~~~’ 이러면서 이제 다 친했어요. (D나3)

■ 가족 간 대화 증가

오케스트라 하고 나서 가족들이랑 대화를 하면은 꼭 한 번은 오케스트라 얘기가 나와요. 바이올린에 대해서나 막 그런 게. (C나1)

(5) 공공의 의미: 공동체 정신

- 신규단원과 4년차 단원의 주요한 차이는 신규단원에서는 배려심 정도로 드러난 공공의 의미가 강하게 발현되어 소속감과 책임감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주요한 변화로 보고되었다는 점임. 특히 소속감의 경우는 매우 강한 정체성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발견됨.

■ 소속감과 책임감

저는 솔직히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이 소속감이 너무 잘 느껴지고요, 막 뭐 할 때 ‘아, 나는 오케스트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고 되게 좋아요. 불편한 것도 많지만. (D나3)

책임감이요. 1년차랑 2년차 애들은 만약에 못 해도 그 앞에 사람을 보고 활이라도 따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맨 앞이고 저는 이제 따라 볼 사람이 없어요. 그니까 뒤에 애들이 저를 본다는 시선을 느끼니까 뭔가 좀 뭐라고 해야 하지 뭔가 제가 틀리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C나1)

(6) 사회경제적 혜택: 음악에 대한 지속적 관심

- 신규단원과 4년차 단원의 주요한 차이는 사회경제적 혜택부분에 있어서 단순 여가로서 음악을 활용하는 것에서 발전하여 음악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음악에 대한 관심도 주요한 변화로 증언되고 있다는 점임.
- 특히 음악적 성장과 연계하여 다른 악기를 배워볼 계획이나 욕구, 그리고 대학에 가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 등이 훨씬 구체적으로 도출됨.

■ 음악에 대한 지속적 활동 계획

악기에 대한 생각이. 뭐 이런 악기도 해 보고 싶다, 이런 악기도 해 보고 싶다. 이러면서 음악 쪽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약간 하고 싶은 거. 그런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D나3)

대학에 가면 악기로 하는 동아리, 오케스트라 활동 계속할 거 같아요. 그런 생각은 항상 해 왔어요. (D나3)

■ 음악에 대한 지속적 관심

한창 베이스가 좋았을 때는 저도 전공을 할까 생각 했었는데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확실히 오케스트라 하면서 그냥 음악이 나오면 그게 된 악기인지 맞추는 약간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D나1)

저는 처음에 음악에 관심이 없었는데 오케스트라라는 거에 처음에 접해가지고 좀 낫설기도 했는데 점점 음악에 흥미를 찾아갔어요. (D나2)

(7.1) 참여환경: 촉진요인

- 참여환경에서의 촉진요인은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①캠프를 통한 친구들과 함께 시간보내기 와 ②합주의 즐거움과 새로운 곡에 대한 도전이었음. 그러나 새로운 곡에 대한 도전은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상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충분히 만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의 지속적 참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4년차 단원의 경우 지역단위로 모여 함께 연주한 합동공연의 경험은 이들에게 좋은 자극이었으며, 도전과제로서 인식되어 특별한 경험에서 그친 것이 아닌 주요한 촉진요인으로

기능한 것으로 분석됨.

■ 캠프: 친구들과 함께 하기

저도 이번 캠프가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방이 배정이 되면, 그 방이 배정이 되가지고 친구랑 동생이랑 같이 생활할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 방에서 거기서 TV도 보고 그러고 같이 놀고 그럴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D나3)

■ 연합공연의 즐거움과 도전

작년에 공동연주회를 했어요. 통영에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거기서 이제 한 100명 넘는 사람들과 같이 연주하니까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 거기 가니까 저 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뭔가 더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C나1)

(7.2) 참여환경: 장애요인

- 일반가정의 4년차 단원에 의해 증언된 장애요인으로는 ①(중학교 입학에 따른) 학업의 부담, ②(기관의 위치에 따른) 접근성 결여, ③신규단원의 유입으로 인한 지속적 하향평준화를 꼽았음. 특히 마지막 장애요인은 위의 촉진요인에서 언급한 새로운 도전과 상충되는 부분이기도 함.
- 주목할 부분은 4년차 단원의 경우에 하향평준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매우 강하게 피력하고 있었으며 이는 코디네이터와의 인터뷰에도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꿈의 오케스트라의 장애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접근성 결여: 거리의 문제

저 내년에는 없을 겁니다. 중학교 3학년 <...> 감독님이 일주일 두 번은 꼭 오렸는데 힘들어요, 너무 제가 그냥. 집도 학교도 다 멀고,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D나1)

■ 학업에 대한 부담감

중3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시험이 더 많고 수능도 준비해야 하고, 대학 어디 갈지 정해지는 거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학원도 많이 다녀야 되가지고 학교도 늦게 끝나고 해가지고 못 다닐 것 같아요. (D나2)

■ 신입단원으로 인한 평준화향화

확실히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열심히가 지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베이스가 흔한 악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왕 할 거 열심히 하자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귀찮더라고요 오기가. 불만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가면 갈수록 약간 처음 보다는 확실히 열심히 하는 것도 떨어지고, 좀 약간 엄청나게 재밌지가 않아요. 딱 악보를 받으면 뭐라 해야하지... 딱히 열심히 연습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쉽고, 재미가 없어요. (D나1)

(8) 제언: 대안 및 개선 방안

- 이들이 제안한 꿈의 오케스트라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①실력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②다양한 악기 체험 증가, ③상급생을 위한 배려 제도, ④든든한 간식, ⑤연습시간 확보를 위한 탄력적 운영으로 분석되었음.
- 전술된 장애요인과 같은 맥락에서 4년차 일반가정 단원들이 제안한 주요 개선점은 실력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강조되었음. 또한 1년차 단원에게서 나왔던 맛있는 간식에서 든든한 간식으로 음식의 양 또한 성장정도에 따라 요구되는 지점이 달라진 것도 주목할 점으로 판단됨.
- 또한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자신이 느낀 변화라고 통일된 증언이 보고되고 있으나, 이를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상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이에 대한 실험적 운영을 통해 새로운 도전과제를 4년차 단원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실력 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그냥 악보를 받으면 너무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요. 악보 자체가. 베이스다 보니까 아니 감독님이 어려운 곡을 이게 좀 내가 맘에 드는 곡이 오잖아요? 그럼 새로 온 애들 못한다고 편곡해버리고요. 너무 그게 불만이에요, 저는. 안 그래도 쉬워가지고 재미가 없는데. 그거마저 편곡해버리니까 뭘 재미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도 없는 거예요. (D나1)

요번에 아가들이 너무 많이 들어 왔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안단테가 뭘지 모르고 프로테도 뭘지 모르고 이런 건데, 저희는 처음 들어 올 때 여기 OOO에서 했단 말이에요. 맨날. 근데 거기서는 맨날 박자 이거 손 치면서 딸기, 바나나 이렇게 하면서 했고 그리고 막 계이를 하나씩 하고 4분의 4는 뭉고 막 8분 쉽표는 뭉고 다 알려주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늦게 들어온 애들은 이걸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애기들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런 거 잘 안 배우고. 그래서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D나3)

■ 다양한 악기 체험 증가

애들이 지금 한 악기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다른 악기 자기가 해보고 싶은 악기 쪽에

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그냥 레슨이라기보다는 그 악기에 대해서 한 번씩 체험하게 해주는 활동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악기만 하다보면 솔직히 다른 것도 해보고 싶거든요. 솔직히 바이올린 하는 애들 같은 경우도 바이올린 말고 첼로 같은거, 아니면 플룻도 하고 싶고 (D나1)

■ 상급생을 위한 배려 제도

솔직히 중학생한테 안 맞아요. 출석을 매주 3번 하는 건, 그걸 감안해줘야 되요. 중학생은. <...> 아빠는 일 나가시고 같이 다니는 동생 어머니 차를 타는데 개는 2시 30분에 끝나고 저는 4시 30분에 끝난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금요일 날 못 가요. (D나1)

■ 든든한 간식

저는 오케스트라가 끝나면 합기도를 가요. 근데 합기도가 바로 앞이거든요. <...> 간식을 다섯 시에 먹어요. 근데 그 전에는 오케스트라 마치고 합기도에 7시 까지는 최대한 가야해요. 그럼 먹을 시간이 없는데 배고파서, 간식을 좀 많이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C나1)

■ 연습시간 확보를 위한 탄력적 시간 운영

멀리서 오는 애들은 연습을 안 한다기보다는 늦게 도착하니까 할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닌거죠. 그니까 어... 그 애들을 위해서라도 (오케스트라) 시간을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이라도 늘리면 개네도 같이, 같이 이렇게 올라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연습을 집에서도 하면은 이게 뭐 상관없겠지만 집에 개인 악기가 없거나, 악기를 빌려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C나1)

2.2.4 취약가정 4년차 단원 면접조사 결과 분석

- 취약가정의 4년차 단원의 면접조사 결과 이들이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반가정과는 상당히 상이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자신이 정한 목표치에 다다르겠다는 강한 목표의식과 장래진로와 연계되어 악기를 대학진학의 목표로 삼은 것에 기인한 것이 일반가정의 4년차 단원의 지속이유였다면, 취약가정의 4년차 단원의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다른 활동이 딱히 없다는 점과 실제 장래와 연계하여 전공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차이로 분석되었음.
- 또한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를 통해 단원 스스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음악적 성장보다는 개인적 성장으로, 구체적으로 ①즐거움과 마음의 안정, ②성취감 증가, ③섬세함과 조심성 증가, ④자신감 증가로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일반가정의 4년차 단원에 비해 상

당히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약가정의 4년차 단원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성장에 대한 가치를 더욱 크게 부여하고 있다는 시사점이 있음.

- 음악적 성장은 공통적으로 단순 미적체험이 아닌 미적체험의 내재화로, 구체적으로 ①음악 지식의 향상, ②악기실력의 향상, ③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④합주에 대한 철학과 즐거움으로 분류됨. 주목할 점은, 취약가정의 4년차 단원은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에 대한 증언은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임. 이에 대한 원인은 개인악기를 소지하지 않아 악기 연주 실력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기를 소지한 일반가정 단원에 비해 새로운 도전과제로서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 덜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신규단원과 4년차 단원의 주요한 차이는 신규단원에서는 배려심 정도로 드러난 공공의 의미가 강하게 발현되어 소속감과 책임감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주요한 변화로 보고되었으나, 사회경제적 혜택부분에 있어서는 여가로서 음악을 활용하는 것에서 발전하여 음악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구체적인 계획력에 있어서는 일반가정 아동의 증언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참여환경에서의 촉진요인은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①캠프를 통한 친구들과 함께 시간보내기과 ②합주의 즐거움과 새로운 곡에 대한 도전이었음. 그러나 새로운 곡에 대한 도전은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상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충분히 만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의 지속적 참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취약가정의 4년차 단원에 의해 증언된 장애요인으로서는 ①(중학교 입학에 따른) 학업의 부담, ②신규단원의 유입으로 인한 지속적 하향평준화를 동일하게 꼽았음.
- 이들이 제안한 꿈의 오케스트라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①단원들의 자발적 교정 노력, ②(기관의 위치상의 문제로) 접근성 결여에서 오는 시간 안배 노력, ③ (단원 간) 실력 차를 고려한 시스템 마련, ④적절한 고민 상담과 그에 준하는 조치, ⑤신규단원 입단 나이 상향조정, ⑥연습공간의 개선, ⑦다양한 악기 구성 확보, 그리고 ⑧튼튼한 간식으로 분석되었음.

〈표 IV-40〉 취약가정 4년차 단원 면접조사 결과 분석

체계	상위구분	하위구분	분석 내용
배경	지속 이유		- 대체 가능한 선택지의 제약 - 장래희망과 연계: 좌절의 두려움
-아동의 변화와 성장 (교육 효과)	개인적 성장	인지 및 정서 발달	- 즐거움과 마음의 안정 - 성취감 증가 - 섬세함과 조심성 증가 - 자신감 증가
	음악적 성장	예술경험의 내재화	- 음악지식의 향상

체계	상위구분	하위구분	분석 내용
			- 악기실력의 향상 - 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 합주에 대한 철학과 즐거움
	인적 상호작용영향	관계적 역량 향상	- 사회성과 친화력 증진
	공공의 의미	공동체 정신	- 소속감과 책임감
	사회경제적 혜택	음악에 대한 지속적 관심	- 음악에 대한 지속적 관심
참여환경	촉진요인		- 캠프: 친구들과 함께 하기 - 합동연주의 즐거움과 도전
	장애요인		- 학업에 대한 부담감 - 신입단원으로 인한 평준하향화
제언	대안 및 개선방안		- 단원들의 자발적 교정 노력 - 접근성 결여에서 오는 시간 안배 노력 - 실력 차를 고려한 시스템 마련 - 적절한 상담과 그에 준하는 조치 - 신규단원 입단 나이 상향조정 - 연습공간 개선 - 다양한 악기 구성 확보 - 든든한 간식

(1) 배경: 지속 이유

- 전술한 바와 같이 취약가정의 4년차 단원의 지속 이유는 일반가정과는 상이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들의 경우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딱히 대체할 다른 활동이 없다는 점과, 실제 장래와 연계하여 전공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차이로 분석되었음.
- 특히, 자신이 재능이 있다고 느끼고 이를 대학진학의 전공목표로 삼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이나 환경적 요소에 의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지점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 강구가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

■ 대체 가능한 선택지의 제약

그냥 집에 있으면 심심해요. 할 게 없어요.
(그래도 이유가 있다면?) 음... 많은 친구를 만난다는 거. (D가1)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으니까... 뭔가 기분이 업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할 때는 약간 좀 오기 싫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C가1)

접하기 쉽진 않잖아요. 그런 악기가. 다른 곳에서 개인적으로 배우려면 돈도 되게 많이 들고 예술 분야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그냥 저희는 돈을 안 내고 배우는 거니까 되게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C가2)

4년 차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중학교 가면은 확실히... 많이...
4년 차가... 10명 좀 안 되지 않나? 그치만 저는 (학원같이) 따로 하는 거 없어요. (C가1)

■ 장래희망과 연계- 그러나 좌절의 두려움

저는 악기 하는 게 재밌고, 제 꿈이 관련 됐어요. (D가2)

원래 워낙 처음에는 음악이 되게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도 권유도 하셔가지고 이제..선생님이 계속 4년 동안 저를 봐주셨거든요, 그제 (음악을 전공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꿨던 그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악을 하는 걸 부모님이) 굳이 좋아하진 않으셔서...
집에서 이제 밀어줘서 하는데 내가 못하면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나... (C가2)

저는 계속 플루트를 쪽쪽 하고 싶는데 엄마 아빠는 지원은 못 해주니까... 뭐 이젠 뭐... 지원을 받아야지 쪽 할 수 있는데 지원도 못 받으니까 약간 그런 게 좀 걱정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음악 쪽은 좀 힘들 것 같다고...육상은 중학교 가서도 이렇게 선발 되고 하면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쪽은 좀 괜찮을 것 같다고... (C가1)

(2) 개인적 성장: 인지 및 정서 발달

- 취약가정의 4년차 단원들은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를 통해 자신이 스스로 느낀 가장 큰 변화를 개인적 성장을 중심으로 보고하였음. 구체적으로 이들은 ①즐거움과 마음의 안정, ②성취감 증가, ③섬세함과 조심성 증가, ④자신감 증가를 증언하였으며, 이는 일반가정의 4년차 단원에 비해 상당히 다양하고 구체적인 하위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짐.
- 일반가정의 4년차 단원에 비해 이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성장에 대한 가치를 더욱 크게 부여하고 있다는 시사점이 있음. 이는 음악전공자 교육이 주목적이 아닌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의미에 더욱 가까운 결과이기도 함.

■ 즐거움과 마음의 안정

타악기 재밌고 각종 여러 가지를 해서요.
캠프나 이런 거 공연도 하고. (D가3)

여기 오면은 진짜... 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더 다른 데 보다는 돈독한 게 있지 않을까...(C가1)

제가 되게 산만했어요. 들어오기 전에 지금도 그렇긴 한데...
<...> 엄마가 입 좀 다물고 있으래요. 근데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일어나 있고 싶었는데 이제는 좀 앉아 있으면서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D가2)

■ 성취감 증가

그냥 뿌듯함? 뭔가 내가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생겼다 하는 그런...근데 그거 4년 쯤 느끼고 있어요.
(D가1)

저는 악기를 딱 잡았을 때 말고 곡을 끝났을 때 어... 그렇게 막 자주 그렇게 드는 생각은 아닌데 곡을
완성 시키려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연습한 거를 한 번도 안 틀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좀 잘 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되게 뿌듯해요. (D가2)

■ 섬세함과 조심성

생각보다 (저에게서) 세심한 면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니까 워낙 운동만 하나까 약간 썸 이미지가
항상 강하고 언니 보다 오빠라는 이미지가 강하곤 했었는데. 근데 악기 하면서
'아~ 내가 생각보다 작고 세심한 거에 관심도 많고 다룰 줄 도 아는 구나'를 생각했어요.
악기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다루기는 엄청 힘들어요. 워낙 잘 부서지고 이러니까.
그런 거 하나, 하나 캐치 해가지고 하다보면 생각보다 네게 이런 면도 있구나 이런? (C가2)

그냥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주위에서도 많이 듣는데 작년에 비해서 약간 조심스러워졌다고
그래야하나. 좀 더. 여자여자 하고... 선생님들이 예전에 맨날 하는 말이
'좀 예쁘게 걸어라, 좀 조심하게 걸어봐라, 좀 조심하게 살아봐라'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소리 좀 덜
하시면서 확실히 사람이 음악을 하나까 달라지는구나. (C가2)

■ 자신감 증가

음... 자신감? 뭔가 처음엔 슯기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아까 봤던 것처럼 애들 조용히
시키기도 하고. 쌤 말 들어라 이렇게 좀 할 용기 좀 있고 그리고 또... 원래 악기 볼 땐 제가 타악기 할
때는 약간 자신감이 없었는데 호른 하면 약간 소리가 빵빵 하니까 약간 자신감이 들어오는 느낌. (C가3)

자신감. 제가 호른을 한 거는 막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악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친구들한테 내가 이
악기를 한다. 어때 멋져? 뭐 물어보는 식. 그래가지고 뭐 멋지다고 하면은 내가 이걸 배워, 게다가 4년
동안 했어. 해가지고 뭐 친구들한테 뭐 제, 제가 여기서 뭘 하는 건지 알려주고 그리고 제가 가끔씩

악보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악보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악보들도 한다. 그래서 좀 불래? 해가지고 어렵겠지 해가지고 친구들이 어, 어렵겠다. 하면은 이게 내 클라스다하고. (C나2)

저는 모든 생각이 부정적이었는데 요즘에는 긍정적으로 변했고 그리고 클래식에 더 접하게 됐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연주할 때는 보통 (타악기) 많이 나오는 곡은 안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많이 나오는 거 선생님이 하라는 거 다 해요. (D가3)

(3) 음악적 성장: 예술경험의 내재화

- 음악적 성장은 공통적으로 단순 미적체험이 아닌 미적체험의 내재화로, 구체적으로 ①음악 지식의 향상, ②악기실력의 향상, ③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④합주에 대한 철학과 즐거움으로 분류됨.
- 여기서 일반가정과 취약가정 4년차 아동의 차이점이 발견되는데, 취약가정의 4년차 단원은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과 흥미에 대한 증언은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임. 이에 대한 원인은 개인악기를 소지하지 않아 악기연주 실력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기를 소지한 일반가정 단원에 비해 새로운 도전과제로서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 덜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음악지식의 향상

학교에서 음악 시간 때 계이를 안 적는 습관. 애들은 다 적게끔 음악 선생님께서 노래를 부르자고 하면은 먼저 계명창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계이를 먼저 써 봐라 했는데 저는 바로 부를 수 있으니까요 (C가3)

악기 하나까 워낙 음악을 좋아하긴 했는데 좀 더 세세한 부분이라거나... 예를 들면, 화성학 이런 거를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서점에 가가지고 일단 책부터 찾고 그렇게 해서 저는 책 찾으려면 모르는 거 인터넷에 치고 그러면서. (C가2)

저는 ... 다른 과목 보다는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더 들뜨고 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C가1)

■ 악기실력의 향상

2년차였을 때는 확실히 저희가 아는 곡이 조금 더 많았다면. 3년차 올라가면 캐리비안의 해적, 오페라의 유령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확 올라 가가지고... 저희도 모르는 노래가 확 나와요. 수준이 갑자기 막 높아져서. (C가2)

올해는 좀 분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니까 잔잔하다가도 막 경쾌해지고 사람들이 아는... 뭐... OST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네마 천국 이런 거 지브리, 맞아 지브리 한다고 했었어요. 그거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다양해 진 것 같아요. (C가1)

저희 악기 같은 경우는 베이스는 저랑 동갑인 여자가 한명 더 하는데 개는 2년차예요. 근데 개를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알려줬냐면 그냥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대충 틀만 가르쳐주고 제가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더 배우죠. (C가2)

처음에는 3학년 났으니까 손가락도 좀 짧았고 더 무겁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플루티 더 가볍고 손가락도 그냥 오픈키 인데 그걸 막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움직이는 게 더 그렇게 움직이는 것에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C가1)

선생님이 가끔 나가시고 저 혼자 연습하고 있으면 아... 소리를 들면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애(악기)가 소리를 내는 구나...(C가2)

■ 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저는... 원래 낮은음을 몰랐어요. 왜냐면은 피아노나 바이올린만 했으니까. 근데 첼로를 하면서 낮은음이 높은음보다 더 쉬워졌고요. 그리고 피아노는 그... 페달 쪽에 보면 세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올리게 해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피아노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게 있는데 첼로는 능동적 이어서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것에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어서. (D가2)

■ 합주에 대한 철학과 즐거움

꿈의 오케스트라는 균일 혼합물이다. 이게 그... 중학교 2학년 과학에서 나오는 건데 균일 혼합물은 만약에 미숫가루하고 물이 있어요. 이걸 잘 섞어야 밀에 잘 안 가라앉고 딱 마실 수 있잖아요. 잘 섞인 게 균일 혼합물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누구 한 명이라도 없으면 소리도 못 내고 <...> 그니까 꿈의 오케스트라는 다 나뉘진 그거. 역할들이 다 고르게 있어야 그 하나의 작품이 된다고 생각해요. (C가3)

합주가 제일 좋아요. <...> 개인연습 파트 들어갈 때 심심한 거를 채워주는 것 같아요. 곡이 이렇게 완성 된다는 느낌 때문에 (D가1)

합주가 제일 좋아요 <...> 웅장해요. 왜냐면 소리가 2배여가지고. (D가2)

(4) 인적상호작용의 영향: 관계적 역량 향상

- 신규단원과 4년차 단원의 주요한 차이는 신규단원에서는 배려심 정도로 드러난 공공의 의미가 강하게 발현되어 소속감과 책임감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주요한 변화로 보고되었으

나, 사회경제적 혜택부분에 있어서는 여가로서 음악을 활용하는 것에서 발전하여 음악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구체적인 계획력은 일반가정 아동의 증언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사회성과 친화력 증가

저는 친화력. 애들이, 아 애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도와주면서 친화력을 키우니까 이제 애들 처음 보는 애들도 당황하지 않고 잘 마주할 수 있어서...(C가1)

저는 손가락이 정확하고 더 빨라졌고, 그냥 약간 뭔가 더 활발해졌다고 해야 하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플롯 애들이 전부 다 좀 성격이 활발하다고 해야 하나, 약간 좀 성격이 좋고 다 같이 어울려서 잘 노니까 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C가1)

■ 소속감과 책임감

꿈의 오케스트라는 저한테 교복이다. 이제 중학생이 되었으니까 교복 입어야 하잖아요. 초딩 때는 이렇게 사복 입어도 괜찮지만은. 중딩 때는 교복 입어야 되니까 뭔가 교복 입는 것처럼 꿈의 오케스트라도 교복 입는 것처럼 중요한 소속감을 주는 것. (C가3)

(5) 사회경제적 혜택: 음악에 대한 지속적 관심

- 사회경제적 혜택부분에 있어서는 여가로서 음악을 활용하는 것에서 발전하여 음악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구체적인 계획력은 일반가정 아동의 증언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그러나 이는 단순히 일반가정과 취약가정 아동의 차이로 해석하기보다는 현재 악기실력과 관심정도에 따라 의견이 달리 피력되었다고 판단됨.

■ 음악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흥미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아니고 아직 뭐가 익숙하지도 않고 안 잡아줬다 생각하는 거를 집에 가서 유튜브를 보고 그거 다시 오케스트라 와서 해 봐요. (D가2)

저는 평소에 손가락을 눌러봐요... 지판 잡는 것도 이쪽 손으로

학교에서 그냥 심심할 때 수업하다가 지루할 때 그냥 가끔씩 이려고 있거나... (D가1)

음악에서 흥미를 느끼는 것. (어떨 때 더 깨닫지?) 음.. 연주회가 끝났을 때.
여태까지 연습했던 거 다 보여드리는 거니까...(D가1)

음... 저는... 좀 더 관심 음악에 관심이 생겼다 하는 거. 그냥 클래식 같은 더 많은 곡을 알게 되었고,
더 알고 싶어요. (D가3)

이걸 하기 전에 클래식이라는 걸 조금 거부감이 있었는데 오케스트라를 하고 나니까
클래식이 더 좋아졌어요. (D가3)

(6.1) 참여 환경: 촉진요인

- 참여환경에서의 촉진요인은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①캠프를 통한 친구들과 함께 시간보내기
와 ②합주의 즐거움과 새로운 곡에 대한 도전이었음. 그러나 새로운 곡에 대한 도전은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상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충분히 만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어, 이들의 지속적 참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합동연주의 즐거움과 도전

공연할 때, 악기를 잘 다루는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런 게 좋아요.
공연 하고 나서 집에서 실 때요 하루 종일 실 수 있어서. (공연 때 집에서 많이 오는 편이니?)
안 오셔요. 바쁘셔서.
(그런데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좋았어?) 네. (D가3)

합동 공연했을 때요. 3시간을 리허설만 해요. 그리고 이제 한, 두 시간 한 시간 정도 대기를 하다가
바로 본 공연을 하는데 저는 아, 내가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그래도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C가2)

무대 한번 올라갔다 오면 그 무대 갔다 와서 직후는 잘 모르는데 그리고 다시 연습을 하게 되면
한 번 올라갔다 온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성장해있어요. 되게 많은 게 달라져 있고 확실히 그냥 연습하는
것보다 공연을 위해 연습하면 확실히 더 빨리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C가2)

공연에 올라 갔다 오면 많이 발전 하고 약간 소리를 안 듣고 그 소리를 들어도
음정이 뭔지 알 수 있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C가1)

■ 캠프: 친구들과 함께 하기

나만의 학교. 왜냐면 그 배우는 것 도 있고 재밌게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서 그래요. (D가1)

저는 꿈의 오케스트라는 가족이다. 제가 집에서 언니가 대학생이라서 기숙사에 좀 많이 있으니까 가족이 온 가족이 다 모이는 그런 게 진짜 없거든요. 근데 그걸 오케스트라가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얘기 할 사람도 있고. (D가2)

캠프. 캠프에서 2년차에서 3년차 올라갔을 때 갑자기 곡이 확, 어려운 걸로 캠프가면서 바뀌어가지고 그때 더 폭풍 성장 했던 것 같아요. (C가1)

(6.2) 참여환경: 장애요인

- 취약가정의 4년차 단원에 의해 증언된 장애요인으로는 ①(중학교 입학에 따른) 학업의 부담, ②신규단원의 유입으로 인한 지속적 하향평준화를 동일하게 꼽았음.
- 신규단원 유입으로 인한 하향평준화는 일반가정의 4년차 단원들의 증언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된 부분으로, 이에 대한 진흥원과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임.

■ 학업에 대한 부담감

요즘 가장 고민은 성적이죠, 오케스트라에 관련되 있어가지고. 아빠랑 약속을 했어요. 시험성적 저번 시험보다 낮게 나오면 오케스트라 뭉고 다 그만두라 해 가지고. 지금 공부 엄청 빡세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1학기 때 기말고사 때 성적이 많이 올라가지고. (C가3)

중3 때는 그만둬라 공부만 열심히 하라 하셔가지고. 우선은 중2때까지만 하려구요. 복잡 미묘해요. 평소에 했던 취미들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오케스트라 계속) 하고 싶은 맘 반이고 안 하고 싶은 맘 반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C가3)

■ 신입단원으로 인한 평준 하향화

저는 좀 어린 애가 들어 왔어요. 신입인데, 개 때문에 잘 레슨에 받지도 못 하는 상황에서 굳이 힘들게 악기를 옮기고 파트연습과 레슨을 해야 할 까 <...> 그것 때문에 합주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4년 짜 오케스트라 하고 있는데 수준이 꽤 높을 것 아니에요. 근데 개가 처음 들어왔는데 그걸 맞추게 꿈 레슨을 해줘야 하니까. (D가2)

(7) 제언: 대안 및 개선 방안 참여환경: 장애요인

- 이들이 제안한 꿈의 오케스트라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①단원들의 자발적 교정 노력, ②(기관의 위치상의 문제로) 접근성 결여에서 오는 시간 안배 노력, ③ (단원 간) 실력 차를 고려한 시스템 마련, ④적절한 고민 상담과 그에 준하는 조치, ⑤신규단원 입단 나이 상향조정, ⑥연습공간의 개선, ⑦다양한 악기 구성 확보, ⑧든든한 간식으로 분석됨.
- 특히 단원들의 자발적 교정능력은 공공의 의미와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공동체적 습관과 태도에 대한 인식확장에 대한 발현으로도 해석이 가능함. 또한 적절한 고민 상담과 그에 준하는 조치는 꿈의 오케스트라가 단순 악기 다루는 법이나 합주를 위해 존재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엘 시스템마가 추구하는 교육철학에 의거하여 한국의 상황에서 어떠한 추가적 지원이나 조치가 필요함을 반영하며 학교폭력이나 아동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창구나 시스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신규단원 입단나이의 상향조정, 연습공간의 개선, 다양한 악기 구성 확보, 든든한 간식 또한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제언이라고 판단됨.

■ 단원들의 자발적 교정 노력

아 저 있긴 있는데, 애들 관련된 건데. 뭔가 간식 먹을 때 하고, 뭐 합주 할 때도 그렇고, 개인 파트끼리 연습하는 것도 그러는데 뭔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냥 자기가 ‘어, 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좀 애들이 말도 좀 안하고... 계속 숨기려고 하고 어차피 다 들어날 건데 그러는 게 좀 약간 선배로서 약간 좀 답답하고. (C가3)

그 친구가 진짜 반항심이 너무 심해요. 개는 맘대로 와.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와. 1년 출석 정지 당했는데 또 왔어요. 캄패예요. (D가1)

말대답이나 대들고 뭐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오빠 샌드위치 그냥 막 가져가가지고 훔쳐가고 그냥 바닥에 다 흘려버리고 <...> 인성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D가2)

■ 접근성 결여에서 오는 시간 안배 노력

시간이 짧다고 해야 하나? 모르겠지만 뭔가 덜 배웠다고 말해야 하나. 덜... 뭔가 오늘 할 양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합주를 못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합주를 하면 개인연습할 시간도 다 뺏기니까 (C가3)

■ 실력차를 고려한 프로그램

솔직히 1대 1레슨이 5분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실력이 안 늘고 계속 제자리에 있으면은 다른 단원들은 다 늘고 있는데 나만 여기 멈춰서 달리는데 계속 제자리인 그런 느낌이 저는 되게 그 동안 노력 했던 게 되게 쓰레기가 된다는 그런 느낌. 물거품이 된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D가2)

곡을 했던 곡만 하지 말고 새로운 곡도 하고, 대중들이 많이 아는 그런 곡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신입이 많아도 해보면은 다 되거든요.
그래서 편곡 한 곡 보다는 원곡으로 하는 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D가2)

■ 적절한 상담과 그에 준하는 조치

대화가 통하는 곳. 친구들이랑 대화를 학교에서보다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 뭔가 말하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근데 오케스트라는 조금 더 공개된 거 같아요. 얘기 할 사람도 있고.
상담도 하고 싶어요. (누구랑?) 감독님이요. 아니면 코디쌤이랑. (D가3)

저희가 캠프 때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도 코디쌤 한테도 얘기를 하면은 익명으로 남겨주고
그 일을 굳이 해결 하려고는 안 하세요. 들어주고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이거는 너희가 심했다
이런 식으로 저희에 그 일을 풀지 않고 저희의 마음을 푸는 그런 쪽으로 되게. (D가1)

■ 든든한 간식

끝나면 늦어요, 시간이. 어린애들한테도 그렇고, 뭐 중, 고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까지는
어차피 이거 끝나면 학원 가야되고 학원 갔다 또 학원가고. 또 집에 가는 게 루트라 상관이 없는데...
학교 끝나고 바로 오면 배고프거든요. 진짜. 중학생도 그렇고 배가 진짜 많이 고파요.
그래서 조금 더 간식이 탄탄해지면 좋지 않을까.
김밥 한 줄 주는데, 김밥 한 줄로 어떻게 저녁을 때워요. 김밥에 킵라면 나오면 몰라도. (C가2)

■ 신규단원 입단 나이 상향 조정

신청하는 나이가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줘야요. 그런데 중1부터 해도 이렇게 빠르게 배우는 사람이 있고
느리게 배우는 사람이 있는데 <...>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입단에) 너무 나이제한이 있는 게 좀 그래요.
저희 동네에도 원래 뭐 지금 저희 선배 중에 언니도 이제
아, 악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 하고. (C가1)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애들이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친구 중에서
피아노에도 관심 많이 가지고 리코더 뭐, 음악시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신청) 안 해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C가2)

■ 연습공간 개선

연습실이 진짜 좋아요. 악기 두 대 들어가고 사람 세 명 들어가면 딱 차요.
거기 테이블도 2개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도 거기에 뭐 소품이나 이런 걸 가끔 갖다

두셔가지고 안 그래도 위에 지금 치우고 왔는데 그런 거 때문에 조금 불편해서 (C가2)

■ 다양한 악기 구성과 단원확보

약간 좀 바라는 건데 오보에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오보에가 없으니까 저희 파트에서 오보에를 좀 나눠서 하니까 소리가 또 더 작아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second(세컨드)가 4명이고 first(퍼스트)가 3명인데 first(퍼스트)소리가 아무래도 작은데
거기서 오보에까지 frist 애들이 하나까 더 작아지니까...오보에가 있었으면 좋겠다. (C가1)

악기 구성이 조금 부실한 게 가끔 있어요. 플루트가 오보에 하는 것처럼 베이스가 저음이잖아요.
첼로는 이제 첼로도 바빠서 이제 못 하나까 베이스가 바순하고. (C가2)

인원이 좁은 더 많아 졌으면 좋겠어요. 타악기 애들이 두 명이 있는데 다 1년차라서 좀 배우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정기연주회까지 어려운 곡을 또 해야 하고 타악기 애들이 뭐... 두 명에서 스네어도 하고
벨도 하고 막 다 하나까 조금 애들이 좀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C가1)

2.3 코디네이터 면접조사 분석결과

- 코디네이터와 면접 시, 연구자는 코디네이터가 아동의 변화를 지각한 부분 외에도 각 기관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과 지역적 특수성과 환경, 일반가정 아동과 취약가정 아동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질문하였음.
- 분석의 경우 연구참여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1차 개방코딩과 2차 축코딩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1차 개방코딩 분석내용은 각 패턴 별로 군집화 하여 주요 의미를 축출한 후 Carnwath와 Brown(2014)의 연구모형을 통해 구조화하였음.
- 진술내용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뷰 과정에서 각각의 인터뷰 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진술내용을 요약하고 확인하는 성원체크(member check)를 실시하였으며, 면접 중 연구과정에서 드러난 주요한 결과를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되어 신뢰관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코디네이터와 면접 결과 이들의 지원동기는 아동교육에 대한 관심과 음악전공자로서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좀 더 활용해 보고자 하는 욕구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코디네이터들이 느끼는 업무상의 가장 큰 부담은 아동교육보다는 ①아동, 학부모, 진흥원과 기관 관계자, 음악감독과 교육강사 사이에 상이한 관계맺기와 이해관계 구축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외에 ②단원관리와 ③결정권의 부재로 요약되었음.
- 지역적 특수성에서 공통적으로 증언된 내용은 ①(각 지역마다 느끼는) 부족한 인프라, ②취약가정아동의 특징인 지원과다에서 오는 부정적 결과와 상대적 위축감, ③일반가정아동의 상대적 특징인 언어발달과 의지, ④취약가정 보호자의 특징인 더딘 반응(피드백 및 협력), ⑤일반가정 보호자의 특징인 적극성으로 분석되었음.
- 신규기관과 연속기관의 코디네이터 모두 아동의 주요한 변화로 개인적 성장과 음악적 성장을 언급했으며, 구체적으로 개인적 성장의 경우는 ①바르게 행동하기, ②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③자신감과 밝아진 표정, ④꿈을 찾아가는 아이들을 언급하였음. 음악적 성장으로 악기실력의 향상을 가장 주요한 변화로 증언하였음.
- 코디네이터가 관찰한 주요한 아동변화 중 관계적 역량차원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기, 공동체 역량에서는 자신을 드러내기와 서로를 이해하기가, 사회경제적 역량에서는 지역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무대에 서기 등이 언급되었음.
- 촉진요인으로는 맛있는 간식과 친구들과 놀기가, 장애요인으로는 신규단원 영입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한 하향평준화가 주요요인으로 분석되었음.
-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①진흥원의 적극적 교류노력, ②성과평가 방식에 있어 자율성 부여, ③아동에 대한 상담 지원, ④단원의 실력 차를 고려한 시스템 마련, ⑤개인 악기 지원책 마련, ⑥지원가능(취약)가정 기준 확대를 수렴됨.

〈표 IV-41〉 코디네이터 면접조사 결과 분석

체계	상위구분	하위구분	분석 내용
배경	지원 동기		- 아동 교육 관심 - 음악 교육 관련 전공
	업무고민과 어려움		- 소통과 관계맺기 - 단원관리 - 결정권의 부재
	지역적 특수성과 환경		-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 - 취약가정아동의 특징: 지원과다와 위축 - 일반가정아동의 특징: 언어발달과 의지 - 취약가정 보호자의 특징: 더딘 반응 - 일반가정 보호자의 특징: 적극성
-아동의 변화와 성장 (교육 효과)	개인적 성장	인지 및 정서 발달	- 바르게 행동하기 -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 자신감과 밝아진 표정 - 꿈을 찾아가기
	음악적 성장	미적 경험의 체험	- 악기실력의 향상
	인적 상호작용영향	관계적 역량 향상	-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기
	공공의 의미	공동체 정신	- 자신을 내보이기 - 서로를 이해하기
	사회경제적 혜택	지역사회 기여	- 지역사회 일원으로 공헌
참여환경	촉진요인		- 맛있는 간식먹기 - 친구들과 함께 놀기
	장애요인		- 신규단원으로 인한 하향 평준화
제언	대안 및 개선방안		- 진흥원의 적극적 교류노력 - 성과평가 방식에 있어 자율성 부여 - 아동에 대한 상담 지원 - 실력 차를 고려한 시스템 마련 - 개인 악기 지원 - 지원가능(취약)가정 기준 확대

(1.1) 배경: 지원동기

- 신규기관과 연속지원기관의 코디네이터 지원동기 모두 아동교육에 대한 관심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2명은 음악전공자로서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좀 더 활용해 보고자 하는 욕구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특히 아동에 대한 교육은 이들이 가진 아동에 대한 애정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자신의 성향과 관심사가 초기에는 지원 동기로서 기능하였지만, 일을 진행되고 업무의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동력으로 기능하는 것이 확인되었음.

■ 아동에 대한 애정과 교육에 대한 관심

제가 가진 성향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조금 돌보는 걸 좋아해요. 아동교육쪽으로도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클래식을 전공을 했고 좋아하기도 하니깐 이제 이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지역을 살기도 하고 본가가 이 직업 자체가 저랑 제가 생각하는 그런 직업이랑 제가 원하는 직업에 부응을 하더라고요. (A)

그냥 제가 계속 웃고 있어요. 이걸 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귀엽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냥 힘들 때도 애들 보면 그래 너네 때문에 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애들이 되게 힘을 많이 주는 거 같아서 애들이 이렇게 저한테 와서 만약에 제가 표정이 안 좋으면 무슨 일 있어요?라고 먼저 와서 물어봐 주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그냥 같이 노는 거 같아요. 아! 놀이터! (D)

부모님들이 오케스트라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되게 울컥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감동 먹은 거죠. 그런 게 되게 많이 와 닿고... 제가 음악을 전공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성장할 때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감동을 주는 부분이 많아요. (A)

(1.2) 배경: 업무고민과 어려움

- 아동에 대한 교육의 관심과 애정이 지원동기와 업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주요한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코디네이터들이 느끼는 업무상의 가장 큰 부담은 아동교육 자체보다는 ①학부모, 진흥원과 기관 관계자, 음악감독과 교육강사 사이에 각 이해관계자 별 상이한 관계맺기와 이해관계 구축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외에 ②단원관리와 ③결정권의 부재로 요약되었음.
- 특히 결정권의 부재는 가장 큰 고민과 부담으로 각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있어 항상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소통을 담당해야 하는 부분으로, 업무상에 있어 무력감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사료됨.

■ 소통과 관계 맺기

강사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소통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든 거 같아요. 아무래도 재단에서는 재단의 규칙이라 해야 되냐? 돌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강사 선생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모르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되냐 그런데 그게 약기를 들여오는 방식이라거나 예산을 집행하고 쓰는 그런 방식이라거나 그런 걸 조금 이해 못하시는 게 크세요. 강사 선생님들은 그걸 이해시키는 게 조금 큰 시간이 들더라고요. (A)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왔을 땐가 아이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아이 어머니 그리고 여기 사무실분들, 강사, 선생님들, 감독님까지 해서 관계를 맺는 게 처음엔 되게 힘들더라고요 <...> 일적인 거랑 사람정과 관련된 거랑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저한테 되게 힘들더라고요. (D)

■ 단원 관리

한 명 한 명 이름도 다 외워야 되고 그 상황이 어떤지도 봐야 되고. 처음에는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팠는데, 맨날 애들 만날 때마다 틀려도 누구누구야 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하니깐 금방 외워지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흘러서 보니깐 지금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거 하면서 되게 힘들다 이런 거보다는 물론 힘든 일도 있지만 왜 힘들다 이런 것보단 재밌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D)

■ 결정권의 부재

코디네이터의 자리가 끼어있는 자리인데 이거를 어느 한쪽에서 자기 편? 예를 들면 약간 이렇게 들어달라는 그런 식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면 어쩔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깐 별의별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중간을 좀 지키는 게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약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그런 위치라서...(D)

(1.3) 배경: 지역의 특수성과 환경

- 지역적 특수성에서 공통적으로 증언된 내용은 ①(각 지역마다 느끼는) 부족한 인프라, ②취약가정아동의 특징인 지원과다에서 오는 부정적 결과와 상대적 위축감, ③일반가정아동의 상대적 특징인 언어발달과 의지, ④취약가정 보호자의 특징인 더딘 반응(피드백 및 협력), ⑤일반가정 보호자의 특징인 적극성으로 분석되었음.
- (각 지역마다 느끼는) 부족한 인프라는 특히 도시가 아닌 소도시 기관에서 어려움이 더욱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지역적 차이와는 별개로 코디네이터들이 느끼는 일반가정과 취약가정의 차이는 공통적이었음.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장 상이한 차이는 아동보다는 보호자들에 기인한 부분으로, 일반가정의 보호자는 빠른 답변과 적극적 협조가 가능한 반면 취약가정의 보호자들은 더딘 답변과 미온적인 협조로 시간과 온도 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러한 차

이는 보호자들의 개인적 성향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취약가정이 상대적으로 부모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편부모 또는 조부모 가정이 많기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됨.

- 아동의 경우, 절대적인 차이는 아니지만 일반가정의 아동이 취약가정 아동에 비해 언어발달이 더 뛰어나고,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악기 실력 향상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증언되었음.

■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체는 넓지만, 모든 것이 읍내 안에 집중적으로 있고, 지역이 넓다보니까 학생들이 오기가 좀 많이 불편해서, 차량지원이 고민이 많이 되요. 저희가 차량 지원금을 별도로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못 가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학부모님들이 대신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반에 저희가 차량 노선이나 이런 걸 짤 때도 많이 좀 힘겨운 점이 있어요. (C)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활동이나, 그리고 대학교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오케스트라 활동 자체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C)

■ 취약가정 아동의 특징: 지원과다와 위축

아무래도 차상위 계층의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성격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있었거든요. 일단은 성격적으로 많이 낮가리는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선생님과 보통 사람으로서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이 안 되는 친구가 많았어요. 초반에는 아무래도 많이 힘들었죠. (A)

저희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시간대가 안 맞아서 조금 늦게 오는. 늦게 오지만 또 일찍 가요. 그렇다보니까 많이 실력적으로 부족한 그런 것도 나오고 하니까, 자기들 만에는 힘겨움을 많이 느끼긴 하더라고요 (C)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아이들을 워낙 많이 지원을 받다 보니까 여기를 그냥 지나가는 거에 하나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원이) 워낙 많아서.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던 친구지만, 저희 기관, 드림스타트, 다 다니고 이런 식으로 많은 것에 지원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요구를 하더라고요. '왜 안 줘요?' 이런 거. (C)

작년 관내 자체에서 취약계층 추려라 해도 솔직히 10명에서 5명이랑 100명에서 50명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만큼 동일한 아이들이 계속 지원을 받다보니까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고, 그게 많아서 그 친구들은 특출나게 그렇더라고요. (C)

■ 일반가정 아동의 특징: 언어발달과 의지

일단 비치는 성격들이 달라요.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 아동 같은 경우에는 말도 되게 잘해요. 말도 잘하고 말도 대개 어른들한테 공손하게 하는 방법을 안다거나 그렇다고 취약계층 친구들이 안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대부분이 그런 거 같아요. 언행이나 같은 행동을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 빨리 인지하는 속도가 조금 다른 거 같아요. (A)

일단은 일반 애들이 약착같은 게 있어요. 여기 들어올 때부터 일반 가정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 끝까지 해야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취약계층은 너무나 혜택이 많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초기 때는 되게 많았어요. (D)

■ 취약가정 보호자의 특징: 더딘 반응

(취약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의 차이를) 아이들에게서는 못 느끼는데, 다른데서 느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설문지 수거나 뭔가 조사를 부탁드리면, 일반가정은 흔쾌히 도와주시거나 수거나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해주시는데,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더 더디세요. (B)

일반가정 분들은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탁드립니다’ 하면 ‘네 알겠어요’ 이 정도이고, 취약계층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간담회나 보호자분들의 모임을 요구하는 자리가 있으면, 부탁드리기가 죄송스럽게 일들이 너무 많으시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B)

학부모님들의 경우 아동이랑 똑같아요. 일반 가정 아동이랑 다르게 취약가정 아동은 계속 인지를 시켜야 하는데. 한번 말씀드렸을 때 인지하는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말씀을 똑같이 드려도 계속 여쭙고 여쭙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A)

아이들과 비슷한데 취약계층 부모님들이 조금 더 무관심하고요. 전화해가지고 예를 들면 설문지 같은 경우도 보내주셔야 돼요. 이러면 그런 게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이시고 일반 계층 부모님들은 그때 딱딱 딱 맞춰서 와주시고. (D)

■ 일반가정 보호자의 특징: 적극성

다르기는 많이 다른 거 같아요. 캠프를 준비하면서 많이 느낀 점이 여름에 캠프를 3박 4일 갔었는데 사실 그 3박 4일 동안은 친구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반 가정의 아동이 캠프를 못 가게 되었는데 그 아동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 친구에게 따로 개인 레슨 선생님을 붙여서 연습시키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취약계층의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 캠프를 못 가면 4일 내내 놓고 쉬어버리거든요. (A)

저희가 악기를 빌릴 수 있게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큰 악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동할 때 분실이나 파손 위험 때문에 제제를 하고 있어요.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첼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습용으로 사면은 일반 가정에서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 그런지 첼로 쪽의 일반 가정 아동 부모님께서 알아봐달라 요청하시거나 그런 부분에서 제일 큰 거 같고요. (A)

(2) 개인적 성장: 인지 및 정서 발달

- 신규기관과 연속기관의 코디네이터 모두 아동의 주요한 변화로 개인적 성장과 음악적 성장을 언급했으며, 구체적으로 개인적 성장의 경우는 ①바르게 행동하기, ②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③자신감과 밝아진 표정, ④꿈을 찾아가는 아이들을 언급하였음. 음악적 성장으로 악기실력의 향상을 가장 주요한 변화로 증언하였음.
- 특히 아이들을 계속해서 수업 밖에서 관찰하는 코디네이터의 경우, 아이들이 바르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 초기의 행동과 비교해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증언하였음. 이에 더해 밝아진 표정과 함께 자신감, 그리고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주요한 개인적 성장의 축으로 보고하였음.

■ 바르게 성장하기

공격적인 아이가 있었는데,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그럼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사과를 하게 만드는데, 무조건 ‘이건 너가 잘못했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너의 행동이 오해가 될 수 있어. 이건 서로 몰랐던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분명 그 아이가 ‘왜요 싫어요’ 하면서도 이해를 하고 수궁을 하고 있더라고요. <...> 그런거에 대해서 알고 성장하고 있구나 느끼죠. (B)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린은 사람 수가 많으니깐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케어가 힘들잖아요. 소수로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케어가 가능한 곳으로 보내자 그리고 좀 더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는 그런 악기들로 보내자 해서 타악기로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돼서 타악을 하는데 이제 그 집중하기 힘든 친구들은 박자의 개념도 가르치기도 힘들더라고요. <...> 이제는 그 친구가 제일 좀 음악성이 두드러지게 뛰어난다고 하더라고요. (A)

■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신발 안 신고 들어오고 계속 찾아야 돼요. 맨날 어딴냐 이려고 찾았어야 됐고 그리고 되게 반항적인 면도 있었는데 <...> 지금은 중학교부터 여기까지 걸어서 오기도 하고 체험학습 캠프 이런 거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학교에 체험학습 신청서 내고, 엄마 아빠가 워낙 바쁘셔서가지고 신경을 못 쓰세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기특하게 다 알아서 해요. (D)

■ 자신감과 밝아진 표정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엄청 밝아졌고요. 일단 인문교육 할 때는 맨날 오케스트라 오기 싫어요. 이 말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 했었는데 악기를 시작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들어왔을 때 선생님께 크게 인사를 한다거나

제일 먼저 악기를 챙기러 간다거나 악보를 챙기고 다른 친구들한테 인사를 먼저 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확실하게 다르더라고요. (A)

■ 꿈을 찾아가기

4년차 애들이 약 20명 좀 안되게 있는 거 같아요. 그 아이들은 음악교사가 되겠다 약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초반에는 재미없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이런 게 취약계층 아이들이 많았고. 어떤 아이들은 ‘꿈의 오케스트라 오는 게 가장 행복하다’하는 애들도 있고. (D)

어떤 아이는 꿈의 오케스트라가 자기 인생에서 최고 1순위라고 해요. 자기가 음악을 처음 하게 되니까 자기가 음악이 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 찾게 되었다고. (D)

전공을 하고 싶다하는 아이들이 다섯 명 내외로 있는데, 개인레슨을 진행하는 친구는 아직까지 한 명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나머지 두 명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있고, 중학교 1학년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희망을 한다고는 하지만 레슨비를 듣고 나서 아무래도 지역적인 게 크다보니까 ‘아니 무슨 음악 레슨비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 하면서 레슨비를 듣고 포기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셔가지고, 선생님들이 말씀해주시더라고요. (C)

(3) 음악적 성장: 미적 경험의 체험

- 음악적 성장의 경우, 악기실력의 향상은 시간이 지나며 아동이 연주하는 곡의 난이도가 올라가거나 오케스트라 화음을 구사하는 능력을 통해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남.
- 또한 코디네이터의 주요하지만 숨겨진 역할로 아동의 음악적 성장에 있어 음악적 피드백과 칭찬을 음악감독과 교육강사 외에도 아동에게 전달하고, 칭찬하고, 응원하는 것이 발견됨.

■ 악기실력의 향상

음악적인 부분에선 어떤 감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솔직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능력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는데, 사소한 것을 잘하면 ‘아 너 진짜 잘했다’ 이렇게 해서 <...> 그래도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런 격차를 자기네들도 알고 ‘애는 잘하고 나는 못하네’ 이런 것을 느끼는데, 그 속에서도 아니야 너는 이런 부분은 더 잘하고 있어, 너는 그래도 너무 잘하고 있어 얘기를 해주니까 더 하려고하고 더 늘어가고 있는 거 같아요. (B)

간식을 주기적으로 시키는 곳이 있어요. 그 사장님이 항상 여기에 배달 오시는데 배달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이 예전에는 듣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맞춰지네요? 라고 하시는 게. (D)

최근에 이번 캠프도 갔다 오면서 애들이 그렇게 연주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 보면서 그냥 되게 좋다 생각이 들었던 거 같아요. 정기 연주나 그런 거 할 때 거의 그때는 막 돌아다니잖아요. 마지막 곡할 때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되게 열심히 많이 했구나 하면서 뿌듯함이 들 때 정말 행복하죠. (D)

(4) 인적상호작용 영향: 관계적 역량 강화

- 인터뷰에 참여한 코디네이터 모두 아동의 관계적 역량에서 서로를 챙기고 배려하는 모습에 주목하였음. 이러한 이유로 단순한 악기레슨이 아닌 오케스트라가 가진 단체적 속성에 기인하여 이를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이 확인됨.

■ 서로를 챙기고 배려하기

다행히도 모난 애들은 없어서 안 좋았다가 좋은 쪽으로 됐다기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이 인문교육 때나 함께 어울려야한다는 것을 계속 배우고 있으니까 밑에 아이들도 위에 아이들한테 묻고 따르고, 위에 아이들도 밑에 아이들을 챙기고 하는 모습들이 점점 발전해나가고 있어서 그 점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B)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동센터를 다니거든요. 그런 것도 전보다 이제 단체생활로 이루어지다 보니깐 개개인에게 힘을 쏟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 아무래도 그게 가정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고, <...> 꿈의 오케스트라 특수성을 조금 풀이하면 개인에게 쏟을 수 있는 힘과 또 악기를 다루면서 익히는 여러 가지 사회성이라던가 배려심이라던가 그런 게 이제 있지 않을까 싶어요. (A)

저희가 3월 말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6개월째인데 한 4개월 되었을 때 그렇게 느꼈던 거 같아요. 7월부터 그때는 악기를 시작한 지 2개월밖에 안되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다른 친구들을 조금 배려한다거나 단체 생활을 다른데 가서도 하겠지만 특히나 오케스트라는 같이 시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끝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좀 더 크니까 <...> (A)

(5) 공공의 의미: 공동체 정신

- 코디네이터의 증언에 따르면 아동의 행동에 있어 개인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아동의 문제 행동이 반드시 취약가정과 일반가정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음을 강조함.
- 다만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단원들 서로가 쌓은 신뢰와 사회자본이 아동이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넘어서 내보이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자신을 내보이기

요즘에는 (취약계층) 그런 걸 숨길 줄 알았는데, 그런 걸 그냥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취약계층은 취약계층대로 뭔가 숨기질 않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치유가 되는 거 같고 일반계층은 일반계층대로 그런 아이들과 함께 더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괜찮은 거 같고. (D)

■ 서로를 이해하기

친구들끼리는 다들 원만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취약계층 아이들이라고 해서 엄청 소심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없고 일반계층에도 소심한 아이들이 있고, 계층에 따라서 특징이 초기에는 있는데 나중에는 서로 다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C)

(6) 사회경제적 혜택: 지역사회 기여

- 코디네이터가 관찰한 주요한 아동변화 중 관계적 역량차원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기, 공동체 역량에서는 자신을 드러내기와 서로를 이해하기가, 사회경제적 역량에서는 사회사의 일원으로 당당히 무대에 서기 등이 언급되었음.
- 다만 사회사의 기여는 연속기관에서 드러난 하위주제로 신규기관의 경우에는 시간이 흐른 후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임.

■ 지역사회 일원으로 공헌

일단 저희 지역이 구도시나 신도시나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아이들이 잘 어울려서 가게끔 하자 그 목표가 확실히 있긴 있어요 <...>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하는 행사나 식전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들 요즘 조금 많이 불러서 가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애들도 거기 무대에 서면 교육감님이 오신다고 하신다고 하면 되게 좋아가지고 오신데 이러면서. (D)

학교 행사 외에는 외부 야외공연도 학교 측에서는 딱히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지역축제나 이런 걸 살릴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축제 올라갔다 오면 되게 뿌듯해 하고.(C)

(7.1) 참여환경: 촉진요인

- 촉진요인으로는 맛있는 간식과 친구들과 놀기가, 장애요인으로는 신규단원 영입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한 하향평준화가 주요요인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아동의 증언들과 상당 부분 일치하며, 코디네이터가 인지하는 촉진요인과 참여요인이 상황을 매우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을 방증하기도 함.

■ 맛있는 간식 먹기

이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 일인데 항상 아이들이 수업을 왔을 때 매일 수업에 와서 처음 와서 제게 하는 한마디가 ‘오늘 간식 뭐예요?’ 예요. 이렇게 맨날 듣는 말이다 보니까

제일 기억에 남을 거 같아요. (A)

■ 친구들과의 함께 놀기

아이들이 친구랑 어울려 노는 거. 아이들이 활동적인 걸 좋아하더라고요. 바이올린 친구 중에 한 명이 정말 오케스트라를 안 오고 싶어 하는데 유독 친구들이랑 놀 때는 표정도 다르고 이거 때문에 온다 하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A)

(7.2) 참여환경: 장애요인

- 촉진요인으로는 맛있는 간식과 친구들과 놀기가, 장애요인으로는 신규단원 영입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한 하향평준화가 주요요인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아동, 학부모, 음악감독 및 교육강사의 인터뷰 내용에도 모두 동일하게 언급되는 장애요인으로 반드시 대안이 필요할 해결과제로 판단됨.

■ 신규단원으로 인한 하향평준화

신입단원들은 항상 들어오고 기존 단원들은 하향평준화가 되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깐 재미없어하고. (D)

(8) 제언: 대안 및 개선 방안

- 코디네이터들이 지목한 개선방안으로 ①성과평가 방식에 있어 자율성 부여, ②아동에 대한 상담 지원, ③단원의 실력 차를 고려한 시스템 마련, ④개인 악기 지원책 마련, ⑤지원가능(취약)가정 기준 확대로 수렴됨.
- 특히 모두가 필요한 지원으로 언급한 아동에 대한 상담지원은 아동 면접결과에서도 언급된 내용으로 적극적 제언 반영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짐.
- 취약가정 기준의 확대를 통한 지원가능 대상의 확대 또한 공통적인 의견으로, 이는 특히 도시가 아닌 지역의 담당자에게는 단원유지와 행정적 관점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판단됨.
- 이에 더해 개인 악기 지원책은 년차가 더해 갈수록 극명하게 드러나는 일반가정과 취약가정 아동의 개인 별 악기 소유의 차이와 함께 구매가 어려운 고가 악기의 대여여부와, 재능이 있어 개인연습시간을 원하는 단원을 지원할 대체방안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논의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 성과평가 방식에 있어 자율성 부여

일단 연주를 진행하고 아이들 출석률, 보유하고 있는 아이들의 이탈률 그런 걸로 일단 보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이런 것도 아이들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자료도 되지만, <...> 저희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 프로그램들이나 예를 들어서, 꼭 연주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끼리 뭔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이들의 성장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더 뭔가 (평가에) 플러스 될 수가 있으면... 평가를 매길 수 있는 항목이 좀 더 포괄적이면 좋을 거 같아요. (B)

■ 아동에 대한 상담 지원

아무래도 아동에 대한 개개인의 이해보다는 전체 아동 자체 대한 이해도가 조금 아직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저 친구가 저 행동을 했는데 그 친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에서 그 행동이 비쳤을 때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A)

애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선생님한테만 말하는 건데요. 막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애들하고 캠프 이런 거 갈 때 지금은 애들하고 놀러 가는 기분도 들고 (D)

상담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애들을 대하면서 애들을 어떻게 해줘야 애들이 말을 잘할까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겼고 그런데 그게 이제 저는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상담을 1 대 1로 해주고 싶고 처음에는 그게 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몇 명을 시도해보고 했는데 그게 꾸준히 65명을 하는데 버거움이 있더라고요. 한 명을 하려고 했는데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걸 수습해야 되고 또 밀리고 밀리고. (D)

■ 실력차이를 고려한 시스템 마련

사실 어머님들도 조금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하자면 아쉬운 점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합주는 어느 정도 느는 거 같은데 개인 실력이 조금 안느는 거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거의 합주 위주다 보니까 공연 위주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거의 초반 때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긴 해요. (D)

이거 또 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어쨌든 사정을 두고 신입단원들은 신입단원대로 하고 기존 단원들은 기존 단원대로 해야 되는데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풀어주면 흥미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 (D)

■ 개인 악기 지원

아이들한테 열심히 하면은 악기를 지원해주는 방법은 어떻게 개인 악기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그냥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너무 안돼요. 아이들이 자기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던지기도 하니까요. 개인 악기를 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 <...> 개인 악기 있는 아이들과 개인 악기 없는 아이들이 차이가 있어요. (D)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나도 내 악기 갖고 싶다. 그런데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 친구 중에 한 예를 들자면 새 악기는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중고로 해가지고 사는 친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D)

■ 지원가능(취약)가정 기준 확대

진흥원에서 기준을 하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솔직히 어디까지인지 조금 모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자녀도 취약계층일 수 있는데, 왜 안 되지? 맞벌이도 충분히 취약계층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 드림스타트나 이런데서도 다자녀가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랑 비교를 해서, 진흥원만의 취약계층의 범위가 확실해 진다면 뭔가 좋을 텐데. (A)

이건 저희 기관에서 매년 나오는 건데, 취약계층의 범위를 조금 늘려 달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다자녀도 솔직히 보면 취약계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큰 아이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밑에 아이들, 그리고 100에서 20,20,20, 이렇게 나누다 보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말 부유하지 않는 이상 힘든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저희 OO에서는 다자녀가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다자녀에 대한, 다른 기관에서도 다자녀를 풀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취약계층 스트레스에 관해서, 그렇게 되면 진흥원도 솔직히 덜 쪼을 수도 있고. (C)

이런 건 저희 회의할 때 나왔던 이야기긴 한데 사실 취약계층이 혜택이 더 많아요. 엄마들이 어 이거 받네 하고서는 한번 가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너 한번 가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취약계층보다는 그 맞벌이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중에서 집에 혼자 있거나 그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아이를 위해서 취약계층 범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좀 많이 넣어서 하면 어떨까. (D)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아무리 저희가 최대한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하려고 해도, 거리상 문제가 있고, 그렇다보면 저희가 차량 지원을 해야 하고, 조건이 하나씩 하나씩 달리는데, 지원은 일반계층이 많아지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조금 풀면 어떨까 생각은 하면서도 저희 운영지침이 있을 뿐더러, 꿈의 오케스트라를 다시 생각을 하면,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안 되고, 행정적으로는 이것을 완벽하게 100%, 60% 만들어야하는데 그게 안 되면 다른 방안을 생각할 때도, 다른 조건이 많이 달라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C)

2.4 2019 학부모 면접조사(FGI) 분석 결과

- 보호자 FGI는 배경, 아동의 변화와 성장, 참여환경을 중심으로 분석되었음.
- 배경에서는 본 사업에 자녀가 참여하게 된 동기와 참여를 통해 기대하는 결과에 대해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음.
- 아동의 변화와 성장의 상위구분은 Carnwath와 Brown(2014)의 연구모형을 재구성하여 아동의 인지 및 정서 발달, 음악적 성장, 인적 상호작용 영향, 공공의 의미, 사회경제적 혜택으로 부호화하였으며, 이를 하위구분에서 그 개념을 주요 분석내용 기반을 토대로 명료화하였음.
- 참여환경에서는 오케스트라 참여의 촉진과 장애요인에 분석됨.
- 이와 같은 분석 틀에 준거한 보호자 FGI의 주요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에 제시하였음.

〈표 IV-42〉 2019년 보호자 FGI 분석결과

체계	상위구분	하위구분	분석 내용
배경	지원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교육 비용 절감 - 학교 안내/홍보물을 통한 지원 - 자녀의 자신감 향상 - 지인의 정보 공유 및 권유 - 보호자의 관심과 욕구 투영 - 지역아동센터장의 집단적 참여 추진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취미 활동 생성 및 확대 - 자녀의 끈기와 인내심 신장 - 자신감과 자존감 신장 - 정서적 안정 - 전인적 성장
아동의 변화와 성장 (교육 효과)	개인적 성장	인지 및 정서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을 발견 또는 찾아가는 과정 경험 - 자신감 및 자부심 신장 - 책임감 신장 - 자발적 노력의 태도, 적극성, 독립성 체득 - 진지한 태도와 차분함 - 마음의 안정과 여유
	음악적 성장	예술경험의 내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적 지식과 연주 실력의 향상 - 다양한 악기에 대한 호기심 증대 - 음악의 일상화 - 가족 및 동료 단원에 지식 전달 - 음악에 대한 태도 변화와 관심 증가
	인적 상호작용영향	관계적 역량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 대신 함께 어울림을 통한 사회화 - 타인과의 갈등 및 문제해결 능력 습득 - 협력과 상호 격려와 배려 - 가족 간 유대 강화
	공공의 의미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하는 즐거움 체득

체계	상위구분	하위구분	분석 내용
		소통능력	-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 - 음악교육 기회의 형평성
	사회경제적 혜택	가족문화의 변화와 사회적 비용 감소	- 음악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 - 교육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즐거움의 중요성 인지 - 자녀에 대한 기대감과 지지 - 가족들의 문화 향유 및 참여활동 증가 - 가족 간 대화 증가 - 가족/친지를 위한 자발적 연주 - 자녀의 성장과정에 대한 관찰과 이해 기회 - 꿈을 찾아가는 자녀를 보는 안도감 - 문화 다양성 인지 기회
참여환경		촉진요인	- 캠프 활동 - 환경의 안정성 - 즐거운 학습 환경 - 교육강사 및 음악감독에 대한 신뢰감 및 유대관계
		장애요인	- 고학년/중학교 진급에 따른 참여의 어려움 - 통학 교통 문제 - 자녀의 육체적 피로감
제언		대안 및 개선방안	- 음악적 성장을 위한 추가 지원 - 자녀의 음악적 성장 관련 내용 안내 - 지속적인 연습을 위한 지원 - 차량운행 -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단원 선발

2.4.1 2019년 학부모 FGI 분석 내용

(1.1) 배경: 지원 동기

- 보호자의 FGI 결과 본 사업에 참여한 동기로는 ①음악교육 비용 절감, ②학교 안내/홍보물을 통한 지원, ③자녀의 자신감 향상, ④보호자의 관심과 욕구 투영, ⑤지역아동센터장의 집단적 참여 추진으로 지원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음.
- 학교에서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우, 학교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에 주된 동기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거나 참여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시로 학교에서 홍보물을 전달받은 아동이 직접 학부모에게 참여의사를 밝혔다는 사례가 있음. 이러한 경우는 1차적으로 학교의 안내를 통해 정보가 제공되었고, 이후 아동의 의사가 지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또한 해당 아동은 사전에 다른 악기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이 생성되어 있던 사례였음.
 - 또한 학교에서 안내를 받았을 때에는 관심 없이 넘겼지만, 이후 지인을 통해 동일한 정보

가 주어졌을 때 알아보는 사례도 발견됨.

- 추가로 지역 소식을 알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은 보호자도 있었음. 이제 지역소식지를 온라인 플랫폼과 같이 인터넷 환경에 맞추어 제공하는 곳이 확대되고 학부모의 연령대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용과 접근에 불편감이 낮아져 이러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대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
- 이례적으로 사업 초기 참여자 단체모집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도 관찰됨.

■ 음악교육 비용 절감

저도 그냥 큰아이 집에 그냥 방문으로 피아노는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아이가 세 명이다보니까 음악을 다 보내기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했던 찰나에 무료의 기회가 있다 해서 아 잘됐네 하고 내용이 어떤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보냈는데, 아 행운이더라고요. (D가A1)

저 같은 경우는 지원을 다 해준다고 해서 사실 솔직하게 교육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큰 메리트였고 아이가 새로운 악기를 해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됐었어요. (A라A1)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그래서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A라B1)

■ 학교 안내/홍보물을 통한 지원

저는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 신청하게 된 이유는 다문화 아이들 말고 제가 자신이 없어서 아이들 취미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고요. (A라A3)

학교에서 유인물을 가지고 왔더라구요. 근데 원래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서 여기 꼭 참가해보고 싶다 얘기를 해서 아이의 의견 때문에 저는 처음에 오게 됐습니다. (B가B1)

■ 자녀의 자신감 향상

애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서 웅변 학원에 보내려고 하는 찰나였는데 꿈의 오케스트라가 있다 뭐 애들 단원 모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A라A2)

악기를 하나정도 다룰 줄 알면 아이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못 하는데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 것도 조금 포함이 되었고, 발표를 연주회 발표를 할 때 아이들 자존감 향상... (D가A2)

■ 지인의 정보 공유 및 권유

저는 학교에서 일단 홍보물을 아이들한테 보냈고요. 그때는 관심이 없어서 그냥 넘겼는데
OOO에서 국악을 하셨던 분이 OOO에서 있는 것을 카톡에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더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그냥 넘겼다가 이거 한 번 더 보고...
(A라A1)

실은 제가 야간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저희 교수님께서 OO이 OO를 좀 아세요. 제가
데리고도 학교를 좀 가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이 OO이, OO 한 번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
말씀을 전에 한 번 주셔가지고... (B가A2)

친한 딸의 친구가 OO에서 OOO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더라 해서 여기 상담
새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공고 보고 저는 전화해서... (D가B2)

■ 보호자의 관심과 욕구 투영

저는 제 욕심이 처음에는 좀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악기를 해 본적이 없어가지고
악기를 잘해서 무대에 올라가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취미로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B가A1)

저도 악기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직장에서 동호회처럼 하다가
우쿠렐레를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 이제 안 되는 실력으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끼리
같이 합주 하는 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런 거를 한 번 경험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연치 않게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이라는 거를 본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오케스트라 가볼래? 그랬더니 오케스트라가 뭔지도 모르고, 악기 배우는 거야. 했더니
싫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 강제적으로 끌고 왔거든요. (D가B1)

제가 또 음악을 좋아하다보니까 어찌 되었든 아이들 더 어렸을 때도 영유아 때도 실내에서 하는
공연을 못 다닐 때는. 공원이란던지 야외에서 하는 클래식 음악들을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또
좋아하다보니까 관심이 있고, 아이들한테도 이런 감정들을 줄 수 있어서 그래서 하게 됐어요.
(D가A2)

■ 지역아동센터장의 집단적 참여 추진

동기는 첫째 OO군에 오케스트라를 만들 당시에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먼저 뽑는다고 했었을 때
저희 아동이 다니는 지역센터가 선발기준이 돼가지고 그 지역센터에 있는 아동들의 80%이상이
오케스트라 가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거기 가게 됐습니다. <...> 지역아동센터장이
먼저 추진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있다고 했고 부모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사전에 한번 이런 게
있다 하는데 찬반투표를 해가지고 원하는 자녀는 다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갔는데... (C라A1)

(1.2) 배경: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기대효과

- 기대효과는 크게 ①자녀의 취미 활동 생성 및 확대, ②자녀의 끈기와 인내심 신장, ③정서적 안정, ④전인적 성장으로 나타남.
-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아이들을 전문적인 음악가로 육성하거나 음악 자체에 대한 기대효과를 갖는 부모님보다,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정서 함양에 더욱 목적을 두고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기대효과는 일반과 취약계층의 가정 구분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특징으로 나타남. 다만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동기에서 나타나는 정서 함양 중심의 기대효과는 향후 참여 연차가 증가하면서 전문적 음악활동의 토대를 마련해줄 것으로 확대 또는 옮겨가는 변화를 일부 보호자의 답변에서 발견할 수 있음.

■ 자녀의 취미 활동 생성 및 확대

저는 다문화가정이에요. 신청하게 된 이유는 다문화 아이들 말고 제가 자신이 없어서 아이들 취미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고요. (A라A3)

■ 자녀의 끈기와 인내심 신장

저희 애들 아빠가 끈기가 없어요. 그래서 애들도 났을까 봐... 처음에는 아이들이 다니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안 돼. 끝까지 다녀.’ <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여유가 되면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고 싶다고... (A라A3)

■ 자신감과 자존감 신장

저는 제가 욕심을 냈던 게 자신감이랑 자존감이었거든요 그래서 잘해서 잘하는 거랑 못해서 못하는 거랑 할 수 있지만 그냥 안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B가A1)

■ 정서적 안정

아이들한테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음악에 취미를 붙여주고 싶었고요, 어느 정도 악기를 하나정도 다룰 수 있으면 아이 성장이나 아이가 나중에 커서 성장해서도 안정적이고 자기만의 돌파구를 찾아 자기만의 힘이 필요할 때, 특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목적으로 했고... (D가A2)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의 수가 어울려서 간식도 먹고, 여러 가지 처음에 놀이 할 때도 그런 강당 같은 곳에서 부딪치면서 활동을 다 지켜보면 애들이 집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상당히 정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D가A1)

■ 전인적 성장

요즘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가 세 명이어서 각자 다툼도 있고, 그래서 작은 사회가 형성된다고 해도 그래도 세 명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과 언니 누나 오빠들 이렇게 어울리다보면, 다툼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참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D가A1)

(2.1) 아동의 변화와 성장: 인지 및 정서 발달

- 보호자 FGI를 통해 나타난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아동의 변화와 성장 요인은 인지와 정서 발달 측면에서 규명됨. 세부적으로 ①꿈을 발견 또는 찾아가는 과정 경험, ② 자신감 및 자부심 신장, ③책임감 신장, ④자발적 노력의 태도, 적극성, 독립성 체득, ⑤진지한 태도와 차분함, ⑥마음의 안정과 여유 요인들이 아동의 인지와 정서적 측면의 발달 요인으로 요약됨.
- 특히 프로그램 4년째 참여 중인 아동들의 경우,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을 발견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그 부분에 대해 보호자와 대화 및 논의를 한 경험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참여 아동들이 밝힌 장래의 꿈이 반드시 악기 전공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물론 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해 음악을 전공하고자 하는 참여 아동들도 적지 않지만, 음악선생님이나 일반 선생님과 같이 교육강사와의 유대관계 그리고 피어티칭의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찾아가는 과정의 아동들도 있는 것으로 학부모를 통해 관찰됨.
-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하며 흥미를 발견하고, 스스로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는 아동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보호자들이 목격하는 가장 많이 언급된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됨.

■ 꿈을 발견 또는 찾아가는 과정 경험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꿈이 생겼어요. 프로그램 하면서 음악선생님이 꿈이라고 희망을 하더라고요. (A라A2)

혼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떨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꿈은 생겼어요. 프로그램을 다니면서 첼리스트가 되겠대요. (A라B1)

제가 지금 제일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자기 모습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담하고 왔다갔다하는 것보다 이걸 쪽 하면 뭘 할 수 있겠다는 구체적인 꿈이 있는 거 같아서 제일 좋고... (C라A1)

자기가 생각해봤는데, 자기는 이 음악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그 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D가B2)

■ 자신감 및 자부심 신장

제가 알기로는 자존감이 좀 높아진 거 같고 이걸 해내고 난 다음에 자존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자기가 잘하는 걸 하고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 자기만족 같은 것도 좀 있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은 책임감 같은 것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성취욕이 제일 강한 거 같아요. 해냈다는 거... 내가 뭘 해서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애는... (C라A1)

■ 책임감 신장

책임감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해맑고 그러다가 연주만 들어가면 세상 심각한 표정으로 하거든요. (A라B1)

■ 자발적 노력의 태도, 적극성, 독립성 체득

곡을 계속 찾아서 듣거든요 이번 12월에 공연 있을 곡도 찾아보고 그거 외에 첼로 곡들 따로 찾아서 듣기도 하죠. (B가A2)

뭘 하나를 배우려면 굉장히 더딘 편인데 드림을 한다고 해서 애는 박치, 몸치, 다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앤데, 본인이 원해서 타악기를 갖는데, 제가 우려 했던게 그거였어요. 박치인데 애가 이거를 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다른 친구들을 보고 자기를 보면서 느꼈나봐요. <...> ‘정 하기 싫으면 말해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쿨하게 그냥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 할거야. 그러는데 매일 연습을 해요. 애가. 매일 연습을 하고, 저희가 바 의자 같은 데가 있잖아요. 드림은 집에 없으니까. 바 의자를 세 개를 놔두고 맨날 막대기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매일 연습하다보니까 제가 장난감 드림을 하나 사줬는데 그걸로 연습을 하긴 하는데 원래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꾸준히 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안 되는걸 하는 애였으면 그런 일이 이해가 되죠.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 그래서 그런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까 좀 극복을 한 거 같아요. 자기가. 좋은 것 같아요. (D가B1)

■ 진지한 태도와 차분함

이 오케스트라의 좋은 점들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같이 너무 밝지만 여기서 악기를 통해서

차분하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A라B1)

■ 마음의 안정과 여유

음악을 통해서 소외되거나 이런 아이들이 음악으로 치유 받고 음악으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고 이걸 잘 이어가는 꿈 오케스트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A라B1)

틀린 것에 대한 부담도 가라앉은 거 같아요. 저희 아이는 사실은 지금 2학년인데 6살 때 유치원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를... 자기가 틀리잖아요? 다른 친구가 알게 되는 걸 되게 싫어했었어요. (B가A1)

(2.2) 아동의 변화와 성장: 음악적 성장 - 예술경험의 내재화

- 보호자 FGI 분석 결과 본 사업 참여 이후 음악적 성장 측면에서 아동의 변화가 관찰되었음. 음악적 성장 측면에서 아동 변화는 ①음악적 지식과 연주 실력의 향상, ②다양한 악기에 대한 호기심 증대, ③음악의 일상화, ④가족 및 동료 단원에 지식전달, ⑤음악에 대한 태도 변화와 관심 증가가 세부요인으로 도출됨.
- 참여 아동들의 음악적 지식이 많아지면서 가정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자신이 배운 지식 정보와 내용을 일상에서 이야기하고, 집에 있는 장난감이나 물건을 활용하여 연주 ‘놀이’ 또는 재현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관찰됨.
 - 음악적 지식 내용을 습득한 후 나타나는 이러한 활동은 1년차 사업기관에 참여 중인 아동들에게서도 관찰되어, 단기간의 사업 참여 후에도 발현될 수 있는 아동 변화인 것으로 사료됨.

■ 음악적 지식과 연주 실력의 향상

저희 아이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악기소리를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스쳐지나갔을 법한데, 요즘은 어디서든 음악이 나오고 연주를 하고 이렇게 하면 목소리보다는 악기에 좀 더 집중해서 애들이 듣는 것 같고요, 한 번은 어떤 악기랑 어떤 학기랑 했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D가A1)

■ 음악의 일상화

아이들이 집에서 노는 게 밴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집에 악기가 없는데도 그냥 북을 해서 하던지, 모든 장난감을 동원해서 악기화 해가지고 오늘 배웠던 감독님의 역할을 큰애가 하면서 동생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오케스트라를 하기 전에는 이런 놀이가 없었다면, 아이들이 정말 경험이 중요하구나 했던 게 음악을 듣는 거나 놀이에서도 이런 게 보여서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D가A1)

형제들이 <...> 셋이 다니다보니까 굉장히 저희 집에는 장점이지요. 셋이 같이 와서 오케스트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에서 크리스마스 때 누나는 피아노 치고, 나는 비올라, 너는 바이올린 이렇게 해서 협주하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D가A1)

지금 다른 비올라 하는 아이는 조금 더 집에서도 피아노를 치면서 연습을 하고, 음악하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D가A2)

■ 가족 및 동료 단원에 지식전달

이제 내가 연주하는 악기가 무대에서 연주하고 있으면, 내가 배우고 있는 악기데 하면서 저거는 뭐다 저거는 뭐다 악기를 안다라고 이름을 명칭을 이야기 하고. (D가A2)

저희가 사실 저희 집이 음악을 했던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 그런 게 있는 게 아닌데 가끔 우연히 뭘 듣게 된다든지 뭘 하게 되면 저희한테 설명 같은 것도 가끔 해주고, 그런 거라고 얘기도 해주고,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연주했던 건데 들어보니까 좋냐고 물어보고 그런 게 좋은 거 같아요. (C라A1)

■ 음악에 대한 태도 변화와 관심 증가

저번에 선생님 트럼펫 연주회 하는 콘서트를 데리고 갔어요. 오케스트라 여기 트럼펫 연주회를 지지난주엔가 근데 잠이 오는데도 잠고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감상하는 자체가 앉전히 앉아서, 남자애들 막 몸을 비틀고 장난치고 막 그러는 전에는 그랬었는데, 바른 자세로 앉아서 경청하는 것. 음악회에 앉아서 경청하는 것이 자세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엄청 들었어요. (D가A2)

예전에는 저거 되게 지루하다 가자 이랬는데 지금은 무슨 악장이다 저거 뭐라고 얘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엄마 우리 저거 배웠어” 이런 이야기도 해요. (A라A3)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바이올린 반에 넣어놨는데 애가 악보도 모르는데 계속 그냥 손가락만 배우고 하고 있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었대요. 근데 <꿈>은 다니면서부터 계속 ‘재밌어요. 엄마 이거 배웠어요. 뭐 이거 했어요. 나는 오늘 콩나물 했어요.’ 이런 거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럴 때 좀 뿌듯했던 거 같아요. (B가A1)

(2.3) 아동의 변화와 성장: 인적상호작용영향 - 관계적 역량의 향상

- 보호자 FGI 결과 본 사업 참여는 아동의 인적 상호작용에서 관계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됨.
- 구체적으로는 관계 대상에 따라 오케스트라 단원 간 ①경쟁 대신 함께 어울림을 통한 사회화, 사회성 발달 ②타인과의 갈등 및 문제해결 능력 습득, ③협력과 상호 격려와 배려,

④가족 간 유대 강화 요인이 나타남.

- 1년차와 4년차 사업 참여자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참여 아동 간 유대관계 형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프로그램 참여 초반에는 서로 간의 다름과 기타 이유로 발생한 갈등 상황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돕고 어울리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상호 배려 등 관계적 역량이 신장된 것으로 나타남. 주목할 만한 부분은 참여 아동들의 경우 단기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더라도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것임.
- 꿈의 오케스트라의 특성이 사회화 역량 강화에 긍정적 기여를 했으리라 해석될 수 있는 학부모의 진술들이 나타남. 예를 들어 경쟁보다 어울림이 강조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비롯하여, 학교에서는 학우들로부터 소외되는 경험을 했으나 그러한 관계 맺기의 어려움을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극복하고 스스로 변화 및 성장해 가는 과정이 관찰된 사례도 있었음.

■ 경쟁 대신 함께 어울림을 통한 사회화

이 <꿈오> 안의 관계는 어떤 이 목적이 경쟁하는 관계가 전혀 아니잖아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가는 그런 관계라 형 누나 동생들하고 관계가 되게 좋은 것 같고 보니까... 저희 아이같은 경우는 여기 차량을 이용해서 등원을 못해요 수업 때문에... 제가 항상 <...>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데 소원이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그 차에서 좋아서... (B가A1)

<그룹홈에서 같이 참여하는> 그 사이에서도 각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주의로 가는데, 더 쟁기게 마음이 하나로 좀 뭉쳐지는 보여지는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D가A2)

■ 타인과의 갈등 및 문제해결 능력 습득

단원들 간의 아이들 간의 갈등이 초창기 때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는 것 같고... <...> 그 형이 어쨌네, 그 형이 어쨌네...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별로 마음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 했던 부분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파트별로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D가A2)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되게 소심하고 따 아닌 <왕>따? 그런 거였는데
특 하고 건들면 가만히 있고 그랬었어요. <...>
그래서 학교 가기가 무서웠다 그랬었는데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 작은 사회? 공동체에서
하나씩 배워가고 <...> 자기도 세상을 사는 것을 터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한테는 어떻게 대하고 이 친구한테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어떻게 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밝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조금 트러블이 있더라도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 이렇게 해서 기분 나빴어.' 이렇게... 그러면 오해가
풀리고 사이 좋게 잘 지내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A라A2)

■ 협력과 상호 격려와 배려

친구들이 가면 여기서 가르쳐주고 여기서 또 봐주고 ○○야 이걸 이렇게 해 그러니까... 어느 누구하나 나오자 안 생기게 주변에서 계속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꾸 알려주고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점프를 해가지고 여름캠프 때 했을 때 저기 바이올린 켜는 애가 내 딸이 맞나 깜짝 놀랐어요. (B가A2)

또 잘하는 오빠들은 가르쳐 주잖아요. 저희 조에서는 ○○오빠가 제일 잘해서 ○○오빠가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아 오빠들 힘들겠다. 어 그럼 네가 잘해서 다음에 6학년 되면 네가 ○○오빠처럼 가르쳐주면 되지’... (B가A1)

■ 가족 간 유대 강화

재밌게 가고, 재밌게 오고, 네 명 아이들이 더 마음이 더 잘 맞아가는 것 같아요. <...> 그 사이에서도 각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주의로 가는데, 더 챙기게 마음이 하나로 좀 뭉쳐지는 보여지는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D가A2)

(2.4) 아동의 변화와 성장: 공공의 의미 -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소통능력

- 아동들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변화를 공공의 의미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①함께 하는 즐거움 체득, ②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 ③음악교육 기회의 형평성의 요인이 도출됨.
- 공공의 의미와 관련하여 아이들의 공동체 생활을 통한 즐거움을 발견하고, 자신이 속한 오케스트라의 성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느끼는 자부심 등이 관찰되었음.
- 이러한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도서산간 지방과 같이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가 적은 지역에서 제공된다는 지점에서 공공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함께 하는 즐거움 체득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 사회생활 나중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라A3)

...아직까지는 무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쉐리스트를 하겠다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이거는 오케스트라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무대에 서니까 혼자 서는 게 아니라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A라B1)

○○는 이런 캠프나 남의 집에서 자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나랑 떨어지면 첫 번째 캠프 할 때

2박 3일 동안 계속 울었어요. 밥 먹을 때 울어 연주할 때 울어 계속 울었거든 그랬는데 이번에는 당당하게 짐을 싸더라고요. 다 싸서 “엄마 다녀올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 안 울 자신 있어?” 하나까 안 운대 그래서 “너 저번에 울었잖아” 그러니까 올해는 진짜 안 울 거라고 자신 있게 다녀오더라고요. 자기가 짐도 차곡차곡 며칠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는 게 자기 나름대로 즐거움이었나 봐... 캠프 또 언제 가냐고 그러니까 자체 캠프 할 때 신나가지고 싸는가 봐... (A라A2)

■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

어디 가든지 이거<악기> 하나만 가지고도 친구를 만들 수 있고 또 어딘가에 소속되기도 쉽고 이럴 수 있다는 거에 아이들이 자부심이 큰 것 같더라고요. (A라B1)

<우리 아이>도 나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이야 이렇게 자부심이 되게 크더라고요. (A라A2)

■ 음악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통 부모들이 우리애가 시골이나 벽지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접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너무 많은 큰 부담이 되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걸 못하는데 그렇게 해주니까 그게 좋았던 거 같은데... <...>여기 들어와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약간 적극적이라면 오랫동안 전문적이고 조금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 (C라A1)

(2.5) 아동의 변화와 성장: 사회경제적 혜택 - 가족 문화 변화와 사회적 비용 감소

- 꿈의 오케스트라의 사회경제적 효과 관점에서 본 사업 참여는 가족 문화가 확장되고 변화 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FGI 분석 결과 나타남. 세부적으로는 ①음악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 ②교육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즐거움의 중요성 인지, ③자녀에 대한 기대감과 지지, ④가족들의 문화 향유 및 참여활동 증가, ⑤가족 간 대화 증가, ⑥가족/친지를 위한 자발적 연주, ⑦자녀의 성장과정에 대한 관찰과 이해 기회, ⑧꿈을 찾아가는 자녀를 보는 안도감, ⑨문화 다양성 인지 기회의 주요 효과 요인으로 분석되었음.
- 면접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학부모 및 보호자에 따르면 꿈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음악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일반 및 취약계층의 구분 없이 꼽는 혜택 중 하나임.
 - 다만, 일부 참여자의 경우 다른 음악교육 또는 개인 레슨을 병행하고 있는 사례도 관찰되었음.
-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녀가 느끼는 즐거움, 즉 교육의 과정이 즐거울 때 나타나는 효능을 직접적으로 관찰한 학부모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한 예로 학교 방과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참여했을 때와 다르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자녀를 관찰한

학부모가 발견한 요인으로 배움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즐거움을 지목한 경우가 있음.

■ 음악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

너무 많은 큰 부담이 되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걸 못하는데 그렇게 해주니까 그게 좋았던 거 같은데... (C라A1)

■ 교육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즐거움의 중요성 인지

우리 아이는 오케스트라에서 합주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악보도 너무 잘 보고 초견도 좋고 애가 즐기면서한다... 그런데 개인 레슨만 받은 아이는 그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애가 뭐든지 아이가 즐겁고 재미있게 해야지 느는 거구나... (A라B1)

■ 자녀에 대한 기대감과 지지

지금 4학년하고 6학년아이는 음악적인 부분에 소질이 있어요. 악보를 보는 거나 음감이나 음정이나 그런 것들이. 소질이 좀 다분한 아이. 제가 볼 때는 다분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더 그 아이들을 추천해서 그 기량을 발굴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앞서는 마음이 있었고, 시작 할 때부터도. 그리고 2학년 아이들은 워낙 저학년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다른 비올라 하는 아이는 조금 더 집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연습을 하고, 음악하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D가A2)

저는 이렇게 꿈의 오케스트라〈를〉 성실〈하게〉 간다는 것도 참... ‘이 성실함이 빛이 낮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을 아이한테 살짝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음악을 좀 알거나 이러면 아이 실력을 알면 ‘너는 안돼’ 이렇게 하는데 이걸 또 모르니까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될까? 뭐 이렇게... (A라B1)

■ 가족들의 문화 향유 및 참여활동 증가

관심을 좀 가지게 되었다는 거? 음악이랑 사실 뭐 악기 이런 거 잘 몰랐는데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보려고 하고... 그런 공연이 있다고 하면 ‘어? 우리 아이 보여줘야 하는데’ 하면서 보여주게 되는 그런 관심? 아이 혼자만 관심이 있어서 막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다 같이 관심을 보여주고... (A라A1)

○○가 하면서 저도 문화원에서 뭐를 하나를 배워봐야겠다 해서 풍물도 배우고 장구도 치고 가야금도 배우고 지금 태평소도 배우고 있는데 결국은 세종 문화 풍물단 단장이 되었어요. (A라A2)

■ 가족 간 대화 증가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제가 물어봐요 애들한테 “학교에서 뭐 배웠니”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오케스트라에서 있는 일은 안 물어봐도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도 엄청 즐거운 이야기... (A라A3)

더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A라B1)

■ 가족/친지를 위한 자발적 연주

그래서 이번에 추석에 갔을 때도 <우리 아이는> 아직 바이올린이 없었는데 조카가 '방과후'를 시작했거든요 올해 그 학교는... 저희 학교는 '방과후'를 할 때 학교에서 대여를 해주는데 거기는 자기 개인악기를 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카 악기를 샀는데 조카한테 물어봤어요 이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모 ○○이 바이올린 이번에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왜 내가 연주해줄게요.' 이러는 거예요. (B가A1)

■ 자녀의 성장과정에 대한 관찰과 이해 기회

이걸 하면서 정말 확실히 알았던 게 정말 처음에 너무 힘들어했었고 적응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런 단계가 내 딸한테 있다는 게 그걸 알아낸 게 되게 저는 중요한 거 같아요. 다른 것을 시작할 때도 처음에는 저희 아이는 무조건 '싫어요, 안해요.' 정말 싸우다가 그만 둘 때도 있었거든요 처음 조건은 엄마랑 3년은 하자 1년은 하자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아이가 정말 너무 힘들어하니깐 제 자신도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는 게 힘들어서 중간에 끊고 이랬던 적도 많았었는데 이걸 하면서 '아 그래도 딸을 믿고 기다려주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던 거 같아요. (B가A1)

■ 꿈을 찾아가는 자녀를 보는 안도감

안심이 되는 거 앞으로 뭐할지 구체적으로 꾸는 꿈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좀 큰 안심이요 안도가 되죠 아무래도... 진로결정을 이제 조금씩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확고해지는 거 그게 되게 좋고 안심이 되는 거. (C라A1)

■ 문화 다양성 인지 기회

애들도 친구들이 ○○○(외국이름)이래요. 이런 친구들도 같이 애들이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 대해서 애들이 아 그런 나라도 있어 꼭 뭐 우리는 영어하면 헬로우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애네들 말 들으면 의외로 애들이 습득하고 이런 게 정말 빠르더라고요. '엄마 이게 인사라는 말이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애들이 그렇게 익혀가는 것도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B가A2)

(3.1) 참여환경: 촉진요인 - 지속적 참여에 도움이 되는 요인

- 보호자 FGI 결과에서 나타난 아동들의 지속적 참여에 도움이 되는 촉진요인으로는 ①캠프 활동, ②환경의 안정성, ③즐거움 학습 환경, ④강사 및 음악감독에 대한 신뢰감 및 유대 관계가 지속적 참여의 세부 요인으로 분석됨.
- 4년차에 접어든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의 경우, 캠프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성장한 음악적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 가운데 재미를 발견하는 것이 확인 되었음.
- 보호자들의 경우 방과 후에 안정적 환경에서 과외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지속적 참여 요인을 발견하고 있었고, 더불어 참여 아동들이 교육강사 및 음악 감독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즐거워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의지를 보이는 것에 보호자 역시 계속 참여하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남.

■ 캠프 활동

지난 합동 캠프... 왜냐하면 아이가 그거를 다녀와서 ‘아 내가 되게 많이 늘었어’ 이런 거에 아이가 자기 스스로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무대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A라B1)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화합하고 너희는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도 들어보고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합동 캠프가 올해가 제일 재미있었대요. <...> 이번에는 당당하게 짐을 싸더라고요. 다 싸서 ‘엄마 다녀올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 안 올 자신 있어?’ 하니까 안 운대. 그래서 ‘너 저번에 울었잖아’ 그러니까 올해는 진짜 안 울 거라고 자신 있게 다녀오더라고요. 자기가 짐도 차곡차곡 며칠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는 게 자기 나름대로 즐거움이었나 봐. 캠프 또 언제 가냐고 그러니까 자체 캠프 할 때 신나가지고 싸는거 봐... (A라A2)

■ 환경의 안정성

감사하게도 애네들의 재능도 살리고 애네들도 즐거워하고 엄마도 즐겁고 안심이 되고 간식까지도 제공이 되니... (B가A2)

■ 즐거운 학습 환경

시작을 재밌게 했던 게 중요한 거 같아요. (B가A1)

저는 처음에 셋 다 넣으면서 아 애들이 그만두겠다는 말을 언제 할까를 기다리면서 지켜봤었는데,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않아?’ 했더니 힘들대요. ‘힘드는데 근데 왜 그만두겠다는 말을 안 하지?’ 하니까 재밌다는 거예요. ‘방과후’ <오케스트라> 때 포기를 했던

아이가 지금은 힘들지만 참고 인내를 하면서 포기를 안 할 수 있는 아이가 <된 것이> 그게 어떤 계기였을까를 굳이 제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굉장히 재미있는 분위기여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D가A1)

■ 교육강사 및 음악감독에 대한 신뢰감 및 유대관계

열심히 가서 연습해 주는게 좋고, 아이들이 초창기 때 마음열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참 좋아 하고, 지금 선생님들하고 자기 파트 선생님들이 아니라도 선생님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선생님 어찌구저찌구 그런 이야기 하면서 아이들이 즐거웠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선생님들이랑... (D가A2)

(3.2) 참여환경: 장애요인 - 지속적 참여에 방해되는 요인

- 보호자들이 인지하는 오케스트라의 지속적 참여가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는 ①고학년/중학교 진급에 따른 참여의 어려움, ②통학 교통 문제, ③자녀의 육체적 피로감으로 나타났음.
- 1년차 사업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4년차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아동들이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중도 탈락의 사례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추가로 아직 자녀가 저학년에 속하지만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되는 시점이 오면 중단할 의사를 비치는 학부모도 관찰됨.
 - 1년차 사업에 참여 중인 학부모 역시 같은 문제에 대한 부담감과 고민이 있음을 피력함. 이는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에 내재된 문제라기보다 우리나라 입시 환경과 사교육 의존 현상에서 학부모의 신념과 의지에 연관된 문제라는 시각이 면접조사를 통해 제기됨.
- 통학의 교통 문제는 참여 아동의 거주지역이 흩어져 있고, 정해진 시간 안에 이동을 완료해야하는 물리적 한계가 있음을 학부모들 역시 인지하고 있었음. 그러나 프로그램이 종료하는 시간이 저녁 시간대라는 점과 단 10분이라도 어린 아동이 골목길이나 청소년들이 몰려있는 지역,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찾길을 홀로 걸어와야 한다는 점에 있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고학년/중학교 진급에 따른 참여의 어려움

지금 5학년, 6학년 친구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은 정말 시간이 없고요. 화요일 목요일을 세, 네 시간을 뺀다는 것은 모든 학원들을 중단을 해야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부모도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이 오케스트라에 대한 장점도 물론 알지만, 마냥 지금 한국사회에서 이것만 치중하기에는 정말 부모의 가치관이 서야하는데, 거기에서 갈등을 많이 겪는다고 주변 엄마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시키고 싶은데, 시간은 너무 빼야하고,

다른 게 좀 안 되다보니 이런 걸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고학년 되고, 중학교까지 가면 좋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들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되는 아이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게 좀 숙제일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D가B1)

■ 통학 교통 문제

사실은 여름에 태풍 불 때도 제가 애를 케어를 못하니까 애가 혼자 우산 쓰고 왔다갔는데 그게 되게 마음이 쓰였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어두울 때 와야되는 게 저도 좀... 여자아이인지라 그 길을 혼자 와야되는 게... 그래서 저는 되도록 학교 들어와서 오면 좀 멀기는 하지만 학교 들어와서 집으로 오라고 하지만 요즘은 학교도 사실 안전하지가 않아요. 밤 되면 오후에 가도 남자친구들 너무 많고 고학년아이들 그 아이들은 놀고 있지만... 사실 엄마마음은 혼자 걸어와야 되는 게 조금 걱정은 되거든요. (B가A1)

■ 자녀의 육체적 피로감

부정적인 거는 공부시간에 계속 <쓰러져 졸음에 빠진다.> 내년엔 중학교 갈 아이가... (A라A2)

(4) 제언: 대안 및 개선 방안

- 학부모가 제언한 본 사업의 주요 개선방안은 ①음악적 성장을 위한 추가 지원, ②자녀의 음악적 성장 관련 내용 안내, ③지속적인 연습을 위한 지원, ④차량운행, ⑤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단원 선발, ⑥학습속도가 늦은 학생에 대한 교육강사의 태도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음.
- 4년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의 보호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부분은 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해 음악가의 꿈을 갖게 된 아동들에 대한 후속 지원이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이었음. 다만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어 그러한 요구를 제시해도 되는가에 대한 내적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떻게 자녀의 꿈을 지원해주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에 대한 도움을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 또한 국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아동의 활동에 대한 소식을 주기적으로 받아오던 것에 익숙한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내를 수신하고자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많았으며, 이는 일반과 취약계층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분임.
- 4년차에 접어든 사업운영 기관에서 초기와는 달리 악기 연주 역량이 갖춰진 아동들을 선정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내용이 이렇게 관찰되는 경우, 진흥원의 지원 이후 프로그램의 독립적인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 지원 사업의 목적

과 취지가 약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겠음.

■ 음악적 성장을 위한 추가 지원

네 지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공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생겼잖아요. 꿈을 키우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전공자 물론 전공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따로 뭔가 개인 레슨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뒷받침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어요. (A라B1)

■ 자녀의 음악적 성장 관련 내용 안내

저는 피드백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학원을 보내든 학교를 가든 학교도 이제 선생님이 상담시간이 있고, 요즘 전화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선생님한테... <...> 나만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미안 할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선생님들이 알아서 전화를 돌리거나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보통 학원은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서 그런지 의무적으로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최소 아이들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피드백을 해주거든요. 거기에 익숙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거는 없고, 말씀은 '궁금한 건 언제든 물어보시고, 전화로도 가능하시고, 그냥 아무 때나 와서 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안돼요. (D가A1)

■ 지속적인 연습을 위한 지원

방학이 길어가지고 원래 음악은 너무 오래 쉬면 안 되잖아요. 딱 쉬니까 그동안 애가 놓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가 4학년 때 시작해서 바이올린이 작잖아요. <금방 애> 커져서 아직 큰 거를 안 사줘서 바이올린을 대여해서 쓰는데 방학 때는 대여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줄 수도 있죠.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도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 그래서 방학기간에도 대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방학이 너무 긴 것도... (A라B1)

■ 차량운행

사실은 여름에 태풍 불 때도 제가 애를 케어를 못하니까 애가 혼자 우산 쓰고 왔다갔는데 그게 되게 마음이 쓰였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어두울 때 와야되는 게 저도 좀... 여자아이인지라 그 길을 혼자 와야되는 게... 그래서 저는 되도록 학교 들어와서 오면 좀 멀기는 하지만 학교 들어와서 집으로 오라고 하지만 요즘은 학교도 사실 안전하지가 않아요. 밤 되면 오후에 가도 남자친구들 너무 많고 고학년아이들 그 아이들은 놀고 있지만... 사실 엄마마음은 혼자 걸어와야 되는 게 조금 걱정은 되거든요. (B가A1)

OO구로 이사를 왔어요. 왔는데도 여기 다니는 애들이 거의 편중된 게 이쪽 인근에 사는

애들하고 AA, BB 그쪽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는 버스편을 저희는 한 군데에 <...> 떨어져있는데 OO구에도 애를 위해서 픽업을 해달라고 하기에 좀 애매하고, 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상황이라 차량을 꽤 많이 타야하니깐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지원을 엄청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버스는 많이 가는 위주로 운행 되어야 하고... (D가B2)

■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단원 선발

제일 처음 취지대로 간다면 없이 사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 저희가 맨 처음 했었을 때는 이걸 해가지고 대단히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말 그대로 소외된 아동 내지는 전혀 음악교육을 받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했다고 제일 처음 취지는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런데 그게 몇 년 가다보니까 지금은 이제 실력위주로... 그래도 <악기를> 전혀 모르는 학생보다는 할 줄 아는 학생, 그 다음은 뭐 하다못해 악보를 볼 줄 모르는 아이보다는 악보를 볼 줄 아는 아이를... 그런 말을 부모들이 모여서 하나까... (C라A1)

■ 학습속도가 늦은 학생에 대한 교육강사의 태도

아이가 이제 악보를 못 본다고 선생님한테 자꾸 꾸중을 듣나 봐요. 근데 조금 힘들면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안 되면 해봐야한다는 그런 것 보다는, 조금만 힘들면 뒤로 빠져요. 안 하려고. 핑계를 대거나 그래가지고... <...> 저희 아이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좀 격려해주면서 선생님들이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격려 해주시면서 못하더라도 잘 끌고 가주셨으면. (D가A2)

2.5 2019년 교육강사 및 음악감독 면접조사(FGI) 분석 결과

- 교육강사 FGI는 배경, 아동의 변화와 성장, 참여환경과 제언을 중심으로 분석되었음.
- 배경에서는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참여를 통해 기대하는 결과에 대해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음.
- 아동의 변화와 성장의 상위구분은 Carnwath와 Brown(2014)의 연구모형을 재구성하여 음악의 표면적 성장, 예술경험의 내재화, 인적 상호작용 영향, 공공의 의미, 사회경제적 혜택으로 부호화하였으며, 이를 하위구분에서 그 개념을 주요 분석내용 기반을 토대로 명료화하였음.
- 참여환경에서는 오케스트라 참여의 촉진과 방해가 되는 장애요인을 분석함.
- 제언 부분에서는 향후 본 사업의 운영을 위해 교육강사 관점에서 인지하는 개선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함.
- 이와 같은 분석 틀에 준거한 보호자 FGI의 주요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에 제시하였음.

〈표 IV-43〉 2019년 교육강사 및 음악감독 FGI 분석결과

체계	상위구분	하위구분	분석 내용
배경	참여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목적에 대한 공감 - 유년시절 오케스트라에 대한 긍정적 경험 - 참여아동들의 좋은 추억과 취미생활 형성에 기여 - 지인의 권유
	교육결과에 대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자본 형성 - 참여아동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성 발달 - 장기적인 상호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 - 정서적 발달과 성취감
아동의 변화와 성장 (교육 효과)	개인적 성장	인지 및 정서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 - 자신감 신장 - 자존감과 발표능력 향상 - 행동과 태도의 성숙 - 집중력과 성실함 - 책임감
	음악적 성장	예술경험의 내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 지식과 연주 역량 성장 - 음악/합주활동에 대한 애착심 - 도전의식과 성취감 - 열정과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 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해 음악에 대한 즐거움 경험
	인적 상호작용영향	관계적 역량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태도 - 사교성 향상 - 소통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 - 협동과 협력 - 교육강사와 신뢰 및 애착관계 형성 - 리더십 향상

체계	상위구분	하위구분	분석 내용
	공공의 의미	공동체 적응과 규범	- 언어순화 -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정 체험
	사회경제적 혜택	사회적 자본 형성	- 지역사회의 지지와 인정 - 교육강사로부터 받는 지지와 관심, 사랑 - 교육강사로서의 성장 - 음악에 대한 즐거운 경험 제공
참여환경	촉진요인		- 유대감 -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 - 간식의 중요성 - 방과 후 여가활동의 기회 - 합주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
	장애요인		- 고학년/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업의 부담 - 통학거리와 차편
제언	대안 및 개선방안		- 진로를 결정한 아동에 대한 전문적 교육 지원 - 장기적인 관찰과 조사를 통해 지원체계 마련 - 진흥원 연수 프로그램 개선 - 예산 책정 - 교육강사의 충원 - 참여 아동의 연령 재고 - 양질의 악보 공급과 아카이빙

2.5.1 2019년 교육강사 및 음악감독 FGI 분석 내용

(1.1) 배경: 지원 동기

- FGI 분석 결과 ①사업 목적에 대한 공감, ②유년시절 오케스트라에 대한 긍정적 경험, ③ 참여아동들의 좋은 추억과 취미생활 형성에 기여, ④지인의 권유가 본 사업 참여의 주요 동기요인으로 분석됨. 꿈의 오케스트라 홈페이지는 지인의 권유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고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수의 교육강사들이 꿈의 오케스트라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며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힘. 엘 시스템마와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이 전공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오케스트라의 접근성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사업 목적에 대한 공감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에 대한 관심은 원래부터 많이 있었어요. 유학할 때부터 많이 있었고 이 사업이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한다는 거에 대한

메리트는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 그런 아이들에게 내가 배운 음악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메리트? (A라1)

저는 처음서부터 이 꿈의 오케스트라의 취지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알고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해에는 특히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층의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하고 뭔가 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하다보니까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B가1)

저희도 악기를 가르칠 때 그냥 레슨을 하고 '방과후'를 할 때 기능적으로 테크닉을 가르치고 소리를 내는 것을 가르치는 데, 여기 취지가 악기를 수단으로 해서 인격 함양을 한다고 되어있었는데 그 말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악기를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수단으로 한다는 게 가장 의미 있게 다가와서 그래서 했어요. (A라4)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장점이 왜냐하면 다른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재정 쪽으로 지원이 가정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데 여기는 나라에서 어떤 지원으로 인해서 거의 한 70% 정도 아이들이 할 수 없는 아이들이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라2)

■ 유년시절 오케스트라에 대한 긍정적 경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자체에서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되게 정말 오케스트라 그 초등학교 때 경험이 되게 색다르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바이올린을 전공을 선택을 한 것도 그 오케스트라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한 전공을 하고 나서도 이쪽 오케스트라 수업을 참여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런 게 있다고 해서... <...> 저의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A라2)

■ 참여아동들의 좋은 추억과 취미생활 형성에 기여

저희가 목적이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명의 학생도 소외받지 않고,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음악을 모르고 평생 모르고 가깝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좋은 추억도 만들어주고 좋은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나중에 그런 악기를 배웠었지 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취미생활로 다시 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D가3)

■ 지인의 권유

저 같은 경우는 전에 나오시던 강사 선생님이 저랑 같이 팀을 하던 리더 형이라서 그런 걸 설명을 듣고 지원을 해 봐라 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A라3)

(1.2) 배경: 교육결과에 대한 기대

- 본 사업에 대한 주요 참여 동기 요인이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목적과 취지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 알 수 있듯이 ①문화자본 형성, ②참여아동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성 발달, ③장기적인 상호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 ④정서적 발달과 성취감이 주요한 교육결과에 대한 기대로 나타남.
- 교육강사들은 공통적으로 음악적 기량 향상이 기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대신 참여 아동들의 예술적 경험과 그를 통한 사회화, 전인적·정서적 발달, 그리고 특정 계층에게 보다 접근이 쉬웠던 문화자본 형성 등을 기대하며 꿈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자본 형성

장기적으로 볼 때도 아이들에게 이젠 잊을 수 없는 자기의 10대 시절의 이게 엄청난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오케스트라를 보거나 아이들의 공연을 볼 때도 분명히 어른이 돼서도 그냥 지나치게 않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문화에 대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 느꼈던 향수라는 건 정말 무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그게 정말 이 많은 이 아이들이 잊을 수 없는 향수를 꿈의 오케스트라가 선물을 하는 거죠. <...> 지금 이 아이들이 이 경험을 하고 여기서 사랑을 받고 자기들이 성취하고 공연하고 특히 저도 대회 나갔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나거든요. 오케스트라 활동하면서 대회 나가서 우리가 상 받거나 하면서 이럴 때 그 희열이 생각이 나는 건데 그게 초등학교 시절이지만 그러면서 <...> 다 기억이 나요. (A라2)

어차피 그 아이들도 커서 연주도 보러 올 거고, 관객이 될 수도 있고,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20년 30년 되면 자기들도 아이를 낳아서... (C라2)

저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너희들이 즐겁고 이랬으면 좋은거고 곡 수준이 높아가지고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본인들 수준에 따라서 뭐 이게 아니니까... 내가 좋으면 이게 즐거운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야 보는 사람한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큰 곡 수준 보다는 아이들이 즐겁게 즐기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레퍼토리가 좋지 않을까... (B가1)

■ 참여아동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성 발달

다른 친구들보다도 우선은 다른 친구들보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악기라는 것을 하게 되면 좀 더 아이들하고의 이 합주를 통해서 같이 친밀감도 느낄 수도 있고 합주의 이 주목적이 하모니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합주를 하면서 그런 걸 배워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하면서 이거를 몸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다보면 밖에 나가서도 다른 친구들하고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B가1)

오케스트라를 활용한 효과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 실제로 공교육에서는 예체능 쪽이 약간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고, 실제로 소외되고 있는 것을 넘어서 하고 있는 것들도 실제 예체능이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약간 공부하는 학습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보니... <...> 아이들이 오케스트라 음악을 통해서, 전공을 해서 음악가로 성장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음악을 매개체로 해서, 보다 나은 사회인으로 길러 나가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D가1)

■ 장기적인 상호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

저는 나중에 봤을 때 어쨌든 오케스트라가 다 같이 하는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애들끼리의 정말 저희가 뭐 소외계층도 있고 이런 계층도 있고 서로 정말 구분없이 지금도 없지만 이게 나중에도 계속 꾸준히 애들끼리, 애들끼리도 그렇고 애들하고 선생님하고도 잘 소통되고 이렇게 교류가 잘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B가3)

뭐 그만두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꿈의 오케스트라 동문회라든지 어차피 지역사회에서 어디 안 가는 친구들이 많으니깐 자기들끼리 잘 지내고 이러니깐 약기도 약기인데 하나의 커뮤니티 그런 게 돼가지고 뭐... (C라2)

■ 정서적 발달과 성취감

여기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일단 약기 이런 프로그램이 인문학부터 서서히 시작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소통이 되고, 통함이 있으면 정말 이 애가 이걸 해 낼까 했던 부분들도 <해내는걸 보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 개인적으로 물론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아주 다수이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는 기본이고요, 이 아이들도 평범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똑같은 정서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는 못 하지만,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음악에 있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을 기대를 했거든요. <...> 아이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도 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D라4)

(2.1) 아동의 변화와 성장: 인지 및 정서 발달

-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교육강사들이 지각하는 아동들의 인지 및 정서 발달 요인으로는 ①꿈을 만들어가는 과정, ②자신감 신장, ③자존감과 발표능력 향상, ④행동과 태도의 성숙, ⑤집중력과 성실함, ⑥책임감의 주요 요인이 도출됨.
- 교육강사들이 본 사업 참여를 통한 아동들의 성장을 음악적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들과 인지 및 정서 발달과 관련한 아동들의 성장 측면에서 잘 관찰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강사들이 본 사업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연구 대상 참

여 기관에서 사업의 목적이 잘 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됨.

■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

사실 아이들이 놀기 좋아하고 게임 좋아할 나이인데 처음에 타악기로 예를 들면 타악기 하는 아이 중에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너 악기 정말 잘한다 악기 해볼 생각 없어?’ 하니까, ‘저는 프로게이머가 될 거예요’ 그래서 <...> ‘파이팅 해라’ 하다가 1년 정도 저랑 같이 지내고 이번 연도 초에 한 번 더 ‘아직도 꿈이 프로게이머야?’ 하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라고 물어봤더니 ‘음악도 계속하고 싶고 게임도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 프로게이머가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 꿈의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활동에 전문성을 조금 더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그 자체가 꿈이 너무 넓어지고 아이들이 생각이 좀 더 깊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A라3)

우리 콘트라베이스 친구도 있고 거기 그 차에 클라리넷 친구도 있고 첼로도 있고 한데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전공까지 얘기를 해요 벌써... 전공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볼 때 야 애들이 뭘... 이제 조금 배웠는데 그런 것까지도 벌써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게... 여기 와서 참 아이들이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부분들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B가1)

■ 자신감 신장

처음에 갔을 때 그보다도 쉬운 곡인데 울면서 못한다고 하던 아이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그러면서도 뭔가 소리가 크게 나오는 것을 ‘야 우리가 퍼스트를 이기자’ 그러면 아이들은 ‘할 수 있다’ 이러면서 하고 그래요. <...> <그런 자신감이> 아이들이 표정에서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것을 자기들이 이렇게 하던 자기들인데 뭔가 모르게 활이 커지고 악보를 자기들이 보고, 그리고 이야기하면 감독님도 애들 보면 칭찬 해주시고 ‘너 이거 된다.’ 이렇게 하면 ‘아 나 이거 되는구나.’ 하면서 그만큼 연주력이 향상되니까 자신들의 존재감이 어필이 되면서 아이들이 몇 년차 되면서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연차가 올라간 아이들이 너무 쉽게 악보를 봐요. 그러니까 밑에서 신입 아이들도 우리도 저렇게 될 거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A라2)

■ 자존감과 발표능력 향상

일단 토레에 비해서 발표능력이나 자존감이 엄청 늘어났어요. 음악 악기를 못 다루던 아이들이 음악 악기를 다루고 그것을 연주를 승화시키면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게 있으니까 집에 악기를 들고 가서 연습도 하고 부모님 앞에서도 엄마 나 이거 잘하지 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많이 찾아갔던 거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거 같습니다. (C라1)

제일 처음엔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하다 보면 점점 더 이제 악기라는 거 자체가 조금 더 연주 능력이 늘어나다 보면 흥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부모님 앞에서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적극적으로 변해가고 그리고 제일 처음엔 시간이 지나서 친해진 것도 있는데 그래도 그전보다는 자기주장이나 자기 의견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잘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C라2)

■ 행동과 태도의 성숙

친구들이 처음에는 서로 어울리는 것 자체가 끼리끼리 이런 게 많이 있었고, 더군다나 다문화 친구들이 어울리지 못해가지고 이랬던 친구들, 그리고 너무 까불어서 이랬던 친구들, 하여간 말썽도 엄청나게 부리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점점 가면서 이런 친구들이 그런 게 적어지는 거 그리고 다른 친구들하고 과격하게 싸우고 이런 게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지고 이런 거... 아직도 있긴 있죠. 아이들이니까 있는데,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이 변한 거 같고... 지금 저희들이 6개월... 6개월 됐나요? 그 정도 된 거 같은데... (B가1)

엄청 울었던 아이가 있어요. 거의 통곡을 하면서. 그 이유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애가 다 아는 걸로 착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완벽하게 모르는 부분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맞게 플레이가 안 되니까 그것을 울음으로 표현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 근데 지금 그 아이가 가장 재미있게 더 잘 하고 있어요. (D가4)

■ 집중력과 성실함

엄청나게 천방지축 엄청나게 놀아요 뛰어다니고... 난리가 나 근데 합주 딱 시간만 되면 조용합니다. 그 시간에 딱 해가지고 집중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이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지난번에도 뭐야 왈츠 그거를 치는데 트라이앵글을 치는데 너무너무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치는거야 그렇게 까부는 애가... 나는 과연 따라할까 싶었는데, 그래 하는 거 보고 아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 놀 때하고의 모습, 합주할 때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B가1)

첫 시간에 악기 받은 날 낮은음자리표를 그려줘가지고 할 수 있으면 다음시간까지 외워볼래 했더니 알았다고 가더라고요. 사실 남자학생들은 기대를 안했어요. 미안하지만 보통 남자애들이 노느라 바쁘고 이러니까 근데 다음시간에 다 외워온 거예요. 그래서 악보에 스스로 자기가 적는데 좀 더디지만 스스로 계이름을 적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되는구나 싶은거예요. 자기의 노력만 있으면... (B가4)

다른 곳은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힘들고 그렇다는데 저희는 사실 애들이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오면은 세 시간 하는데 쉬지 않고 연습해요. 애들이 약간 촌에 살지만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게 있나 봐요. (C라1)

제가 기본적으로는 가르쳤던 아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꿈여울에 있는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훨씬 더 배우고 싶어 하는 걸급해서 그러는지, 훨씬 받아들이는 것도 컸어요. 그리고 어떠한 것을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러는 것들이 전에 가르쳤던 선생님이 나태하지 않게, 거의 숨도 못 쉬게 타이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쉬고 싶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못 봤던 것 같아요. (D가4)

■ 책임감

저희 타악기 같은 경우에는 타악기 파트 자체가 같이하는 게 없어요. 바이올린은 퍼스트도 있고, 솔직히 타악기는 혼자서 다해야 되거든요. 이게 제일 처음엔 부담도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게 부담이라면 부담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책임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책임감이 느껴지니까 더욱 열심히 하려고 해요. (C라2)

(2.2) 아동의 변화와 성장: 음악적 성장 - 예술경험의 내재화

-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아동의 음악적 성장과 관련해 아동의 예술의 내재화 경험의 주요 내용은 ①음악 지식과 연주 역량 성장, ②음악합주활동에 대한 애착심, ③도전의식과 성취감, ④열정과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⑤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해 음악에 대한 즐거움 경험으로 나타났음.
- 교육강사들이 관찰한 아동들의 음악적 성장은 지식 습득을 넘어 스스로 학습하고 즐거움을 체험하는 내재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남. 음악적 기량이 신장하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과 즐거움도 느끼지만, 부족한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동료들과 협력하고 도전하는 오케스트라의 한 단원으로서도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남.
- 방과 후 오케스트라 활동의 경우 아이들이 대회에 나가야 한다는 목적이 뚜렷하여 입상과 같은 결과에 대한 부담감으로 기량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는 반면, 꿈의 오케스트라는 음악 교육과 함께 참여 아동에 대한 관심과 인성 교육, 그리고 음악을 경험하는 과정 그 자체를 중요하게 본다는 점이 차별성으로 언급됨.

■ 음악적 지식과 연주 역량 성장

그러니까 저희가 악기를 못 보던 아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고학년인데 대부분이 요즘 학교에서도 방과 후나 처음에 오케스트라 특히 학교 오케스트라는 번호를 많이 적고 하거든요. 손가락 번호를 보고 하니까 아이들이 악보를 보지 않고 대충 번호 보고 하고 싶어하고... <...> 그러는데 <...> 정 안되면 자기들끼리 헛갈릴 때면 연필로 조금씩 적고 그러는데 그거를 물어보거나 모른다고 하지 않고 빨리빨리 캐치해야 할 때, 헛갈려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악보 보는 능력들이 정말 많이 향상이 되었고, 그리고 곡의 난이도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A라2)

...애들이 쪽쪽 빨아들이는데 1년 사이에 정말 괄목할 성장을 이뤄냈고 올해에는 우리가 4년 차밖에 안되는데 동일한 기수들보다 훨씬 잘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는 가급적이면 편곡보다는 원곡 쪽으로 가려고 방향을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원곡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사라지고 실제로 원곡으로 한 곡도 몇 개씩 생기고 그래서 여름에 합동 캠프가 충청권에 있었는데 작년에는 우리 아이들이 앞자리에 못 앉았어요. 구석에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른 거점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잘 하니까 앞으로 가.' 그 쪽 강사들도 우리 아이들이 잘 하니까 인정해주고 이 아이 앞에 앉게 해달라고... (A라1)

근데 그 개 중에 몇 명이 자기들이 너무 하고 싶어 파고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볼 때는 좀 소름이 끼쳤죠. 한지 몇 개월 안됐는데 개들은 계이름을 안 적고 보는... 그런 애들이 개중에 몇 명이 있어요. <...> 그리고 물어보는 거 자체가 달라요. 어린애들은 '화장실 가도돼요? 물 먹어도 돼요?' 이런 거 같으면 큰 애들은 '선생님 여기 이 음 어떻게 내요?' 이런 친구들이 몇 명... 거의 반반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B가2)

■ 음악합주활동에 대한 애착심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떨어졌는데 엄마가 '너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오케스트라 갈 시간이 없으니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 6학년이 되니까 그래서 너 그러면 공부해야 하니까 성적이 너무 떨어져서 오케스트라 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게 오케스트라만 끊지 말아 줘' 이러더라고요. 이 아이가 되게 소극적이고 그러던 아이였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아이가 자기 파트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가고 아이가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공부해야 할 것 같다 하지 마라 다른 것도 다 끊어라' 그랬는데 나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성적 올리겠다고 다짐을 받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A라2)

■ 도전의식과 성취감

저희 클라리넷 파트같은 경우에는 저는 애들 보면서 놀랐던 거는 이제 솔직히 오케스트라에서 클라리넷이 좀 솔로가 나오는 게 어른들도 부담스러운데 애들이 그거를 자기네들도 해내야겠다 하면서 연습하는 것과 합주할 때 하고 있는걸 보니까 너무... <...> 시작한지도 얼마 안됐고 그 부담감이 되게 큰데도 어떻게든 해야겠고 숨이 차서 막... 숨이 막히게 그걸 하는데 끝까지... <...> 애들이 '우리 같이 여기까지 숨 쉬지 말자.' 이렇게 하면 그거 약속 지키겠다고 끝까지 하는 모습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B가3)

아이들한테 들었던 말 중에 많은 말이 '연주를 많이 하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똑같은 곡을 1년 내내 해도 연주를 많이 하면 그게 해소가 되는데 똑같은 곡을 계속하는데 연주를 안 하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올해 똑같은 곡을 오래 하고 있기는 하는데 연주 기회는 계속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이들은 내가 한 것을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많이 만족하는 것 같아요. (A라1)

성취감이 다르니까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있으니까... (A라3)

■ 열정과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지금은 이제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르쳐 주지 않은 부분을 게이름만 알고 자기가 뭐 예를 들어 동요를 혼자 해본다든가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솔직히 놀랐어요. 제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동요를 하고 있는데,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 그냥 게이름 배운 걸로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구요. (B가4)

악기 자체가 애들이 하기는 무겁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도 쉬는 시간을 줘도 금방 다시 가서 앉아서 '선생님 여기 잘 안 돼요.'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속상해하고 그런 부분이... 애들이 열정이 넘쳐가지고... '애들이 조금만 쉬어도 돼.' 오히려 제가 좀 쉬라고 할 정도로 애들이 너무 열정이 가득 차가지고 연습하고... 자기가 또 먼저 알아오고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 뭐 유튜브나 인터넷 찾아보고 악기 관련된 거나 오케스트라에 관련된 거를 찾아보고 미리 알아오고... 이런 거 들어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하고... (B가3)

■ 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해 음악에 대한 즐거움 경험

아이들이 '선생님 재미있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해요.'라고... <...> 이 오케스트라 아이들은 항상 '음악이 즐겁다.'라는 메리트가 있는지 강사 선생님이 연주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되게 흥미롭게 그래서 '선생님 저 그거 꼭 갈 거예요.' 이러는데 <...> 그게 같은 제자들인데 확연한 차이... 수업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아이들한테 관심이나 흥미가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A라2)

합주에 백 퍼센트 참여를 못하게 되면 조금 지루하기도 하거든요. 합주라는 게 합주에 잘 적응하는 친구들은 거기서 또 재미를 찾는 거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악기 혼자 연습하는 것도 재밌지만 합주하는 게 재밌긴 재밌거든요. (C라3)

(2.3) 아동의 변화와 성장: 인적상호작용영향 - 관계적 역량의 향상

-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아동의 인적상호관계와 관련한 관계적 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됨.
- 아동들의 변화한 관계적 역량의 세부내용은 ①긍정적 태도, ②사교성 향상, ③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 ④협동과 협력, ⑤교육강사와 신뢰 및 애착관계 형성, ⑥리더십 향상으로 나타남.
- 아동들이 오케스트라 초반에는 서로 충돌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이 빈번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목격되었음. 동시에 교육강사 및 동료 단원들과의 관계가 향상되고 수업 참여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등 전반적으로 사회성과 관계 맺기 역량이 신장한 것으로 관찰되었음.

■ 긍정적 태도

이제는 무슨 곡이 새로 나왔을 때 '애들아 너희 이거 할 수 있지?'라고 했을 때 '네.' 진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해보겠다. 전에는 못해요 이러면서 울기부터 했었거든요. 우는 애도 있고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해요 못해요.' 이렇게 나오던 아이들이 이제는 '이렇게 하면 하겠지?' 했더니 '네 할 수 있어요.' 하더니 금방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앞에서도 '못해요 저 안돼요'라는 말을 잘 안 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려면 이거 이런 건데 이러면 '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아이들이 언어가 바뀌었어요. (C라2)

■ 사교성 향상

신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오면은 자기 친한 친구 두세 명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안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3학년 친구인데 지금 몇 달 안 지냈는데 성격이 바뀌었다 싶을 정도로 사교성도 되게 많이 좋아지고 많이 그런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C라2)

■ 소통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

지켜보니 처음에 비해서 많은 아이들이 조금 우울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면 조금 낫았다고 해야 할까요? 소통이 좋아졌고, 트러블이 줄어들었고, 스스로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보이고... (D가1)

■ 협동과 협력

아이들이 전에는 <...> 보면대도 서로 '네가 정리해' 이러던 아이들인데 하다가 선생님이 '이거 좀 들어줘'하면 마지못해 들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시면 1학년까지도 의자 세팅하는 것을 도와줘요. '선생님 저 몇 개째예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협력하고 협동하고, 서로 뭐 하면 저학년 아이가 무거운 것을 들려고 하면 고학년 아이들이 '내가 가벼운 이거 들어 내가 이거 들게.' 이런 식으로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아이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A라2)

자기들끼리 또래 소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될 물어보고 합주 부분에서 안되면 같이 그 부분을 연습해주고 저희가 또 4년 차잖아요. 4년 차 친구들이 1년 차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거든요. 연주할 때 늘 3월이 되면 새 학기가 돼서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정말 친절하게 다가가서 언니, 형처럼 그런... (C라1)

■ 교육강사와 신뢰 및 애착관계 형성

스승의 날 때 만난 지 몇 달 안됐는데 저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여학생 두 명이서... <...> 그전부터 선생님 저 베이스 할 거예요. 이렇게 말은 했었지만 이렇게 몇 달 안됐는데 칭김을 받는다는 게 너무 고마운거예요. 진짜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해주나싶고... (B가4)

어쨌든 시간을 함께 하면서 아이들과 사실은 그거잖아요. 왜 군대에서도 같이 고생하면 전우애가 짝트듯이 서로 어려운 곡들을 막 하면서 아이들과 씨름하고 나면 아이들과 해냈을 때 공연 연주가 끝났을 때 오는 이 희열이 아이들도 그럴 거 같아요. 우리가 곡을 끝내고 아이들과 이것을 아이들이 해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했는데 막 끝났을 때 그 같이 전우애라고 해야 하죠. 이게 끈끈해지면서 또 내년엔 이게 무슨 곡이 왔을 때 '우리 이것을 이렇게 또 해낼 거야.'하면서 그 공연들을 하나씩 해낼 때마다 오는 그 희열로 인해서 더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A라2)

나도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 아이들도 나를 좋아하고, 그런 게 쌓이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저한테 표현을 하거든요. 지나가다가 사탕 하나를 주고 가고 빼빼로 하나를 주고 가고, 주머니에서 간식이 나오고 그런 게 있으면 아이들이 자식 같아지는 거죠.(A라1)

■ 리더십 향상

열두 명의 아이들이 수석들이 있잖아요. 모든 안건들을 자기들끼리 서로 회의하고, 발표하고, 그걸 투표해서 결정하게끔 했거든요. 스스로 그러다보니까 아이들 개개인도 자기가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고 각 파트에서 그리고 항상 동생들을 챙기는 어떤 관계? 자연적으로 가족의 어떤 끈끈함은 아니지만, 팀 내에서 '내가 리더로써 어떤 영향력을 보여야겠다.' 해서 끌어가는 모습들이 직접 보여져요. (D가4)

(2.4) 아동의 변화와 성장: 공공의 의미 - 공동체에 대한 적응과 규범

-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교육강사가 인지한 아동의 변화와 성장 중 공공의 의미는 ①언어 순화, ②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정 체험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합주 활동을 하면서 정제된 언어생활과 같이 공동체 생활에서 요구되는 규범을 습득하고 더 나아가 민주시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도 경험하는 것으로 관찰됨.

■ 언어순화

저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이들이 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 해야 할까 막 전염처럼 아이들이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한 번은 아이들을 불러다가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감독님도 이야기를 계속하시기도 하셨고요. <...> 점점 아이들이 욕을 안 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욕을 하는 게 정말 많이 줄었어요. 거의 그전에는 서로 욕하는 것 때문에 계속 이르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자기들이 왜냐하면 악기를 하면서 성취가 이루어지니까 뭐 이렇게 칭찬해주고 할 때 그런 면에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자기애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아이들이 욕하는 것도 자체가 되고... (A라2)

■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정 체험

열두 명의 아이들이 수석들이 있잖아요. 모든 안건들을 자기들끼리 서로 회의하고, 발표하고, 그걸 투표해서 결정하게끔 했거든요. 스스로 그러다보니까 아이들 개개인도 자기가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고... (D가4)

(2.5) 아동의 변화와 성장: 사회경제적 혜택 - 사회적 자본 형성

- 본 사업 참여는 교육자와 학습자 간의 연대감 형성 그리고 지역사회 지지와 인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참여 학생들이 부모가나 가족이 아닌 교육강사로부터 받는 지지와 관심, 사랑은 그들의 성장과정과 참여하는 음악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관점에서 세부 효과 요인으로는 ①지역사회의 지지와 인정, ②교육강사로서의 성장, ③음악에 대한 즐거운 경험 제공이 도출됨.

■ 지역사회의 지지와 인정

작년부터 계속해왔던 연주활동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꿈의 오케스트라를 들어가고 싶다'로 바뀌었고,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꿈의 오케스트라가 잘하니 행사 섭외를 해도 괜찮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행사도 섭외가 들어와서 연주도 했었고... 그것도 이제 문화원에서 보기도 이제 내 새울만한 단체가 된 거죠. 그래서 조금씩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아이들 오케스트라가 돼가는 것 같아요. (A라4)

■ 교육강사로서의 성장

저 스스로<가> 되게 성장하는 거 같아요. 이게 여기 꿈의 오케스트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애들을 이렇게 대하다보니까 다른 밖의 외부의 아이들한테도 한 번 더 '그래 어' 참게 되고 한 번 더 응원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이게 다른 아이들을 대하는 거에 있어서 자체가 저 스스로 많이 계속 변하는 거 같아요. (B가3)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 '왜 안돼. 왜 연습 안했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일단 저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다 보니까 말도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배우는 경우도 많아요. '아 이 친구들한테는 이게 더 쉽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이 학교에도 접목시켜 보고 또 이 친구들이 했던 생각도 비슷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많이 저도 진짜 배우는 거 같아요. 아이들의 생각에 대해서 많이... (B가4)

이게 제 생각과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건 선생님 입장이고, 그 아이한테는 그 기다림이 필요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켜보면서 화내는 것 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주고, 그랬더니 되게 많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자기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D가2)

■ 음악에 대한 즐거운 경험 제공

솔직히 말해서 다른 학교도 나가는데 대회를 나가는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게 되면 강사들 입장에서도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들한테 조금 더 이게 이야기 한마디 들어주는 시간이 줄어들고 <...> 꿈의 오케스트라는 그런 부담이 없다가 보단 음악 자체를 안 싫어하는 방향으로... <...>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본인들이 할 수 있고 무리 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으니깐...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솔직히 저도 음악을 하지만 초등학교 때 기억으로는 음악은 힘들고 억박지르는 거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좋은 거 같아요. (C라2)

...‘방과후 수업’ <...> 대부분이 웬만하면은 대회도 나가고 성적을 중요시하거든요. <...> 이렇게 좋은 싫든 아이들에게 강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는 뭐 그냥 그렇게 하면 애들이 분명히 지겨워하는데 싫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안 틀릴 것도 틀리고... 그런 것 없이 그냥 편하게 ‘너 힘들면 이야기해 너 힘들면 내가 옆에서 같이 해줄게’라고 하니깐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라고 하면 서로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C라3)

(3.1) 촉진요인 - 지속적 참여에 도움이 되는 요인

- 아동들의 오케스트라의 지속적 참여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는 ①유대감, ②음악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 ③간식의 중요성, ④방과 후 여가활동의 기회, ⑤합주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이 지속적 참여에 도움이 되는 요인을 밝혀짐.
- 일반적으로 동료 단원 및 교육강사와 형성한 유대감과 음악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반면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의 꿈의 오케스트라 또는 취약계층이 많은 거점에서는 평소 접해보지 못하는 간식이 제공되는 것과 방과 후 친구들을 만나고 여가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나타남.

■ 유대감

애들이 단시간에 진짜 자기네들끼리도 너무 가까워졌구나. 그래서 진짜 서로 학교에서도 자기가 친구들한테 힘들었던 거를 여기 와서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위로받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아 여기 와서 애들이 서로 응원하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여기 오는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구요. (B가3)

■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

서로 물어봐요 '언니는 어디까지 했어요? 애는 어디까지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도 베이스 친구가 수학여행 때문에 빠졌는데 저번에도 한번 빠졌을 때 어디까지 했어요. '빨리 해야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간의 이런 선의의 경쟁이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B가4)

■ 간식의 중요성

특히 간식이 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왜냐하면 지역아동 센터나 저희가 한 부모 가정들이 많거든요. 조손가정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할머니가 못 사주는 햄버거나 피자 이런 것들을 가끔 먹고 가니깐 이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C라1)

■ 방과 후 여가활동의 기회

친구들 보면 집에 가면 요즘 보면 솔직히 집에 가면 요즘 동네 촌에 애도 없잖아요. 친구가 많이 없어요. <...> 이게 그래서 더욱 꿈에 오케스트라 오면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방학 중간에 방학 없었으면 좋겠다고 꿈의 오케스트라도 방학이 있잖아요. <...> 경남지역 거점 캠프도 갔었거든요. 거기 가서도 많은 친구들이랑 그런 걸 해보고, 학교 단위보다는 꿈의 오케스트라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거든요. 차 타고 멀리 가는 것도 좋은 거고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C라1)

■ 합주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

뭐 보통 친구들이 중학교 진학하면은 60퍼센트 이상은 그만두더라고요. 남아있는 경우에서 봤었는데 이 친구들 물론 나가는 친구들이 학업 때문에도 있지만 합주에 백 퍼센트 참여를 못하게 되면 조금 지루하기도 하거든요. 합주라는 게 합주에 잘 적응하는 친구들은 거기서 또 재미를 찾는 거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악기 혼자 연습하는 것도 재밌지만 합주하는 게 재밌긴 재밌거든요. (C라3)

(3.2) 내부요인: 장애요인 - 지속적 참여에 방해되는 요인

- 교육강사 FGI 결과, 본 사업의 지속적 참여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인으로 ①고학년/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업의 부담, ②통학거리와 차편이 지속적 참여에 방해되는 요인으로 나타남.
- 4년차에 접어든 프로그램에서는 참여 아동의 고학년 및 중학교 진학에 따라 참여자 탈락이 나타나고 특히 학부모의 결정 사항에 따라 이 같은 중도 탈락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됨.
- 공통적으로 교통편이 지속적 참여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는 제한된 차량운행 예산과 통학 거리 문제가 주요 요인을 나타냄. 통학은 결국 아동의 안전 및 학업에 중요한 시간활

용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지속적인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됨.

■ 고학년/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업의 부담

이게 어찌 됐든 전공은 아니고 자기의 꿈이 아닌데 사이드로 하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거기서 오는 한계성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한 중2 중3쯤 되면 대부분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은 나가고 나이 먹어도 계속 하겠다 하는 아이들은 있지만, 그건 아이 생각이고... 또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지가 되게 중요한... (A라1)

■ 통학거리와 차편

장애가 되는 것은 중학생 아이들... 그래서 물론 시간을 늦췄지만 그래도 세종 여기가 멀잖아요. 조치원과 세종이 그래서 사실 중학생 아이들이 엄마가 태워다 주지 않으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여기서 수업 끝나는 애들 오면 지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장애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A라4)

보니까 차량 운영하는 예산 자체가 좀 적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움직이고 지금 사무실에서도 행정 담당 쪽에서도 움직이거든요. 같이 아이들 올 때 태워오는 사람, 갈 때 태워가는 사람 저 역시도 지금 하고 있으니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고... (B가1)

(4) 제언: 대안 및 개선 방안

-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이 제언한 본 사업의 주요 개선방안은 ①진로를 결정한 아동에 대한 전문적 교육 지원, ②장기적인 관찰과 조사를 통해 지원체계 마련, ③진흥원 연수 프로그램, ④예산 책정, ⑤강사의 충원, ⑥참여 아동의 연령 제고, ⑦양질의 악보 공급과 아카이빙 등으로 제시됨.
- 4년차에 접어든 경우, 악기를 전공으로 선택하는 아동들이 늘어감에 따라 꿈의 오케스트라 이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강사들의 고민이 늘어가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대하여 후속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 사업의 행정적인 지원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보다 체계화되고 현장의 필요가 반영된 지원 내용을 제시함. 예를 들어 교육강사의 충원 같은 경우, 캠프 활동에서 참여 아동들을 돌봐줄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자칫 안전사고와 연결될 수 있는 우려가 피력되었고, 현재 제공되는 악보의 편곡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 진로를 결정한 아동에 대한 전문적 교육 지원

다 소외계층 아이들이 음악을 하고 싶어 했을 때, 그 아이들이 레슨비가 없어서 개인 레슨을 못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꿈의 오케스트라 안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기 안에만 있으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가 레슨을 받고 이 길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하는 게... 뭐 그게 재정적인 부분이 언제나 따라오지만 아직 점점 그런 아이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게 또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 (A라1)

여기에서 보면은 하다보면 이친구들이 조금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인재가 어느 정도 될 만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지원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 친구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마 솔직히 여기 보통 60%에서 70%가 다 차상위계층에 있는데 이 친구들이 경제적인 부분... 이런 음악예술회사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 줘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까? 그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괜찮은 친구들이 있으면 좀 뒷받침될 수 있는 그 방안까지도 고려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B가1)

그리고 예술의 전당 같은 대부분이 영재 아카데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데가 거의 무료로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의 독주자를 위한 선발이잖아요. 그런데 꿈의 오케스트라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계속 오케스트라 곡을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 아이들이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작고, 중요한 거는 거기에 악기들이 너무 한정적이라는 거죠. (A라2)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강사 선생님들 나오시는 분들도 다 레슨을 하기에 충분한 역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 각 문화원 자체에서 강사 선생님들과 연결을 시켜주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를 기다리면서 애들이 날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A라3)

■ 장기적인 관찰과 조사를 통해 지원체계 마련

제가 조사가 좀 장기적 이어야 한다는 이유가 10년 20년을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해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조사가 끝나버리면 이걸 논문이 완성되나 마는 거죠. 지금 올해 이 조사가 4년 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 10년은 해야 초등학교에서 시작하던 아이가 성인이 되는 모습까지는 조사가 되어야 어떤 그게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 음악감독으로서의 앞으로의 사명 같은 것은 여기서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애가 나왔을 때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지지해줄 수 있는가 시스템적으로 그 아이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가 이제는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A라1)

■ 진흥원 연수 프로그램 개선

연수 갔을 때 느낀 건데 교육내용은 좋은데 막상 써먹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 특히나 파트별로도 악기가 너무 다르고 제가 갔을 때 수업을 듣는데 이 수업이 궁금은 한데 저랑 파트가 다르니까 또 안 듣게 되고, 그 외 것은 또 저랑 먼 교육내용이고 이래서... 조금 더 파트별로도

다양하게 들을 수 있고 이거를 또 애들한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B가3)

연수를 좀 많이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힘들 수 있고, <...> 왜냐하면 저희는 머니까. <...> 갔다 오면 좋아 하시는데, 가기가 힘들죠. 저희는 거리상... (D라1)

■ 예산 책정

진흥원쪽에 건의하고 싶은 거는 첫째 하는 1년차들한테는 어느 정도 조금... 다른 데보다도 예산 자체가 적은 거 같아요. 근데 1년차 때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제일 적은 거 같다... 그래서 악기도 구입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B가1)

■ 교육강사의 충원

행정적으로 잘은 모르는데 사실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저희 강사선생님들이랑 여기 저희 재단의 행정선생님들이랑 다 해도 이 애들 다 케어 하기가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저희보다, 선생님보다 애들이 많다보니까 솔직히 애들을 위한 건데 애들한테 다 손이 닿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인원이거나 다른 선생님들... 애들 또 케어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의 인원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C라3)

■ 참여 아동의 연령 재고

1학년서부터 뽑다보니까 1학년들이 너무 어린 이런 친구들 그니까 이제 유치원 나와서 졸업해서 온 친구들과 같이 하다보니까... 근데 이제 엄마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친구 하나만 매달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조금은 아무래도 한 3학년서부터 시작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바람은 좀 있어요. 악기도 클라리넷 이런 거는 못하지 솔직하게 이제 바이올린이나 이런 거나 조금... 이게 거의 2학년들이 천지로 거의 바이올린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어느 정도 2학년, 3학년정도에서 시작을 하면 더 자연스럽게 잘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B가1)

■ 양질의 악보 공급과 아카이빙

각 권역별로 편곡 담당자를 두던 악보 같은 경우에도 인맥으로 받아오거나 직접 치거나 아니면 제돈 주고 사 오거나 이러거든요. 애들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음악적으로 이게 조금 이상한데... (C라2)

연주를 하면 이게 희한하게 차라리 조금 어렵더라도 원곡 자체를 하지 딱 들으니깐 희한한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곡료, 편곡료가 따로 책정이 안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애를 먹거든요. 다른 잘 되어있는 오케스트라 곡을 가져와야 되는데 편곡료나 이런 게 다 지출이 돼야 되는데 꿈의 오케스트라 악보가 있으니 이 악보를 쓰세요. 약간 이런 거거든요. (C라1)

저는 진흥원 쪽에서 차라리 <...> 라이브러리 개념으로 수준 낮은 그런 거 말고 차라리 원곡을...
악보가 몇 개 있어서 다 봤거든요? 올해 초에 봤는데 <...> 양극화가 너무 심한데 차라리 아이들이
연주하기 적당한 수준의 곡들을 여러 개를 구비를 해두면은 각 거점에서 강사들이 알아서 손을
대서 없는 파트 넣고 해야 되는데... (C라3)

3.5 2019년 참여관찰 분석 결과

- 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총 11회의 관찰을 시행함. 11회 중 8회는 2019년 처음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진행한 신규기관 B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3회는 연속지원기관 2곳과 다른 신규기관 1곳을 대상으로 함. 참여관찰엔 총 3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여 현상에 대한 관찰과 현상에 내재한 의미를 해석하였음.

〈표 IV-44〉 참여관찰 개요

시설	관찰일	주요 관찰 상황	관찰자	코드
A기관	09.16	합주 연습	연구자2	A-2
		바이올린 파트연습		
B기관	6.04	입문강좌 시간	연구자1	B-1
	7.02	클라리넷 파트연습		
		바이올린 파트연습		
		타악기 파트연습		
		제 2 바이올린 파트연습		
	7.16	이론공부 시간		
		금관악기 파트연습		
		플룻 파트연습		
		입문강좌 시간		
	7.30	합주 연습		
		비올라 파트연습		
		오보에 파트연습		
		합주 연습		
	9.03	입문강좌 시간		
		바이올린 파트연습		
		클라리넷 파트연습		
	9.19	수석 회의 참관		
		비올라 파트연습		
		타악기 파트연습		
		합주 연습		
10.01	이론공부 시간			
10.10	첼로 파트연습			
	금관 악기 파트연습			
	합주 연습			
C기관	09.19	클라리넷 파트연습	연구자3	C-3
		첼로 파트연습		
D기관	10.01	합주 연습	연구자1	D-1
		바이올린 파트 연습		

3.5.1 신규기관의 1년차 단원 관찰 분석결과

- 2019년 참여관찰은 신규기관인 B를 대상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한 달 이후부터 격주로 방문하며 집중적으로 관찰하여, 오케스트라 시작 초기의 단원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술하고자 하였음. 관찰의 방향을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시작한 후 초기 단계에서 아동들의 행동과 태도에 관해 기술하고 자료를 확보할 경우, 다년간의 오케스트라 경험 이후 단원들에게 나타난 변화와 대조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 아동의 변화와 성장요인은 ①인지 및 정서 발달, ②음악적 성장, ③인적상호작용의 영향으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관계적 역량과 피어티칭(peer-teaching), 교육강사의 지도 방법 등을 기본 관찰주제로 설정하였음. 나아가 오케스트라 활동의 효과와 아동들의 변화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에 관한 기술과 변화가 형성되는 과정 및 이를 촉진 및 저해하는 참여 환경적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 관찰의 초점을 맞춤.
- 촉진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B기관에서 처음 악기를 접한 아동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고안한 다양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관찰함. 그 결과 신규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명상과 스트레칭, 영상을 활용한 이론강좌, 수석제도와 스스로 규칙 정하기, 각종 보상 활동 등)은 오케스트라 활동 초기 아동들이 연주에 흥미를 잃지 않고 몰입하도록 도우며, 이 과정에서 단원들의 음악적 지식의 향상은 물론 유대감과 친밀감, 상호작용 등이 촉진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 밖에 주요 관찰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표 IV-45〉 2019년 신규단원 참여관찰 분석결과

체계	범주	분석내용
아동의 변화와 성장	인지 및 정서 발달	- 인내심 - 자발성과 적극성 - 향상된 집중력 - 자부심과 자신감 - 책임감과 협동심
	음악적 성장	- 음악과 관련된 배경 지식의 상승 - 자신이 연주하는 악기에 대한 흥미와 연습하고자 하는 의지 형성 - 연주 역량의 점진적 성장
	인적 상호작용의 영향	- 피어티칭으로 배우는 상호작용 - 배려와 협동: 파트연습과 합주를 통해 배운 '함께'라는 의식과 배려 - 유대감과 친밀감: - 학년이나 다니는 학교 구분 없이 형성된 아동 간 친밀한 관계 - 유쾌한 농담과 일상적 소통, 위계적이지 않은 교육강사-아동 관계
참여 환경	촉진요인	- 아동들의 선호와 의견을 반영한 악기 선정과 선곡 - 오케스트라 활동 시작 전 명상과 스트레칭 - 수석제도와 스스로 규칙 정하기, 각종 보상 활동의 병행

체계	범주	분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흥미 유도를 위해 다양한 동영상에 활용한 이론강좌 실시 - 충분한 휴식시간의 제공과 너그럽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 - 다채로운 지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기 함양과 음악을 즐기는 태도 함양에 충실한 교습 - 아동의 나이와 연주 실력별로 차별화된 지도 방식 - 지속적인 질문과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예시 그리고 시범 - 악기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발언과 격려, 칭찬 - 합주 시간에 이루어지는 음악감독과 교육강사의 이중 지도
	장애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기의 소중함에 대한 낮은 감수성 - 협소한 공간에서 다른 파트와 공동 연습 - 악기의 부족으로 인해 돌아가며 하는 연주 - 적은 교육강사의 수로 인한 저학년생들의 연습 공백
제언	대안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기 예절 교육을 강화하고 입문교육 시수 연장 - 파트별로 연습 장소와 공간의 구별, 방음 시설의 강화 - 단원 모두 1인 1 악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및 확대 지원 - 아동과 깊은 유대감 형성을 위해 교육강사의 확충 필요

(1.1) 아동의 변화와 성장: 인지 및 정서 발달

■ 인내심

- 악기를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 소리를 내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연습을 지속하는 모습이 발견됨. 특히 금관이나 목관악기의 경우 소리를 내기까지 다른 악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며, 호흡을 조절해야하므로 갈증, 두통 등을 수반하기도 함. 파트와 무관하게 신규단원들은 연습시간에 교육강사에게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관찰됨. 관찰 초기에는 단원들이 연습 도중에 쉬는 시간이 많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습을 지속하는 시간이 점점 더 연장되고 있음을 느꼈음. 일례로, 오보에 파트 연습에서 호흡을 잘 조절하지 못하여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연습을 지속하는 단원들의 모습이 발견되었음.

클라리넷을 연주하고 있는 단원은 몇 마디 불다가 혀가 아픈지 혀를 내밀고 손가락을 푸는 등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음(19.09.03)

오보에를 연습하는 한 단원이 목이 아프다며 계속해서 강사에게 이야기함. 이에 강사는 “오보에는 압력으로 부는 거여서 오늘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함.

악기를 불어서 얼굴이 빨개 지면서도 계속 연습을 하는 아동의 모습이 발견됨.

자연스럽게 연주를 하기까지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19.09.19)

■ 자발성과 적극성

- 2019년 관찰 결과, 자발성과 적극성은 수석을 맡은 고학년 단원들을 중심으로 먼저 형성되는 것으로 보임. B기관에서는 고학년 위주로 파트별 대표를 선정하고, 이 대표들은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지휘자와 교육강사들에게 전하는 활동 등을 포함한 수석회의와 수석제를 운용하고 있었음. 참여관찰에서 수석들은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다른 단원들을 챙기고 연습을 주도하는 모습이 자주 발견됨. 또한 회의에서 오케스트라 활동과 관련해서 불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자신들이 생각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발견됨.

수석들이 자체적으로 단원들을 점검하고 해야 할 일을 하며 챙기는 모습을 발견. 단원들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사실과 선생님들의 책임감 부여가 수석들이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임(19.07.02)

아동들이 지하 연습실로 이동해서 합주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 신발 정리가 되어있지 않자 고학년 수석 아동이 크게 “애들이 신발 정리해~~”라고 외침(19.07.30)

수석회의에서 ‘악보를 파트마다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 현재는 모두 같은 색깔의 파일에 악보를 보관하고 있어 헷갈리니 색깔별로 구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옴. 아동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불편한 부분을 스스럼없이 건의하는 모습이 발견됨(19.09.03)

- 오케스트라 활동을 다년간 연속적으로 진행한 기관의 경우, 파트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이 교육강사가 들어오기 전 악보를 보면서 자발적으로 연습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발견되었음. 신규기관의 경우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연습하는 모습이 오케스트라 활동 초기에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발견되기 시작함.

(이론공부 시간이 끝난 후 파트별 연습으로 돌아와 아동들이 자리에 앉는 상황) 강사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단원들이 스스로 의자를 옮기고 자리를 맞추며, 악기에 송진을 바르고 바이올린 소리를 조율하고 있음. 이제 강사가 없을 때도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임(19.09.03)

강사가 한 아동의 악기를 연주하며 소리를 조율하고 있는데, 다른 아동들 역시 직접 자신의 악기를 조율하며, 고향의 봄을 스스로 연주하기도 함. 이후 강사가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자세를 교정해 주는 동안

다른 아동들은 연습하고 싶은 곡을 골라서 자체적으로 연습함(19.10.10)

첼로를 지탱하기에 작은 체구를 가진 저학년 남학생이 강사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거치 보조대를 바닥에 세우고 첼로를 스스로 고정시키고 연습을 시작함.
혼자 깁깁대는 모습이 강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법도 한데
스스로 거치대를 세우고 첼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연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19.10.10)

■ 향상된 집중력

- 오케스트라 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처음 연습을 시작했던 때보다 아동들이 파트연습과 합주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는 모습들이 관찰됨. 하지만 다년간 활동을 지속한 기관에 비해 집중 시간이 다소 길지 못하며, 저학년 특히 남아동의 경우 오케스트라 활동 초기 단계에서 집중력이 낮고 적극적이지 못하며 교육강사의 관심이 많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임.

2주 전 합주보다 단원들이 침착해진 분위기가 느껴짐
지난번 합주 때는 지휘자가 “악기 소리 내지 마세요~”, “여기를 보세요”와 같은
주의를 끌기 위한 말을 빈번히 하였으나, 현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횟수가 매우 줄고,
아동들이 차분해졌으며 자연스럽게 합주가 진행되고 있음.
지휘자가 말을 크게 하지 않고 손으로 (일종의 사인인 뜻으로 보이는) 제스처를 취하자
아동들이 바로 자세를 고치고 집중을 함(19.07.30)

“○○이 다리 내리고 똑바로 앉으세요” 가장 어린 저학년 단원이 집중하지 않고 탄척을 피우자
강사는 아동의 이름을 부르고 쳐다보며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함. 멜로디를 따라서 입으로만
악보를 읽을 때는 아동들이 다소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태도를 보였으나. 강사가 연주를
시작하자 연주와 악보를 번갈아 보며 강사를 따라 게이름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모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19.09.03)

비올라 연습 중 주어진 1분 쉬는 시간에 조잘조잘 옆 친구와 이야기 하던 단원들이
‘이제 연주를 시작하자’라는 강사의 말에 연습을 시작하면 사뭇 진지한 태도로 빠르게
변함(19.09.19)

트럼본 연습 중에 아동들이 반복적으로. “선생님 우리 언제 쉬어요?”, “언제 간식 먹으러
가요?”라고 질문함. 단원들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19.10.10)

■ 책임감과 협동심

- 책임감과 협동심도 마찬가지로 수석을 맡은 고학년 단원들을 중심으로 먼저 형성되는 것

으로 보임. 회의를 통해 선출되었다는 점이 수석들에게 ‘오케스트라를 잘 이끌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교육강사들 또한 수석들에게 책임감과 협동을 요구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학년들이 함께 의자를 옮기고 협동하는 장면들이 관찰되기 시작함.

6학년 바이올린 수석 아동이 줄이 끊어졌다면 장난을 치고 레슨에 집중을 하지 못하자, 강사가 “○○아 여기서 네가 수석이지? 수석답게 열심히 해보자”라고 말함.
수석 아동에게 강사가 특히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임(19.07.02)

“각 반 수석들은 와서 악보 가져가세요”라고 지휘자가 말하자 수석 아동들이 재빨리 나와 줄을 서고, 악보를 받아서 파트별로 가지고 감. 고학년생들로 이루어진 수석들이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강사나 지휘자가 시키지 않아도 다른 아동들을 보살피고 자신이 할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19.07.16)

악기 정리 중에 오보에 한 아동은 자신이 먼저 오보에를 잘 닦고 옆 친구의 악기를 함께 닦아줌.
저학년생들도 의자 한 개를 두 명씩 들어서 옮기며 서둘러서 영상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음.
의자가 저학년생들이 들기에는 무거울 수 있는데 고학년 아동들이 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돕겠다고 나서며 협동하는 모습이 발견됨(19.07.30)

2학기 회장단을 뽑는 회의에서 새로 당선된 고학년 학생이, “제가 회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오케스트라의 분위기 메이커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이후 부회장 당선자도 “저도 부회장으로서 더 안 까불고 동생들을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소감 발표에서 책임감 있는 태도가 엿보였으며 진지함(19.09.03)

옆의 남아동이 드럼 스틱을 부딪치며 장난을 치자 수석인 여아동이 “야~!”하면서 주의를 시킴.
또한, 다른 아동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3번 박자와 4번 박자를 헛갈리자 크게 ‘3번’이라면서 해당 박자가 시작할 때 미리 외쳐서 다른 단원들이 그 박자를 칠 수 있도록 함(19.09.19)

(1.2) 아동의 변화와 성장: 음악적 성장 - 예술경험의 내재화

■ 음악과 관련된 배경 지식의 상승

- 오케스트라 활동 도입부에서는 연주 역량의 성장보다는 게이름, 악보 읽기, 파트별 악기의 특성, 저명한 음악가 등 기초 음악적 배경 지식을 획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지도가 이루어

어집.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있는 악기의 연주법이나 해당 악기의 음역을 포함하여 계이름과 악상기호 등 악보를 볼 수 있도록 기초적인 음악 지식을 입문교육 시간과 이론 공부 시간을 통해 전달함. 이에 단원들 역시 음악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벤자민 브리튼곡: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을 감상하며 낮은 음역과 높은 음역의 악기 소리의 차이를 들려주고 있음. 영상을 보는 중간마다 강사가 “자 이제 피콜로라는 악기예요~ 제일 높은 소리를 내는, 자 무슨 악기?” 이와 같은 식으로 질문을 이어나가고 아동들이 대답함.

“자 이제 악기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악기가 커질수록 소리가 낮은 소리가 나오요~~? 높은 소리가 나오요~~? (아동 일동: 낮은 소리요~) 금관악기도 마찬가지로 악기가 커질수록 낮은 소리를 내요~” 자신의 악기를 제외하고도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들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되며, 아동들 모두 강사의 질문에 잘 대답을 하고 있음(19.07.16).

〈EBS 오페라 하우스 미술 피리 :모차르트 이야기〉 영상은 모차르트의 작품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된 애니메이션이었으며 중간중간 모차르트가 작곡한 음악이 삽입됨. 음악이 나오는 부분에서 “여기서 나오는 음악들은 실제로 오페라에서 연주된 곡들이에요”라고 말하며 강사가 설명을 덧붙여줌. 더불어 이전에 보았던 내용을 아동들에게 질문하여 복습을 시킴으로써 악기를 다루는 것 이외에 음악적 배경 지식을 늘리고 동시에 흥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19.10.01)

■ 악기에 대한 흥미와 연습을 하고자 하는 의지 형성

- 다년간 오케스트라를 진행한 기관에서는 아동들의 연주 역량이 강화된 모습이 확실히 드러났지만, 2019년도 관찰에서는 신규기관을 대상으로 했기에 아직 아동들의 연주 실력이 두드러지게 향상되지는 않았음. 하지만 처음 악기를 접하고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즐거워하며, 연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형성되어 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음. 이후 음악적 성장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타악기 파트의 아동에게 ‘이론공부가 재미있어? 악기 연주가 재미있어?’라고 묻자, 망설이지 않고, “악기연주요.”라고 대답함. 이후 왜 타악기를 선택하게 되었냐고 질문하자, “기타는 코드로 잡는 거고 첼로는 활대를 가지고 키는 거라서... 근데 타악기가 제일 인기도 좋고 재미있는 거 같아요.”라고 대답함 자신이 연주하고 있는 악기에 대해 애정이 짙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여러 악기의 차이점에 대해 인식해가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19.07.02).

‘단원들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떤지?’라는 질문에 담당 코디와 센터장은 공통으로 현재 아동들이 연주에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응답함. 담당 코디는 ‘이제 아동들이 악기를 접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대부분 자신의 악기에 흥미를 느끼고 연습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센터장은 ‘아동들이 여기 오는 게 행복하다고’ 했다는 말을 전하며, 악보를 읽을 때 고비가 한 번 올 거 같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자신들이 다루는 악기를 신기해하고 재미있어하는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함 (19.07.02)

연습하던 아동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멜로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자 화를 내고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안 되는 부분을 강사에게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모습에서 연주를 잘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승한 것으로 보임(19.09.19)

일정 구간에서 호흡 조절을 잘 하지 못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트럼펫에서 뻑-하는 소리가 들림. 이후 함께하는 연습을 멈추고 뻑 소리를 내는 아동들에게 찾아가서 강사가 개인 레슨을 잠깐 해주는 사이에도 다른 단원들은 스스로 연습을 진행하고 있음(19.10.10)

Q. 악기 배울 때 힘든 점은 없는지?

A. 악기 연습을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답답한 게 있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답답한 것 같다.(C-3, 19.09.19)

■ 연주 역량의 점진적 성장

지난 관찰에 비해서 소리를 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인상을 받음. 하지만 호흡으로 음역을 조정하는 관악기의 특성상 아직은 불안정하고 거친 소리를 내고 있음(19.07.16)

(연습하는 소리를 듣다가) 강사 “잘했는데, 미가 좀 이상해~ 미가 어려우면 도로 그냥 해보자~ 미는 어려우니까~. 자~ 이번엔 호른만 해보자~(호른 연주 이후) 아동이 “선생님 여기 뭔가 안 맞는데요?”라고 질문함. 아직은 소리와 음계가 명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현재 내는 악기 소리가 적어도 틀렸다는 것을 알아채고 강사에게 질문할 수 있음(19.07.16)

타악기 아동의 경우 노래를 부르며 자연스럽게 박자에 맞춰서 드럼을 연주하는 모습이 발견됨. 듣고 함께 박자를 맞추어서 즉흥적으로 연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임. 타악기(탬버린 치는 아동)의 경우 지난번 합주와 비교하면 손목 기술이 매우 향상된 것으로 보임(19.07.30)

지난번 관찰 때 오보에가 음계 하나하나를 연습하던 모습과 달리 현재는 멜로디 연주가 가능함. 소리가 거칠지 않고 많이 다듬어진 것이 확실히 느껴짐(19.09.19)

첼로 고학년 단원들은 연주하다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강사를 불러 연주를 들려주며 어디가 틀렸냐고 구체적으로 물음. 이제는 자신이 내는 음이, 연주가

명확히는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알지는 못해도 틀렸다는 사실은 알고 강사에게 물을 수 있을 정도는 음악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임(19.10.10)

금관악기 역시 자기가 소리를 내놓고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강사를 바라보며 “선생님 뭔가 이상해요~”라고 말하자 강사는 “투투투하며 끊어서 연주해야지”라며 구체적으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지도함(19.10.10)

(1.3) 아동의 변화와 성장: 인적상호작용영향 - 관계적 역량의 향상

■ 피어티칭으로 배우는 상호작용 능력

- 고학년들이 저학년들에게 피어티칭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데 이를 통해 피어티칭이 오케스트라 활동 초기, 즉 악기연주의 수준과 관계없이 발현되는 것임을 확인함. 하지만 개인별로 계이름을 익히고 올바른 소리를 내는데 집중하는 기초 교습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교육강사 의존도가 높으며, 다년간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했던 아동들에게서처럼 피어티칭이 광범위하거나 활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아직 연주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악기를 다루는 실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텅잉을 할 때 혀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생을 지도하는 모습이 발견됨. 피어티칭이 오케스트라 활동 초기에서부터 발현되는 것임을 확인함(19.07.02)

비올라 파트 연습 중 강사는 “○○아(고학년 학생) 활을 좀 많이 써줘야 해~ 그래야 애들이 너 하는 거 보고 따라 하지”라고 말함. 저학년생들은 고학년생들이 연주하는 만큼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강사의 말처럼 옆에 앉은 고학년의 활대를 보고 따라서 연주하고, 연주가 틀렸을 땐 고학년생들이 지적을 해주기도 함(19.09.19)

첼로 파트는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연습을 진행함. 개인 연습 도중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옆 친구들에게 상의하고 의논하는 모습이 발견되었으며,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강사에게 물어봐서 틀린 부분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으로 보임(19.10.10)

■ 배려와 협동: 파트연습과 합주를 통해 배운 ‘함께’라는 의식과 배려

바이올린 파트 연습 시간 강사는 “한 사람이라도 잘못하면 다시 할 거니까, 마음을 모아야 해 마음”
“마음이 안 맞으면 계속 연습하는 거로~ 다시 마음을 맞춰보자~”라고 말하며, ‘마음을 모아야 함’을 강조함. 이러한 발언은 아동들의 악기연주 실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함께라는 의식’을 길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19.07.02)

오보에 아동 1: “마지막에 우리 합주해야 하나까 이거 연습해야 하는 거 아니야?”라며, 아동 2에게 함께 연습하자고 제안함. 현재 악기 연습을 시작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합주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합주를 위해 연주해야 한다는 아동의 발언이 인상적이었음(19.07.16)

밖에서 간식을 먹던 아동이 음식을 흘린 상황에서 지휘자가 주위의 아동들에게 “함께 빨리 치우자”라 말했고, 바로 이를 거드는 강사와 다른 아동들의 행동들이 모두 자연스러웠음. 단편적일 수도 있겠으나 상호 간의 배려와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익숙해 보임(19.07.16)

비올라 연습 중 강사는 저학년 아동에게 “○○이 들었지?” “형아 하는 거 들었지?”라며 다른 아동의 소리를 유념하게 하고, 저학년 아동이 틀리자 연주를 함께하기 위해 기다려준 다른 단원에게, “○○이는 기다려 준거야? ○○이 좋았어~ 매너가 좋아~”라고 말함. 함께 연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단원들을 기다려주고 틀린 곳에서부터 다시 연주해주는 모습에서 단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19.07.30)

“오늘 또 합주하니까 우리끼리 잘 해보야 할 거 아니야!~”
“합주에서 박자를 맞춰서 들어갈 수 있도록 연습할 거야”
합주를 상기시키며 아동들에게 합주에서 실력을 보여주자는 식으로 강사가 이야기하고 아동들 역시 이에 동의하듯 열심히 연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임(19.07.30)

(엇박자로 된 도입부가 익숙하지 않은지 한 명의 친구가 계속 틀리고 있는 상황)
하지만 모두 웃으며 틀릴 때마다 연주를 반복적으로 다시 시작함.
3~4번의 반복 끝에 그 단원이 틀리지 않게 됨. 한 명의 친구 때문에 연주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짜증스러울 법도 한데, 단원들 모두 ‘까르르~’ 웃으며 함께 연주를 배워나가는 모습과 결국 틀리지 않고 연주를 해내는 단원의 모습이 발견됨(19.09.19)

■ 유대와 친밀감: 학년이나 다니는 학교 구분 없이 형성된 아동 간 친밀한 관계

- 각자 다니는 학교가 다른 아동들로 구성된 꿈의 오케스트라는 평소 교류할 기회가 없는 친구들과 친해질 기회를 제공함. 몇몇 아동과의 반구조화된 인터뷰에서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오케스트라 활동이 재미있다’는 발언이 반복적으로 드러남. 또한 평소에 친밀감이 높아 보이는 두 아동이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으나, 인터뷰 결과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고 친해졌음을 알 수 있었음. 더불어 간식 시간에 대부분 단원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뛰어노는 등 친밀한 모습을 보임. 이를 통해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새로운 교류를 만들어내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재확인함.

Q: 둘은 항상 같이 다니네~같은 초등학교에 다녀?

A: 아뇨~ 저희 다른 초등학교인데~ 함께 플룻을 배우며 친해졌어요~ 우리는 그냥 서로를

유딩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우리 둘 다 플룻 가방을 이렇게 크로스로 매니까
유치원생 같아서 서로 유딩이라고 해요(19.07.16)

쉬는 시간 비올라를 연주하는 여자 아동들이 모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이야기를 하고 있음.
대화 내용에 비춰보았을 때 서로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보이며,
활동 초기와 비교하면 친밀감이 많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됨(19.09.19)

■ 유대감과 친밀감: 유쾌한 농담과 일상적 소통, 위계적이지 않은 교육강사-아동 관계

아동이 드럼을 치는데 계속 머리를 흔들자 “○○이는 머리 길고 강한 음악을 해야 할 거
같다”고 말하자 단원들 모두 웃음을 터트리며 즐거운 분위기가 형성됨. 강사가 아동들에게 농담을
전내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임(19.07.02)

아동이 박자를 맞추지 못하자 남아동에게 “아저씨~ 우리 몇 박하기로 했어~?”라고 물으며,
강사가 아동들을 간지럼 태우고 방해할 하며 장난을 걸었고 이를 아동들이 되받아치며 대화를
계속 이어나감. 위계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아동들과 강사 사이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확실히 아동들이 서슴없이 말하고 질문들을 많이 던짐. “선생님은 이제 박제를 썰게~ 근데
선생님이 분명히 (너희들 연습하는 걸) 방해할 거야”라고 말하자 모두 웃음 (19.09.19)

강사 발구름을 하며 아동들 박자를 하나하나 맞춰줌.
강사와 아동 간의 관계가 매우 좋아 보였음. 강사와 아동의 관계가 가까움에 따라
아동들도 본인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 강사에게 스스럼없이 이야기함(C-3, 19.09.19)

(2.1) 아동의 변화와 성장의 촉진요인

■ 아동들의 선호와 의견을 반영한 악기 선정과 음악 선정

- 아동들이 악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가진 신체적 조건과 파트 구성원 내 형제, 남
매의 존재 여부 등과 같은 오케스트라 배정 규칙, 기관에서 보유한 악기 등이 영향을 미
치긴 하지만, B기관에서는 최대한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여 악기를 배정한 것으로 보임. 관
찰 과정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해당 악기를 선택한 이유에 관해 아동들에게 질문하자 적
지 않은 아동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른 선택임을 밝히고 있었음.

Q: 왜 플룻 선택했어?

A: 저는 처음에 바이올린 아니면 비올라 하려고 했는데, 바이올린은 사람이 너무 많고 비올라는
소리가 이상해서요. 엄마가 그러는데 처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악기를 해야 잘 한다고 하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임에도 자신이 악기를 선택한 이유가

뚜렷하다는 점이 인상적임(19.07.16)

Q: 왜 오보에 선택했어?

A: 다른 곳에서 바이올린 배우니까 오보에도 한 번 해보고 싶어서요~ 라는 대답에서 악기 선정에 있어 자신의 선호가 확실히 반영된 것으로 보임. 강당으로 내려가는 도중에도 왜 자신이 오보에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함(19.07.30)

Q. 현재 배우고 있는 악기를 원래 희망했던 악기인가요?

A. 처음 1지망 : 첼로, 2지망 : 베이스를 했었다. 하지만 베이스를 배우다 보니 남들이 배울 수 없는 악기를 배우는 것이라 좋다고 말함(C-3, 19.09.19)

현재는 악기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를 신기해하는 단계는 약간 지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같은 음을 계속 내는 연주곡은 아동들에게 지루함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아동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는 ‘흥미를 돋우는 음악 선정’으로 보임. 아동들이 집중을 못 하는 것처럼 보이자 강사는 ‘너희가 좋아하는 해리포터 연습해보자’라고 말함(19.07.16)

합주 시간에 지휘자가 “자 이제 에텔바이스 연주하자~”했더니 아동들이 “에이~~”하는 소리를 냄 “알겠어, 알겠어~ 고향의 봄부터 연주하자~”멜로디가 있는 곡을 합주할 수 있으며, 단원들에게 어떤 곡을 연주하고 싶은지 선호가 생긴 것으로 보이며, 지휘자는 아동들이 의견을 반영하여 연주를 진행함(19.10.10)

■ 오케스트라 활동 시작 전 명상과 스트레칭

- B기관에서 오케스트라 활동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활동 중 하나는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하기 이전에 명상과 스트레칭을 하는 것임. 이와 같은 활동을 연주 시작 전에 함으로써 아동들이 더욱 연습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활동의 병행은 아동들이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데 흥미를 느끼게 할 것으로 생각됨. 명상 시간에는 모든 아동이 강당에 모여 눈을 감고 잔잔한 음악을 듣는데 이때 지휘자가 단원들에게 하는 “나는 어떤 무대도 두렵지 않다.”등과 같은 말은 아직 연주 실력이 미흡한 아동들의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아동들이 모두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상황)
지휘자는 맨 앞에 앉아있는데 마이크에 대고 아동들에게 “나는 어떤 무대도 두렵지 않다. 나는 나의 파트너인 악기와 어떤 무대에도 설 수 있다. 나는 내가 가진 소리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음악가이다”와 같이 격려의 말을 함.

이후 마른세수와 온몸을 쓰다듬는 활동. “오늘도 내~몸 수고 많았고~, 파트 연습도 열심히

하자”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하기 이전에 명상과 스트레칭과 같은 활동을 함으로써 아동들이 더욱 연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활동의 진행은 오케스트라에 오는데 흥미를 느끼게 할 것으로 생각됨(19.10.10)

■ 수석제도와 단원 스스로 규칙 정하기, 각종 보상 활동의 병행

Q: 단원들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활동을 하는 이유?

지휘자: (오케스트라 활동 초기에는) 단원들이 강사들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수석들을 직접 뽑아서 더욱 자율적인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19.06.04)

〈우리들의 약속〉: 단원들이 회의를 통해 스스로 만든 규칙
우리 꿈여울 단원들은 선후배 친구들끼리 서로 존중하며 바르고 예쁜 말을 씁니다.
우리 꿈여울 단원들은 선생님을 만나면 공손히 인사합니다
우리 꿈여울 단원들은 악기를 연습할 때 장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꿈여울 단원들은 신발 정리를 잘합니다
우리 꿈여울 단원들은 절대로 남의 물건을 손대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단원들이 합의해서 만들어질 예정)

사실 연주를 함께하는 것과 더불어 ‘케이스 줄 맞춰서 놓기’, ‘합주 시작하기 전에는 악기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규칙을 포함하여, 자신들이 만든 〈우리들의 약속〉을 지키는 연습이 책임감과 협동심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19.07.16)

(각자 합주대형으로 맞추기 위해 의자를 나르고 보면대를 함께 옮기며 대형을 맞추고 있음)
마이크를 든 강사는 “어떤 파트 악기가 제일 빠르게 합주 세팅하는지 볼까요?”하며
아동들이 빠르게 합주대형을 맞출 수 있도록 고무함.
“1등은 첼로~ 2등은 어떤 파트예요?” “서로서로 도우면서 빨리 합시다”
“오보에가 먼저 할까 클라가 먼저 할까?”대열을 맞춘 파트의 아동들은 앉아서 연습을 시작함

(대열이 다 맞추어지자 지휘자 선생님이 등장)
2등한 파트까지 스티커를 주고 스스로 나서서 신발 정리를 한 아동에게 역시 스티커를 줌
이러한 스티커 제도를 이용해서 칭찬과 어떤 좋은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함으로써
단원들을 보다 오케스트라 활동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보임(19.10.10)

■ 아동의 흥미 유도를 위해 다양한 동영상 활용한 이론 강좌 실시

- 2-3년 연속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제공한 기관의 관찰에서 교육강사들이 자신의 연주 영상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자주 포착된 바 있으며, 이는 아동들의 흥미를 유도하는데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기술한 바 있음. B기관의 경우 파트 연습 시작 전이나

이후 이론공부 시간을 마련하여 강당에서 단원 모두 동영상 시청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있었음. 전반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악기연주를 열심히 해서 성공한 연주자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흥미와 희망을 고취하는 것으로 보임. 더불어 지루할 수 있는 이론공부를 동영상을 이용해 진행함으로써 아동의 음악적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됨.

쇼팽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유튜브 영상을 이용하여 이론 수업을 진행함.
시청 이후 “여러분도 조성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19.06.04)

「베토벤 이야기」: 베토벤이 어렸을 때 이야기
교향곡 5번, 3번, 9번: “9번이 유명한 곡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실력이 높아지면 이 곡들을 모두 다 연주하게 될 거예요.” (19.07.02)

■ 충분한 휴식시간의 제공과 너그럽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

지난번 관찰과 달리 아동들이 클라리넷 악기 소리를 내기 시작함.
처음 소리를 내기까지 노력과 힘이 들어가기 때문인지 단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충분히 휴식할
시간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 드디어 ‘파’소리가 났어!”,
“이거 내면 3분 동안 쉬자” (19.07.02)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한 아동이 팔이 아프다며 악기연주를 중단하자, 강사는 함께 연주하고
있었던 다른 친구들에게 기다려달라고 하며 이후에 함께 연주함. 다른 아동들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거나 빨리 연주에 참여하라’거나 하는 식으로 답변할 수도 있었으나, 함께 기다리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다른 단원들에게 간접적으로 누군가 쉬고 싶을 땐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19.07.30)

1,2,1,2,1,2,1,2 ‘빠빠빠빠’ ‘미미미미’ 강사가 소리를 입으로 내며 박자와 악보에 대해 아직
아동들이 음악적인 지식이 부족하므로, 강사가 악보를 손으로 짚으며 계임을 읽어주고 박자감을
익히게 한 후, 아동들이 악기를 연주하게 함. 소리를 내기 어려운 음계는 강요하지 않고 아동들이
천천히 연습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임(19.07.30)

현재 아동이 내는 소리엔 힘이 많이 들어가서 약간 부자연스럽게 들리는 경향이 있음. ‘호흡~
숨 쉬어’라는 말을 강사가 자주 하는데, 실수하더라도 호통을 치거나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무안해하지 않도록 세심히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19.07.30)

비올라 단원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쉬는 것으로 파악됨. 아동들에게 ‘열심히 연습하면 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 연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보임(19.09.19)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고 아동들이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시간. “몸이 너무 노곤노곤 풀려서
누워있고 싶어요? 그럼 열 쉐 때까지만 누워있어요~” 비가 오고 아동들이 약간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내색을 보이자, 진행 강사가 잠시만 누워있자고 제안함. 누워있으라는 말에 아동들이 자유자재로 누워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19.10.01)

■ 다채로운 지도 방법 1: 기본기 함양과 음악을 즐기는 태도 함양에 충실한 교습

현재는 올바른 소리가 무엇인지를 익히고 소리를 제대로 내는 과정이어서 강사가 아동의 활대를 잡고 알맞은 소리가 나는 자리를 알려주고 이를 반복해서 연습시킴(19.07.02)

“리듬을 잘해야 음악의 기본이에요~”아직은 합주 시간에 합주를 한다기보다는, 앞으로의 합주 시간에 어디에 집중해야 하고, 합주에서 기본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동들이 느끼고, 익숙해지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인상(19.07.16).

합주 시간, 강사들과 지휘자 모두 아동들이 자신의 연주 구간에 올바른 박자에 맞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합주 연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C소리를 내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C가 있어야 해~그렇지 않으면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C소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휘자가 이처럼 말하고, 피아노 선생님이 합주하는 곡을 피아노로 치면서 아동들에게 각 코드의 올바른 소리를 익히도록 하고 있음 (19.07.30)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계이름 읽더라도 외워버리면 안 돼~외우더라도 악보를 보고 외워야해! 나중에 모든 악보를 외울 수는 없으니까~” 바이올린 강사는 단순히 에델바이스를 잘 연주하기보다는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교습을 하는 것으로 보임

“작은 소리로 예쁘게 부는 연습을 하다보면 나중에 예쁘게만 불려고 해. 처음엔 최대한 크게 부는 연습을 해야 해” 바이올린과 마찬가지로 클라리넷 강사도 기본기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려고 하는 강사들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19.09.03)

“항상 악보를 참고하되 악보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기에(타악기 연주)에 틀린 게 없어. 다른 거야”(19.09.19)

■ 다채로운 지도 방법 2: 아동의 나이와 연주 실력별로 차별화된 지도 방식

타악기: “방금 ○○이는 4박을 안 끊어지고 했어”, △△이는 메트로놈을 틀어 놓고 해볼까?” 아동의 실력에 따라서 음악을 틀어놓고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해 의논을 해서 결정함(19.07.02)

클라리넷 다른 세 명의 단원에 비해 나이가 어리고 연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강사가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모습 발견. 강사가 저학년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주기 위해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며 계이름을 알려주는 모습이 인상적임(19.09.03)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틀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줄게~ 누구야~?”
“저요~ 제가 틀렸어요~” “△△이가 많이 틀려서 봐주느라고 우리 ○○이를 선생님이 잘 못
봐줬어~대신 간식 먹고 빨리 와~ 선생님이랑 연습 한 번 더해보게”
강사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톡톡이 관심을 쏟고 개인적으로 지도하며 단원들이
모두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임(19.09.19)

■ 다채로운 지도 방법 3: 지속적인 질문과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예시 그리고 시범

(검사를 맡는 한 아동의 소리가 끊기자)

“선생님이 너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소리 있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
아니면 이.렇.게. 끊.어.져.서. 이.야.기.하.는.게.좋.아?” 아동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며
구연동화를 하듯이 알려주는 강사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음(19.07.16)

트럼펫 강사가 연주하고 아동들이 따라 하는 방식: 시범-따라 하기-지적-다시하기(“모든
관악기는 숨을 입으로 쉬어야 해, 코로 숨을 쉬면 이렇게~배가 나와”) 숨을 코로 쉴 때와 입으로
쉴 때가 어떻게 다른지 직접 자신의 몸을 통해 보여줌. 이러한 강사의 ‘보여주기’와 ‘비교하기’는
어떻게 연주를 하는 것이 올바른 소리를 내는 것인지
아동들을 쉽게 이해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생각됨(19.07.16)

“귀가 예민한 사람은 들었을 텐데 퍼스트 바이올린이 ‘도’할 때 다른 음을 불었어요~”
“서로 안 친한 사이가 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이가 있어요~” 코드를 친구 사이 친한 사이와
비교하며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음(19.07.30)

본격적인 합주를 시작하기 전에 지휘자가 간단한 퀴즈를 실시하며
아동들의 주의를 끌고 이론공부를 시키고 있음.

“C가 뭐예요? 도 음정부부터 시작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온음 사이는 뭐예요? 반음, 파하고 솔은?”

퀴즈가 끝나자 단원들 모두 도레미 송을 함께 불렀는데, 이는 계이름을 익히고 박자가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를 알 수 있도록 노래를 함께 부르며 언제 자신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19.07.30)

■ 다채로운 지도 방법 4: 악기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발언과 격려, 칭찬

바이올린도 학년이 어린 친구들은 악기를 연주하는 실력이 고학년에 비해 떨어짐.
때문에 강사가 “자신감 있게 연주해”라고 하며 고학년 학생한테 하는 것보다
더욱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서 자신감을 북돋아 줌(19.07.02)

(비올라 강사가 아동의 활대를 잡고 알맞은 소리가 나는 자리를 알려고 있는 상황)

좋은 소리가 날 때마다 ‘우와~ 잘했어요’, ‘옹치~’라고 말하며 칭찬을 해주고 있음

(합주 시간) “지난 시간보다 훨씬 더 어깨 편해졌어~현악기 너무 많이 늘었다. 저번 주와 비교하면. 집에서 연습했니??”강사들과 지휘자 선생님 모두 칭찬과 격려를 통해 아동들이 합주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흥미를 느끼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19.07.16).

강사가 두 명의 여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두 남학생은 탄성을 피우거나 “선생님 저 다했어요~”하면서 계속 강사의 주의를 끄는 행동을 보임. 결국 강사가 저학년 아동에게 다가가 “○○가 같이 (연주) 해줬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이 연주 소리 듣고 싶은데~” “우리 ○○가 소리를 크게 내니까 정말 잘 들리더라~ 더 크게 크게~” 라고 칭찬하면서 연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19.07.30)

간식 시간에 지휘자가 아동들에게 “너는 우리 오케스트라의 히든카드야~”, “너는 우리 오케스트라의 희망이야” 등 긍정적인 말과 칭찬을 계속해줌(19.09.19)

■ 다채로운 지도 방법 5: 합주 시간에 이루어지는 음악감독과 교육강사의 이중 지도

- 합주 중 교육강사들은 각 파트별 단원들 옆에서 박자를 짚어주고, 악보에 손을 얹어서 어느 부분을 현재 연주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발 박자를 맞춰주는 등 단원들이 다른 악기 소리에 방해받지 않고 해당 구간에 소리를 잘 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하는 모습이 발견됨.

바이올린: 다른 아동을 지도하다가 혼자 연주하고 있는 아동의 새끼손가락 움직임이 잘못되자 와서 고쳐주는 모습 발견

타악기: 강사가 스틱을 들고 연주를 대신해 시범을 보여주고 해보라고 하는 때도 있음

오보에: 합주에서 조금 전 파트별 연습시간에 연습했던 구간을 잘 해낸 아동들에게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발견(19.07.30)

(2.2) 아동의 변화와 성장의 장애요인

■ 악기의 소중함에 대한 낮은 감수성

남자 아동의 경우 비올라를 바닥에 놓고 현을 켜고 있는 모습을 발견. 매우 세게 활을 움직여서 줄이 끊어질 것 같음. 이를 본 강사가 “이렇게 받침대를 두고 하면 나중에 악기 코가 이렇게 벌어진다”라며 악기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아동에게 말함

악기를 바닥에 놓거나 세계 활을 켜는 모습들은 3년 차 아동의 관찰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모습으로, 아직은 자신의 악기에 대한 애정이 형성된 단계로 보이지 않음(19.07.30)

저학년 학생이 바이올린을 기타처럼 치며 키를 마구잡이로 흔드는 모습이 발견됨.

강사: “악기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발로 밟으면 안 돼요~”

바이올린 연습 중에, 단원 두 명이 서로 악기를 들고 마주 앉아 각자 다른 아동의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발견, 역시나 바이올린을 세로로 세우고 활을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아동 발견. 3년차 아동 참여 관찰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아직 악기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19.09.03)

“○○아 연주 못 하겠으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악보는 꼭 보고 있어야 해!” 라는 강사의 말에도 활을 가지고 의자에 탁탁탁 두드리는 모습이 발견되었으며, 활을 악보에 문지르기도 함(19.09.19).

센터장의 ‘악기를 소중히 다루달라’ 발언: “킵도 잘못하면 깨져버리죠? 잘못하면 악기도 파손되기가 쉬워요~ 악기를 조금 더 아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19.10.10)

■ 협소한 공간에서 다른 파트와 공동 연습

연습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의 개인별 지도는 필수적임. 하지만 현재 2층에 금관악기를 모두 모아서 파트 연습을 하고 있어 소리가 많이 겹치고, 강사가 가까이 다가가서 듣지 않으면 아동들 각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환경임. 공간을 조금 더 분리하여 악기 소리가 명확하게 들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특히 올바른 음계를 내기 전까지)(19.07.16)

아동들이 모두 거울 앞에 앉아서 자신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연습을 하니 (지난번 관찰 때) 강당에서 하는 것보다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더욱이 소리가 울리게 되어있어서 본인들이 내는 소리를 더욱 잘 들을 수 있음(19.09.03)

강당에서 바이올린과 첼로가 함께 연주해서 소리가 많이 섞이고 있어, 강사가 말을 크게 해야 아동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임이 약간 아쉬움(19.10.10)

■ 악기의 부족으로 인해 돌아가며 하는 연주

드럼은 다른 악기들에 비해 소리가 커서 방음벽이 쳐져 있는 곳에 들어가서 연주를 진행 드럼이 하나 밖에 갖춰져 있지 않아 돌아가면서 연습을 진행함. 악기가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해 강사가 다른 악기를 하는 아동들은 모두 1인 1 악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그 점이 미안하다고 발언함(19.07.02)

강사: “혼자서 1-2교시 계속 연습하면 금방 느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하니까 아동들한테 미안하죠. 다른 악기들은 1인 1악기인데 타악기는 그렇지 못하니까” 확실히 아동들이 다른 단원이

드림을 칠 때는 연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임(19.09.19)

■ 적은 교육강사의 수로 인한 저학년생들의 연습 공백

확실히 지도해야 하는 아동의 수가 적을수록 강사와 단원들 간의 유대감 형성 및 음악적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 같음. 단원 수가 많은 바이올린의 경우, 강사가 지도하지 않을 때는 단원들의 집중력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아동 두 명을 한 강사가 지도하고 있는 오보에의 경우 아동들이 지속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19.07.30)

저학년과 고학년이 함께 연습할 때 분위기가 고학년 위주로 가다 보면 따라가지 못하는 저학년 학생들은 심심하고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
물론 형, 누나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간접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강사들의 관심이 혹은 강사들이 더욱 필요한 것은 사실인 거 같음(19.09.03)

다 같이 하는 연주를 따라가지 못하는 저학년 학생이 조금 가지 못해 옆드려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는데, 다소 지루해 보임(19.09.19)

7명 중 6명의 단원은 함께 연주를 진행하고 있으나 한 여 아동의 경우(늦게 시작한 것으로 보임) 연주에 참여하지 못하고 악보를 멍하게 보고 있음. 어느 정도 따라가던 남 저학년 아동도 중간 정도 연주가 진행되자 박자를 놓쳤는지 따라가지 못하고 연주를 멈춤(19.10.10)

2.5.2 2019년 신규단원과 기존 3년차 단원의 비교 분석

- 하반기 조사를 위해 1회 방문하여 참여관찰을 시행한 연속지원기관, C와 D의 경우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관찰한 B 기관보다는 아동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음. 그러나 C와 D기관은 기존 2018년 연구의 참여관찰의 대상 기관으로 반복 관찰되었기에 연속지원기관과의 비교분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음.
- 아래 축약되어 기술된 내용은 기존 3년 차 단원과 비교하여 신규단원에게서, 또한 신규기관 B에서 아동의 흥미를 유도하고 오케스트라 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추가로 드러난 관찰 내용을 요약한 것임.
- 2019년 신규기관 B를 대상으로 처음 악기와 오케스트라 활동을 접한 아동들에게서 추가로 관찰된 내용을 연속지원기관의 관찰 결과와 비교하여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음.
- 인지 및 정서 발달 측면에서 ①자발성과 적극성, ②향상된 집중력, ③자부심과 자신감, ④책임감과 협동심이 공통으로 도출되었으며, 악기를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 소리를 내기까지 통증을 참는 등 인내심을 가지고 연습을 지속하는 모습이 아동들에게 발견되어 ⑤인내심을 추가함.
- 음악적 성장 측면에서는, 오케스트라 활동 초기에는 연주 역량의 성장보다는 게이름, 악보

읽기, 파트별 악기의 특성, 저명한 음악가 등 기초 음악적 배경 지식을 획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지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 아동들에게서 또한 ①음악과 관련된 배경 지식의 상승이 관찰되었음. 전반적으로 처음 악기를 배정받고 연주를 하는 것을 신기해하는 단계를 지나야 연습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형성되기 시작하며, 곡에 대한 선호가 생기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연속지원기관 관찰에서 발견된 음악에 대한 몰입, 음악을 대하는 주도적 자세, 합주 역량 성장은 ②악기에 대한 흥미와 연습하고자 하는 의지 ③연주 역량의 점진적 성장으로 변경됨.

<표 IV-46> 2018년(3차)과 2019년(1차)도 참여관찰 분석 결과 비교

체계	범주	2018년(3차) 관찰 결과	2019년(1차) 추가적으로 관찰된 내용
아동의 변화와 성장	인지 및 정서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성과 적극성 - 향상된 집중력 - 자부심과 자신감 - 책임감과 협동심 	-인내심
	음악적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적 지식과 연주 역량 성장 - 음악에 대한 몰입 - 음악을 대하는 주도적 자세 - 합주 역량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과 관련된 배경 지식의 상승 - 악기에 대한 흥미와 연습하고자 하는 의지 - 연주 역량의 점진적 성장
	인적 상호작용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어티칭으로 배우는 상호작용 - 배려와 협동: 파트연습과 합주를 통해 배운 '함께'라는 의식과 배려 - 유대감과 친밀감: - 학년이나 다니는 학교 구분 없이 형성된 아동 간 친밀한 관계 - 유쾌한 농담과 일상적 소통, 위계적이지 않은 교육강사-아동 관계 	
외부 요인	촉진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들의 흥미를 유도하는 선곡과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들의 선호와 의견을 반영한 악기 선정과 음악 선정 - 오케스트라 활동 시작 전 명상과 스트레칭 - 수석제도와 스스로 규칙 정하기, 각종 보상 활동의 병행 - 아동의 흥미 유도를 위해 다양한 동영상 활용한 이론 강좌 실시 - 충분한 휴식시간의 제공과 너그럽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
		다채로운 지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질문과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예시 그리고 시범 - 아동의 나이와 연주 실력별로 차별화된 지도 방식 - 악기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발언과 격려, 칭찬 - 합주 시간에 이루어지는 음악감독과 교육강사의 이중 지도 		
장애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케스트라를 매개로 한 다른 활동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기 함양과 음악을 즐기는 태도 함양에 충실한 교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시간이 짧은 아동들이 느끼는 합주에 대한 부담감 - 협소한 공간과 적은 교육강사의 수로 인한 제한된 상호작용 - 연령대 낮은 교육강사의 거친 교수법으로 인한 아동의 자신감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기의 소중함에 대한 낮은 감수성 - 협소한 공간에서 다른 파트와 공동 연습 - 악기의 부족으로 인해 돌아가며 하는 연주 - 적은 교육강사의 수로 인한 저학년생들의 연습 공백 	

- 인적 상호작용의 영향 측면에서는, 연속지원기관에서 발견된 ①피어티칭으로 배우는 상호 작용, ②배려와 협동, ③유대감과 친밀감이 신규지원기관에서 모두 동일하게 도출되었음. 고학년생들이 저학년생들에게 피어티칭을 하는 모습이 신규기관에서 관찰되었다는 것은 피어티칭이 악기연주의 수준과 관계없이 발견되는 것임을 나타냄. 하지만 관찰 당시 신규기관은 개인별로 기초 교습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아직은 연속지원기관의 2~3년 차 아동들에게서처럼 활발하고 그 방법이 다양하지는 못함.
- 연속지원기관과 신규지원기관에서 공통으로 발견된 촉진요인은 다채로운 지도 방법의 하위 요소로 구분된 ①지속적인 질문과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예시 그리고 시범, ②아동의 나이와 연주 실력별로 차별화된 지도 방식, ③악기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발언과 격려, 칭찬 ④합주 시간에 이루어지는 음악 감독과 교육강사의 이중 지도였음. 이 네 가지 방법이 지원 연수와 상관없이 지원 기관에서 공통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은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을 지도하는 데 있어 교육강사가 갖추어야 할 주요하고 또 필수적인 요소임을 방증하는 것임.
- 한편, 연속지원기관에서 관찰되었던 ‘오케스트라를 매개로 한 다른 활동의 연계’는 신규지원기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음. 반대로 기본기 함양과 음악을 즐기는 태도 함양에 충실한 교습이 관찰되어 연속지원기관과의 지도 방식에서의 차이를 드러냄. 이러한 교육강사들의 지도 방식의 차이를 통해 신규/연속지원기관이 오케스트라 운영에 있어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할 사안을 구분할 수 있음.
- 추가로 신규 B기관에서 아동의 흥미를 유도하고 지속해서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게 하도록 자체적으로 고안한 다양한 활동을 관찰한 결과 발견된 촉진요인은 다섯 가지로, ①아동들의 선호와 의견을 반영한 악기 선정과 음악 선정, ②오케스트라 활동 시작 전 명상과 스트레칭, ③수석제도와 스스로 규칙 정하기, 각종 보상 활동의 병행, ④아동의 흥미 유도를 위해 다양한 동영상 활용한 이론강좌 실시 ⑤충분한 휴식시간의 제공과 너그럽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이었음. 이는 향후 꿈의 오케스트라를 진행할 신규기관에서 처음 악기를 배우는 단원들의 흥미를 지속시키는 방안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연속지원기관에도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음.
- 장애 요인은 신규기관에서 ①악기의 소중함에 대한 낮은 감수성이 추가로 관찰되었으며, 연속지원기관의 저해요인과 유사하게 ②협소한 공간에서 다른 파트와 공동 연습, ③악기의 부족으로 인해 돌아가며 하는 연주, ④적은 교육강사의 수로 인한 저학년들의 연습 공백이 드러남.

V. 결론

1. 요약

2. 제언

V. 결론

1. 요약

1.1 양적 연구 요약

- 꿈의 오케스트라의 참여 효과성의 종단적 분석을 위해 1단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함. 1단계 패널은 2016년도 신규 단원으로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며,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매년 효과성 연구에 참여한 총 64명의 데이터로 구성됨.
- 1단계 패널 아동은 음악적 성장의 모든 구성차원인 음악지식, 음악향유, 음악태도, 음악 활동에서 평가시기에 따른 유의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장세로 나타났고, 2018년과 2019년도에는 성장한 수준이 내재화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2016~2019년간 평가 시기별 음악적 성장의 평균 변화를 살펴보면 음악지식은 3.21점에서 3.87점, 4.05점, 4.18점으로, 음악향유는 3.53점에서 4.07점, 4.14점, 4.21점으로 변화함. 또한 음악태도는 3.42점에서 3.96점, 4.18점, 4.20점, 음악활동은 2.93점에서 3.21점, 3.38점, 3.52점으로 평균값의 변화를 보임.
- 개인 발달 측면에서 1단계 패널 아동의 자존감, 의사소통능력, 미래 전망 수준이 유의한 성장세를 보였음. 연차별 변화의 비교 분석 결과에서는 2016년도에 비해 2017년에 유의한 수준의 향상 수준을 보였으며, 이후 향상된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가 아동의 개인 발달에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개인 발달 측면에서 2016~2019년간 평가 시기별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던 요인들의 평균은, 자존감이 3.45점에서 4.01점, 4.09점, 4.26점으로, 의사소통능력은 3.45점에서 4.09점, 4.21점, 4.20점, 미래전망은 3.54점에서 4.12점, 4.19점, 4.30점으로 평균값의 변화를 보임.
- 1단계 패널 아동의 인적 관계 측면의 효과성 분석 결과 타인 수용도, 타인 배려, 가족 응집력, 협동의 구성차원인 집단 촉진, 팔로워십, 갈등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모두 아동의 유의한 수준의 성장을 확인하였음. 2016년도 1차년도에 비해 2017년도 2차년도에 유의한 차이의 성장세를 보였고, 이는 이후에 아동에게 내재화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V-1〉 양적 연구 아동 패널 분석 결과 요약

(5점 만점 기준)

측정 개념		'16	'17	'18	'19	F	시사점	
음악적 성장	음악지식	3.21	3.87	4.05	4.18	26.53***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해 악보 보기, 악기 구별, 음의 멜로디의 이해 등 음악적 지식이 꾸준히 향상	
	음악향유	3.53	4.07	4.14	4.21	8.04***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오케스트라 활동 및 악기 연주 경험을 통한 음악적 경험이 오케스트라 연습 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일상적 향유로 확대	
	음악태도	3.42	3.96	4.18	4.20	8.19***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즐거움을 배우며 매년 음악을 대하는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화	
	음악활동	2.93	3.21	3.38	3.52	2.38	오케스트라 참여 경험은 음악적 삶의 향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개인적 발달	자존감	3.45	4.01	4.09	4.26	10.48***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과 높은 가치 인식	
	의사소통 능력	3.45	4.09	4.21	4.20	12.52***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단원간의 상호작용 경험이 아동들의 의사소통 능력발달에 기여	
	미래전망	3.54	4.12	4.19	4.30	11.59***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아동들의 긍정적 경험과 내적 발달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	
인적 관계	타인 수용도	3.36	3.95	4.10	4.30	16.99***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타인에 대해 유연하게 생각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 향상	
	타인배려	3.32	3.97	4.05	4.28	13.76***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 배양	
	협동	집단 촉진	3.19	3.95	4.13	4.07	18.49***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집단 활동 경험으로 집단 구성원들 간 원활한 상호작용
		팔로 워십	3.36	3.98	4.26	4.26	15.84***	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과 집단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향상
		갈등문제 해결	3.26	3.93	4.17	4.15	16.64***	
공공적 함의	사회적 신뢰	3.29	3.82	3.91	3.60	8.18***	오케스트라 교육 경험이 주변사람, 학교, 사회, 국가에 대한 신뢰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	
	소속감/유대감	3.48	3.92	4.09	3.73	7.07***	오케스트라 활동이 지역사회 및 준거집단에서의 애착과 소속감 향상에 기여	
	공동체 참여행동	3.22	3.67	3.54	3.51	3.01*	오케스트라 참여 경험이 이웃에 대한 도움과 봉사, 기부, 환경보호 활동 등 공동체 참여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줌	
	사회자본	3.44	4.03	4.36	3.97	11.65***	오케스트라 활동이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관련한 사회자본 형성에 도움이 되었음	

* p<.05, ** p<.01, *** p<.001

- 2016~2019년간 평가 시기별 개인 발달 영역의 평균 변화를 살펴보면 타인 수용은 3.36점에서 3.95점, 4.10점, 4.30점으로, 배려는 3.32점에서 3.97점, 4.15점, 4.28점으로 변화함. 또한 협동의 구성차원별 변화를 살펴보면, 집단축진은 3.19점에서 3.95점, 4.13점, 4.07점, 팔로워십은 3.36점에서 3.98점, 4.26점, 4.26점, 갈등해결은 3.26점에서 3.93점, 4.17점, 4.15점으로 평균값의 변화를 보임.
-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측면의 효과성 분석 결과에서는 사회적 신뢰, 소속감 및 유대감, 공동체 참여 행동과 사회자본에 있어 2016년보다 2017년에 유의한 수준의 향상이 있었고, 2018년도에는 유의하게 향상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은 다소 감소하였음. 앞서 연구결과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2학년까지 매년 사회자본 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서정아, 엄지민 2015)처럼, 본 연구에서는 비교집단이 없어서 명확하게 결론내리기는 어려우나 2019년 사회자본의 유의미한 감소는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단원이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의 학업 중시적인 문화 때문에 주변의 친구나 이웃, 친척들에 대한 관심도가 하락했을 수 있을 것임.
- 2016~2019년간 평가 시기별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영역의 평균은 사회신뢰가 3.29점에서 3.82점, 3.91점, 3.60점으로, 소속감 및 유대감은 3.48점에서 3.92점, 4.19점, 3.73점으로 변화함. 공동체 참여 행동은 3.22점에서 3.67점, 3.54점, 3.51점으로, 사회자본은 3.44점에서 4.03점, 4.36점, 3.98점으로 변화함.
- 횡단 자료를 이용하여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아동들의 참여 연차에 따른 효과성을 집단별로 비교 분석함.
 - 음악적 성장 측면에서 음악지식과 음악향유 측면에서 참여 기간에 따른 성장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보임. 집단별로 음악지식은 1년차 집단보다 2년차 집단에서 유의한 성장 수준을 보였으며, 음악향유는 1년차와 2년차 집단에서 3년차보다 유의한 성장 수준을 보여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가 음악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향유하는 태도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음악적 성장 영역에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던 요인들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인 참여 기간별 평균을 살펴보면, 음악지식은 3.48점, 3.80점, 3.93점, 4.12점, 음악향유는 4.18점, 4.17점, 3.69점, 4.09점으로 집단간 평균 차이를 보임.
 - 개인 발달 영역에서는 1년차 보다 2년차, 3년차, 4년차 참여 집단의 자존감 수준이 높았고, 의사소통능력은 1년차 집단보다 3년차와 4년차 집단 수준이, 미래전망은 1년차 집단보다 2년차와 4년차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여 개인 발달 영역에서의 효과성을 검증함.
 - 개인 발달 영역에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던 요인들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인 참여 기간별 평균을 살펴보면, 자존감은 3.82점, 4.16점, 4.21점, 4.20점, 의사소통능력은 3.78점, 4.00점, 4.21점, 4.12점, 미래전망은 3.85점, 4.38점, 4.17점, 4.25점의 집단간 평균 차이를 나타냄.

- 인적 관계 영역에서 참여 기간에 따른 타인 수용도, 타인 배려, 협동 능력의 차이가 유의하였음. 타인 배려에 있어서는 1년차보다 2년차와 4년차가, 협동의 집단축진은 1년차보다 3년차, 팔로워십은 1년차보다 2년차, 3년차, 4년차가 갈등문제 해결은 1년차보다 3년차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적 관계 영역에서 유의미한 평균 차이를 보였던 요인들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인 참여 기간별 평균을 살펴보면, 타인 수용도는 3.90점, 4.01점, 4.21점, 4.11점, 타인배려는 3.88점, 4.06점, 4.15점, 4.11점의 집단간 평균 차이를 보임. 협동의 구성차원별 집단간 평균 차이는 집단축진은 3.81점, 3.91점, 4.21점, 4.00점, 팔로워십은 3.77점, 4.09점, 4.38점, 4.18점, 갈등문제 해결은 3.80점, 3.99점, 4.21점, 4.07점의 집단간 평균 차이를 보임.
- 따라서 꿈의 오케스트라 단기 참여(1년)보다는 장기적으로 참여한 아동들의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단원 자부심, 참여 적극성, 음악적 권태, 타 음악교육 및 오케스트라 경험, 부모, 동료와 교육강사의 지지와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경험한 공연 성취감은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됨.
- 5점 만점을 기준으로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아동들의 전반적 만족도는 4.26점이며, 프로그램 내용, 교육강사, 환경, 운영기관 및 행정의 요소 만족도에 수준은 4.27~4.43점의 분포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임.
- 교육강사의 참여 아동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는 아동의 음악 지식, 연주 역량과 협동심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에 걸쳐 유의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향상은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있었으며, 향상된 수준이 이후에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16~2019년의 교육강사의 평가 시기별 아동에 대한 평가 점수의 평균 변화를 살펴보면, 음악 지식은 3.75점, 4.16점, 4.11점, 4.25점으로, 연주 역량은 3.69점, 4.07점, 4.03점, 4.22점으로, 협동심은 4.07점, 4.55점, 4.27점, 4.44점으로 변화하였음.

1.2. 질적 연구 결과 요약

- 질적 연구는 꿈의 오케스트라가 아동의 성장과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화의 주체인 아동 이외에도 음악감독 및 교육강사, 행정 코디네이터, 학부모의 증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아동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주요 변화와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적 차이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성적으로 밝히는 것을 주요 목표로 다루었음.
- 질적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총 4개 그룹으로 ①단원(n=25), ②음악감독과 교육강사(n=15), ③참여기관의 코디네이터(n=4), ④참여아동의 보호자(n=13)로 구성되었음. 연구방법은 ①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②개인심층면접(Personal In-depth Interview: 이하 PII), ③참여관찰(Participatory Observation)를 활용하였으며, 자료의 수집은 2019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이루어졌음.
-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은 Carnwath와 Brown(2014)의 문화경험 효과모형을 중심으로 개인의 성장(personal development), 예술경험의 내재화(Imprinted arts experience), 인적 상호작용영향(human interaction), 공공의 의미(communal meaning), 사회경제적 혜택(economic & social benefit)을 기준으로 분석되었으며, 주요한 결과는 <표 V-2>와 같음.

1.2.1 아동 FGI 분석 결과

- 신규단원의 경우 일반가정 아동과 취약가정 아동의 차이는 꿈의 오케스트라의 효과성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의 공통된 효과는 개인적 성장(인지 및 정서 발달)과 음악적 성장(미적경험의 체험)에서 가장 두드러진 발전으로 보고됨.
 -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증언을 할 때 언어사용의 수준이 일반가정 아동이 훨씬 유려한 특징이 있으며,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동기 또한 자발적 의지에 의한 부분이 취약가정 아동보다 훨씬 강하게 드러났다는 점임. 이러한 차이점은 코디네이터 면접조사 결과 동일하게 조사되었음.
 -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아동에게 미치는 변화와 상관없이 우려스러운 점으로는, 일반·취약가정아동 모두 학교폭력 경험에 대해 증언한 아동들이 다수 존재했다는 점임. 이러한 점은 아동의 제언, 코디네이터의 제언에도 동일하게 언급되며, 꿈의 오케스트라 내 전문 교육을 받은 아동상담사가 함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거나, 상주 또는 비상주의 형태로 협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반영함.

<표 V-2> 질적 연구 분석결과: 공통된 의미와 참여자 특성별 요약 비교

범주	공통된 의미	연구참여자 특성별 추가된 의미
개인적 성장: 인지 및 정서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즐거움, 성취감, 정서적 안녕 - 집중력 향상과 자기절제 - 책임감과 자기조절능력 - 꿈을 찾아가기 - 진지한 태도와 차분함 	[1년차 단원] - 악기와 같이 나의 몸 소중히 대하기 [4년차 단원] - 정체성 탐색과 진로선택 [보호자] - 진지한 태도와 차분함 [강사] - 자존감과 발표능력 향상 [코디네이터] - 바르게 행동하기
음악적 성장: 예술경험의 경향 → 내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적 지식 습득 - 음악적 흥미와 관심 증가 - 클래식에 대한 인식 변화 - 합주의 기쁨과 즐거움 체험 - 악기에 대한 애착형성 	[1년차 단원] - 합주에서 실수 시 두려움 [4년차 아동] - 합주에 대한 철학 생성 - 난이도 상향 희망 -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
인적 상호작용: 관계적 역량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십과 자신감 향상 - 배려와 협동 - 소통기술과 사회성 - 사고능력 	[단원 & 보호자] - 가족 간 대화 증가 [보호자 & 교육강사] - 문제해결 능력 향상
공공의 의미: 공동체 적응과 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부심 - 소속감 	[보호자] - 음악교육 기회의 형평성 [강사] -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정 체험 [코디네이터] - 자신을 드러내기, 다름을 이해하기
사회경제적 혜택: 사회자본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에 대한 확장된 관심 - 음악 향유 매체의 다각화 - 음악 향유 장르의 다각화 	[4년차 일반가정 단원] - 미래 음악활동의 구체적 계획 [4년차 단원] -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 [보호자] - 음악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 [강사 & 코디네이터] - 지역사회의 지지와 인정
촉진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식 - 캠프 활동 - 새로운 친구 만들기 - 친구들과 즐겁게 놀기 - 교육강사의 애정과 관심 	[1년차 단원] - 맛있는 간식 [4년차 단원] - 든든한 간식, 협동 공연
장애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병행 - 진학에 인한 학업 부담 - 통학 및 교통 문제 	[4년차 단원 & 코디네이터] - 신입단원으로 인한 하향평준화

- 4년차 단원의 경우 지속이유로 일반과 취약가정의 아동에 있어 차이점이 발견되었음. 일반가정 아동은 전공선택과 개인적 목표달성에 대한 의지를 이유로 답한 반면, 취약가정

아동은 딱히 다른 대안적 선택이 없는 점과 전공선택을 이유로 들었으나 전공을 유지하는 데서 느끼는 두려움, 불안감을 드러냈음. 따라서 재능은 뛰어나나 환경적 제약이 있는 단원에 대한 지원정책이 엘 시스템아 고유의 선순환적 관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신규단원으로서 오케스트라 활동 참여를 통해 아동 스스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일반과 취약가정의 아동 모두 음악적 성장으로 가장 다채로운 테마들이 보고되었으며, 구체적으로 ①음악지식의 향상, ②악기실력의 향상, ③악기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형성, ④합주의 즐거움 알아가기, ⑤합주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부정적), ⑥음악에 대한 관심으로 분류되었음.
- 4년차 단원의 경우 음악적 성장이 단순한 미적경험의 체험이 아닌 미적경험의 내재화로 발전되어 체화됨이 드러났으나, 이들은 신규단원의 지속적 영입으로 인해 하향평준화로 인한 지루함, 악기실력이 더 이상 늘지 않음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함. 미미하긴 하나 신규단원의 경우, 자신의 실수로 인해 합주에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보이기도 함.
- 개인적 성장 또한 신규단원, 4년차 단원, 일반과 취약가정 4개 그룹 모두 공통적으로 ①행복감과 즐거움, ②자신감과 책임감, ③차분함과 마음의 안정, ④시간 지키기와 자기절제능력, ⑤진로와 정체성 탐색으로 분석되었음.
- 공통적으로 개인적 성장과 음악적 성장만큼 강한 테마로 드러나진 않았으나 인적상호작용에 있어 가족 간 대화 증가와 친화력 배려심의 증진이 발견되었으며, 사회경제적 혜택부분에 있어서는 여가로서 음악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실천, 클래식에 대한 인식변화 등이 공통적으로 드러났음. 다만 4년차 일반가정 단원의 경우에는 음악을 전공으로 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미래에 악기를 활용한 자신의 취미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특이점이었음.
- 참여환경에서의 촉진요인은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①맛있고 든든한 간식과 ②캠프 및 친구들과 함께 시간보내기가 공통된 의미였으며, 4년차 단원의 경우, 합주의 즐거움과 새로운 곡에 대한 도전, 그리고 협동 공연을 지목하였음.
- 공통된 장애요인은 ①학업에 대한 부담이었으며, 이외에 ②(기관의 위치에 따른) 접근성 결여, ③신규단원의 유입으로 인한 지속적 하향평준화는 4년차 단원이 가장 불만인 부분으로 드러났음. 특히 마지막 장애요인은 위의 촉진요인에서 언급한 새로운 곡에 대한 도전과 상충되는 부분이기도 함.
- 이들이 제안한 꿈의 오케스트라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①실력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②다양한 악기 체험 증가, ③악기 구성의 확충, ④맛있고 든든한 간식, ⑤연습시간 확보를 개인악기 지원, ⑥연습공간의 개선으로 분석되었음.

1.2.2 코디네이터 개인면접 분석 결과

- 코디네이터 지원동기는 아동교육에 대한 관심과 음악전공자로서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좀 더 활용해 보고자 하는 욕구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코디네이터들이 느끼는 업무상의 가장 큰 부담은 아동교육보다는 ① 아동, 학부모, 진흥원과 기관 관계자, 음악감독과 교육강사 사이에 상이한 관계맺기와 이해관계 구축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외에 ②단원관리와 ③결정권의 부재로 요약되었음.
- 지역적 특수성에서 공통적으로 증언된 내용은 ①(각 지역마다 느끼는) 부족한 인프라, ②취약가정아동의 특징인 지원과다에서 오는 부정적 결과와 상대적 위축감, ③일반가정아동의 상대적 특징인 언어발달과 의지, ④취약가정 보호자의 특징인 더딘 반응(피드백 및 협력), ⑤일반가정 보호자의 특징인 적극성으로 분석되었음.
- 신규기관과 연속기관의 코디네이터 모두 아동의 주요한 변화로 개인적 성장과 음악적 성장을 언급했으며, 구체적으로 개인적 성장의 경우는 ①바르게 행동하기, ②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③자신감과 밝아진 표정, ④꿈을 찾아가는 아이들을 언급하였음. 음악적 성장으로 악기실력의 향상을 가장 주요한 변화로 증언하였음.
- 코디네이터가 관찰한 주요한 아동변화 중 관계적 역량차원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기, 공동체 역량에서는 자신을 드러내기와 서로를 이해하기가, 사회경제적 역량에서는 지역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무대에 서기 등이 언급되었음.
- 촉진요인으로는 맛있는 간식과 친구들과 놀기가, 장애요인으로는 신규단원 영입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한 하향평준화가 주요요인으로 분석되었음.
-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①진흥원의 적극적 교류노력, ②성과평가 방식에 있어 자율성 부여, ③아동에 대한 상담 지원, ④단원의 실력 차를 고려한 시스템 마련, ⑤개인 악기 지원책 마련, ⑥지원가능(취약)가정 기준 확대로 수렴됨.

1.2.3 교육강사 및 음악감독 FGI 분석 결과

- FGI 분석 결과 ①사업 목적에 대한 공감, ②유년시절 오케스트라에 대한 긍정적 경험, ③참여아동들의 좋은 추억과 취미생활 형성에 기여, ④지인의 권유가 본 사업 참여의 주요 동기요인으로 분석됨. 꿈의 오케스트라 홈페이지는 지인의 권유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고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사업에 대한 주요 참여 동기 요인이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목적과 취지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 알 수 있듯이 ①문화자본 형성, ②참여아동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성 발달, ③장기적인 상호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 ④정서적 발달과 성취감이 주요한 교육결과에 대한

기대로 나타남.

-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교육강사들이 지각하는 아동들의 인지 및 정서 발달 요인으로는 ①꿈을 만들어가는 과정, ②자신감 신장, ③자존감과 발표능력 향상, ④행동과 태도의 성숙, ⑤집중력과 성실함, ⑥책임감의 주요 요인이 도출됨. 교육강사들이 본 사업 참여를 통한 아동들의 성장을 음악적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들과 인지 및 정서 발달과 관련한 아동들의 성장 측면에서 잘 관찰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강사들이 본 사업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연구 대상 참여 기관에서 사업의 목적이 잘 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됨.
-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아동의 음악적 성장과 관련해 아동의 예술의 내재화 경험의 주요 내용은 ①음악 지식과 연주 역량 성장, ②음악합주활동에 대한 애착심, ③도전의식과 성취감, ④열정과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⑤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해 음악에 대한 즐거움 경험으로 나타났음. 교육강사들이 관찰한 아동들의 음악적 성장은 지식 습득을 넘어 스스로 학습하고 즐거움을 체험하는 내재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남. 학원의 경우 대회에 나가야 한다는 목적이 뚜렷하여 입상과 같은 결과에 대한 부담감으로 기량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는 반면, 꿈의 오케스트라는 음악교육과 함께 참여 아동에 대한 관심과 인성 교육, 그리고 음악을 경험하는 과정 그 자체를 중요하게 본다는 점이 차별성으로 언급됨.
- 아동의 인적상호관계와 관련한 관계적 역량은 ①긍정적 태도, ②사교성 향상, ③소통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 ④협동과 협력, ⑤강사와 신뢰 및 애착관계 형성, ⑥리더십 향상으로 나타남. 아동들이 오케스트라 초반에는 서로 충돌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이 빈번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목격되었음.
- 교육강사가 인지한 아동의 변화와 성장 중 공공의 의미는 ①언어순화, ②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정 체험인 것으로 나타났음. 합주 활동을 하면서 정제된 언어생활과 같이 공동체 생활에서 요구되는 규범을 습득하고 더 나아가 민주시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도 경험하는 것으로 관찰됨.
- 본 사업 참여는 교육자와 학습자 간의 연대감 형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지와 인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참여 학생들이 부모가나 가족이 아닌 교육강사로부터 받는 지지와 관심, 사랑은 그들의 성장과정과 참여하는 음악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관점에서 세부 효과 요인으로는 ①지역사회의 지지와 인정, ②강사로서의 성장, ③음악에 대한 즐거운 경험 제공이 도출됨.
- 아동들의 오케스트라의 지속적 참여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는 ①유대감, ②음악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 ③간식의 중요성, ④방과 후 여가활동의 기회, ⑤합주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이 지속적 참여에 도움이 되는 요인을 밝혀짐.

- 본 사업의 지속적 참여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인으로 ①고학년/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업의 부담, ②통학거리와 차편이 지속적 참여에 방해되는 요인으로 나타남. 4년차에 접어든 프로그램에서는 참여 아동의 고학년 및 중학교 진학에 따라 참여자 탈락이 나타나고 특히 학부모의 결정 사항에 따라 이 같은 중도 탈락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됨. 공통적으로 교통편이 지속적 참여저해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는 제한된 차량운행 예산과 통학 거리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교육강사와 음악감독이 제안한 본 사업의 주요 개선방안은 ①진로를 결정한 아동에 대한 전문적 교육 지원, ②장기적인 관찰과 조사를 통해 지원체계 마련, ③진흥원 연수 프로그램 개선, ④예산 책정, ⑤강사의 충원, ⑥참여 아동의 연령 재고, ⑦양질의 악보 공급과 아카이빙 등으로 제시됨. 4년차에 접어든 경우 악기를 전공으로 선택하는 아동들이 늘어감에 따라, 꿈의 오케스트라 이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에 대해 교육강사들의 고민이 늘어가는 것으로 확인됨.

1.2.4 보호자 FGI 분석 결과

- 보호자의 FGI 결과 본 사업에 참여한 동기로는 ①음악교육 비용 절감, ②학교 안내/홍보 물을 통해, ③자녀의 자신감 향상, ④보호자의 관심과 욕구 투영, ⑤지역아동센터장의 집 단적 참여 추진으로 지원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음.
- 기대효과는 크게 ①자녀의 취미 활동 생성 및 확대, ②자녀의 끈기와 인내심 신장, ③정서 적 안정, ④전인적 성장으로 나타남.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아이들을 전문적인 음 악가로 육성하거나 음악 자체에 대한 기대효과를 갖는 부모님보다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 장과 정서 함양에 더욱 목적을 두고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기대효과는 일반 과 취약계층의 가정 구분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특징으로 나타남.
- 보호자 FGI를 통해 나타난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아동의 변화와 성장 요인은 인지와 정 서 발달 측면에서 규명됨. 세부적으로 ①꿈을 발견 또는 찾아가는 과정 경험, ② 자신감 및 자부심 신장, ③책임감 신장, ④자발적 노력의 태도, 적극성, 독립성 체득, ⑤진지한 태 도와 차분함, ⑥마음의 안정과 여유 요인들이 아동의 인지와 정서적 측면의 발달 요인으 로 요약됨. 특히 프로그램 4년째 참여 중인 아동들의 경우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을 발견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하며 흥미를 발견하고, 스스로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는 아동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보호자 FGI 분석 결과 본 사업 참여 이후 음악적 성장 측면에서 아동의 변화가 관찰되었 음. 음악적 성장 측면에서 아동 변화는 ①음악적 지식과 연주 실력의 향상, ②다양한 악 기에 대한 호기심 증대, ③음악의 일상화, ④가족 및 동료 단원에 지식전달, ⑤음악에 대 한 태도 변화와 관심 증가가 세부요인으로 도출됨. 참여 아동들의 음악적 지식이 많아지

면서 가정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자신이 배운 지식 정보와 내용을 일상에서 이야기하고, 집에 있는 장난감이나 물건을 활용하여 연주 ‘놀이’ 또는 재현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관찰됨.

- 아동의 인적 상호작용에서 관계적 역량의 경우, 오케스트라 단원 간 ①경쟁 대신 함께 어울림을 통한 사회화, 사회성 발달 ②타인과의 갈등 및 문제해결 능력 습득, ③협력과 상호 격려와 배려, ④가족 간 유대 강화 요인이 나타남. 참여기관이 1년차와 4년차인 사업 참여자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참여 아동 간 유대관계 형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아동들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한 변화를 공공의 의미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①함께 하는 즐거움 체득, ②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 ③음악교육 기회의 형평성의 요인이 도출됨. 공공의 의미와 관련하여 아이들의 공동체 생활을 통한 즐거움을 발견하고, 자신이 속한 오케스트라의 성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느끼는 자부심 등이 관찰되었음.
- 꿈의 오케스트라의 사회경제적 효과 관점에서 본 사업 참여는 가족 문화가 확장되고 변화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FGI 분석 결과 나타남. 세부적으로는 ①음악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 ②교육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즐거움의 중요성 인지, ③자녀에 대한 기대감과 지지, ④가족들의 문화 향유 및 참여활동 증가, ⑤가족 간 대화 증가, ⑥가족/친지를 위한 자발적 연주, ⑦자녀의 성장과정에 대한 관찰과 이해 기회, ⑧꿈을 찾아가는 자녀를 보는 안도감, ⑨문화 다양성 인지 기회의 주요 효과 요인으로 분석되었음. 면접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학부모 및 보호자에 따르면 꿈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음악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으로 나타남.
- 보호자 FGI 결과에서 나타난 아동들의 지속적 참여에 도움이 되는 촉진요인으로는 ①캠프 활동, ②환경의 안정성, ③즐거움 학습 환경, ④강사 및 음악감독에 대한 신뢰감 및 유대관계가 지속적 참여의 세부 요인으로 분석됨. 4년차에 접어든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의 경우, 캠프 활동을 통해 음악적 실력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 가운데 재미를 발견하는 것이 확인되었음.
- 보호자들이 인지하는 오케스트라의 지속적 참여가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는 ①고학년/중학교 진급에 따른 참여의 어려움, ②통학 교통 문제, ③자녀의 육체적 피로감으로 나타났음. 1년차 사업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4년차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아동들이 고학년으로 진학할수록 중도 탈락의 사례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학부모가 제안한 본 사업의 주요 개선방안은 ①음악적 성장을 위한 추가 지원, ②자녀의 음악적 성장 관련 내용 안내, ③지속적인 연습을 위한 지원, ④차량운행, ⑤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단원 선발, ⑥학습속도가 느린 학생에 대한 교육강사의 태도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음. 4년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의 보호자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제기된 부분은 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해 음악가의 꿈을 갖게 된 아동들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이었음. 또한 국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아동의 활동에

대한 소식을 주기적으로 받아오던 것에 익숙한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내를 받길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많았음.

1.2.5 기관 참여관찰 분석결과

- 인지 및 정서 발달 측면에서 ①자발성과 적극성, ②향상된 집중력, ③자부심과 자신감, ④ 책임감과 협동심 ⑤인내심이 관찰되었음.
 - ①~④는 연속지원기관과 신규지원기관에서 공통으로 도출되었으며, 신규지원 기관의 단원들이 악기를 처음 배우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연습을 지속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음.
- 음악적 성장 측면에서는 ①음악과 관련된 배경 지식의 상승, ②악기에 대한 흥미와 연습하고자 하는 의지 ③연주 역량의 점진적 성장이 관찰됨.
 - 이는 오케스트라 활동 초기에는 연주 역량의 성장보다는 게이름, 악보 읽기, 파트별 악기의 특성, 저명한 음악가 등 기초 음악적 배경 지식을 획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지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임.
 - 전반적으로 처음 악기를 배정받고 연주를 하는 것을 신기해하는 단계를 지나야 연습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형성되기 시작하며, 곡에 대한 선호가 생기는 것으로 파악됨.
- 인적 상호작용의 영향 측면에서는 ①피어티칭으로 배우는 상호작용, ②배려와 협동, ③유대감과 친밀감이 관찰되었음.
 - 이는 연속지원기관에서 발견된 상호작용의 영향과 동일함. 하지만 관찰 당시 신규기관은 개인별로 기초 교습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아직은 연속지원기관의 2~3년차 아동들에게서처럼 피어티칭이 활발하고 그 방법이 다양하지는 못함.
 - 한편 고학년들이 저학년생에게 피어티칭을 하는 모습이 신규기관에서 관찰되었다는 것은 피어티칭이 아동들의 연주 수준과 관계없이 발현되는 것임을 나타냄.
- 연속지원기관과 신규지원기관에서 공통으로 발견된 촉진요인은, 다채로운 지도 방법의 하위 요소로 구분된 ①지속적인 질문과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예시 그리고 시범, ②아동의 나이와 연주 실력별로 차별화된 지도 방식, ③악기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발언과 격려, 칭찬 ④합주 시간에 이루어지는 음악 감독과 교육강사의 이중 지도였음. 추가적으로 신규기관에서 ⑤기본기 함양과 음악을 즐기는 태도 함양에 충실한 교습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언급한 네 가지 지도 방법이 지원 연수와 상관없이 공통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은,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을 지도하는데 있어 교육강사가 갖추어야 할 주요하고 또 필수적인 요소임을 방증하는 것임.
 - 한편, 연속지원기관에서 관찰되었던 ‘오케스트라를 매개로 한 다른 활동의 연계’는 신규

지원기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반대로 기본기 함양과 음악을 즐기는 태도 함양에 충실한 교습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신규와 연속지원기관과의 지도 방식의 차이를 드러냄.

- 이러한 차이를 통해 신규/연속지원기관이 오케스트라 운영에 있어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할 사안을 구분할 수 있음.
- 이밖에 신규 B기관에서 발견된 촉진요인은 다섯 가지로 ①아동들의 선호와 의견을 반영한 악기 선정과 음악 선정, ②오케스트라 활동 시작 전 명상과 스트레칭, ③수석제도와 스스로 규칙 정하기, 각종 보상 활동의 병행, ④아동의 흥미 유도를 위해 다양한 동영상 활용한 이론강좌 실시, ⑤충분한 휴식시간의 제공과 너그럽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이었음.
- 이는 모두 아동의 흥미를 유도하고 지속해서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게 하도록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고안한 활동으로, 향후 꿈의 오케스트라를 진행할 신규기관에서 처음 악기를 배우는 단원들의 흥미를 지속시키는 방안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연속지원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음.
- 장애 요인은 신규기관에서 ①악기의 소중함에 대한 낮은 감수성이 추가로 관찰되었으며, 연속지원기관 관찰을 통해 도출된 것과 유사하게 ②협소한 공간에서 다른 파트와 공동 연습, ③악기의 부족으로 인해 돌아가며 하는 연주, ④적은 교육강사의 수로 인한 저학년들의 연습 공백이 드러남.

<그림 V-1> 질적 연구를 통해 발견된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청소년의 주요 변화



2. 제언

-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 제언 및 의의는 다음과 같음.

2.1. 꿈의 오케스트라 활성화에 대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역할

2.1.1 꿈의 오케스트라 장기 지원과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 연구의 필요성

-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에 대한 1단계 패널 분석 결과, 아동들의 음악적 성장, 개인 발달, 인적 관계,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영역의 효과성은 참여 1년차와 2년차에 성장을 하며 이러한 성장세는 3년차, 4년차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또한 2019년 횡단자료에서도 단기적 참여(1년차) 단위보다는 장기적 참여 단위의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효과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음.

- 이는 꿈의 오케스트라의 4년차 이상의 중장기적 지원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결과로 중단기적 지원이 아동들의 발달 수준을 내재화시키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
- 2019년 영국예술위원회(ACE: Arts Council England)와 몽포트대학(DMU: De Montfor University)은 문화예술 경험이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영유아부터 25년간 추적 관찰하는 ‘텔런트 25 프로젝트’를 시작함. 이 프로젝트는 영국 레스터지역에서 2019~2021년에 태어나는 영유아를 연간 100명씩 패널로 구축하여 이들의 성장을 25년간 추적 관찰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노출이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영국 전역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 영국의 ‘텔런트 25 프로젝트’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과 관찰의 중요성과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의미 있는 사례임. 따라서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의 연차별 효과의 변화 패턴을 고려할 때, 본 사업에 대한 지원과 효과성 검증 역시 보다 장기적인 종단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2.1.2 연수과정 관계자 대상 연수 및 워크숍의 효과적 진행방향 검토

○ 각 기관의 관계자 연수 과정이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재 제공되는 워크숍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함께 관찰되었으나 지역별 거리 편차가 많은 가운데 연수 일정의 스케줄, 횟수 그리고 무엇보다 네트워킹이 보다 실효성 있게 실행되어야 한다는 개선 내용이 드러남.

○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들의 긍정적 변화는 오케스트라라는 음악 교육의 효과이기도 하지만, 꿈의 오케스트라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의 간접 결과 효과를 간과하기는 어려움. 아동에게 영향력을 주는 교육강사와 행정가들에 대한 꿈의 오케스트라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연수과정을 지원하고 있음.

○ 연수과정이 해를 거듭할수록 질적 부분의 향상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향후 악기별, 연차별 연수 등을 고려하고, 보다 공유하고 서로 묻고 답할 수 있는 내용이 풍성한 교류의 현장을 만들어 향후 상호협력이 가능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1.3 거점 기관과의 적극적 상호연계관계 구축

○ 교육인력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 분석결과, 거점관계자들은 타 거점 교육강사와의 교류 뿐 아니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도 보다 긴밀한 관계구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관 관계자 사이에 논의된 내용에 대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피드백이나 입장, 향후 정책 방향 등이 함께 공유된다면, 이는 관계자의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부심과 주인의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거점기관과의 적극적 상호연계관계 구축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의 적극적 소통은 꿈의 오케스트라의 운영과 발전에 있어 주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사료됨.

2.1.4 기관 별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자율성 부여

- 아동들의 오케스트라의 지속적 참여에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는 ①강사의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 ②맛있고 든든한 간식, ③캠프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인한 친구와의 시간, ④협동 공연 등이 있었음.
- 특히 신규기관 중 한 곳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명상과 스트레칭, 영상을 활용한 이론 강좌, 일기쓰기, 스티커 제공 등의 각종 보상 활동 등은 오케스트라 활동 초기 신규단원들이 연주에 흥미를 잃지 않고 오케스트라 활동에 몰입하도록 도우며, 이 과정에서 음악적 지식의 향상은 물론 유대감과 친밀감, 상호작용 등이 촉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아동들의 지속적 참여에 도움이 되는 요인에 대한 아동의 건의를 적극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은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 각 기관별 단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고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와 운영방식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함.

2.1.5 이탈 원인 분석을 통한 단원 유지를 제고 방안 마련

- 꿈의 오케스트라 이탈 단원을 대상으로 한 이탈 원인 분석 결과, 단원의 내부적 요인보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이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상급 학년 진학에 따른 학교 및 방과 후 일정 변화로 연습 시간이 맞지 않거나, 주거지의 이사 등과 같은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이탈 요인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됨.

- 단원의 상급 학년 진급에 따른 학교 및 방과 후 일정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 또는 주거지 이전 시 타 지역 거점 기관으로 연계되어 참여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등과 같이 주요 외적 이탈 요인에 대한 관리를 통해 단원의 지속적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2.1.6 꿈의 오케스트라의 사회적 가치의 공유와 확산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효과성은 개인 발달과 인적 관계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 소속감 및 유대감, 공동체 참여 행동과 사회자본을 포괄하는 공공적 함의 및 사회경제적 혜택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됨. 이는 꿈의 오케스트라가 문화예술을 통한 건강한 사회적 통합과 성장의 추구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됨.

○ 꿈의 오케스트라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인 참여 아동, 보호자, 교육강사, 행정 주체와 교육주체, 지역사회와 함께 꿈의 오케스트라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며, 나아가 상호 소통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임.

2.1.7 제공되는 교재 및 악보의 개선

○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제공되는 악보의 경우 편곡이 일부 잘못되어 있어 연주에 어려움을 주는 곡들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거점별로 제공받은 악보를 음악감독의 재량에 따라 직접 편곡하여 악보를 활용하거나, 교육강사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악보를 구하는 실정임.

○ 원곡 악보의 아카이빙과 공유를 통해 기량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됨. 원곡 악보가 제기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음악 감독 또는 파트별 편곡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원곡이 아닌 악보가 제공되는 경우 사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는 결국 음악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남게 됨.

2.2. 꿈의 오케스트라 활성화를 위한 거점 기관의 역할

2.2.1 교육 프로그램 차원

2.2.1.1 공연을 통한 성취감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운영 방식 모색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를 통해 경험한 공연을 통해 무대에서 서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 경험한 성취감은 아동의 음악적 성장, 개인 발달, 인적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아동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의미 있는 영향 요인으로 규명됨.

○ 아동들에게 다양한 무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공연의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강화하는 운영 방식의 모색은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의 효과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임.

○ 특히 공연의 기획과 운영은 연주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이나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닌 참여 단원들의 음악적 경험을 공유하고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됨.

2.2.1.2 신규 단원을 대상으로 한 입문교육 강화

○ 기존과 비교하여 신규 아동에게서만 관찰된 특징은 악기의 소중함에 대한 낮은 감수성이었음. 악기를 바닥에 놓거나 세계 활을 켜는 모습들은 오케스트라 활동을 지속해 온 단원들에게선 관찰되지 않았던 모습임.

○ 관찰 대상이었던 신규지원기관에서는 악기 예절교육을 오케스트라 활동 초기에 14회로 구성된 입문교육을 ‘내 몸이 악기가 되어’라는 주제로 시행한 바 있음.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신규아동들의 ‘악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악기를 다루는 태도는 아동이 자신의 악기와 연주에 대한 책임감,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을 가늠할 수 있는 가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음. 나아가 자신의 연주와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애착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규운영기관 포함 연속지원 기관 모두 신규단원을 대상으로 한 입문교육의 강화 방안을 제안함.

○ 다만 입문교육은 지나친 이론 위주의 교육이 아닌 악기연주와 음악에 대한 사전 노

출 기간으로, 악기와 음악에 호기심과 친근함을 쌓을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임. 기대효과로 악기에 대한 애착 및 책임감을 길러줄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 선 단원의 부주의로 인한 악기의 고장을 예방하고 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2.1.3 단원의 입단 시기 별 실력차이를 고려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 전술한 제언과 맥락을 같이하여, 4년차 단원의 경우 꿈의 오케스트라를 그만두고 실력향상을 위해 음악학원에 다니거나 개인레슨을 받는 것을 고려 할 만큼 이들이 느끼는 음악적 갈증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특히 4년차의 경우 대부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사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 개인적인 노력과 교통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참석을 지속하고 있었음.

-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급 단원을 위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을 고안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됨. 이들은 누구보다 꿈의 오케스트라를 대표하는 단원들로서 꿈의 오케스트라가 키운 인재이며 자산이기도 함. 매일 하던 쉬운 악보만 가지고 합주하는 것에 지루함을 느끼는 단원들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단원의 입단 시기 별 실력차이를 고려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됨. 또한 상급단원을 위한 음악감독과 교육강사의 관심 및 지도가 함께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2.2.1.4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 후속 지원 가능 방안 검토

- 사업을 4년 이상 운영하는 거점기관에서 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해 악기를 전공하기로 결심한 학생들이 나타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됨. 사업의 특성 상, 프로그램 참여 아동 중 취약계층 아동들이 다수인 가운데 개인적으로 악기를 전공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참여자가 적지 않음.
-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에서 보유한 인력, 공간 등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제안되었음.

- 음악 전공 진학을 위한 정보에 보호자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해 진로를 발견하게 된 아동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후속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 기관과 관련된 지역 단체 및 기관과 협력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영재 아카데미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전문 고등교육기관인 한국종합예술학교 소속 교육자에게 레슨을 맡기는 부분은 해당 교수의 기존 업무량 및 지역 거점의 경우 통학거리 등을 고려할 때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다만 이에 대하여 사교육 지원으로 비취질 수 있는 사항과 후속 지원 대상 아동의 선별 기준 등에 대한 내용 등 공공 지원의 영역과 지원 타당성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2.2.2 교육 환경 차원

2.2.2.1 연습공간과 교육환경의 개선

-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의 효과를 저해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일부거점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서 다른 파트 악기와 공동연습이 빈번히 언급되었음. 연습공간이 협소하여 운신의 폭이 좁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다른 악기와 파트 연습을 한 공간에서 진행할 시 꼽히는 문제점은 아동들이 정확한 음계를 듣지 못한다는 점에 있음. 연주 초창기에는 정확한 음정을 듣고 내는 게 기본기 습득에 있어 매우 중요하나, 한 공간 내 다른 파트와의 공동 연습은 정확한 음계 및 박자, 셈여림 등의 기술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연습공간의 확충과 공간 간 방음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와 더불어 악기 구성의 확충과 함께 구입한 악기의 질적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도출되었음. 대부분 현악기의 경우 오케스트라 구성에 맞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나, 관악기의 경우 클라리넷, 플룻, 호른 정도로 오보에, 바순, 트롬본, 트럼펫 등 다양한 악기의 구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이러한 악기 구성의 한계는 예산과 더불어 관리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나 매년 편곡을 통해 대안을 찾기 보다는 필요시 객원 연주자를 고용하는 등의 대안 마련을 통해 오케스트라가 가진 음악 고유의 미적체험을 단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2.2.3 교육 인력 차원

2.2.3.1 파트별 균형을 고려한 교육강사의 확충

- 아동의 증언에 따르면 가장 강력한 촉진요인 중 하나는 교육강사의 애정과 관심이었음. 이러한 결과와 함께 진지하게 고려해볼 제언으로 파트별 균형을 고려한 교육강사의 확충이 있음. 이는 인터뷰 시 파트별 인원이 많은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맡고 있는 단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1:1레슨 시간의 절대적 부족과 함께 실력향상에 있어 정체된 느낌을 가지고 있는 4년차 단원에게 특히 요구되는 사항이었음.
- 특히 4년차 단원의 경우, 이미 상당한 실력을 연마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신규단원의 입단으로 인해 파트별 연습 시에도 교육강사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신규단원을 가르치는 업무만 계속해야 하는 과정에 있어 지루함과 함께 몰입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언이 공통적으로 수집된 바 있음.

○ 상대적으로 파트 별 담당이 적은 관악기와 타악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을 유동적으로 교육강사 역량에 따라 해결할 수 있으나, 한 교육강사가 담당해야 할 단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바이올린, 첼로의 경우에는 교육강사를 추가적으로 확충하여 이에 대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2.4 관계적 차원

2.2.4.1 전문 아동상담가와 협업을 통한 아동 상담지원 시스템 구축

-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이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상관없이 우려스러운 점으로는, 일반·취약가정아동 모두 학교폭력 경험에 대해 증언한 아동들이 다수 존재했다는 점임. 이러한 점은 아동의 제언, 코디네이터의 제언에도 동일하게 언급되며, 꿈의 오케스트라 내 전문교육을 받은 아동상담사가 함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거나, 상주 또는 비상주의 형태로 협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꿈의 오케스트라 모델의 모체인 엘 시스템아가 전문음악인 양성이 목적이 아닌 전인적 교육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에 주안을 두고 있다는 점에 있어, 한국형 모델인 꿈의 오케스트라가 단순 음악교육만을 목적으로 존재한다면 그 차별성을 어필하기에

는 제약이 따름. 한국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겪는 문제를 음악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겪는 현실의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상담지원 시스템 구축이 적극 필요해 보임.

2.2.4.2 음악감독-교육강사-단원의 소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단원들이 파트별 수석을 선정하는 수석제의 운영과 선정된 수석들이 모여 진행하는 수석회의의 가장 큰 효용은 음악감독-강사-단원 간 소통 체계의 구축이라는 점에 있음. 오케스트라 초기 단원들은 교육강사 의존도가 매우 높기에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 수석제도를 운용하여 단원들이 교육강사와 지휘자, 기관에 자신들의 자율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불만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점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의존도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아가 단원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오케스트라 운영에 반영한다면, 단원에게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험을 제공하여 아동의 책임감과 적극성을 함양시킬 수 있으며, 기관의 효과적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꿈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각각의 기관별로 단원의 특성과 기관의 맥락을 반영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자체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네트워크나 연례회의 시 서로 사례를 공유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2.4.3 보호자와의 소통방안 마련

○ 꿈의 오케스트라에 아동을 참여시키는 보호자 대부분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아동들의 활동과 생활에 대한 일정한 내용 전달을 받던 것에 익숙하여,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동시에 해당 사업의 성격이나 목적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사업 담당자 및 교육강사의 업무량에 대한 이해와 교육과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쉽게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보호자에게 자녀의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내용 안내와 행정 담당자 또는 교육강사와 보호자 간의 소통 및 관계 형성은 각 거점별로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여전히 상호 의견 및 정보 교류의 통로가 마련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소통의 주요한 컨택 포인트는 꿈의 오케스트라 코디네이터로서 코디네이터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과 함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V-3〉 꿈의 오케스트라 활성화를 위한 제언

구분	제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할	꿈의 오케스트라 장기 지원과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 연구의 필요성
	연수과정 관계자 대상 연수 및 워크숍의 효과적 진행방향 검토
	거점 기관과의 적극적 상호연계관계 구축
	기관 별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자율성 부여
	이탈 원인 분석을 통한 단원 유지를 제고 방안 마련
	꿈의 오케스트라의 사회적 가치의 공유와 확산
	제공되는 교재 및 악보의 개선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의 역할	[교육 프로그램 차원]
	공연을 통한 성취감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운영 방식 모색
	신규 단원을 대상으로 한 입문교육 강화
	단원의 입단 시기 별 실력차이를 고려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 아동 후속 지원 가능 방안 검토
	[교육 환경 차원]
	연습공간과 교육 환경의 개선
	[교육 인력 차원]
	파트별 균형을 고려한 교육강사 확충
	[관계적 차원]
	전문 아동상담가와 협업을 통한 아동 상담지원 시스템 구축
	음악감독-교육강사-단원의 소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보호자 소통방안 마련

참고문헌

- 김경태, 최동연, 이보림, 윤성원 (2017). 꿈의 오케스트라 평가 내용 및 방법 개선. 음악교육공학, 30(30), 117-142.
- 김미곤, 염주희, 최현수, 정희선, 김성아, 김은빈, 권지성, 이은미, 장선옥, 조준용, 하경희, 이현주 (2012).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봉년, 박수빈, 홍순범, 신민섭, 김기현, 백령, 정연경, 송현복, (2013). 2013년 융합적 접근을 통한 문화 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김양분, 박경호, 남궁지영, 최인희 (2016). 2016 한국교육총단연구 한국교육총단연구 2005: 고교 이후 초기 성인기의 생활과 성과 III.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원, 강구섭, 김지수, 김성식, 조정아, 최유림 (2016).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총단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남지영(2012).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이 초등학생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음악교육연구, 41(3), 109-134.
- 도남희, 배윤진, 이예진, 이윤진, 김문정, 임준범, 김희수 (2017).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7. 육아정책연구소.
- 미곤, 염주희, 정희선, 최준영, 권지성, 이은미, 정선옥, 정혜숙, 조준용, 이현주 (2013).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3차) - 취약계층의 삶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신의, 백령, 신승빈, 김태항(2012).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 평가 2차 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백령, 박신의, 김성혜, 전수환 (2014).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성 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백선영 (2019). 꿈의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단원의 경험과 이에 따른 변화 탐색, 음악교육연구, 48(3), 73-102.
- 서정아, 엄지민 (2015).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98.
- 성도의, 김세준 (2012).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예술경영 연구, 23, 92-114.
- 성지경 (2015). 오케스트라활동 참여 동기가 청소년정서와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 엘 시스템아(El Sistema) 「꿈의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경주, 정재심, 김윤경, 정혜선 (2008). 생리적 지표를 이용한 불안과 우울 측정에 대한 고찰. 기초간호사 연구학회지, 10(2), 184-193.
- 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박주희 (20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우정민 (2008). 부정적 정서 자극에 대한 타액 알파-아밀라제의 반응 특성. 경북대학교 의학석사학위논문.
- 유한구, 민숙원, 류지영, 신동준, 이은혜, 이의규, 정태화 (2017).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강주, 한만길, 이향규, 김운영 (2012).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 연구(III). 한국교육개발원.
- 이신영 (2013). '꿈의 오케스트라(El Sistema Korea)'가 학생의 사회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학생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창호 (2013).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질적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영식, 김인설, 양윤정, 임승희, 정경은, 조영미(2018).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임영식, 유제민, 정경은, 김운나, 양돈규 (2012). 2011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교정시설/소년원학교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임영식, 정경은, 김인설, 조영미 (2014). 2014 소년원학교 대상 문화예술교육 효과분석 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전수환, 조은아, 서지혜, 신소영(2015). 2015 꿈의 오케스트라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정익중, 조은아, 안은미 (2011). 꿈의 오케스트라 학습영향평가 모델 개발 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최도인, 이성민, 류찬, 광동근 (2014).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 효과성 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최종희 (2016). 꿈의 오케스트라의 운영 및 실태조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현수, 정혜숙, 권지성, 이은미, 정선옥, 조준용, 하경희, 유진영, 정희선, 고지영 (201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하형석, 정은진, 최승주, 구본호 (201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VIII: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1). 2011 '꿈의 오케스트라' 학습영향평가 모델 개발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홍기원 (2014).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효과평가에 대한 탐색적 연구-오케스트라교육사업의 효과와 정책적 함의. 예술경영연구, 30, 35-59.
- 홍용희 (1998).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교육과학연구, 28, 113-129.
- Austin, J. R., & Berg, M. H. (2006). Exploring music practice among sixth-grade band and orchestra students. *Psychology of Music*, 34(4), 535-558.
- Burns, S. (2019). In harmony Liverpool: 2009-2019 reflections on 10 years of learning. Liverpool Philharmonic.
- Carnwath, J. D. & Brown, A. S.(2014). Understanding the Value and Impacts of Cultural Experiences, A Literature Review, Arts Council England.
- Carnwath, J. D., & Brown, A. S. (2014). Understanding the value and impacts of cultural experiences. Manchester, United Kingdom: Arts Council England.
- Darrow, A. A., Novak, J., Swedberg, O., Horton, M., & Rice, B. (2009).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a Music Mentorship Program on the self esteem and attitudes of at-risk students. *Australian Journal of Music Education*, 2, 5-16.

- Fasano, M. C., Semeraro, C., Cassibba, R., Kringelbach, M. L., Monacis, L., de Palo, V., & Brattico, E. (2019). Short-term orchestral music training modulates hyperactivity and inhibitory control in school-age children: a longitudinal behavioural study. *Frontiers in psychology*, 10, 750.
- Giorgi, A. P., & Giorgi, B. (2008). Phenomenological psychology.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165-179.
- Habibi, A., Damasio, A., Ilari, B., Elliott Sachs, M., & Damasio, H. (2018). Music training and child development: A review of recent findings from a longitudinal study.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423(1), 73-81.
- Hickey, M. (2018). "We all Come Together to Learn About Music": A Qualitative Analysis of a 5-Year Music Program in a Juvenile Detention Fac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2(13), 4046-4066.
- Intolubbe-chmil, Daniel, "The Effect of Music Particip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2015). Undergraduate Honors Theses. Paper 772.
- Lincoln, Y. S. & Guba, E. G.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163-194), 105.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Moore, K. & Hakins, C. (2019). Evaluating Sistema-Scotland: Big Noies Torry: Initial finding report. Glasgow Centre for Population Health.
- Morse, J. M., & Field, P. A. (1995). *Nursing research: The application of qualitative approaches*. Cheltenham, Great Britain: Nelson Thornes.
- Osborne, M. S., McPherson, G. E., Faulkner, R., Davidson, J. W., & Barrett, M. S. (2015). Exploring the academic and psychosocial impact of El Sistema-inspired music programs within two low socio-economic schools. *Music Education Research*, 1-20.
- Saldaña, J. (2015).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Sage.
- Rabinowitch, T. C., Cross, I., & Burnard, P. (2013). Long-term musical group interac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empathy in children. *Psychology of Music*, 41(4), 484-498.
- Rickard, N. S., Vasquez, J. T., Murphy, F., Gill, A., & Toukhsati, S. R. (2010). Benefits of a classroom based instrumental music program on verbal memory of primary school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Australian Journal of Music Education*, 1, 36-47.
- Welch L, Lewitter F, Schwartz R, Brooksbank C, Radivojac P, Gaeta B, et al. (2014). Bioinformatics Curriculum Guidelines: Toward a Definition of Core Competencies. *PLoS Comput Biol* 10(3): e1003496. doi:10.1371/journal.pcbi.1003496

부록

1.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아동용) 설문지
2.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보호자용) 설문지
3.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교육강사: 아동평가용) 설문지
4.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교육강사) 설문지

ID			
----	--	--	--

기관			
----	--	--	--

(기입하지 마세요)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아동용)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설문조사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앞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의 발전과 더 좋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작성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호되오니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

조사발주기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사기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PART A. 음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강약표시(피아노, 메조포르테, 포르테 등)와 도돌이표 등 악보에 표기된 기호의 의미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악보를 보고 표시된 박자, 리듬, 음에 따라 악기를 연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악보에 있는 음표의 길이를 구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악보를 잘 읽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빠르기 말(아다지오, 안단테, 모데라토, 알레그로)의 뜻을 알고 있으며 빠르기 순으로 나열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같은 음이라 하더라도 소리를 듣고 악기를 구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의 주요 멜로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B. 여러분의 음악에 대한 생각과 활동 관련 질문입니다. 본인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오케스트라에서 악기를 배우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오케스트라에서 합주를 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악기를 연주할 때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음악(악기) 연습하는 것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5. 오케스트라 연주경험은 음악에 대한 새로운 즐거움을 알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6. 악기를 연주하는 동안에는 시간가는 줄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양한 종류의 음악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8. 음악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9. 음악은 우리의 생활에 좋은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음악이 내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종종 가족 등 사람들 앞에서 음악발표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한 곡이나 그 곡을 작곡한 작곡가의 다른 음악을 찾아서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종종 다른 오케스트라 단원에게 악기 연주를 가르쳐 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때 집중해서 연주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C. 여러분의 평소 생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본인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계획을 세운 것은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 미리미리 준비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나의 목표를 위해 현재의 유혹을 잘 참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게임이나 채팅 등의 유혹을 잘 견딘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하던 일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어떤 일을 끈기 있게 하는 것은 나의 장점 중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부모님(보호자)과 약속한 게임/TV시청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대화를 나눌 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위해 질문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상대방이 말할 때 눈을 맞추거나 상대방을 바라본다.	①	②	③	④	⑤

PART D. 여러분의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본인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와 모습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와 다른 모습이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바쁜 일이 있어도, 화가 난 친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E. 여러분의 평소 생활에 관한 문항입니다. 본인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에서 생활을 잘 하는 것은 나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밖에서도 내 장래를 준비하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종종 내 미래와 진로에 대하여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내 미래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부모님(보호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학교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가정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PART F. 여러분의 평소 자신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평소에 즐겁게 생활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체로 기분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배우고 있는 악기 이외 다른 악기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배우고 있는 악기 이외 다른 악기들도 배워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음악 연주회나 공연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좀 더 많이 접해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악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누군가 나를 먼저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9.	가끔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친구들에게 짜증내는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힘이 없는 친구들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친구들에게 욕을 자주 쓴다.	①	②	③	④	⑤

PART I. 여러분의 그룹 활동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본인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친구의 장점이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친구가 어려워하면 기꺼이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그룹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친구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맡은 일보다 많은 일을 하여 그 그룹 활동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속한 그룹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그룹 활동 중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그룹 활동에서 발생한 문제를 친구들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그룹 활동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그룹 활동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PART J. 꿈의 오케스트라 이외 음악 활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본인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오케스트라 활동과 학교 교육 이외에 악기를 배워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오케스트라 활동이외에 다른 곳에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곧 설문이 끝납니다!”

PART K.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에 관한 문항입니다. 본인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오케스트라의 단원인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3. 지휘자 선생님과 악기 선생님은 항상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오케스트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오케스트라 연습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생활에서 오케스트라 활동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시간이 지겹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할 때 활기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오케스트라 활동이 따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공부에 대한 부담으로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학원이나 방과 후 수업 시간 때문에 오케스트라 활동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13. 오케스트라 수업 및 연습 장소에 오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오케스트라 수업 및 연습 장소는 집과 가까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오케스트라 수업 및 연습 장소에 오는 방법에 불편함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PART L.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 만족에 관한 문항입니다. 본인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오케스트라 활동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오케스트라 선생님들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오케스트라 수업과 연습 장소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우리 기관 선생님들이 오케스트라 활동 및 연습에 필요한 것들은 잘 도와주시는 것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오케스트라 연습할 때 주는 간식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오케스트라 활동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앞으로도 계속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8. 다른 사람에게 내가 참여한 오케스트라 활동을 추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ID			
----	--	--	--

기관			
----	--	--	--

(기입하지 마세요)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보호사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설문조사로,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결과는 향후 본 사업의 개선과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작성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호되오니 솔직하게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

조사발주기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사기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PART A. 다음은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을 위한 환경 개선에 기여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 문화예술 경험 기회 증대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꿈의 오케스트라 실시로 지역 내 문화예술 소외계층이 줄어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4.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가 꿈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하여 방과 후 자녀 돌봄 시간이 줄어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가 꿈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하여 방과 후 자녀를 돌보는데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이 줄어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가 꿈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하여 방과 후 자녀를 돌보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꿈의 오케스트라’는 학생들이 배우는 악기를 제공하며, 주 2회 총 6시간의 악기와 오케스트라 교육을 진행하고 최대 6년간 참여할 수 있는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주 1회 1시간 30분으로 구성된 방과후학교 오케스트라 수업의 일반적인 비용은 한 달, 약 3만원 입니다.)

9. 만일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음악학원이나 사설 교습소에서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강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원

PART B. 다음은 귀하의 가족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서로 상의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대화를 많이 나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친밀감을 많이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PART C. 다음은 양육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를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 때문에 항상 마음에 여유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를 돌보는 일 등 집안일이 짜증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6.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D. 다음은 귀하의 음악교육 및 관련 태도 관련 질문입니다.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동기, 청소년기에 정규 학교 교육 이외 음악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성인이 되어 정규 학교 교육 이외 음악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음악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PART E. 다음은 꿈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고 있는 귀하의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귀댁 자녀의 한 달 사교육 비용은 얼마입니까(학교 방과후 수업 비용 포함)?
_____ 원

2. 귀댁의 자녀가 꿈의 오케스트라에 참여함으로써 한달 사교육비가 얼마나 절감되었습니까?
_____ 원

3. 현재 귀댁 자녀의 한 달 음악 교육을 위한 사교육 비용은 얼마입니까(학교 방과 후 수업 비용 포함)?
_____ 원

4. 귀하의 자녀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학년/ 반		성 별		생년			월		일	
					(생년월일이 2009년 5월 7일이면 20090507로 기입)						
			남	여							

PART F. 응답자 특성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세)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① 고졸이하 ② 전문대졸 ③ 대졸 ④ 대학원졸 이상
4. 귀하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 ① 농/임/어/축산업 ② 자영업 ③ 전문직 ④ 사무직
 - ⑤ 판매/서비스직 ⑥ 숙련 기능직/기술직 ⑦ 문화예술 종사자 ⑧ 공무원
 - ⑨ 중/고등학생 ⑩ 대학생/대학원생 ⑪ 전업주부 ⑫ 프리랜서
 - ⑬ 정년퇴직 ⑭ 무직 ⑮ 기타()
5. 귀하의 월평균 가계 소득 수준은 얼마입니까?
 - ① 200만원 미만 ② 200만원 이상~300만 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④ 400만원 이상~500만 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600만 원 미만 ⑥ 600만 원 이상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ID			
----	--	--	--

기관			
----	--	--	--

(기입하지 마세요)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 (교육강사: 아동 평가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설문조사로,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결과는 향후 본 사업의 개선과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선생님께서 지도하고 계신 오케스트라 각 단원 학생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각 단원별로 개별 평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지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작성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호되오니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

조사발주기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사기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PART A. 평가할 아동에 대한 사항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학교	학년	반	성별		오케스트라 참여 악기(포지션)
				남	여	

PART B. 위 학생의 음악적 역량 대한 평가입니다. 선생님의 평가 점수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매우 못한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잘한다
1.	악보 읽기 능력	①	②	③	④	⑤
2.	레퍼토리에서 음악 주제 파악 능력	①	②	③	④	⑤
3.	레퍼토리에서 음악 형식 파악 능력	①	②	③	④	⑤
4.	오케스트라 내에서 자신의 포지션 이해 능력	①	②	③	④	⑤
5.	연주의 기술적 역량(테크닉)	①	②	③	④	⑤
6.	연주의 표현력	①	②	③	④	⑤
7.	양상블 능력	①	②	③	④	⑤

PART C. 위 학생의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선생님의 평가 점수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오케스트라에서 친구들을 잘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오케스트라에서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ID			
----	--	--	--

기관			
----	--	--	--

(기입하지 마세요)

꿈의 오케스트라 아동변화연구(교육강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되는 설문조사로,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결과는 향후 본 사업의 개선과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작성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호되오니 솔직하게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

조사발주기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사기관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PART A.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을 위한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 문화예술 경험 기회 증대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꿈의 오케스트라 실시로 지역 내 문화예술소외계층이 줄어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4.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꿈의 오케스트라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시켰다	①	②	③	④	⑤
6.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사회 내 문화예술 주체와 협력 기회를 늘리는데 기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7.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를 계기로 지역사회 문화예술행사(지역사회 공연, 지역사회 행사 참여 등)참여가 늘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꿈의 오케스트라 참여를 통해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지역사회 문화예술행사 참여를 도왔다.	①	②	③	④	⑤
10.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로 참여하면서 본 프로그램과 단원들에 대해 점점 애착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11.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로 참여하면서 지역사회나 타인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 늘어났다.	①	②	③	④	⑤
12. 꿈의 오케스트라 강사로 참여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B. 다음의 요인들 중에서 아동들의 꿈의 오케스트라 지속적 참여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가 생각하시는 중요한 순서대로 2개의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음악적 성장	② 음악 및 오케스트라 활동의 즐거움
③ 음악 및 오케스트라 활동에 대한 애정과 애착	④ 단원들간의 유대감
⑤ 선생님들의 관심과 격려	⑥ 부모님의 관심과 지지
⑦ 또래집단(친구)의 관심과 지지	⑧ 기타 ()

1순위 _____

2순위 _____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

<자문위원>

김기수	진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김범기	경상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배호남	초당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정준수	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조영미	중앙대학교 다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교수
최현찬	초당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교수

<연구 협조기관>

고은희	용인문화재단
고현준	고창문화원
김민영	남양주도시공사
김상현	광주소촌아트팩토리
김영숙	충남문화재단
김하연	부산동구문화원
박성영	세종문화원
박원주	충주중원문화재단
박현진	서울중구문화재단
정새봄	하남문화재단
정효정	김해문화재단문화의전당
장미자	평창문화예술재단
정유진	영월문화재단
조은혜	인제군문화재단
황초롱	창녕군청소년수련관

※ 위 순서는 가나다 순임